

2008-10-22

2008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그 곳에 다시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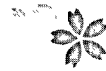


## 차례



### 01) 서울특별시

- 통일은 배려이다 \_ 9
- 신기료 할아버지 \_ 12
- 남쪽 별 북쪽 별  
함께 만드는 꿈 \_ 15
- 통일을 향한 나의 생각과 다짐 \_ 19
- 친구야, 마음을 이어보자  
(북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 \_ 22
-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가며 \_ 25
- 21C의 세 번째 통일 \_ 28
- 슬픈 행성에서 온 외계인 \_ 30
- 두만강의 눈물 \_ 33



### 02) 부산광역시

- 이명박 대통령님께 \_ 39
- 통일이란 왜 해야 하는가 \_ 41
-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_ 44
- 다시 하나로 \_ 47
- 통일이여, 오라! \_ 49
- 강성대국 \_ 51
- 남북의 희망 \_ 54
- 할아버지의 사진 \_ 57
- 남과 북이여 비상하라! \_ 59



### 03) 대구광역시

- 신나는 통일 관광 여행사 \_ 63
- 평양 할아버지의 소원 \_ 65
- 나와 너가 아닌 '우리' \_ 69
- 통일열차를 타고 \_ 72
- 선생님, 우리는 하나죠? \_ 74
- 우리는 본디 하나, 그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도록 하자 \_ 78
- 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실천 \_ 80
-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 \_ 82
- 임진강에서 \_ 85



### 04) 인천광역시

- 북한 꽃제비의 노래 \_ 89
- 동녘하늘 바라보니 \_ 91
- 갈라진 우리나라 지도  
이어붙이기 \_ 94
- 통일을 위한 나의 꿈 \_ 97
- 모든 이들의 소원이  
통일이기를 \_ 99
- 할아버지의 의자 \_ 101
- 통일을 말하는 참나무 \_ 104
- 알에서 깨어나기 \_ 107
-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_ 110



## 05) 광주광역시

- 개성관광을 하고 나서 \_ 115
- 한반도는 하나 \_ 117
-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_ 120
-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 \_ 124
- 평화통일을 바라며... \_ 126
- 한반도 허리의 흉터, 휴전선 \_ 129
- 국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통일 \_ 131
- 남북학생 교류캠프 \_ 134

## 06) 대전광역시

- N극과 S극의 대화 \_ 141
- 진실한 하나의 바람 \_ 144
- 작은 바람 \_ 147
- 되찾은 우리 땅 \_ 150
-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_ 152
- 돌에서 하나로 \_ 154
- 형제들의 손을 잡게 하소서 \_ 157
- 하나 됨을 소망하며 \_ 159
- 마음속 38선도 무너졌나 \_ 162

## 07) 울산광역시

- 난 날이 언제입니까? \_ 167
- 달에게 말한다 \_ 170
- 나무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_ 173
- 내가 꿈 꿈 \_ 176
- 통일, 1+1=3! \_ 179
- 통일을 위한 첫걸음,  
우리에게서!! \_ 182
- 마음에 그어진 경계선 \_ 185
- 하나로, 통일로, 미래로 \_ 187
- 우리의 소원,  
통일을 희망하며 \_ 191

## 08) 경기도

- 평화통일 \_ 197
- 개성 객쟁이를 그리며 \_ 200
- 어느 시인의 대화  
: 통일은 점층법이다 \_ 203
- 용맹한 호랑이를 꿈꾸며... \_ 206
- 통일을 위한 성장통 \_ 209
- 통일, 그 가치를 되새기며 \_ 212
- 통일지도! 그 꿈을 향하여 \_ 215
- "평생친구, 금정이" \_ 218
- 할아버지의 미소 \_ 220



## 09) 강원도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_ 225
- 우리의 가슴에  
통일의 등불을 달아요 \_ 228
- 두 물방울이  
하나가 되기까지 \_ 231
- 새터민 순애이모 \_ 234
- 창피한 일기장, 새로운 첫 장 \_ 237
- 할머니의 눈물 \_ 239
-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행복 \_ 242
- MUST HAVE \_ 245
- 슬픈 스케치가  
되지 않길 바라며... \_ 248



## 10) 충청북도

- 떠나고 싶은 북한 기행 \_ 253
- 통일의 영화를 찍어보자 \_ 255
- 통일 - 평화롭고 따뜻한  
삶을 위하여 \_ 258
- 판문점에서 부르는 노래 \_ 260
- 금강초롱의 약속 \_ 262
- 할머니의 소원 \_ 264
- 우리의 꿈, 통일 \_ 266
-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_ 268
- 한반도, 이대로 좋은가 \_ 271



## 11) 충청남도

- 철조망 이야기 \_ 277
- 알로카시아 \_ 280
- '북한 사파리'  
그 곳을 아시나요 \_ 283
- 선화 언니, 힘내세요. \_ 286
- 어느 봄날의 꿈 \_ 289
- 안녕하세요? 승희예요...  
보고 싶어요 \_ 293
- 통일은 참 쉽다 \_ 297
- 그 곳에 다시 가고 싶다 \_ 300
- 희망과 사랑의  
통일 쌀 나누기 \_ 304



## 12) 전라북도

- 하나가 된 바다처럼 \_ 309
- 통일의 모자이크 \_ 312
- 할아버지의 노래 \_ 314
- 간절한 마음으로 \_ 317
- 나는 평화 지킴이 \_ 319
- 청실리 홍실리 \_ 322
- 비둘기의 냉면사랑 \_ 325
- 만나고 싶은 너에게 \_ 327
- 767만 고통을 감싸는 보자기 \_ 329
- 당당하게 대문으로 \_ 331
- 진정한 형제 \_ 333
- 한강은 흐른다 \_ 335





### 13) 전라남도

- 모두의 손으로 이루는 통일 \_ 339
- 새하얀 구름 아래 낮선 땅 \_ 342
- 개구리 울음 소리 \_ 345
- 이산가족 없는 행복한 나라 \_ 349
- 젊은 할아버지의 소망 \_ 351
- 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_ 354
- 45년 동안의 이별 \_ 357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_ 360
- 두만강의 얼음길 \_ 363



### 14) 경상북도

- 한 뿌리 두 나무에  
    봉대를 감았어요 \_ 369
- 저 푸른 하늘처럼 \_ 372
- 우리가 앞장서야 할 통일문제 \_ 375
-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_ 378
- 하나 더하기 하나는 \_ 380
- 나, 아버지, 그 너머의 아버지 \_ 383
- 같은 하늘, 같은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까지 \_ 386
- 다시 우뚝 설 용맹한 호랑이 \_ 390
- 금강산에서 알게 된 통일 \_ 394



### 15) 경상남도

- 태극기 할아버지 \_ 399
- 선생님의 작은 보훈 \_ 401
- 태극기 '조화' 정신으로 \_ 404
- 통일을 향한 태극기 물결 \_ 406
- 우리 할머니의 로맨스 \_ 409
- 태극기를 닮은 통일 조국 \_ 412
- 내 힘으로 태극기를 \_ 414
- 태극기 + 인공기 = 평화 \_ 416
- 태극기를 바라보며 \_ 419



### 16) 제주도

- 무궁화의 꿈 \_ 423
- 통일 무궁화 \_ 426
- 할머니의 사진과 소원 \_ 429
- 하나된 조국을 바라며 \_ 432
- 한라의 마음과  
    백두의 마음은 하나다 \_ 434
- 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_ 436
- 조금만 기다려 줘! \_ 439
-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걸 \_ 441
- 백두산의 호랑이  
    그리고 설악산의 호랑이 \_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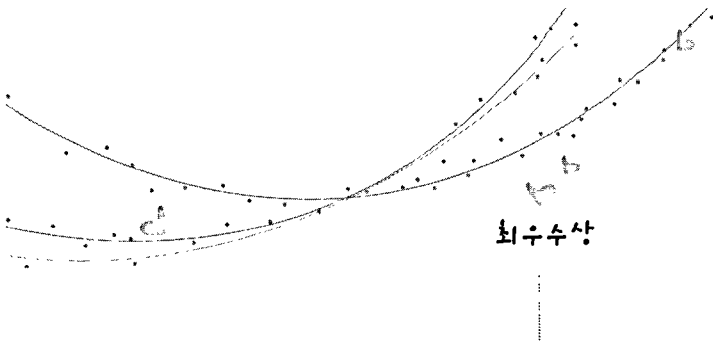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통일은 배려이다 \_ 9
- 신기료 할아버지 \_ 12
- 남쪽 벌 북쪽 벌  
함께 만드는 꿈 \_ 15
- 통일을 향한 나의 생각과 다짐 \_ 19
- 친구야, 마음을 이어보자  
(북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 \_ 22
-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가며 \_ 25
- 21C의 세 번째 통일 \_ 28
- 슬픈 행성에서 온 외계인 \_ 30
- 두만강의 눈물 \_ 33





## 통일은 배려이다

서울신기초 6 · 신현지

통일,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민족의 꿈같은 희망이자 소원이다. 남북 한만의 마음의 끈이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고도 가치 있는 선물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일은, 우리 민족의 꿈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간절한 소원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원한다. 허리가 반으로 푹 잘라져서 아파하는 호랑이보다 씩씩하고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호랑이를 우리는 더 원한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따뜻한 사랑을 간직한다면 정말로 언젠가 평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통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사는 서울은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했고 사실상 우리 가족 중에는 나와 떨어져 북녘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난 정말로, “우리가 꼭 북한과 합쳐야 할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얼음처럼 차갑던 내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어떤 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며칠 전, 우연히 EBS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다큐프라



임 ‘천국의 국경을 넘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동만’ 이라는 탈북자가 출연했다. 그는 러시아에 가서 별목공으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북한 땅에서의 소문을 믿고 러시아 톨바로 향했다. 하지만 그 곳은 끔찍했다. 통나무에 깔려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생활환경은 한 마디로 돼지우리에서 짐승이 생활하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니!

난 너무나 흥분했다. 나머지 90%의 돈은 북측에게로 보내진다고 했다.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앞세워 희생만 시킨 북한이 너무나 알밋기도 하였다. 내가 그들을 저렇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보면, 역시 같은 민족이자 단군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속일 수 없나 보다.

한편,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별목소를 도망쳐 나와 탈북자로 모스크바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힘들고 잔인한 두려움 속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그들은 이겨 내고 있었다. 통일이 되어 나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은 힘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또한 너무도 누추하다. 그래도 그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많은 고생과 노동을 해서 앞니가 거의 빠진 입술로.

다행히도, 그(한동만)는 UN 난민보호 시설에 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을 보금자리로 선택한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같은 민족의 눈 밖에 나느니 차라리 다른 민족에게 멸시를 받겠다.” 그가 했던 말이다. 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탈북자도 사람이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신들만의 기분과 감정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따돌린다. 그럴수록 탈북자의 마음에는 크나큰 상처가 남는다. 그리고 그 아프고도 쓰린 상처는 탈북자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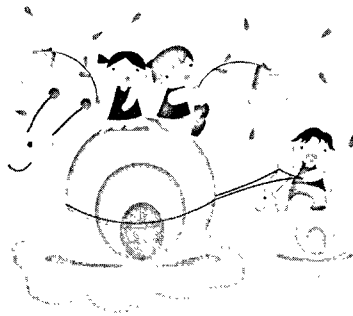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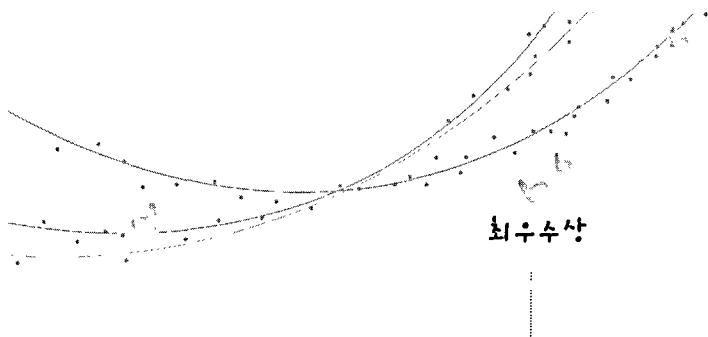
도대체 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남기고 싶지 않은 상처와 무서운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왜? 한민족인 우리만이라도 그들을 배려해 주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 너그럽게 안아주고 돌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남녘 사람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북한 동포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슬플 땐 위로해 주고 행복할 땐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 같은 민족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북한친구들이 편히 설 수 있는 그늘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귀찮고 가난하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배려를 실천하자.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하며 그것은 더욱더 사랑한다는 증표이다. 배려를 통해 용기와 가치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그들에게 기꺼이 선물하자. 통일이 배려 덕분에 이뤄진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통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 신기료 할아버지

서울월촌중 2 · 이지원

우리 아파트 상가 한 칸에는 한 평 남짓한 신기료 할아버지의 가게가 있다. 내가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이 가게엔 아파트 주민들이 신발을 수선할 때나 열쇠를 고칠 때 곤잘 들르는 곳으로 오늘은 나도 떨어진 구두 밑창에 새 굽을 박기 위해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할아버지의 가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선 인기척조차 나지 않았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셨던 할아버지이셨기에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어 가게 주변을 두리번대고 있는데 저만치서 할아버지께서 느릿느릿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 가게 문도 닫고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내래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러 적십자사 다녀오는 길이구마.”

북한에 사셨던 할아버지께서 1.4 후퇴로 피난을 오다 가족과 헤어지셨다는 것은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니 가슴이 뛰었다.

“우와 궁금하다. 누구 만나시려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형이 북한에서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눈이 매우 슬퍼 보여 나도 덩달아 슬퍼졌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북한에 한민족을 둔 이산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며칠 후, 부녀 회장인신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의 형이 아직 살아 계셔서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으며, 부녀회에서 할아버지의 형께 드릴 선물로 넥타이, 포도주, 만년필까지 준비해 가며 축하해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도 형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자주 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형님께서서는 어릴적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마음이 넓어 사람들이 모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구만, 근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할아버지께서 차마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자꾸 하늘만 쳐다보셨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형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어 콧등이 짠해졌다.

“할아버지, 이산가족 상봉을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조그만 가게 옆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부녀회 회원들과 주민들의 환호 속에 할아버지께서 형을 만나러 금강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버스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할아버지의 형이 있는 그 곳,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

금강산 구경도 하고 사랑하는 형도 만나실 할아버지를 부러워하고 있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 하지만 형을 만나 기쁘고 행복할 것 같던 할아버지의 얼굴엔 어두운 근심이 서려 있었다.

“형이 많이 변했드만, 뭐이가 말도 안통하고 내래 속만 상해 왔다.”

할아버지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사고방식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형을 보고 섭섭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셨다고 한다.

“거저 그래서 떨어지믄 안 되는 기라. 한 민족이믄 푼푼 뭉쳐 함께 살아야 지 떨어지믄 절대로 안 되는 기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통일에 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호기심으로 친구들에게 통일에 관해 물었던 적이 있다.

“너희들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나의 물음에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말도 안 통하는 북한 아이들과 한 학교

에서 공부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싫다는 등,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내주는 구호물자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이라는 등 북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힐뜯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자그마치 반만년이라는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 한 가족을 지난 60년간의 분단으로 매몰차게 저버릴 순 없다. 또한 북한은 지금 핵무기로 인한 국제 관계에서나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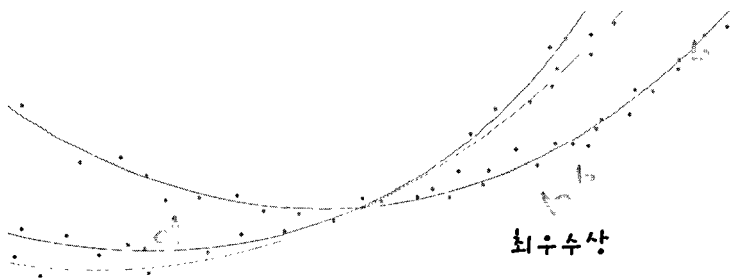
그렇기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북한을 이해하는데 힘써야 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한 가족, 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고 보다 넓고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에 다가서야 한다. 그렇다면 함께 손을 잡고 분단의 아픔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는 옛날 고구려처럼, 발해처럼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독도 문제도, 중국의 동북공정도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을 이룬다면 어렵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이후 며칠간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으셨다. 아파트 사람들은 지난 사흘간의 만남으로 형이 그리워 지병이 난 것이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난 사흘간의 만남이 할아버지께는 형에 대한 더 큰 갈증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한번 보니까 또 보고 싶어지더라, 형뿐만 아니라 내 고향 산천도 보고 싶고 함께 동네방네 뛰어 땀기던 내 동무들도 보고 싶고... 모든 게 눈에 어려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드마.”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시는 할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쓸쓸하게만 보였다.





## 남쪽 별 북쪽 별 함께 만드는 꿀

서울광남고 2 · 김하경

민통선 안 양지리에 사는 이철웅 씨는 틈틈이 남방한계선 근처까지 가서 나무에서 자연꿀을 따는 것이 사는 재미다. 그는 친지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며 말한다. “이게 남쪽 별 북쪽 별이 함께 만드는 꿀 일세 별한테서 배우세 별한테서 본뜨세” 평소 ‘통일’하면 떠오르던 신경림 시인의 “남쪽 별 북쪽 별 함께 만드는 꿀”이라는 구절을 떠올리니 내 가슴은 빠근해 온다. 별에게야 남쪽 별 북쪽 별이 어디 따로 있을까? 하지만 민통선 안에 사는 이철웅씨나 이 시를 떠올리는 나는 남쪽 별과 북쪽 별의 차이를 외면할 수 없다.

남과 북이 분단된 세월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6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남과 북이 다른 나라였다는 듯이 분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나 역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터라 아주 오래전부터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도대체 우리는 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까? 통일을 이루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은, 아니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

“애들아, 이번 수학여행은 금강산으로 가게 되었단다.”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반 아이들은 드디어 금강산 여행을 한다는 사실에 꿈에 부풀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북한에 가기 전, 그 곳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관광증이 없으면 북한에 마음대로 입,

출국할 수도 없고, 휴대폰을 가져가서도 안 되는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북한으로 가는 길은 두어 시간 남짓으로 멀지 않았다. 우리 남과 북은 이렇게 가깝게 마주하고 있으면서 아직 마음의 문은 퐁퐁 닫아걸고 있었다.

남북은 1945년 광복과 함께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일방적으로 침략했다. 남과 북은 3년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전쟁은 휴전선과 함께 끝났지만 분단의 아픔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가끔 남북화해 행사로 이산가족상봉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일회적이며 극소수의 가족들에게만 해당된다.

나는 몇 년 전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다루던 신문에서 통일될 날만을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가족 상봉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통일을 소원하시던 할머니의 죽음,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가득한 이산가족 1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점점 늦어진다면, 당시 분단 상황과 가슴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리움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희미해져가고 말 것이다.

또 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GNP의 30% 이상을, 남한은 5~15% 정도를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소모적인 비용으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남북이 통일을 이룰 경우 민족의 하나 됨,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라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수학여행중 가장 어색하고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이다. 특히 언어의 차이는 심각했다. 남한에서는 말에 대한 차이를 그저 흥미롭고



신기한 문화어와 표준어의 차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막상 북한에 직접 가 보면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이질감을 몸소 느낄 수 있다. 계속 남북한이 분단된 채로 지낸다면 언젠가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말을 구사하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발레단, 연극단의 공연이나 스포츠 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남북한의 문화교류도 높이고 언어의 장벽도 조금씩 허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간다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름 대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나는 얼마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산업시찰,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세 번이나 북한에 다녀오신 아버지와 통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아버지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류를 무척 강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꿀벌식 교류 전개”를 제안한다.

“꿀벌식 교류”란 남북한의 벌들을 너 나 할 것 없이 작은 꽃에서부터 큰 꽃까지 모든 꽃에서 꿀을 따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남북한의 교류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세계 강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선진화된 농기구를 지원하고, 농지 개량 팀을 구성하여 북한 땅을 기름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이다. 또 남한에서 개량된 벼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을 제공하여 북한이 스스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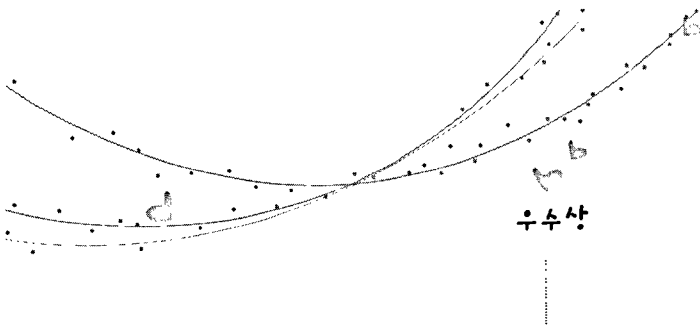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에 남한의 앞선 기술을 접목시킨 개성공단 같은 대단위의 공장을 북한 곳곳에 만드는 노력 등이 원조를 넘어서는 진정한 꿀벌식 교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꿀벌식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꿀벌식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벌들이 남과 북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서로 힘을 합쳐 꿀을 모으듯, 우리도 하루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남쪽 벌 북쪽 벌 함께 만드는 꿀 일세  
벌한테서 배우세 벌한테서 본뜨세.”

지금은 우리가 벌들의 생태와 지혜를 온 마음으로 배워야 할 때이다. 우리는 큰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언젠가 민통선 안 이철웅씨의 꿀을 꼭 한번 맛보고 싶다. 그 꿀은 어떤 맛일까? 민족의 염원을 담은 꿀이기에 혀로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맛일 것이다. 훗날 남쪽 벌 북쪽 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남과 북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그 날이 간절히 그리워진다.





## 통일을 향한 나의 생각과 다짐

서울묵등초 5 · 강경주

“Where are you from?”

“I’m a Korean.”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South Korean.”

태국 여행을 갔을 때 배 안에서 만난 이스라엘 아저씨는 우리가족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 보셨다. 나는 당연히 한국에서 왔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아저씨께서는 다시 남한사람인지 북한사람인지 물어 보셨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가끔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정말 좁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민족은 오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나 나라를 잘못 다스려 국력이 없던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 침략하였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주변 강대국들의 결정대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고 3년간에 걸친 전쟁기간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산가족과 전쟁고아도 생겼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어진 알미운 휴전선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끝”이 아닌 “휴전”이라는 슬픈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양보와 화해의 마음으로 걸음마를 하는 아기처럼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야 할 때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을 향한 지름길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은, 우선 거창한 정책보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한을 향한 정책은 한결같아야 한다. 내가 아직은 좀 어려서 모든 정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결같은 정책으로 북한을 대하고 협력한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말이다.

통일을 하면 어느 강대국 못지않게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진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이산가족과 탈북자가 가족을 만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남한에는 경제력과 노동력이,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많다.

통일을 한다면, 북한의 군사비에 들어가는 자금을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 빈곤층에게 사용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남북한의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 관리하고, 중국이 만주지방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유산들을 자기나라 것인양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미국의 자유 여신상이나 프랑스의 에펠탑보다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 모든 사람의 입에서 “역시 통일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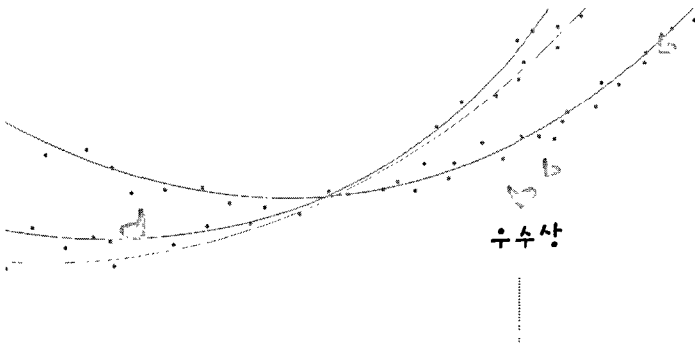
물론 통일이 되면 어려운 점도 많다. 50여 년의 세월동안 생긴 언어와 생활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화폐의 가치에 대한 차이 등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그런 어려움들은 직접 부딪히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을 하여 “South Korea”, “North Korea”가 아닌 “Korea”로 불릴 날을 기대하며 다짐해본다. 앞으로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 친구야, 마음을 이어보자 (북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

서울여의도중 1 · 전세원

만약, 북한 어딘가에 내가 반갑고 정답게 인사할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일까? 쪽 뺀어진 자유로를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보았다. 그러나 눈앞에 큰 벽이 막아서듯 길게 펼쳐있는 길을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이 벽이 허물어지는 그 날에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 친구와 정답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본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친구에게 건네줄 편지를 여기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친구야,

6월의 초록빛이 참으로 아름답지?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 “분단”이란 단어가 주위를 에워싸던 아픔의 달이었기도 했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전쟁의 쓰라림, 헤어짐, 그리고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었어. 가족간, 친구간, 사람들간의 정이 단절되고, 차가움과 어두운 그림자만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었던다. 그 후로, 분단된 우리 두 나라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서로를 알고 싶어도 쉽게 알지 못하게 되었지. 친구가 되길 원하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전할 수 있잖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말야. 아무리 먼 곳에 사는 외국 친구여도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우체국으로 편지를 부쳐 대화할 수 있는데, 겨우 내 집에서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 친구에게는 편지를 보내고 말을 걸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자매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야. 아직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해도, 서로 웃고 떠들며 공감대를 찾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우리의 역사를 눈물로 얼룩지게 했던 일본의 학생과도 스스럼없이 정답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북한 친구와는 말도 할 수 없을까, 마음 한 구석이 찡해져 와.

학교에서 북한 땅으로, 또 북한의 학교에서 남한 땅으로 수련회, 소풍을 가게 될 때, 여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아름다운 추억과 만남의 장소,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작은 노력들을 이어나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내고 싶어.

우리가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북한의 지명은 웬지 낯설어서 편지봉투에 주소를 쓸 때 어색한 느낌이 들 것 같아. 또, 나같은 중학교 1학년이 고등중학교 3학년에 다닌다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학년제도 다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더더욱 다른 것을 보고,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꿈을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단다.

친구야,

우리, 원래 하나였던 한반도, 지금도 하나가 되어야 할 한반도가 하나되도록 힘쓰자. 그 어느 곳보다도 멋진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노래해 보자꾸나. 우선, 우린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됨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 우리가 역사, 경제, 언어, 사회, 환경면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머니?

광개토대왕이 만주 별판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니?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유산을 찾아 탐구하자.

통일이 되고, 우리 한반도가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이름난 허브국가, 경



제대국으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경제 상황을 끌어 올리면 사회 분위기도 밝고 명랑해지고,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다음으로, 언어생활을 돌아보자. 서로의 언어를 살펴보면 생소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 고유의 언어를 잘 조화해 아름다운 말과 글을 위해 힘써보자.

이런 것들보다도 환경 가꾸기가 우선인 것 같아. 발길이 뜸했던 비무장지대의 동식물을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생태공원을 가꿔 나가보는 것이 어떠니? 우리 한번 깨끗하고 맑은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 보는거야!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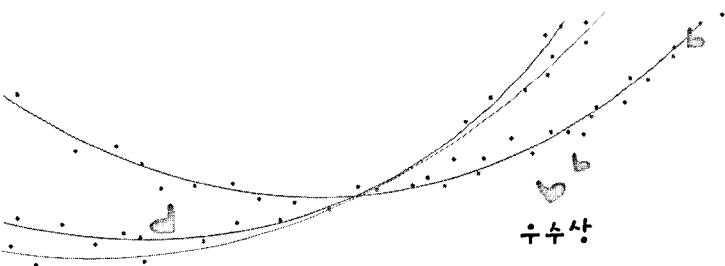
희망찬 한반도, 최고의 한반도를 위해서...

마음을 이어보자!

2008년 6월 14일

참다운 평화통일을 꿈꾸는 세원이가





#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가며

서울인현고 2 · 김승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불러오던 동요입니다. 남과 북이 만날 때마다 손을 맞잡고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뜻을 하나하나 되새길 때 서러워 눈물이 맺히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통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60여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 된 노력으로, 즉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이라는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퍼즐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를 한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제 교류를 위해 금강산 관광도 허용하고, 개성공단도 개방했습니다. 이걸 기회로 우리는 남북한 철도 연결, 휴전선 철폐, 자유로운 가족간 왕래 등 교류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사상과 문화만 좋다고 고집하며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이라는 생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북한이 우리와 하나의 민족임을 이해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처럼 행동으로 마음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이제는 분단국가의 민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반 토막 난 섬이나 다름없는 이 땅에서 갈라진 민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남한의 기름진 땅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한반도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영토도 확장되고, 국방비로 쓰이는 세금도 복지국가 사업에 쓰이게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을 남한의 기술로 개발해 발전시킨다면 우리 민족의 국민 소득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제 아침 뉴스에서는 중국과 타이완이 서로 양안협정을 맺어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과시하며 협력하고 살아갑니다.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묶고 있는 저 흉측한 휴전선을 하루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쪽의 한라산에서 북쪽의 백두산까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분단국가의 민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세계라는 넓은 무대의 주역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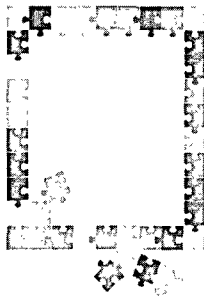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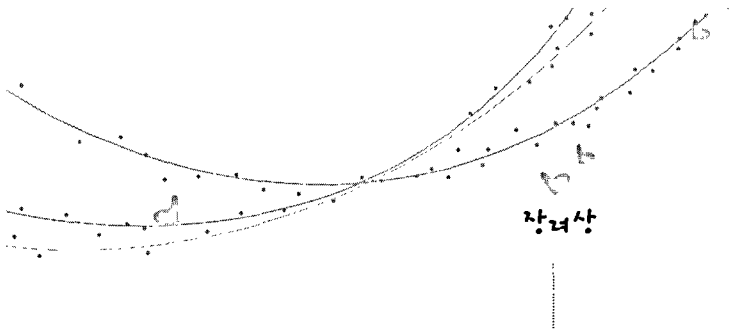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단일민족이면서 한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준비된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소망 통일은 멀지 않아 이루어져 한국민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단결된 힘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합쳐 세계 속의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통일은 이미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빛으로 통일을 꼭 움켜쥐어야 합니다.

요즈음 뉴스에서도 풋볼 집회와 관련된 내용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풋볼로 민족의 분열이 아닌 민족의 화합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을 세계에 알려야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마음이 되어 보여주었던, 시청 앞 자랑스럽고 소중한 남한의 풋볼이 북한의 풋볼과 만나서, 백두산까지 찬란한 빛으로 통일을 위한 퍼즐을 맞추어 가야겠습니다.

이 끝없는 기다림을 끝내야겠습니다. 가까운 길을 어찌면 너무도 멀리, 고생하며 가고 있었던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는 광복절이 아닌 통일절이라는 경축일을 선물해야겠습니다. 매한 윤봉길 의사의 말처럼 “한층 더 강인한 사랑으로” 통일퍼즐을 맞추어 나가야겠습니다.

통일! 그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





## 21C의 세 번째 통일

서울응답초 6·조민지

왜 학교에서는 해마다 아이들에게 통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일까?  
 왜 어른들은 통일에 대해 아무 관심 없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일까?

통일이란, 한자어로 ‘거느릴 통’자에 ‘한 일’자로 붙인 말이다. 즉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쳐 거느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단국가이다. 6·25 전쟁으로 서로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서로 헤어진 채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헤어진 채 사는 이산가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6·25전쟁 때 휩싸여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일까? 아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약하고 약한 우리나라의 힘 때문인 것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통일이 꼭 필요하다.

하나의 나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그런데 하물며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서로 합쳐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방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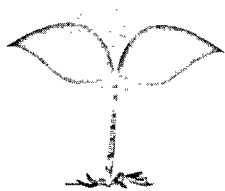
북한에는 금강산, 옛 고구려의 문화재가 몇몇 있고, 우리나라 임금의 묘도 4~5개 정도 있다고 한다.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서로 아무런 방해 없이 쉽게 문화재들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한, 북한 사람들에게도 좋겠지만 관광업이 발달하여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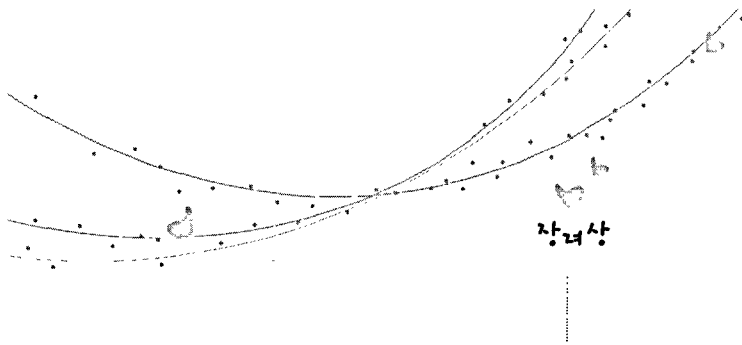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라 김춘추와 고려 왕검이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 신라와 통일 고려가 완성되어졌다.

그렇다면 왜 김춘추와 왕검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이룩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김춘추와 왕검 모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통일을 이룩해야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근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전에 만주까지 영토를 차지한 광개토대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넓은 영토를 거의 잃어버린 것에 모자라 2개로 나누어지기까지 했다니…….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들의 조상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통일은 나와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라와 고려의 첫 번째, 두 번째 통일 다음으로 21C의 세 번째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 슬픈 행성에서 온 외계인

서울일신여중 3·민현기

작년 겨울, 나는 그림에 열광하는 친구를 따라 반 고흐 미술전에 갔다. 친구가 한 작품 앞에서 장장 15분 동안이나 감상하는 동안 그새 전시장 한 바퀴를 다 돈 나는 먼저 위층으로 올라갔다. 성의 없이 어슬렁거리던 내 발걸음은 문득 한 그림 앞에 멈추어 섰다. 비쩍 마른 여자가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는데, 흑백의 세상에서 그녀는 정말로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다. 내가 작품 앞에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은 처음이었다. 여인의 흐느낌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다 녹아 있었다. 아직 어린 내게는 시험 성적이나 친구로 인한 슬픔이 전부였지만 곧 더 큰 슬픔을 생각해 보았다. 죽어서 그리운 이별보다 살아서 못 보는 이산가족의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이 불현듯 떠올랐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염원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 통일이란 동화 속 이야기만큼의 현실감도 없는 단어였다. ‘통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작 낙서로 너저분했던 초등학교 3학년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가 전부일 정도였다.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발 밑에는 땅이 있고 가로놓인 38선 위에는 북한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다가갈 수 없는 철통 속 외국, 그게 북한에 대한 내 감정의 전부였다. 태어나기 전에도, 앞으로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어 왔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남북의 분단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다니!

통일, 아주 다르게 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전의 관계로, 한나라 한 민족으로 돌아가자는 것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일까?

사실 난, 단 한번도 북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올 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은 항상 웃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딱딱하게 앉아 있길래 그렇게 느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니 만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이없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를 외계인 취급해 버리다니.

예전에 TV에서 한 탈북 화가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한다. 지금은 소원대로 남한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있다.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달할 무렵 진행자가 화가에게 물었다. 행복하냐고.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줄 알았다. 목숨을 건 탈북이었으니 만큼 그 만족이 큰 게 당연할 테니까. 그러나 화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탈북을 한 기쁨에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쪽의 가족들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를 보고 나는 누군가 무쇠 냄비로 내 머리를 세계 내려친 것처럼 멍해졌다. 북한 사람들도 눈물이 있고 그리움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이나 외계인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내 부모, 내 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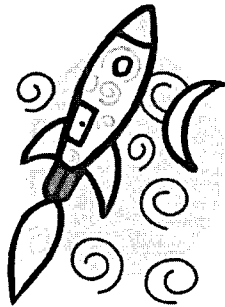
북한 사람들도 올 줄 안다. 슬퍼할 줄도 안다.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말투? 사는 지역? 좋아하는 사상?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실의 표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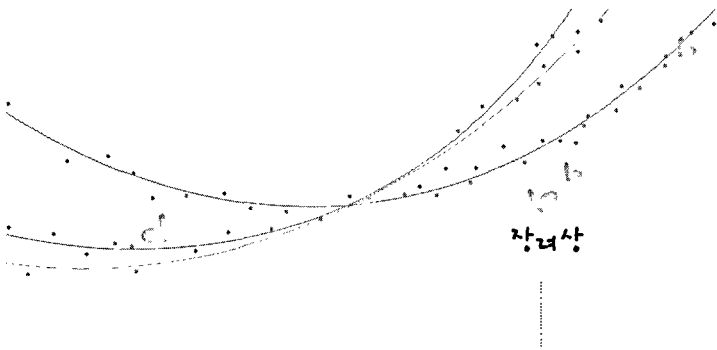
그들과 우리는 같다. 어머니로부터 유산 한반도를 물려받아 사이 좋게 꾸려 나가야 하는 한 핏줄의 형제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등을 돌렸다. 손을 맞잡는 대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강대국들에 의해 칼로 무 베듯 쉽게 갈라져 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아야만 한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름은 이

제 필요 없다. 그 자리를 한반도라는 이름이 대신할 테니까.

처절하게 그리워하며 통곡하는 이의 슬픔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넘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떨어지는 눈물은 어떤 위대한 화가도 화폭에 가둘 수 없다. 그 눈물을 닦을 손수건은 단 하나, 한반도의 통일뿐이다. 볼 수 없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은 그만 멈춰져야 한다. 이제는 서로 손을 맞잡고 무궁화가 활짝 핀 삼천리 강산이 떠나가라 웃는 일만이 필요하다.

외계인이 아닌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 두만강의 눈물

서울명일여고 2 · 강예성

자유로는 끈게 뺏어있었다. 6월의 투명하게 부서져 내리는 햇빛과 그 눈부신 창공 아래, 차는 계속해서 질주했다. 자유로는 너무나 곧았다. 마치 이대로라면 금방이라도 이북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열강들에 의해 서로가 적으로 포장되어 한반도의 범이 할복되고, 서로 다른 이념 하에 성장해 온 지 어언 60여 년.

2008년 한반도 이남에는 무언가 거센 물결이 슬렁이고 있었다. 광우병 파동,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식품을 먹겠다는 동요였다. 매일 밤 마치 지구와 우주가 대면하는 순간 수십억의 별들이 쏟아져 내린 듯, 거대한 촛불의 행진이 계속되었고, 우레와 같은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며 검푸른 밤의 장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7년 전 유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광우병이 대륙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막대한 수의 폐기처분된 쇠고기의 무상 제공을 요청했다. 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거리마다 기아와 죽음 고통이 넘쳐흐르던 시기였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인권이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닦치지 않고, 먹어야만 했던 암흑 속 고난의 행군, 강냉이 속대로 죽을 끓여 주린 배를 채우고, 남한의 비료 지원이 끊기면 농작물 수확량도 30%나 감소

될 위태로운 북한, 곡창지대와 평양 주변구역에서 마저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사실은 가히 그 참담한 상황을 가늠케 한다. 이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자들이 있다. 바로 탈북자들이다.

며칠 전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공포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한 탈북 여성이 얼어 죽어있었다. 강 너머 신비로운 대지에서 불어오는 자유와 평화의 바람, 그 속삭임을 듣고 검푸른 밤의 장막에 자신을 가리고선 조심스레 국경을 건넌 여성, 그러나 한겨울 강바람의 혹한 추위는 그녀의 희망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그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쳐졌을 것이다. 중국에 정착한 한 탈북여성은 북한이 중국에서 제일 못사는 나의 반만이라도 산다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북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었던 내 안에서도 잠재적으로 한 민족의 애가 뜨겁게 끓고 있었나 보다. 그녀의 한 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응어리가 끓는 것은 왜였을까?

8살 탈북 아이의 남한 도착 여정도 너무나 눈물겹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장장 6개월간의 목숨을 내건 여정에 밤을 틈타 깊은 초야를 헤쳐 나가고 계곡에 빠지며, 흠과 때가 덕지덕지 붙은 물골로 엄마를 부르짖는 아이, 끝내 티트린 눈물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낸 우리 동포들의 한과 고통을 여실히, 절절히 우리 가슴으로 전파시켰다. 그 일행 중, 복송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신이 복송되었을 때, 태중의 아이에게 독주사를 놓아 사산이 되었다며 눈물을 내비쳤다. 자신의 뱃속에 투여되는 독을 보며 엄마로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성의 처절했을 절규에 마음이 아려온다. 도대체 북한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곤두박질쳐졌는가?

최근 탈북자 인권 신장을 바라는 단체들이 유럽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여 실태를 알린다던데, 그 행진에 참여하고픈 마음마저 든다. 또한 중국, 라오스, 태국의 국경을 넘는 장장 6개월 정도 간 목숨을 걸었을 그들의 눈물에 비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임진강을 사이에 둔 남녘과 북녘은 너무나 가깝기만 하다. 그렇기에 이 현실은 너무나 한스럽고 애달프다. 그래서일까? 강변 북로를 따라 시종일관 함께 달려 온 한강의 역동적인 푸른 태동에 비해 임진강은 너무나 고요하고 슬퍼 보인다. 마치 눈물처럼, 탈북자들은 이구동성 통



일을 말한다.

그렇다. 21C 들어 통일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욱 절실해지고 급박해지면서 통일의 물꼬는 서서히 트이고 있다. 내가 꼬마 시절,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출항을 하는 배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탔었다. 현재는 육로 관광 또한 가능하다. 버스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

질푸른 초야 속 쓰러져 가는 표식 하나.

그 순간 우리가 그토록 무수한 세월, 무궁히 눈물 흘린 비통한 세월에 비해, 너무나도 단순간에 남북의 그 장엄했던 경계를 뛰어넘는 그 감동과 복합적 느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다만 울컥하고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을 뿐, 이는 아마도 옛 비극과 과오를 씻고 민족 협력으로 가는 길의 기로에 내가 서 있다는 감격이었으리라. 그 군사분계선의 쓰러린 표식 또한, 한반도의 범에게 남겨진 눈물겨운 흉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치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은 더욱 증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 북한정세와 이산가족의 고통화 또한 통일이 조급함을 알리고 있음이라. 현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통일.

오늘 통일 글짓기를 하기 위해 모여든 청소년을 바라보자니, 이 또한 우리의 염원이 6월의 청명한 창공으로 날아가, 언젠간 평화의 달콤한 비로 한반도 곳곳에 뿌려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의 범은 더 이상 웅크려 울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포효할 뿐이다. 네 다리로 광야를 무진히 달릴 준비가 되어있다. 그 범이 달릴 아침을 만들어 줄 주역은 바로 우리이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눈부시게 떠오르며 천지의 시발점에서 찬찬히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태양의 위용 아래 우리의 바람을 보태본다.

두만강은 오늘도 계속해서 흐른다.

눈물을 닦아 줄 손길을 기다리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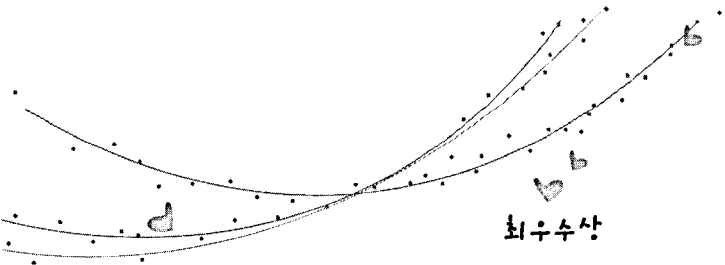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이명박 대통령님께 \_ 39
- 통일이란 왜 해야 하는가 \_ 41
-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_ 44
- 다시 하나로 \_ 47
- 통일이여, 오라! \_ 49
- 강성대국 \_ 51
- 남북의 희망 \_ 54
- 할아버지의 사진 \_ 57
- 남과 북이여 비상하라! \_ 59





최우수상

## 이명박 대통령님께 인사드립니다

대천초 5·강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대천초등학교에 다니는 강주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엔 걸 스카우트에서 UN기념공원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등교길엔 부산시립박물관을 지나 조각공원, UN기념공원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매일 다니는 등교길을 걸어갈 때, UN기념공원을 보면 그냥 경치가 멋있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배를 하면서 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 가지 정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 허리가 잘려진 한 반도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속상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려다 돌아가신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여야 됩니다.

둘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죠? 요즘엔 일본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여 힘을 합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꼭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민족은 쓰는 말과 글이 같아야 하는데, 점점 남한과 북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국어시간에 북한사람들은 도넛츠를 '가락지 빵'이

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쓰는 말이 다르면 만약 다음에 통일이 되면 서로 쓰는 말이 달라 의사소통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산가족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많은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는 산이 많아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을 같이 동원해 수출량을 늘려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엔 정말 멋진 곳도 많다고 하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놀러가고, 북한 사람들은 남으로 와 체험활동을 하면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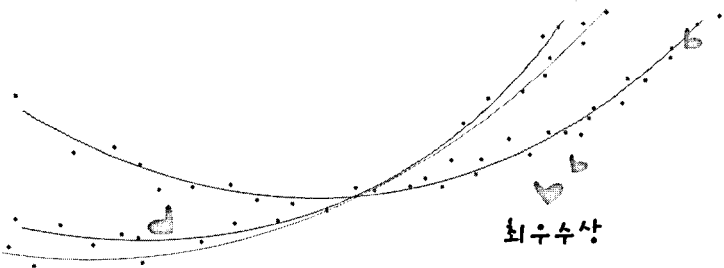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일로 참 바쁘시겠지만 통일에 대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이 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명박 대통령님 만세, 강주희도 만세!!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추신 : 금강산에 간 다음에 또 편지 드릴게요.

2008년 6월 17일  
주희 올림





## 통일이란 왜 해야 하는가

동현중 3 · 조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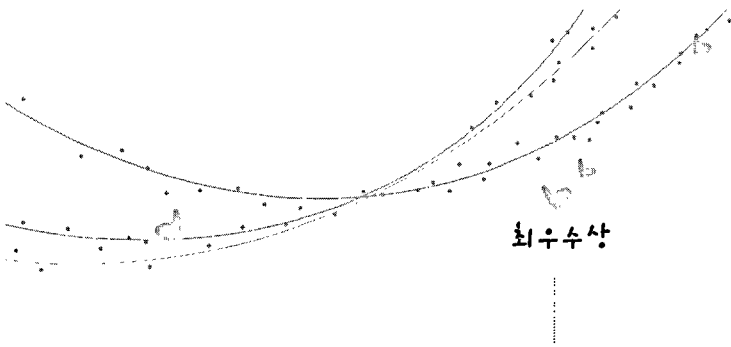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듯이 우리민족과 나라에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예부터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이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소망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동족상잔의 전쟁인 6.25전쟁 이후로 미국과 소련의 강압에 의해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갈라져버린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합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통일은 전쟁으로 인해 50년이란 세월동안 분단되어 있던 영토를 하나로 합치는 것일까? 통일이란 것은 단순히 갈라져 있던 영토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 때문에 통일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통일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일이란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우리민족의 역사를 재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즉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회, 문화, 이념, 교육 등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로 합하여 진정한 한민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개념인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은 한 민족간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적대심과 증오심을 버리고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휴전이 된 이후 계속된 민족끼리의 갈등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민족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을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로 넓히기 위해서이다. 분단이 된 이후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자연적인 조건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만약에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한의 주민들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한반도의 지형적 이점을 살려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분단의 장벽을 넘어 중국, 시베리아, 유럽 등으로 통하는 세계 경제시장의 동맹과 같은 역할의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동북아시아 지역 및 세계평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이질성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세계에서든 보기 드물다고 할 정도로 동일한 언어, 문화, 역사, 풍습 등을 지닌 유일한 국가로 비추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의 전통이 인위적인 분단으로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사상, 이념, 제도, 생활방식 등의 분야에서 동질성을 잃고 이질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화가 바탕이 되어 서로간에 장벽을 쌓게 되었다. 그중 특히 동족상잔의 전쟁은 서로의 적대심과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질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는 서로간의 대화



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간의 불신과 적대심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남북의 공영과 공존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친구간이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남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협과 협력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항상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차근 차근 해나가다 보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손잡고 통일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동래고 3 · 하효근

몇달 전, 현 정부는 북한측에 무상으로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다. 실용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정부의 선언과는 다른 행동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까?

우선 대북정책을 정치 선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 선전용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하고 얻는 것이 없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대북정책이라도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면 소싯적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감성에 젖어 통일문제에 성급히 접근하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 그들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지난 18년 동안 독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쟁으로 통일을 이룬 오만은 사회에 적응 못한 자들이 게릴라 군으로 무장해 몇 년 동안 사회가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갔다.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통일되면 위 두 나라보다 문제가 커진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비용에 15배 가량을 통일비용으로 써야 한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서로 가치관, 사고가 너무 달라졌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북한주민 중 사회 부적응자가 대거 속출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과거 북한 권력자들과 뭉쳐 반군이 될 경우 제2의 6.25전쟁이 될 우려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남북한이 일단 서로 체제와 관련 없는 문화적 교류로 우애를 다져서 점점 다른 분야로 교류를 넓혀 가고 개성공단같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시킨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서로간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요약하자면 지속적 상호교류와 경제적 제휴 등 실용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어 점진적으로 통일에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 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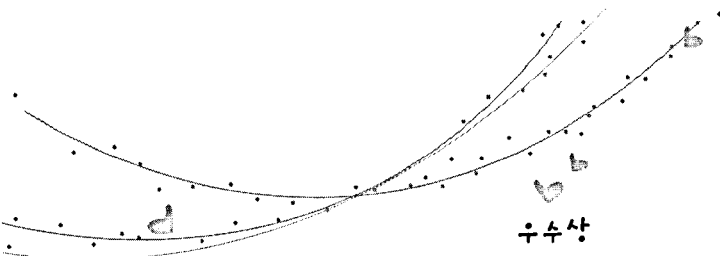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북한 국민 모두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전은 이미 소련의 붕괴로 종언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립하고 있다. 철학자 벨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간의 대결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의 사회학자 후쿠야마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함으로써 냉전은 막을 내렸고 이제 세계는 자본주의가 계속 지배할 것이라 봤다. 학계는 이들의 주장을 탈이데올로기라 정의하고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이들의 주장처럼 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체제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남한은 좌우익이 갈려 서로의 통일 방식만 내세우고 있다. 아직도 남북한은 냉전시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국민들은 모두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18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경쟁하는 이 마당에 서로간의 소모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먼 훗날 통일이 되면 이미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자본주의가 대세인 현 시국에서 남북한 국민 모두가 이데올로기라는 색안경을 벗고 어느 쪽이 조국에 유리한 방향인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반만년동안 서로 단결하고 협동하며 지내던 우리 민족이 이데올로기로 인해 둘로 나뉘어졌다. 이젠 다시 뭉쳐야 한다. 남북한이 뭉칠 경우 그 잠재력은 이미 세계 여러 사회, 경제연구소에 밝힌 바 있듯이 엄청나다. 하지만 남

북한이 뭉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우리의 통일이 평화와 공생 그리고 화합이라는 인류 본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수상

## 다시 하나로

포천초 5 · 주동영

우리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6.25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나누어지면서 생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생긴 이산가족들입니다. 한 가족인데도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산가족들을 서울과 평양에서 만나게 해주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풀빛도 녹색과 같다는 뜻을 가진 '초록동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얼굴도 이름도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가족이자 한 민족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웠던 것은 지난과거일 뿐입니다. 유관순이 독립만세를 부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통일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처럼 꼭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와 친하기 전에 먼저 같은 민족인 북한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선 북한과 친해진다면 북한과의 통일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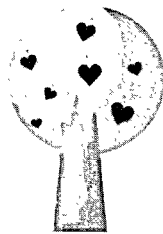
요즘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고 북한의 공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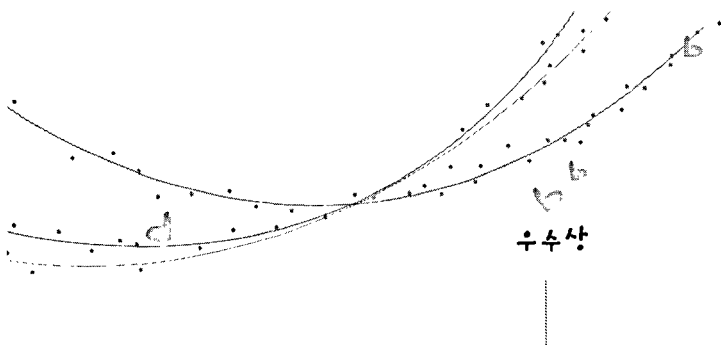
들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연예인들과 북한의 공연 단들이 한 무대 위에서 사이좋게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북한 동포들이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 투정이나 반찬 투정을 자주 하지만 북한 아이들은 굶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살 때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북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북한에서보다 더 힘들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도 빨리 치료하면 나올 수 있지만 작은 상처도 오래 되면 깊은 상처가 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빨리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다시 꼭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 통일이여, 오라!

장안중 3 · 김수진

“할아버지, 저 왔어요.”

힘차게 대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어느 때나 다름없이 얼굴 곳곳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맺힌 할아버지께서 웃시면서 반겨주신다. 6월이면 제법 햇살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당에 서서 날 반겨주시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좋아 나도 웃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이다. 물론,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어리셨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으셨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전쟁이 낳은 제2의 피해자이다. 그래서 그리신지 전쟁에 참가하셨다가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할아버지. 이렇게 날 보면서 한없이 웃어주시는 할아버지이지만 그 속에는 6.25 전쟁이 입힌 상처를 안고 계신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민족끼리 총대를 겨누어 싸웠다는 것이 무섭고 가슴 아프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실감했듯이 한민족을 넘어 형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눈물 나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신념의 차이” 이것이 우리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고 넘을 수 없는 선을 굳게 하였다. 지금의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압박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노력해도 또는 정해진 만큼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 같으니, 어떻게 사회가 정리될 수 있으며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을까?

지금 남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북한에 보조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름하여 “햇볕정책”, 물론, 현재는 그때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 그 일을 계기로 북과 남의 보이지 않지만 강했던 “신념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였다. 바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통일을 하면 복잡해질 것이 많고 또 언어의 문제 등 골칫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무슨 가슴 아픈 소리인가? 우린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다른 나라는 피부, 언어, 사상, 종교가 다른데도 포용과 이해라는 이름 아래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었다. 하물며, 언어, 사상만이 다르다고 ‘한민족’, ‘형제’인 우리가 그것들을 핑계로 삼다니! 이걸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이 핵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핵을 뛰어넘는 강한 ‘민족의 힘’이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해 넋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그리고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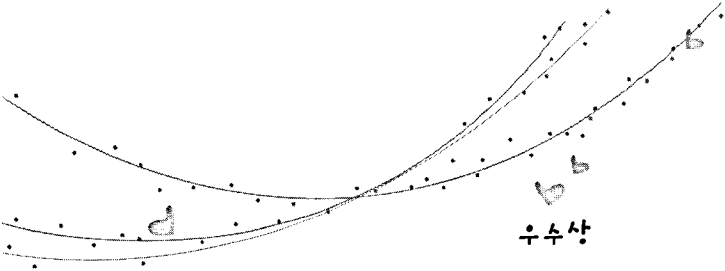
통일이 가진 궁극적 목적인 ‘민족의 화합’, 이를 통해 우린 생이별한 ‘이산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 또 부족했던 것을 채워나갈 것이다.

항상 웃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와 같은 제2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의 꽃을 피워야만 한다.

언젠가 한반도를 갈라놓고 있는 높고 긴 벽이 무너지고 모두의 가슴에 통일의 꽃이 필 그 날까지 진심을 다해 가슴으로 외칠 것이다.

“통일이여, 오라!”





## 강성대국

용인고 2 · 이도윤

얼마전에 학교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 들었다. 수업 시간중에 우연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리선생님께서 형이 철조망 너머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꺼내신 것이다. 직접 눈앞에서 있는 이산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광우병 소고기니 고유가 시대니 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산가족은 그저 허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형’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금세 굳어지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에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촌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 나와는 곧잘 놀아주던 내겐 각별했던 형이 그렇게 갑작스레 병을 얻어 떠날 줄은 몰랐다. 형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적막한 큰집의 분위기도 잊고 몇번이고 형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선명하게 웃고 있는 형의 모습이 방문을 열면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사촌형의 생각이 아마 일천만 이산가족들도 모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주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혹은 현실의 문을 열었을 때 밀려오는 커다란 허탈감과 공허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고개가 숙여졌다. 그런데 나는 그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염원을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들은 생사의 이별보다 더 지독한 이별을 겪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누이가,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혈육이 저 볼품없는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1분이 지나고 1초가 지난다. 이 얼마나 살 떨리게 공포스러운 1분, 1초인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아니,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뤄야하는 일이 이렇게 뚜렷한데 그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내자신부터가 미웠다. 계속해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심화되는 이질감과 무의식적인 긴장감 그리고 한반도 자체 방위를 훨씬 초과하는 무기와 병력. 만약 6.25전쟁 당시의 80배가 넘는 지금 남북의 전력 차이가 충돌한다면 1주일 만에 240만명, 1개월에 500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며 시설의 약 90%가 파괴될 것이라 예측한다.

서로에게 칼날만 갈아서 도대체 무슨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인가?

매년 사람들의 마음이 흘리는 피와 눈물, 남북 모두에게 드는 막대한 국방비와 젊은 청년들의 시간이 헛되어 낭비되고 있다. 평소 영화를 즐겨보는 나는 이번에 개봉되는 ‘크로싱’이란 영화의 줄거리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현재 남북의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고편에서 부모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된 작은 꼬마가 서럽게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인다.

“북조선은 어이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왜 남한에만 예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뇌리에 박혔다.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한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발버둥은 시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다. 특히 탈북자 안옥순씨는 줄거리가 자신이 겪은 사연과 매우 비슷하다며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이런 시국에 북한은 스스로를 강성대국이라 지칭하며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결국 힘 없이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도 같다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에 더욱 우리가 통일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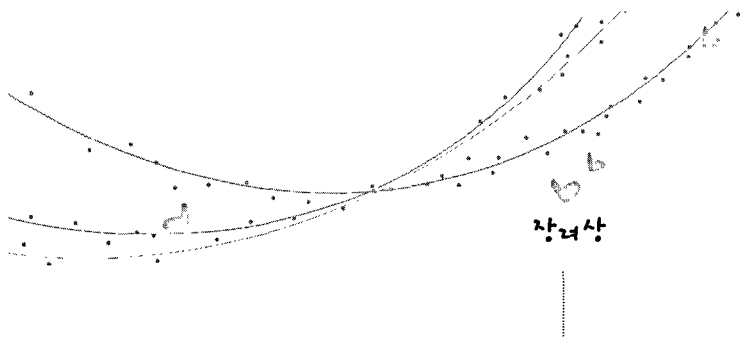


마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야 할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족들의 사랑이 끈이 되고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의 온기가 실마리가 되어 우리 민족의 눈물로 번진 60년을 비취줄 것이다.

기필코 나와 작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 더 큰 우리의 진실이 되어, '강성대국'이란 오랫동안 잃었던 소중한 남북의 화합임을, 뜨거운 만남임을, 진정한 한국임을 증명할 것이다.





## 남북의 희망

서동초 4 · 김선진

저는 남북통일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글짓기를 통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분들께서는 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비오는 날 하나 더하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 있는 유리창에 빗방울들이 방울, 방울 있습니다. 그때 빗방울 하나가 다른 하나와 만나 큰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빗방울과 같이 38선의 허리에 그어져있는 선을 지우고 우리가 다시 같은 한 민족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첫째, 이산가족들은 보고 싶어했던 가족들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 친구들은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경기를 할 때에 북한과 남한의 실력을 더해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넷째, 외화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 사람들이 병이 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른들께서는 고향에서 지낼 수도 있고 가보지 못했던 북한을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동네가 38선 때문에 갈라져 작은집과 큰 집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형제, 자매, 자식간의 안부도 묻지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땅굴을 파서 할머니의 칠순 잔치도 하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38선의 철조망이 쳐지기 전에는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쳐다보기만 하고 철조망이 다 쳐지자 서로 안부도 묻지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한번 씁니다.

북한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서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진이라고 해. 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난 지금 너의 마음을 생각하며 북한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우리의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의 아픈 부분도 고쳐주고 슬픈 마음도 없애 주겠지? 나도 너희들이 배우는 말과 북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알고 싶어. 또 너희들은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돼. 여기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아. 네가 만약 이산가족이라면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되지. 그리고 너는 평화통일과 적화통일 중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 평화통일이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이고 적화통일은 전쟁을 일으켜 만드는 통일 방법이야. 나는 평화통일이 더 안전하고 싸움과 전쟁을 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우리 외할아버지 고향도 북한이거든. 6.25 전쟁 때문에 부산 쪽으로 오셨대. 그런데 고향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지금 나도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슬픈 것 같아. 그리고 6.25 전쟁은 참 나쁜 것 같아. 같은 민족끼리 피를 철철철 흘리며 싸우게 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죽게 되었잖아? 그것이 나쁜 것 같아. 또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언젠가 밝은 미소를 띄우며 어여쁜 얼굴로 만나자. 건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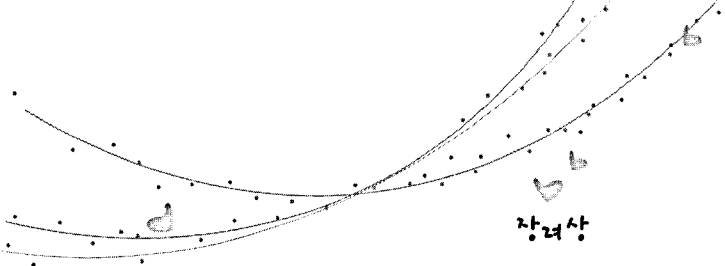
2008년 6월 17일 선진이가

이렇게 한번 편지를 보내어 봅니다.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두가 평화적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38선 허리에 있는 선을 지우고 남한과 북한이 붙어져 한층 더 좋아진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날이 찾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남북은 한 민족입니다. 지금은 잠시동안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나중엔 우리세상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최고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장녀상

## 할아버지의 사진

남천중 3 · 이연희

“할아버지, 이걸 무슨 사진이예요?” 언젠가 할아버지의 낡은 앨범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꺼내들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보따리들은 나를 시간가는 줄 모르게 했다. 그러다 누렇게 색이 바랜 꾸깃꾸깃한 사진 한 장이 내 눈길을 끌었다. 군복 차림의 두 청년이 커다란 총대를 메고 나란히 서있었다.

“그건 6.25 전쟁 때 친구와 찍은 사진이란다. 전쟁 중에 북쪽으로 끌려갔는데 살아있다면 한 번 보고 싶구나……”

한참동안 사진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할아버지의 어른거리던 눈에 비춰진 사진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의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하고 처참히 쓰러져갔던…… 지금까지도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쟁 중 부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못 쓰게 된 사람들, 매일 밤 귓가에 맴도는 총소리, 폭음 소리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 어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친구, 가족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통일,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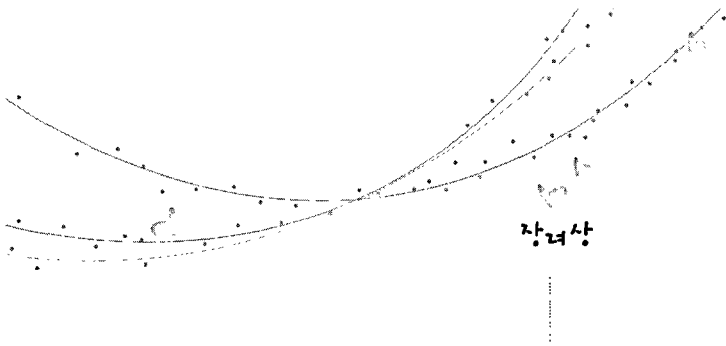
우리는 단군 이래 한 민족으로서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민족. 남북한이 다시 통일되어 하나의 정부, 하나의 문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 번은 TV에서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보았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부등켜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토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거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그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을 말해주는 듯했다. 100만명의 이산가족 중 매년 4~5천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금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남북한의 경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 170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세계가 평화를 지향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겨울 나는 가족과 함께 통일전망대에 다녀왔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설치되어 있다. 전쟁 발생시를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씩씩했다.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날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 날부터 찾아올 것이다.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 집단화된 개미가 자신보다 훨씬 몸집이 큰 곤충을 이기는 것처럼, 태평양과 아시아의 시대가 되어가는 현재 남북한이 그 오명을 벗어던져 버리고 하나가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물론, 나아가 세계에까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 문화, 언어 등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아니었던가? 서로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쓴다면 언젠가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눈물의 벽 대신에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낡은 사진 속의 두 청년이 다시 만나 총대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에 남겨지게 되겠지.





## 남과 북이여 비상하라!

금정고 3 · 송민택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전 세계는 ‘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세계의 냉전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표적 사상 전쟁지역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역사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20여 년간 극심한 사상 대립으로 동족간에 경멸하고 멸시하는 교육을 행했다. 남한은 반공 교육을 심화했으며, 북한은 남침 및 테러를 위한 교육을 일삼았다. 하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는 호전적으로 나아갔다.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반도의 허리를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내걸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어리광을 부리는 꼴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막무가내식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의 관계는 다시 점진적으로 소원해지고 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안에서 남과 북의 교전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군인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적인 사태였다. 이는 남과 북의 멀어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상호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족 분단의 상처를 느끼게 하였다. 동일 민족이 나누어져 서로 총부림을 한다는 사실은 뼈아픈 민족상잔의 고통이다. 최근 한국의 영화계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작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 흥행작으로는 ‘태극기 휘날리며’, ‘엘컴 투 동막골’ 등을 들 수 있다. 과연 이 두 작품 혹은 그 이상의 작품들이 흥행할 수 있었던 까닭을 작품의 우수성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점차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로부터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레 여겨왔던 정통성이 붕괴되어 영원히 나누어짐을 방지하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은 통일을 열망하고, 북한에 대한 악의 감정을 버리고, 상호간의 아픔을 치유해줄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현재 사회에 진출해 있는 지식인들은 통일을 ‘당위적’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다. 한 민족이 나누어졌음에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닌 통일의 경제적 손익을 따져 국가의 이익을 창출해 내려 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정부의 움직임을 본다면 통일에 대한 대책 수립이 긴급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통미(通美) 봉남 정책에 이어 통일(通日) 봉남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북·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 북한이 일본의 납치사건의 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과의 평화교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황, 외교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평화적 조짐을 찾아 화해,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경제논리와 ‘당위성론’을 적절히 배합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남한에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 경제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사고하기란 역설적인 발상일 것이다. 하지만 민족 내부의 합의 분열이 아닌 주변 정세에 의한 강제적인 분열이었던 만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내겠다는 주체적인 마음가짐과 우리 세대 내에서 이루고야 말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민족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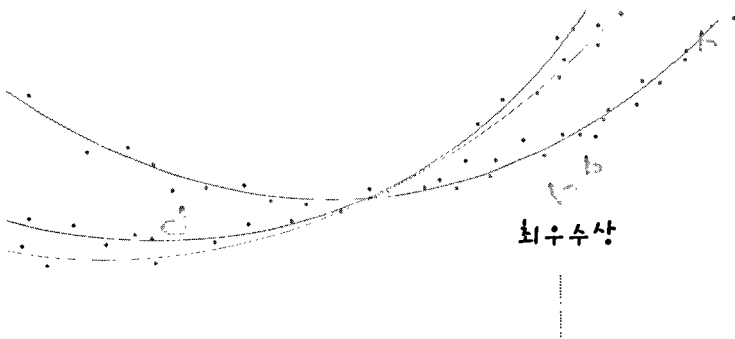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신나는 통일 관광 여행사 \_ 63
- 평양 할아버지의 소원 \_ 65
- 나와 너가 아닌 '우리' \_ 69
- 통일 열차를 타고 \_ 72
- 선생님, 우리는 하나죠? \_ 74
- 우리는 본디 하나,  
그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도록 하자 \_ 78
- 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실천 \_ 80
-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 \_ 82
- 임진강에서 \_ 85





## 신나는 통일 관광 여행사

대구동평초 6·도효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평 통일 여행사의 도효진 가이드입니다. 이번에 저희 여행사에서 새롭게 나온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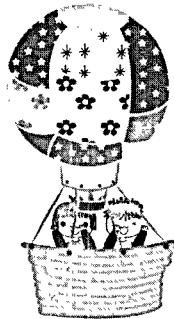
여러분, 이 역사적인 통일의 현장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라 말로써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나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출시된 상품을 설명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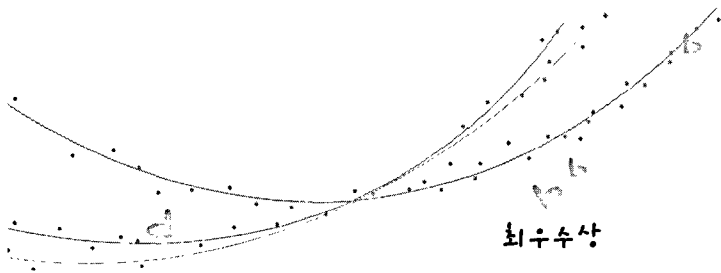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 전쟁과 같은 많은 시련들을 겪은 한반도에는 아름다운 산과 유적 그리고 문화재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까지와 달리 버스를 타고 휴전선을 시원히 지나며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던 우리 남·북 국민들의 힘력으로 끊어졌던 도로가 말끔히 보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의 자랑거리 백두산을 구경하시게 되는데 백두산은 한반도의 가장 북쪽인 함경북도에 있으며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입니다. 또 묘향산은 산에 향기가 가득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아름다운 향기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재를 구경하시게 되는데요. TV에서 보던 주몽이나 광개토태왕 등의 유적지를 보시게 됩니다. 또 북한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여행하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남북의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철도를 잇기 위해 준비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주변 풍경을 구경하며 추억을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관광을 하실 때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하나의 국민이 되었으니 서로의 단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여행사에서 준비한 여행 상품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여행을 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다시는 둘로 갈라지는 아픈 과거를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 평양 할아버지의 소언

구암중 3·정희윤

### 1. 판문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캄캄한 하늘이었어요. 수민이는 얼른 버스에 올라탔어요. 대구에서 출발한 버스는 이곳 판문점 휴게소에 와서야 잠깐 쉬었지요, 그런데 휴게소에 내려 보니 서로 다른 옷을 입은 군인 아저씨들이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웃기기도 했어요.

수민이는 평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평양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하는 ‘한민족 통일 희망 축제’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 행사 중의 하나인 풍물 놀이에 수민이가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열심히 연습한 장구 장단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지도에서 우리나라 위에 있던 북한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하다가 수민이는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 2. 만남

“아가, 아가.”

수민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허~, 너 참말로 곱구나 기래. 어드메 피양가는 길이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피양은 어디예요?”

“평양은 어~ 무시기……. 아, 기래. 평양이야, 평양.”  
 ‘평양, 평양’ 수민이는 웃음이 쿡쿡 나왔어요.  
 “예에. 전 오늘 북한 나라 평양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서요. 장구 치러 가요. 아, 할아버지도 하얀 한복 입으신 거 보니까 풍물놀이 하러 가세요?”  
 “하하, 내래 그런 거 아임매. 그런데 아가는 몇 살 이지비? 열 살?”  
 “우와, 할아버지 짱이다. 저 열 살 맞아요.”  
 수민이 옆에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기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또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마음이 슬프세요?”  
 수민이는 살며시 할아버지의 옷깃을 잡았어요.  
 “허허, 아가가 이 할애비 마음을 어드렇게 잘 알지비?”  
 “저도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쑥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마음이 슬프세요?”  
 “아가, 아가가 할애비 소원 좀 들어 주겠슴둥?”  
 “뭔데요?”  
 “평양에 가면 우리 딸래미, 아들래미 살아 있는지 찾아 봐 주겠슴둥?”  
 “지금 같이 가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도 북한 나라 사람이세요?”  
 “북한 나라…… 기래, 나도 북한 나라 사람이었지비.”  
 “그런데 가족을 왜 찾아요? 같이 안 사세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민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조금 가여웠어요.  
 “오래 전에 헤어졌지비. 이젠 오십 년도 훌쩍 넘었구나야.”  
 “그럼 그동안 아들이랑 딸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기래, 여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세월만 이래 흘러가버렸슴둥.”



### 3. 할아버지 이야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피를 흘리고 죽고 다치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울고, 정말이지 그런 지옥이 없었단다. 나도 전쟁통에 끌려 나가 그저 시키는 대로 총을 쏘고 계속 남쪽으로만 달리다 보니 어디에선가 길을 잃었어. 그리고는 전쟁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혔지. 아, 전쟁 포로가 뭐냐고? 전쟁을 하는 상대방에게 잡힌 사람들을 말해.

그런데 이상한 건 한 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이라 모두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웠다는 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땅인데 미국과 소련이 반반씩 차지하고는 마음대로 3·8선을 그어 전쟁을 쉬라고 정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도 찾아줄 요량은 않고 여태 이라고 살게 했으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 이제라도 함께 살아야 해. 서로 말도 통하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좀 더 많이 가진 쪽이 나눠주고 챙기면서 살면 되는 거란다. 또 오십 년이 넘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헤어져 사는 사람들부터 빨리 만나게 해주고, 그래야 나처럼 한이 되어서 해매 다니는 녀들이 저승으로 마음 놓고 갈 수 있지.

### 4. 수민이 이야기

난 그냥 북한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같은 나라였다는 게 신기해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 모습이 참 불쌍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할아버지처럼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옛날 전쟁 때처럼 갇혀서 생활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거기에서 본 사진 중에 할아버지도 계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도 가족도 못보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같은 집에 사는 엄마, 아빠도 많이 다투시고 저랑 언니도 자주 다투요.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도 그 때는 다투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이좋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통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가족들부터 제~일 먼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5. 축제

“할아버지, 평양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하도 오래되어서, 그 때 너만하던 어르나들을 찾을 수 있겠슴둥?”

“그러게요. 아, 아들이랑 딸 이름이 뭐예요?”

“아, 우리 영우랑 영숙이지비.”

“영숙이 아줌마~, 영우 아저씨~! 어디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불려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수민이도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했어요.

“어떡하죠? 저는 지금 장구 치러 가야 하는데…….”

“일 없수다. 그래도 내 야기를 너한테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함메. 얼른 가보지요. 기카고 통일되면 삼천리 방방곡곡 장구치매 알려주고 땡기라우, 꼭.”

“예, 할아버지. 멀리 가지 마시고 통일되는 거 꼭 보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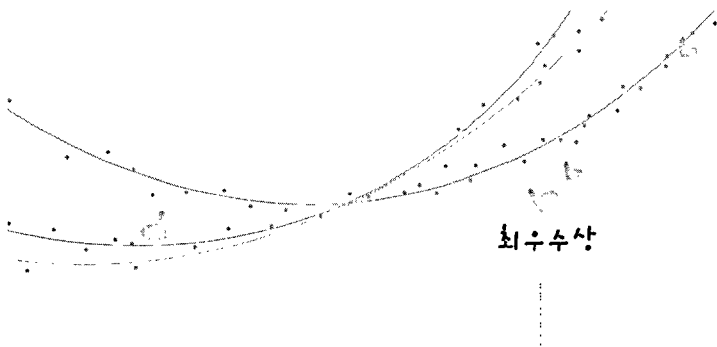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한복 자락을 너울거리며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수민이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마술사같다고 생각했어요.

수민이는 곧 공연을 시작했어요. 장구를 치면서 빙빙 돌다보니 어느새 할아버지도 하늘에 둥둥 떠서 어깨장단을 하고 계셨어요. 신나는 우리가락이 함께 울려 퍼졌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덩덩 덩덕쿵 덩기덩덩 덩덕쿵 얼쑤  
어서 빨리 통일 되어 둥둥 두두둥 둥두둥두 둥두둥  
헤어졌던 가족들이 갱개 개개갱 개개갱개 개개갱 절쑤  
모두모두 만나자아 징~~~~~ 징~~~~







## 나와 너가 아닌 ‘우리’

신명고 2 · 최지영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수학여행 전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렇다. 사실 우리들에게 금강산이란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산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아빠는 ‘지영이 내가 우리가족 최초의 금강산 등반자라느니, 어떻게 북한에 가게 되었는지 부럽다느니’ 나보다 더 호들갑을 떠신다. 세상은 참 모순투성이인 것 같다. 한평생 북녘 땅 한번 밟아보기를 소원하시다가 한 많게 눈을 감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이런저런 생각을 뒤로 한 채 6월의 첫째 날 우리의 금강산행 버스는 떠났다. 첫째 날은 휴전선 바로 아래 이름만 금강산인 금강산 콘도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튿날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북한 땅에 도착했다. 가는 길목에 있던 빨간색의 작은 말뚝 하나. 저것이 바로 휴전선 수많은 말뚝 중 하나란다. 고작 저것 때문에 우리가 반세기동안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갈라져 지냈다니. 슬펐다.

북한은 정말 남의 나라였다. 여권으로 수속도 밟아야 했고 우리나라의 돈이 아닌 달러가 통용되는 곳이었다. 가는 길 버스에서 바라본 북한의 풍경. 그들의 집은 허름한 판잣집이었고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독길을 건너는 주민이 보였다. 다른 듯 닮은 우리네 시골 풍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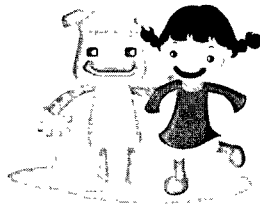
모습이었다. 사실 말투도 그리 다르진 않았다. 우리가 주로 영상 매체에서 접하던 말투는 뉴스, 공연단, 영화 속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을 뿐 현지인들의 말투는 약간의 사투리가 다르다는 느낌밖에 주지 않았다. 정작 가장 달랐던 것은 그네들의 표정이었다. 어디를 가나 곳곳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성이라도 난 듯이 인상을 쓰고 있었고, 금강산에 올라 만난 안내원들은 지쳤는지 울듯한 표정이었다. 모두가 활기가 없고 죽어있는 사람들 같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피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구분짓고 있었다. “저 사람은 남한사람, 저 사람은 북한사람.” 그리고 어느새 산을 올라가는 길에 만난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구분짓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머리 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우리가 어느샌가 또 ‘너와 나’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구나... 같이 남한에서 온 우리끼리도 말이 다르다고 서로 멀리하는데 과연 통일이 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동포, 한 나라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것이 가능할까? 벌써 그들이 사는 형편을 보니 알잡아 보려는 마음이 한쪽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느새 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선을 긋고 양측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쩌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이념갈등이나 체제가 아닌 개인 하나하나의 마음, 편견, 선입관, 바로 이런 것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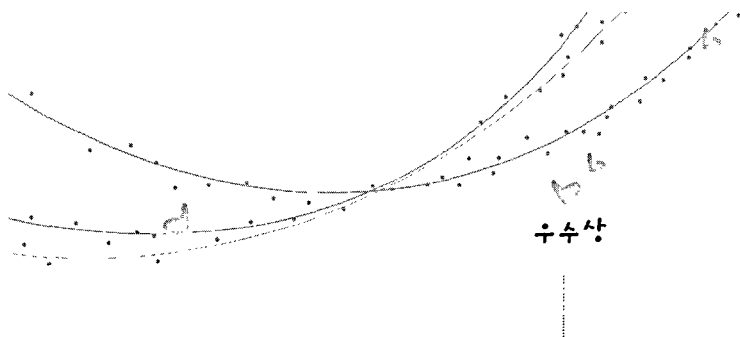
이날 저녁 우리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 정말 TV에서나 본 것처럼 돌고 타고 날고...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곡예를 관람했다. 그렇게 박수치고 신기해하기를 얼마간, 세계 예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팀의 순서였다. 그들은 그네에 앉아서 손을 잡고 돌고, 발등만 붙인 채 그네에 매달려 있고 하더니 갑자기 밧줄에 목을 감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짝 돋았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인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혹 실수하지는 않을까 긴장 속에서 그들이 수년간 갈고닦은 재주들을 선보일 뿐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그저 박수치고 소리치며 행복하고 기뻐하는 관객들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면 참 다행일 텐데... 그러나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할까? 어쩌면 이 모든 생각이 나의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아직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이니까... 자유가 없고 불행할 것이라고... 어쨌든 그날 밤은 북한 땅에서 보냈다. 말이 북한이지 그곳은 남한이나 다름없었다. TV가 있었고 우리의 고유 채널인 3사 방송이 나왔고 우리는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던 드라마를 챙겨보며 웃고 있었다.

그렇게 북한에서의 날들이 지나가고 다시 돌아가는 길. 출국 도장을 찍어 주는 사람의 노곤한 표정을 보니, 궁금증이 들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냥 해외 관광객? 일본이나 중국사람 같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우연히 ‘만남의 광장’과 ‘태극이 휘날리며’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다녀온 저곳이 바로 그 북한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총칼 들고 싸웠던 우리네 형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휴전선 너머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할 누군가. 그리고 이렇게 금단의 선을 넘어 저편을 다녀온 나. 모든 게 한밤의 꿈같았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사려다 ‘달려를 내야하나?’ 생각하며 멈췄던 나. ‘아, 여기는 남한이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사람과 남한사람을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아직도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금강산 등산에서 “몇 명이나 왔어요?” 하고 그들이 물은 말은 외국어가 아니었고, 그들이 파는 꼬치와 옥수수 는 너무나도 내 입맛에 맞았으며, 버스가 돌아오는 길의 강원도 농촌 풍경은 북한과 꼭 닮아있었다. 북한과 남한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머리는 몰라도 가슴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 통일열차 타고 으글으글

대구동호초 5 · 한지현

우리 아빠는 KTX 기장이시다. 노을이 서쪽으로 예쁘게 저물 때면 아빠는 회사갈 준비를 하신다. 아빠가 KTX 기관사 모자를 쓰시고 멋지게 운전을 하실 때면 나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다.

어느 날, 나는 텔레비전에서 통일열차가 개통된 것을 보았다.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새마을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타고 있었다. 새마을호가 북한에 서서히 들어오자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맞아 주었다. 나는 통일열차가 개통한다기에 KTX보다 빠른 기차를 개발할 줄 알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는데 겨우 새마을호라니 실망이 컸다.

“에게! 겨우 새마을호잖아. 저렇게 느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온 국민이 왜 난리인거지?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껴안고 우는거야?”

“5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을 만났는데 슬프지. 그 5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가족과 살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겠니. 저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다. 아빠도 KTX로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는 싶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부끄러워졌다. 아빠의 말씀대로 이렇게라도 이산가족을 만나고 이산가족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털어 낼 수 있으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다. 통일열차가

개통되어도 하루에 한 번만 탈 수 있다고 한다.

통일열차가 완전히 개통된다면 북한을 넘어 러시아도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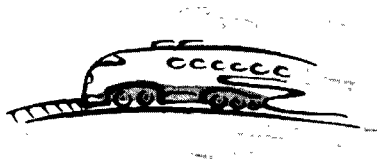
만약에 통일열차가 아빠가 운전하는 KTX라면 북한도 단숨에 가버릴 텐데.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00km나 된다. 그런데 KTX를 타고 평양까지 가면 1시간만에 도착하고 백두산은 3시간만에 도착한다.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이 이렇게 가깝다니 놀랍기도 하고 단숨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기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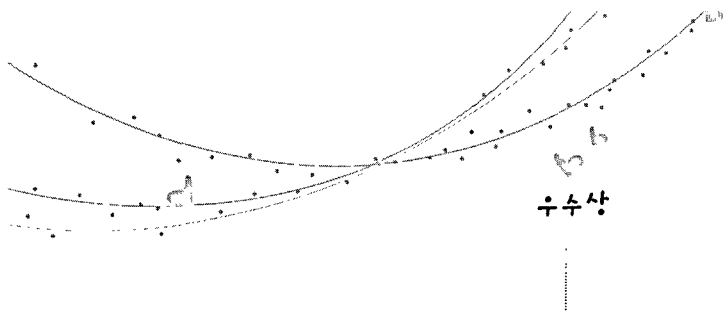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열차가 KTX로 개통된다면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갈 수 있고, 가족과 백두산을 함께 등산할 수도 있겠지. 북한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날마다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도 혼내주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중국도 혼내줄거다.

KTX가 하루빨리 북한으로 갈 수 있게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만 갈 수 있던 북한을, 새만 날아갈 수 있던 북한을, 구름만 볼 수 있던 북한을 KTX를 타고서 가보고 싶다.

들꽃하나 피지 않던 지뢰밭에 철길을 나란히 놓아 북한을 구경하고 싶다.

민 훗날 아빠가 KTX에 북한 사람들을 태우고 옛날처럼 한반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내가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 선생님, 우리는 하나죠?

도원중 2 · 이가은

“바보! 북한은 우리나라 아니야!”

“네가 바보야, 이 멍청이! 북한은 우리나라라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단 말야!”

빼액 내지르는 소리에 먼저번 말했던 꼬마아이는 ‘빨갱이! 빨갱이!’ 하고 소리 지르며 도망친다. 남겨진 아이(북한이 우리나라라 했던)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씨익씨익대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면 6.25도 안 겪어본 꼬맹이가,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철없는 꼬맹이가 뭘 알겠냐고 말하겠지만, 그 아이의 담임인 나로서는 그저 철없는 소리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민수, 그 아이가 여느 철부지 꼬맹이들과 조금 다르단 것을 알게 된 건 그 아이가 막 3학년이 된 첫 수업 날이었다.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민수는 유난히 돋보였다.

“김민수입니다. 3학년이구요, 가족은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장래희망은 통일은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엄마랑만 사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장래 희망은….

그 아이의 장래희망엔 다 원인이 있었다. 그 아이, 민수와의 상담에서 민

수가 한 말에 의하면... 민수의 할머니는 북에 살고 계셨다고 한다. 6·25가 터져 아이를 뱀 몸으로 그 남편을 북에 둔 채 남으로 피란 온 민수의 할머니는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남쪽에서 아들을, 말하자면 민수의 아버지를 낳았다. 그리고는 그 후론 남북이 갈려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며, 먼저 도망가라고 했던, 곧 뒤따라 내려가겠다고 남편만을 즐기치게 기다리고 계시단 것이었다.

그러면 민수의 아버지께서는? 민수의 아버지께서는 남쪽에서 지금 민수의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그리고는 슬슬 남북의 교류가 가능케 될 무렵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민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인 그 분을 찾기 위해 북쪽으로 간 이후론 이상하게도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민수의 할머니께서는 남북의 분단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셨고, 이제 단 하나 남은 핏줄인 손자 민수에게 꼭 통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민수야, 또 친구랑 싸웠니?”

나는 분에 못이겨 끝내 울기까지 하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고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훌쩍, 영진이가, 음, 북한... 흐음, 딴 나라... 래요, 훌쩍... 우리나라 아니래요...”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아냐 아냐, 북한은 우리나라야’ 라고 말해주었다. 토닥토닥 그 아이의 등을 두들겨주며 나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빨갱이란 말을 아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맞죠? 흑... 북한, 우리나라죠?”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래그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민수를 위로해주고 진정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 또한 집으로 가며 생각에 빠졌다.

분명 북한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였다. 국기도, 문화도, 돈도, 대통령(북한에선 대통령이 아니지만)도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이긴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단지 다른 나라라고 하기엔... 음, 그 관



계가 무척 특별하지 않은가. 수백 년간, 그 옛날 삼국시대니 어쩌니 하기 전부터 한 민족 한 나라였는데, 겨우 50년 떨어졌다고 다른 나라라니, 관계없는 나라라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

겨우 알팍한 이익, 겨우 알팍한 자존심이 뭐라고 어른들은 순진한 아이들에게까지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북한은 딴 나라야.’ 하는 생각을 불어넣느라 말이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설치며 난 내일 수업때 통일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기다리던 다음날 수업시간이 되어 난 교단 앞에 섰다. 교실을 가득 채운 아이들 중에선 민수와 영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난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애들아, 북한은 우리나라일까, 아닐까?”

내 갑작스런 질문에 아이들은 살짝 놀란 듯 머뭇대다가 이내 수수께끼에 대답하듯 ‘우리나라요!’ 든지 ‘딴 나라요!’ 하고 외쳐대었다. ‘우리나라요!’라고 자신있게 외쳐대는 민수를 흘끗 보곤 난 다시 입을 열었다.

“북한은 우리나라야.”

내 말에 영진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입을 삐죽대며 소리쳤다.

“선생님은 바보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아니예요, 올 엄마한테 물어봐요.”

살짝 찌푸려지는 얼굴에 다시 미소를 띠려 애썼다. 역시 어른들이었구나, 역시 영진이와 몇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넣은 건 그들의 부모님이었고, 어른들이었구나.

“영진이 말도 맞아. 북한과 우리나라란 분단되어 다른 나라가 되었긴 하지. 그래도 북한은 우리나라야.”

‘순 억지야!’ 하고 아이들이 외쳤다. 분명 나도 내 말이 억지란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난 사실을 말한 거다.

“애들아, 너희들은 가족이 있지?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너희 언니 오빠랑 동생들… 있지?”

아이들이 네!- 하고 큰소리로 대답한다.

“너희들은 가족이랑 몇 년을 함께 살았지?”

아이들이 ‘9년!’ 혹은 ‘10년!’하고 외친다.





“근데 만약 너희들이 가족들이랑 싸워서 집을 나왔다면, 집을 나와서 1주일정도 다른 집에 가 있다면 너희 가족들과 가족이 아니게 된거니?”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비유에 살짝 머뭇대며 ‘아니요!’하고 대답했다.

난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우리나라와 북한도 싸워서 잠깐 집을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나라일까 다른 나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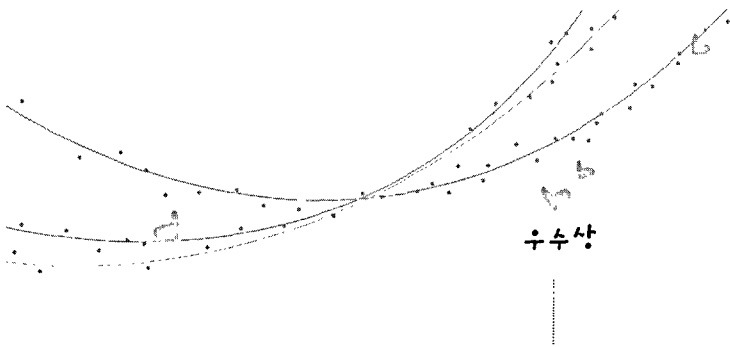
내 물음에 아이들은, 영진이도 머뭇대며 ‘우리나라요’라고 대답한다.

“그래, 맞아. 그러면 우리들은 화해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려고 싸운 채 있어야 할까?”

내 미소 띤 질문에 그들도 웃으며 “화해해야 해요.”하고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이 커서 꼭 화해하게 하렴.”





## 우리는 보디 하나, 그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도록 하자

대건고 2 · 박성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을 본 국민 대다수는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눴던 북한의 잘못을 비난하곤 했다. 특히 요즘 노인 분들은 더욱 그러하다. ‘공산당’ 하면 환멸부터 느끼고, 그 시절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한 이미지로 생각해 감싸기까지 한다. 이러한 생각을 아직 사고가 자리 잡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단지 전쟁을 겪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견을 옳다고 해서 안 된다. 비록 경험자지만, 그분들은 전쟁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 역시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갈라졌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속에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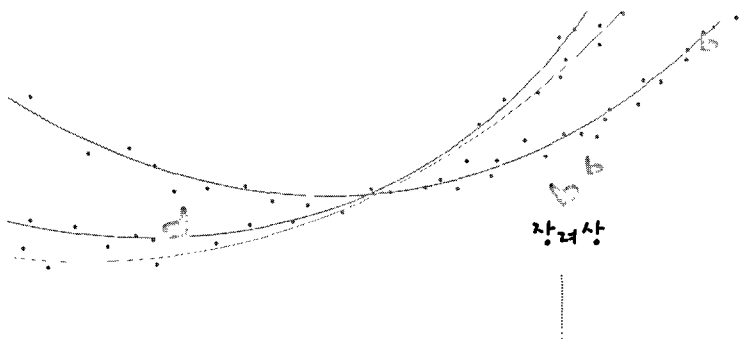
지금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당장 밥한 끼도 못 구하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한반도지만 만약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폭동이 일어나 북한이 일시적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은 북한을 돕는데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우리가 주는 만큼 되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득볼 것이 무엇이나는 말이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에게 상호적 태도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잘 확인할 수 있다.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여 놀 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약한 아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으니 다음에는 해 다오’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 물론, 북한은 상위계층이 뚜렷한 국가로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보내준 물자를 군대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북한이라 해도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꾸준히 우리의 진심을 표현해 그들 스스로가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의 회복이다.

하지만 통일로 나아가다 할지라도 그 비용은 엄청나다. 타율적으로 그들의 문을 열게 된 경우에는 더욱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국민들이며 무너진 사회구조 및 산업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와도 연결된다. 요즘 시대는 국가의 정부 자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 빌릴 때 이자는 국가마다 다르다. 신뢰도가 높다면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최상위에는 속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구원을 통해 안전한 안보환경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해를 입을 것은 없을 것이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잠시 움츠리는 일도 나쁘진 않다.

어린 시절 본 동화 중에 해와 구름이 싸우는 이야기가 있다. 외투를 입고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자는 것인데 구름이 아무리 세찬 비바람과 폭풍을 일으켜도 외투는 벗겨지지 않았다.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로 몸을 감쌀 뿐이었다. 이 때 해가 나섰다. 구름처럼 힘들이지도 않고 빛만 비추었을 뿐인데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강력한 저항으로 우리에게 맞섰던 북한도 차츰차츰 우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올림픽에서는 이미 동시입장을 했고 자본주의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비록 주변정세에 의해 둘로 나뉘었고 5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본디 하나다. 강력한 햇빛이 되어 그들의 또 다른 외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실천

대구범물초 6·양지희

음악회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엄마는 바쁜 아빠 대신 데리고 갈 사람으로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공연이 지루해 존 적도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몸을 뒤척이며 자리를 지킨 적도 있었다.

많은 공연들 중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고, 나에게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실감케 해준 작품은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이었다. 내용을 이해 못해 엄마의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며 물어 볼 필요도 없이 마치 포로수용소 철조망 밖에 있는 듯 그 뮤지컬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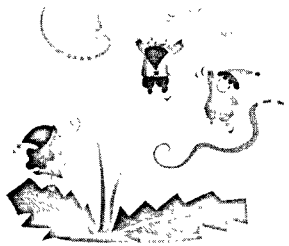
한 나라였다가 6·25라는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한 핏줄, 꼭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한 동포라고 매년 6월 25일 학교 아침 방송으로 들어 오던 곳. 이 정도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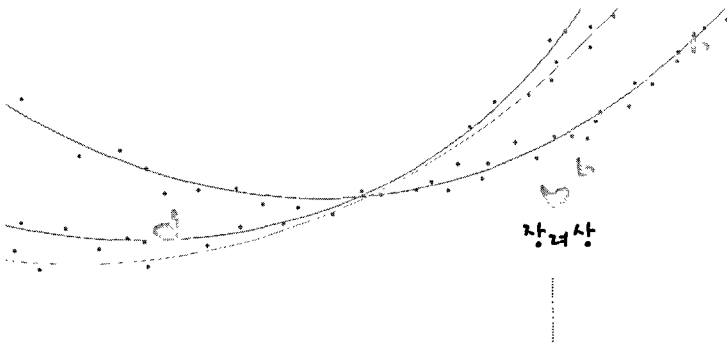
남한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한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이렇듯 여러 이유로 끌려온 그들의 포로수용소 생활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뮤지컬의 내용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나, 한 소설가가 쓴 소설도 아닌 현재 북한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 뮤지컬을 만든 감독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현재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

하였다고 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언젠가 글짓기 선생님께서 “끓주리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금식을 하는 모임이 있단다. 나는 아직 다 끓기에는 부족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나오는 간식이라도 끓어보려고 한단다.” 라고 하셨을 때, 북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고사하고 선생님의 간식을 서로 먹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철없는 모습이 떠올라 갑자기 창피해졌다. 그때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이 38선을 넘어 먼 북한 땅까지 전해졌을 것을 생각하니,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깊은 뜻을 못 알아차린 내가 새삼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고통을 겪어보지도, 이산가족도 없는 나는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 뮤지컬을 보고 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통일 교육을 시켜도 그저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 한 편의 뮤지컬이 나를 통일 전도사로 만들었다. 우리 가족은 날을 정하여 한 끼를 굶거나 간식을 줄여가며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행하고 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이 실천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 또 이해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북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그런 관심과 이해, 사랑을 줄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삭막한 세상에 지쳤을 법도 한 그들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통일을 하여야 한다.





##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

고산중 3 · 나수연

5월 9일, 나는 금강산에 다녀오셨다는 외삼촌을 마중하러 기차역에 나갔다. 단기방학이 있었기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모처럼 조카 얼굴 보자는 외삼촌의 말씀에 억지로 발을 움직였다. 기차역에서 외삼촌을 기다린 지 10분쯤 되었을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수연아, 오랜만이네?”

“웬일이세요? 평소에 기차일 하신다고 조카한테 연락 한번 안하시더니.”

나는 뽀루통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수연이, 외삼촌한테 쌓인 감정이 많았구나.”

외삼촌은 그러시더니 나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근처의 식당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었다.

“하실 말씀이 뭔데요?”

“수연이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통일요? 글썄요... 깊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이였다. 요즈음 내 주위에서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혹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은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수연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외삼촌이 금강산에 간 거야. 어제 외삼촌은 남북의 언론인들과 함께 토의 형식으로 남북정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개진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기사교류와 연대활동을 벌이자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어. 아주 의미 있는 성과였단다.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한 뒤에 제대로 된 사실과 정보를 알려야지만 수연이처럼 남북통일, 혹은 남북관계에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외삼촌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외삼촌, 그렇긴 하지만, 북한은 가난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세금도 대신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지금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겠다던데 우리가 그걸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수연이, 그래도 삼촌 이야기를 꽤나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니 반가운 걸. 지금 북쪽의 식량사정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무역처럼 조건을 내건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야. 수연이 넌, 만약 동생 이랑 싸웠지만 밋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낼 거니?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긴 해요. 싸웠긴 해도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통일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남북이 각각의 정부를 운영하느냐, 혹은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수연이가 생각하는 만큼 부조리한 방법으로 통일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외삼촌과 열띤 토의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한 뒤에, 나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북쪽,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 변화라도 생겨서였을까?

인터넷에 남북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사이트와 다양한 연관검색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이리도 가까운 이야기에, 이렇게도 무관심했었나 하는 생각에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일의 이점이었다. 한 네티즌은 통일을 하면 식량난의 위기가 남쪽에도 온다는 근거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쌀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식량 주권을 지켜 외국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이 남북 안보를 이유로 주둔하는 동안 소비되는 막대한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나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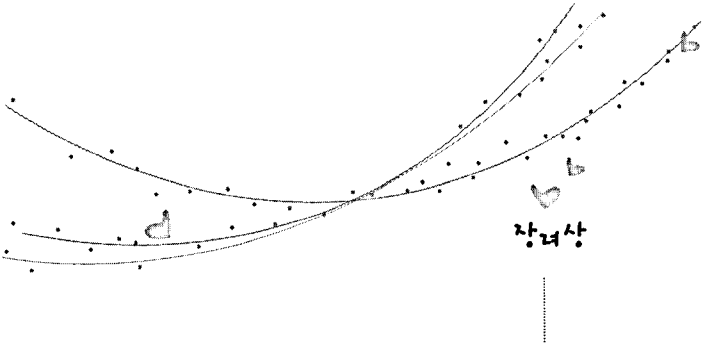
또한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등 나에게 생소하기만 하던 단어들도 쉬이 접할 수 있었다. 이 두 선언은 남북한의 바람직한 교류협력을 고무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북관계의 훌륭한 성과물이었다고 한다.

내가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달은 점은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체제 이념이 다르고 경제·언론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과 교류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이며, 한민족의 통일을 저해시키고 예전의 나와 같이 남북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들어낼 뿐이다. 웬지 나는 외삼촌이 존경스러워지는 듯하여 씩스러웠지만, 내가 이렇게 한민족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뚜렷한 견해와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놀랍기도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통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남북정세, 통일과 북쪽의 동포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북지원 단체인 ‘겨레 하나’에 가입하였다. 통일은 정치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쯤 되자, 나는 누구에게든지 묻고 싶어졌다.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







## 임진강에서 김민웅

화원고 2 · 전가람

고등학교에 다니기 전, 그러니까 그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다. 자유로를 지나 임진강변의 통일전망대에 올라 강 너머로 보이는 북녘 땅을 내다 본 적이 있었다. 북한에도 작게나마 아파트가 있었다며 신기해하고 있던 찰나에 뜻밖의 이야기를 접했다. 그것은 세트같이 꾸민 선전용 건물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체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강을 넘고서 저 땅, 저 산을 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순간 머릿속으로 평양과, 다른 지역의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TV에서 본 것이었다. 회백색 건물이 늘어선 평양의 시가지와, 이에 대비되는 모습들(굶주림에 허덕이거나 아픔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이 떠오른 그 순간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언론을 특히나 외신을 대할 때 민감한 북한에서, 보여지는 게 이 모습이라면 실상 보지 못한 채 감추어진 모습들은 얼마나 참담할까. 눈물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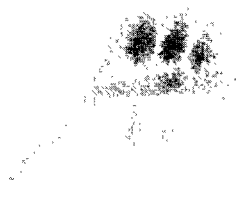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감추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민족이다. 서로 같은 공동체로서 터놓고 지내야 할 이 때, 이렇게 서로를 감추며 산다. 서로를 도와주고, 이야기하며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 60년,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땅 위의 철책과 비무장지대는 그대로인데, 가슴 속에서는 이네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끊어진 채로 사는 이 시간 속

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다. 역사의 강 위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이 땅을 지켜온 이들이고,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떨어짐도 슬픔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국가가 되어 세계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떨어진 모습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아 하나 되는 길 위에서 있다.

그 누군가 이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강가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강, 그 영원함…….

강은 흐른다. 그 길이 휘어지고 막혀도 언젠가는 다시 새 길을 찾아 강은 흐른다. 그리고 바다에 이른다. 물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그 물처럼 다시금 만나리라. 세월 속에서 임진강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아가 세계라는 큰 바다, 그 중심에서 별빛을 받으며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큰 흐름이 되어 인간의 역사라는 지구 위에 영원히 자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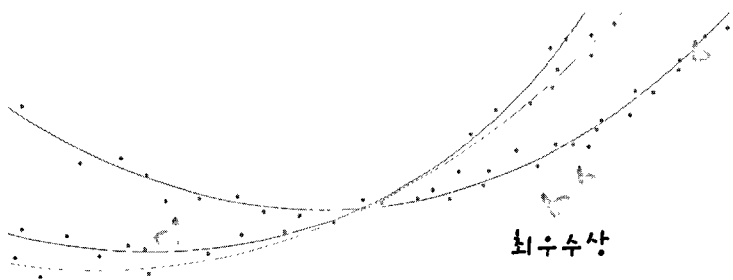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북한 꽃제비의 노래 \_ 89
- 동녘하늘 바라보니 \_ 91
- 갈라진 우리나라 지도  
이어붙이기 \_ 94
- 통일을 위한 나의 꿈 \_ 97
- 모든 이들의 소원이 통일이기를 \_ 99
- 할아버지의 의자 \_ 101
- 통일을 말하는 참나무 \_ 104
- 알에서 깨어나기 \_ 107
-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_ 110





최우수상

## 북한 꽃제비의 노래

인천주안초 6 · 이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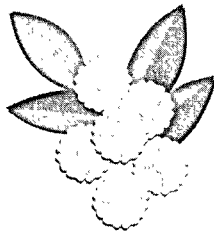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이제 보니 나홀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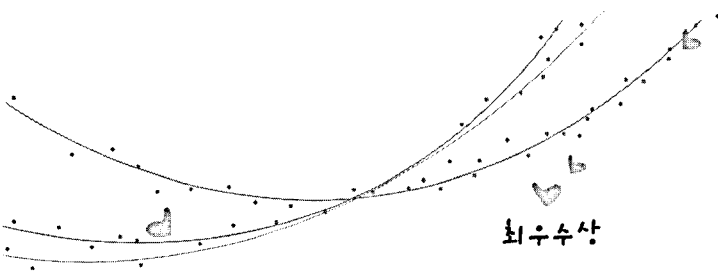
낙엽 따라 떨어진 이 한 목숨 가시밭길을 헤치며 걸었다. 배고플 땀 주먹을 깨물었다. 목마를 땀 눈물을 삼켰다. 열세 살 꽃나이 피눈물 장마! 아!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나는 북한의 꽃제비입니다. 제비처럼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부모 잃은 꽃제비입니다. 나는 진흙 속에서 빵부스러기나 땅에 떨어진 것을 겨우겨우 주워 먹으며 간신히 생명을 이어갑니다. 나는 얼굴과 손, 발이 퉁퉁 붓고 옷은 너털너털하며 머리엔 기생충이 있습니다. 나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식량을 구하러 가셔서 안 돌아오시고 동생과 어머니는 굶어죽었습니다. 나는 잘 곳이 없어 허름한 건물 구석에서 눈물을 머금고 잠이 듭니다. 나는 아침이 되면 이곳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자판을 엮고 식량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 군인들에게 잡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는 굶는 것은 다반사이고, 군인들의 폭력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가끔 옆방 아이들은 3층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두만강 앞산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만강 앞산에서 몰

래 지켜보고 있노라면 물속에서 무엇인가에 실을 매달아 군인들이 끌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탈북을 하려다 총에 맞아 죽거나 지쳐 쓰러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쌀을 구하러 가신다더니 왜 안돌아 오시는 겁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이대로 영영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러합니까? 남한 친구들은 우리와 한민족인데도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옷과 먹을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저는 그냥 눈물이 날 뿐입니다.

나도 그곳이 그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 한 한 가닥 희망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만이 북한아이들에게 굶주림과 부모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난 또 살아갑니다. 열세 살 시커멓게 멎든 가슴!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 동녘하늘 바라보니 은근

관교중 3 · 김동일

나의 이름은 통일(東一)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나를 통일(統一)이라고 부른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엄마 뱃속에서 통일이란 이름으로 불려오고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간혹 나의 이름이 맘에 안 들어 통일이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우리집안의 사연과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우리 할머니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온가족이 잘살았다가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38분계선이 생기기 며칠 전 홀로 북한을 탈출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인천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외에 4남매를 낳으시고 사시면서 늘 고향인 황해도 운울을 그리워하셨다. 그래서 손자 손녀의 이름을 손수 지으셨는데 누나 이름을 민주(民主)라고 지어주셨다. 사실 이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광주 사태 때 감옥에 가시기도 하셨다. 그런 젊은 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누나 이름을 민주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촌 동생의 이름도 평화이다. 모두 할머니가 지어주셨다. 가끔 나와 누나에게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는 어른들에게 할 말이 없어 난처할 때도 많았다. 사실 나의 이름은 통일이었지만 아버지 친구 아들과 이름이 같아 우리집안의 돌림자인 '동'자를 써서 통일이라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남들이 기억

하기가 좋다. 민주통일 가족이라고.  
할머니는 내 이름에 시를 지으셨다.

동녘하늘 바라보니  
내 마음 뛰노는구나  
일편단심 금수강산  
우리나라 하나 되게 하소서.

할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북에 두고 내려와서 가족을 그리워하시며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신 것 같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하시지 않으셨다. 무엇이나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머니는 고생도 많이 하셔서 본인의 몸도 불편한데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특히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봉사하신다.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신다. 어려서 할머니의 집이 우리 집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서 식사와 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부모님이 할머니에게 “이젠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돼지나 편하게 살게”라며 대꾸하셨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잘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신다. 남한에 내려와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으로 생활하셨다. 교회의 힘든 사람을 보며 위로도 받고 위로를 하면서 언제나 밝게 사셨다. 그런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 말기 위암으로 얼마 못 사신다고 하신다.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 같은 분이 오래 사시면서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는 소원을 이루어야 하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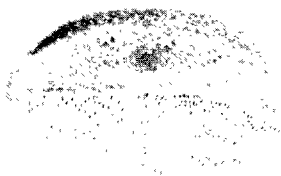
내가 태어나서 3개월 때 미얀마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유치원까지 다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그곳에 혼자 가서 공부하고 올해 한국에 왔다. 그곳에 간 이유는 공부도 있지만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하고 싶었다.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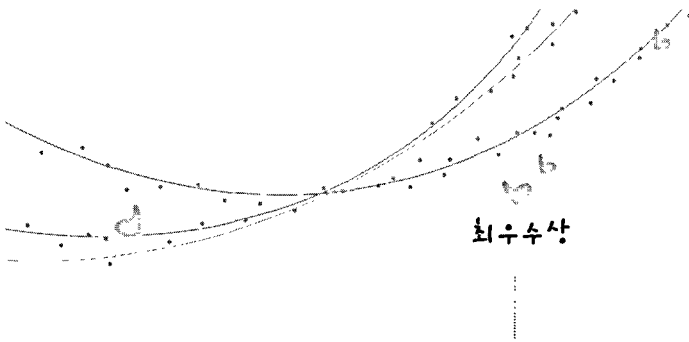




그곳에 있으면서 한국은 정말 잘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가정에 인터넷과 대중교통 수단으로 어느 곳이든 연락하고 갈 수 있는데 미얀마의 생활은 아주 불편한 생활이었다. 그리고 북한도 미얀마처럼 못살겠구나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 세계는 인터넷으로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 정보가 전해진다. 할머니 세대에 나눠진 우리민족의 단절이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촌이 한 가족인 것 같이 힘든 곳에 모두가 돕고 잘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입시로 학생들이 힘들지만 가난과 질병과 재난으로 어렵게 사는 동남아와 북한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많다. 나는 할머니의 소원인 우리 민족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가 그리던 고향을 방문하여 할머니가 전해달라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가족의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이고 또 나의 문제로 다가온다. 그리고 내 이름이 통일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갈라진 우리나라 지도 이어붙이기

인명여고 2 · 천민화

1999년의 어느 여름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나의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신다며 우리나라 전도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지도는 벌써 본 적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은 진짜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두 손에는 정확히 두개로 갈라진 우리나라 지도가 들려 있었다. 왜 멀쩡한 지도를 두 조각으로 자르셨냐는 한 아이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50년 전의 옛날 지도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를 가져온 것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붙여져 있는 지도가 50년이나 된 지도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던 내 귀에는 곧 우리나라 땅이 너무 작다고 투덜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때 선생님은 우리의 준비물이었던 테이프를 꺼내보라고 하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도를 이어 붙여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그 말씀에 아이들은 분주해졌고 그 날 이후로 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지도를 붙이던 아이들의 손과, 이제야 지도 같다며 좋아하던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기뻐하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잊지 말라던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기뻐하며 지도를 붙이던 어린 나도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차차 알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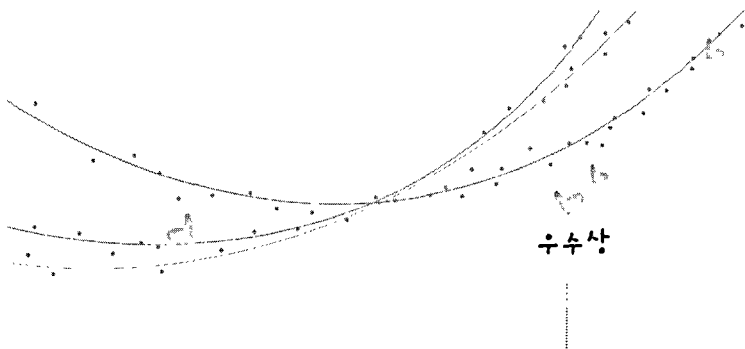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젊은 우리 할아버지의 소망이고 할머니의 아픈 세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이 아닐까?

할아버지의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리고 여린 싹이 자라 가을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심은 통일 나무에서도 정성들여 가꾼 보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마음 속으로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돌아가는 발길이 그저 무거우신 듯 꼬부랑 우리 할머니. 자꾸 뒤돌아보신다. 그 위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할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지키신 하늘이다. 언제까지나 질푸르게 열려 있을 할아버지의 하늘엔 아직도 뜨거운 소망 하나 간절하게 걸려 있다.





## 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부영여고 1 · 신누리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편할 땐 언제인가? 갓난아이는 혈연으로 맺어진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아무리 작은 공간 속이라 해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때의 엄마와 아이 표정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혈연으로 맺어진다는 것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있다. 이렇듯 옛 선조들의 후손으로 피를 나눈 한 민족인 남북한, 한반도가 진정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남북통일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실정을 보면 미운 오리새끼를 보듯 서로 경계하고 있다. 어쩌면 미운 오리가 자신이 훌륭하고 멋진 존재임을 알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선이 그어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고등학생이 되어 지난 4월, 북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다. ‘인사해도 될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무슨 큰일이나 된 듯 인사 한 마디에도 걱정하며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에 최면을 걸 듯 주문을 외우며 용기를 내었다. “안녕하세요!” 짙은 눈을 감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였다. 그 때, 북한 사람들이 밝게 인사를 받아 주었다. 그 때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과 ‘말뜻을 이해



우수상

## 통일을 위한 나의 꿈

인천갑룡초 4 · 이병찬

저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을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프랑스라 말하고, 누구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꼭 한번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소연 누나가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엄마 아빠와 함께 열심히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주선 안을 붕붕 떠다니며 과학실험을 하는 누나의 모습이 참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소연 누나가 했던 말 중에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였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지도에는 한반도엔 금이 고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금강산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평양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까요? 전쟁을 하고 휴전을 한 뒤로 남과 북은 아직까지 화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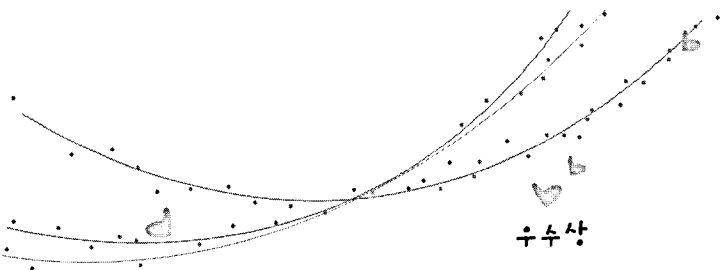
첫째, 스포츠와 예술을 통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본 평양 사람들은 연주가 끝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평양에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선율을 감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오케스트라단의 훌륭한 연주 때

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적대시하며 닫아 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세계가 음악을 통해 만났다는 사실이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과 미술과 스포츠가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고 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더 많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과 친근한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남한을 찾아온 탈북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바로 우리 옆집의 이웃이 될 사람들입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소수의 탈북자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통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 할 것입니다!

셋째, 바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마음을 모아 통일을 기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북한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북한과 꼭 통일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류를 늘리고 사회 제도를 잘 갖추어 놓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같이 축구를 하자.'라고 말할 리 없습니다. 속으로는 북한을 무서워하면서 '우리 화해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 느끼고 빨리 통일이 되도록 기원했을 때 통일의 길은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이소연 누나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바라보고 별도 더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그 때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겉모습만 하나가 아닌 통일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가 된 한반도이길 바랍니다.





## 모든 이들의 소원이 통일이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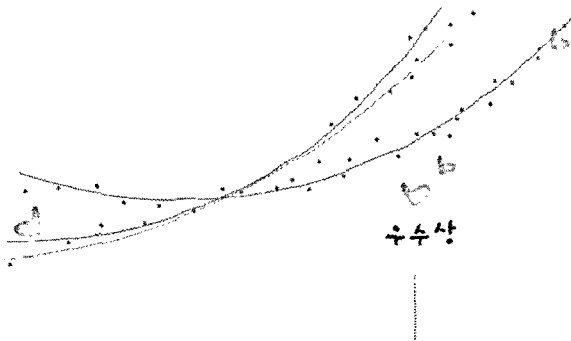
구월여중 3 · 정윤아

“짜증나.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꼭 해야 해?” 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숙제를 내 줄 때면 학생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오로지 시험만이 중요한 요즘, 우리의 미래가 달린 더욱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통일, 나는 그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은 정치·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심어 주었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인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전쟁의 공포에서부터 비민주적인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관행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대가는 실로 혹독했다. 이렇게 혹독했던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 이것을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질 수 있다. 1년에 약 18조원이었던 국방비 부담의 해소, 평화가 얻어짐에 따른 이익, 더 큰 규모의 경제가 이룩됨에 따른 경제적 이익, 남북한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됨에 따른 이익,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른 이익 등등 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완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이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초래한다며, 통일은 이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비용을 소멸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듯, 예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이산가족들

이 통곡으로 보여주었던 이산가족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민족적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지 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통일 환경의 성공적 활용 여부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해야 할 향후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통일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일찍 시작할지라도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다.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여행을 단축할 수 있는 준비과제들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남북간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 대해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단의 상황에서 생성된 이질성이 남북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 없이 상대방과 동질감을 공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상대방과 무엇이 얼마만큼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를 확인한 후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에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지 않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국들에게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출혈이 적은 통일을 바라고 있다. 그토록 원하는 평화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 코를 흘리고 다니면서도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셨다고 한다. 하지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며 요즘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통일이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다. 물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 통일에 대해 고민해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소수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한국인들이 현재 10만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줄 아는 의젓한 한국인이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통일’에 대해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할아버지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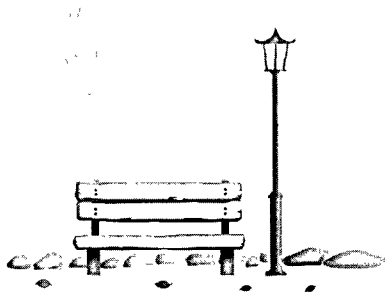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 3·이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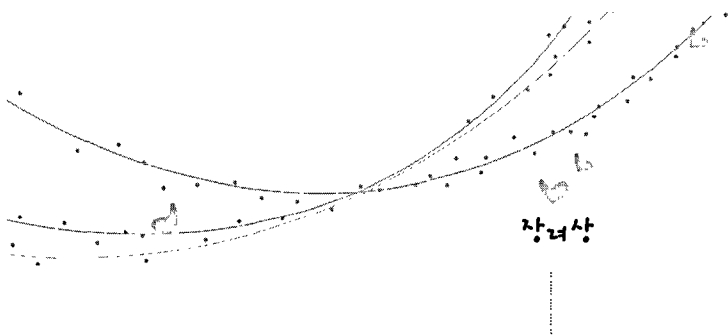
“시나나이, 어디 혼번 가보라.” 할아버지께서는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에도 이 말씀만은 또렷이 기억이 나시는 듯했다. 주치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큰삼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할아버지께서 눈을 감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이다. 17세 때 6·25가 터졌고 홀로 월남하셨다. 이듬해에는 북한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몽친 청장년이 주축이 된 ‘등기부대’에 입대하셨다고 한다. 그 부대는 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 곳에는 미처 월남하지 못한 부모님과 형님이 한 분 살고 계셨다. 천신만고 끝에 북으로 가시게 된 할아버지는 고향집을 찾아가셨다. 할아버지의 형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동생이 유격대의 복장을 하고 등장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네가 이곳엔 웬일이냐?” “부모님과 형님을 뵈시고 갈 참입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이 집안의 장손으로 네게 부모님을 모시게 할 만큼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향 땅에 뼈를 묻고 싶은 것이 아버님의 생각이시다.” 형님의 완강한 태도는 아우의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애통함과 아쉬움이 가슴에 자리하게 된 이 사건은 할아버지의 일생에 커다란 한으로 남게 되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할아버지는 백령도 일대로 철수하셨다. 휴전이 된 후 할아버지는 가족을 보시지 못한 채 결혼을 하였고, 2남 4녀를 두셨다. 성실하고 빈틈없는 성

품의 할아버지께서는 혈혈단신 월남하셨지만 제법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실 만큼 성공을 이루셨다. 그만큼 외로움도 깊었던 까닭에 자식을 많이 두신 듯 하다.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손주들은 아무도 없었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는 명절이 다가오면 안절부절 못하시고 홀로 외출을 하셨다. 고향의 하늘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그리운 곳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임진각을 찾아가신 것이란 소식을 외삼촌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금강산 관광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해라고 기억된다. 할아버지께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제일 먼저 관광을 신청하셨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북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부적격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다. 동키부대 출신이 그 이유였다. 할아버지는 번번이 입국을 취소당하셨고 상심은 날로 커져 가셨다. 더욱이 외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후에는 심신이 많이 약해지셨다. 지병인 고혈압으로 점점 기력이 쇠하신 후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다. 할아버지 댁에는 베란다 한켠에 흔들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에서 하염없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셨다.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면 인사도 받지 않으신 채 “시나나이, 어디 혼번 가보라.” 애야 어디 한번 가보자라는 황해도 사투리로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재촉하셨다.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결국 그렇게 원하던 고향땅을 한번 가보시지 못한 채 의자는 주인을 잃었다.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은 나이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왔던 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남다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문제는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떠들썩하게 시작한 금강산 관광산업도 기업의 채산성과 맞물려 가는 듯하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바람은 뒤로 한 채 역사는 마치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예의주시할 만하다. 북핵 포기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급류를



땀과 북한도 이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여세를 몰아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성공단은 그런 의미에서 한 차원 높은 접근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신의주 특구와는 달리 오로지 국내 투자자만을 위한 경제 협력 지역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2개의 공장이 가동중이다. 덕분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경제적 실리도 얻을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 극장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객석은 가득 찼으며 앵콜곡으로 ‘아리랑 환상곡’이 울려 퍼졌을 때는 기립 박수로 환호하였다. 중계방송으로나마 TV를 시청하게 된 나는 가슴이 찡하였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언론사인 MBC와 국민일보가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2, 제3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이 북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화적 교감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은 멀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할 형제다. 형제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며 행복을 꿈꾼다. 형제는 때론 다투거나 시기하기도 하지만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 다투더라도 바로 화해하기 마련이다. 남과 북은 단군 이래로 형제였으며 변함없는 한 민족, 한 핏줄이다. 남과 북이 경계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때 경제대국은 물론 문화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주인 잃은 할아버지의 의자를 볼 수 없기를 고대한다.





## 통일을 말하는 차나무 통일을 말하는 차나무

인천문학초 4 · 정예원

우리가 탄 버스는 어느 검문소에서 멈춰 섰다. “민통선입니다. 잠시 검문이 있으니 모두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라는 기사 아저씨의 안내 말씀이 끝나자 ‘헌병’이라고 쓰여진 철모를 쓴 군인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 어른들의 신분증을 검사했다. 민통선은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경계선인데 이곳을 지나면 DMZ가 나온다고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다. 검문을 마친 버스는 우리를 제3 땅굴로 데려갔다. 땅굴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서늘하고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다. 한참을 가다 철조망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벽에 막혀 돌아와야 했다. ‘통일이 되면 땅굴 끝까지 걸어서 북한으로 관광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우리는 민간인이 가장 가까워서 북한을 볼 수 있다는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망원경에 500원을 넣고 북쪽을 보기 시작했다. 나도 발 받침대에 올라 망원경에 눈을 뒀다. 망원경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북한을 보려고 애를 썼다. “와, 보인다.” 내 눈에 먼저 들어온건 인공기와 태극기였다. 높이 매달린 인공기가 신기했다. “어, 차 지나간다. 근데 사람은 안보여.” 난 정신을 집중하고 다시 한번 북한 땅을 훑기 시작했다. 그때 내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애, 꼬마야.” “어?” “꼬마야, 이쪽이야.”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소리가 나

는 쪽을 내려다보니 전망대 담 너머에서 팔랑거리는 나뭇잎이 보였다.

“이제 내가 보이니?”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 내게 “놀라지마, 난 여기 사는 참나무야. 너 예원이 맞지?” “어? 응…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아까 너희 부모님께서 널 그렇게 부르시던데?” 놀라 두근대던 내 심장은 어느새 안정해져 있었다.

“망원경으로 뭘 봤어?” “인공기랑 태극기, 근데 왜 저렇게 높아?” “북쪽 기정동 마을이랑 남쪽 대성동 마을이 계양대 높이로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저렇게 놓아진거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양대가 되었다고 하더라.” “웃긴다. 뭐 그런 걸 갖고 경쟁을 하나?” 재미있어 하는 내게 참나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슬프지 않니?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국기를 갖고 경쟁한다는 게 말야.” 난 그제서야 아픈 상처를 갖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족이라는 걸 잊은 채 나들이 나온양 들떠있는 내 마음이 부끄러웠다.

“예원아, 넌 몇 살이야?” “11살.” “학교 다니겠구나” “응, 4학년이야. 곧 시험이 있어서 걱정이야. 북한 애들도 시험 보나?” “그럼… 1,2학년은 퀴즈를 풀고 3학년부터는 일년에 두 번 본대.” “세상 어디나 시험은 있나 보다.”

“어, 어… 으악… 크크… 악… 히히…” 갑자기 참나무가 가지를 꼬며 웃다 찡그리다하며 괴로워했다. “왜, 그래?” “아이, 이제 됐다. 산양이 와서 내 밑동에 빨을 들이받더니 오줌 싸고 갔어.” “우와, 산양? 산양이 살아?” “그럼 독수리도 사는데…” “멋지다.” 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참나무가 부러웠다. “그런데 여기는 지뢰가 많이 묻혀 있어서 위험해. 얼마 전에도 멧돼지 가족이 소풍 가다가 셋째가 지뢰를 밟아 죽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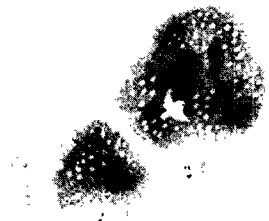
그때 박새가 푸다닥 날아와 앉았다. “참나무야. 수리 부영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저 멀리 신양에 사는 국수장수가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을 했다.” 참나무와 나는 깜짝 놀랐다. “왜?” “배가 고파서 그랬다던데… 난 바빠서 이만.” 박새는 뭐가 그리 바쁜지 후다닥 날아가 버렸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난 이해가 안됐다. “으응. 재작년, 작년에 계속 북한에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는데다가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주던 식량까지 핵무기 때문에 중단되어 굶어죽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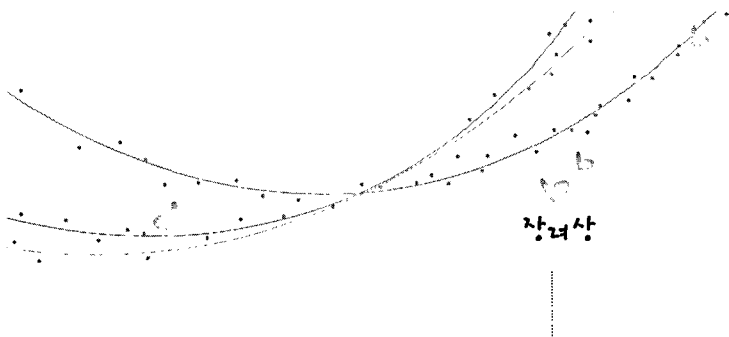


휴게소에서 먹다 버린 음식이 생각났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버렸던 것들이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예원아!” “정예원, 빨리 가자.”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참나무야, 나 가야겠다.” “그래! 잘가. 다음에 만날 때는 너와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자랄게.” 팔랑대던 참나무 잎이 잦아들었다.

“빨리 와. 그냥 간다.” 엄마의 재촉에 나는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달그락, 달그락’ 군인아저씨가 망원경과 발 받침대를 정리하는 소리마저 멀어지고, 내 머릿속엔 자유로를 지날 때 보았던 ‘평양·개성’ 도로 표지판이 떠올랐다. 그 표지판을 따라 달려 북한에 갈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





## 알에서 깨어나기

인천관교여중 1 · 이진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새는 알을 파괴해야만 더욱더 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괴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을 부수거나 싸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고정관념을 파괴하지는 겁니다.

남한의 바로 위엔 북한이 있고 북한의 바로 아래엔 남한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남극과 북극처럼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등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있지만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는 지금 한국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들 나라의 여자와 우리나라의 총각들이 결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왔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아주머니들은 우리들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나쁜 생각을 하고 일명 '빨갱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른들은 북한말만 나오면 '불쌍하다, 못 산다'고 합니다. 전

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른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많은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연은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잘 적응하면서 그 건강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종이 침입하더라도 생태계는 그 변화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하지만 생태계에서 소수의 종이 대응을 못하면 생태계는 파괴되어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생태계의 질서처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는 적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더 다양하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고 서로 친근하게 사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륙으로 이루어진 유럽이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통일을 하여서 한 대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머리, 옷, 컴퓨터 등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은 지금까지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고, 만나거나 접촉한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북한에 가곤 합니다.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갑니다. 이것을 보고 남과 북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남북 정상 회담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간부 수련회를 북한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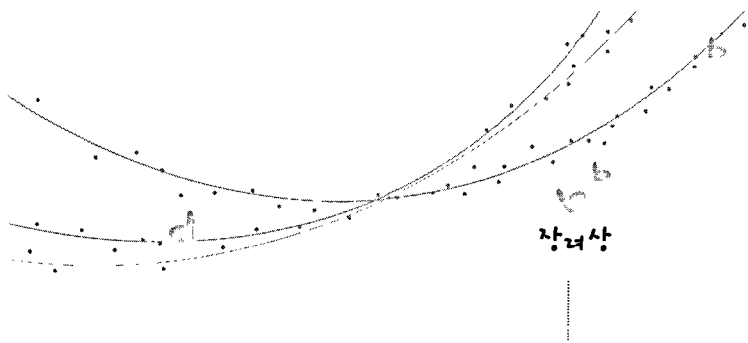
전쟁 이후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 서로 비방하며 적대시 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나라가 분단된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통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편견과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





니다. 서로 만나고 접하고 교류합니다. 어서 빨리 과거의 아픔을 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더 큰 세상을 보고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새가 새로운 세계를 날듯이, 우리  
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열린 세계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인명여고 3 · 심지수

지난 9월 강화도에서 '제4회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7돌을 기념하여 기획된 행사로, 1박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는 '인천시청 청소년 웹진 MOO'의 기자로 취재하러 갔다. 우리는 2주 전 편집회의를 가졌다. "다음 달에 통일염원 행사가 잡혔는데 우리 부스에서 뭐 할까?" "통일염원 UCC 콘테스트 어때요?" 우리는 홍보 판넬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매년 치르는 행사쯤으로 치부했다. 첫 날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송해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통일염원 청소년 대장정'이라는 이름 아래 민통선을 거쳐 상승연병장까지 6km에 이르는 행군을 하였다. 해안을 끼고 줄지어있는 철조망을 보며 분단의 현실을 사백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느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더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오만원~'이라는 옛날 노래도 생각났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되는 이 지점은 서부 전선의 최전방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북한 개성시입니다." 우리는 힘든 기색 없이 모두 관제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전국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통일염원 글짓기, 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있었다. 나는 전체 촬영을 맡아 곳곳을 돌아다녔다. 특히, 한줄 소원 쓰기의 하얀 현수막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 친구랑 사귄래요' 등 청소년들의 작은 마음들로 채워

지는 것을 보며 통일의 출발이 느껴지는 듯하였다. 나도 한 줄 적으리라 펜을 든 순간, 고향을 가슴에 묻은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분단의 시간이 지속되어 나같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나라가 꼭 차게 된다면, 더 이상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을 우리나라를 상상하자 끔찍했다. 나는 고심 끝에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입니다.'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또한 청소년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의견은 제각각이었지만 하나는 같았다.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청소년들은 통일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무대는 전국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상이 끝나고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그러나 관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여 통일염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관객석이 스텝들 몇 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평양예술단은 약간 지연된 무대 시간을 미안해했지만 빈 관객석 앞의 언니들에게 내가 더 미안했다. 공연을 보며 처음 울어 봤는데, 이렇게 값진 눈물은 괜찮다고 위로하며 혼자 더 펑펑 울었다. 평양예술단의 공연은 내가 본 공연 중에서 정말 최고였다. 사실 내가 평양예술단의 노래를 알아듣는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순간, 북한말과 우리말이 다르니 통일이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않느냐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고 싶을 정도였다. 통일의 당위성을 가타부타할 이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동포애요 형제애였다. 1+1=1이란 물방울 공식이 이럴 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가슴부터 뜨거운 것이 피를 타고 온몸을 휘도는 감동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이 나의 일로 다가왔을 때 느낀 놀라움과 오묘한 아픔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의 힘찬 응원을 알아준 평양예술단 언니들은 우리와 사진도 찍었다. 이렇게 1박2일의 행사를 마치고 시청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하였다.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듯하였다. 항상 즐거운 촬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 즐겁고 진지하였다. 시청에 도착하자 짐을 풀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다운받았다. 하나씩 살펴보며 상을 가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특이했던 것은 통일 연극이었다.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한 아이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듯하였다. 대상은 성대모사와 노래로 통일을 염원한 두 학생에게 돌아갔다. 한 학생이 기내 안내방송을 따라하였다. ‘기내에 계신 여러분 이제 곧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예정이오니 힘찬 박수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후 다른 학생은 가요에 가사를 바꿔 불렀다.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그날까지!’ 이 영상을 보다가 ‘정말 통일이 되어 이런 방송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된다면...’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행사 자체의 사실보다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이 더 많아 놀랐다. 기사쓰기를 접고 일기장을 폈다. 다시 보기 힘들지도 모를 평양예술단 언니들과 찍은 사진을 일기장에 붙였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참동안 끼적거렸다. 전국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같은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통일염원 행사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대신에 통일기념 행사로 탈바꿈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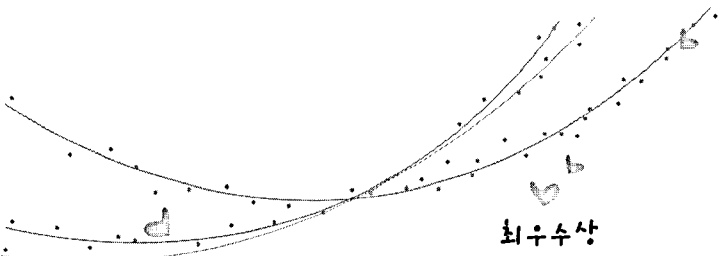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개성관광을 하고 나서 \_ 115
- 한반도는 하나 \_ 117
-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_ 120
-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 \_ 124
- 평화통일을 바라며... \_ 126
- 한반도 허리의 흉터, 휴전선 \_ 129
- 국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통일 \_ 131
- 남북학생 교류캠프 \_ 134





최우수상

## 개성관광을 하고 나서

광주서초 5 · 박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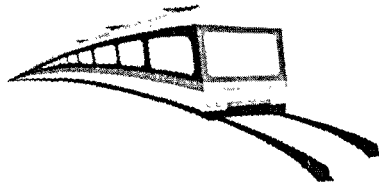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소원은 무엇일까?

나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약50년 동안 분단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 통일을 한다면 큰 혼란을 겪겠지만, 나는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런 혼란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해왔는데 그 중에는 요즈음 화제가 되었던 남북 2차 회담을 비롯해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등이 바로 우리가 일구어낸 결실이다. 이중에 나도 개성관광을 다녀왔다. 개성관광을 할 때는,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되었다. 나는 관광을 하며, 비록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산업의 발달 등이 늦고, 아직 가난하게 살지만, 그곳에는 소중한 우리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이 힘을 합치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남한의 자본이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경제국가 대열에 오를 수 있고 또 인구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5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대신 공산화 되어 살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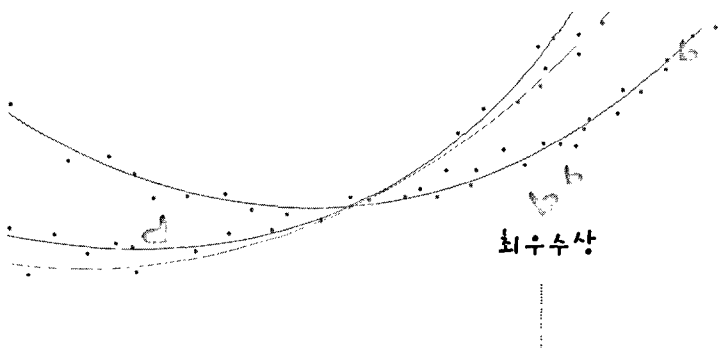
더욱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빨리 되어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겠다.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큰 혼란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혼란이 찾아온다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기필코! 통일은 오고 만다.

우리의 통일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만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통일은 몇 년 후에 찾아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요즘엔 북측의 핵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폭력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문제는 양보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의 바람대로 문제들을 하나, 둘,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씩 양보하고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얻는 통일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어떤 힘도 쓰지 않고 통일을 한다면 우리의 민족성도 알려질 테고, 우리는 서로 기분 좋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원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 하바도느 하나 한 한 한

조선대학교부속중 2 · 김민우

“민우야, 형 군대 간다.”

서울에 사는 사촌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은 공부도 매우 잘하고 착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주 자랑삼아 이야기하신다. 그런 형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군대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내 주위에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나오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군 입대를 기피하려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당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왜 남자는 군대에 가야하며, 몇몇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인지 궁금했다.

나의 아빠나 큰아빠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 그런 것을 보면 군대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군대 이야기를 하시는 두 분의 모습에는 광채가 나는 듯했다. 서로 자신의 부대가 더 좋다는 이야기에서부터 훈련을 나갔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 군대에서 먹었던 짬밥 등등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두 분에게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재거리였던 군대가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분단의 현실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젊은 이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나의 젊은 미래와도

연결되어 생각되는 문제이다. 우리가족은 사단장이신 아빠 선배의 초청으로 전방 부대 견학을 갔다. 광주를 출발해 강원도 인제군까지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밤늦게 도착했지만 꽤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단본부 시청각실에서 홍보 비디오를 관람하고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영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매우 힘든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한가하게 탁구를 즐기는 군인들과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군인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또 웬만한 물건들은 모두 갖춘 피엑스와 2층 침대가 놓은 내무반,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실 등 모든 게 내가 생활하는 도시의 환경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긴장감이 감도는 훈련장이나 내무반 사물함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군복과 군화, 철모 등을 보면서 엄격한 규율과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 지내니. 엄마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통일전망대였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휴전선 인근 산하는 겹겹으로 쌓인 철책선만 없다면 평범한 산과 강이었고 포근해 보이기도 했다. 도저히 저 땅을 지키기 위해 그 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며 젊은 청춘을 보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서 찾아간 땅굴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었고 정교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걸 만들 때만 해도 정말 옛날이었을 텐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니 새삼 북한의 터널을 뚫는 실력은 대단하다고 생각됐다. 땅굴을 따라 들어가는 내 마음은 어두운 땅굴만큼이나 무겁고 음침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만한 작은 땅굴을 평화를 위해 매진하였다면 나의 사촌형이 군대에 가지 않고 젊은 시절을 꿈을 가꾸는 시간으로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오케스트라가 평화를 위해 연주회를 하는 요즘에도 사회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단된 우리 조국의 통일관에는 남북간의 많은 이해가 서로 엇갈려서 국가도 우리 학생들도 혼란스럽지만 생활이 어려운 북한에게 우리의 주장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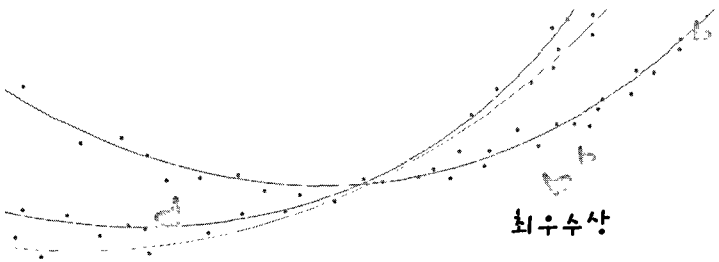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는 통일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누나가 한 말이 생각난다.

“우주에서 바라 본 한반도는 하나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 한반도는 하나였다. 이제는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해 나의 사촌형처럼 모두 열심히 이 땅을 지켜내는 숙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하나이기애……





## 이어버리 바쁘으 차아 관 N N N 큰 조

전남여자상업고 1 · 박주희

통일,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듣고, 그 만큼 글짓기도 많이 하고 관련된 글과 영상도 많이 봤지만 난 아직도 그 통일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 통일이 되어야 좋은지 통일이 되지 않아야 좋은지 아직도 갈팡질팡한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나이의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사실, 글짓기나 산문에서 보면 모두들 통일이 되어야 한다곤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보이는 대답일 뿐, 모두들 그 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는 그냥 막연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내가 당하지 않고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된다. 58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역사의 중간에 큰 비중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에 감당하기 힘든 마르지 못했던 피의 전쟁. 다수의 평화보다 소수의 욕심이 불러온 전쟁.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잊혀지지 않고, 더 고통으로 남는 게 6·25전쟁이다.

다른 분단국가들은 모두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백년동안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말하면 쉬운 일일 것이다. 휴전선만 갈라서 서로 왕래하면 간단하게 통일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우스갯 소리일 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두 나라

가 한나라로 합쳐지려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다.

서로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빈부격차와 대통령이며 국기며 언어며 비용 등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통일을 미루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그저 휴전을 낸 것 뿐이라는 게 조그마한 걱정이라면 걱정일 것이다. 가끔 인터넷 뉴스 등을 볼 때 북한의 PC방이라든지 북한의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문화를 봤을 때 항상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문화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가졌다. 그만큼 북한과 남한은 달랐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다. 이러한 문화 차이를 없애고 통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실현시키려면 우리 민족의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을 하면 좋은 점들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일은 왜 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통일은 누구랄 것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손뽁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당연한 것이다. 한나라가 갈라지는 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둘째,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잊지 못할 아픔들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닌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그야말로 남북으로 찢어진, 만나기 어렵더라도 가족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위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신 분들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가끔씩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전에서 해줄 때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슬픔을 미처 다 표현하지도 못하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겪지는 못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픔과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곤 했었다. 아빠도 가끔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는데, 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 항상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저렇게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냥 북한을 개방해서 다 함께 만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더욱더 그리움에 사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한다.

셋째, 경제적으로나 우리민족의 영향력으로나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긴다.

북한과 남한이 합해진다면 영토 또한 넓어질 것이고, 자원 또한 풍부해질 것이다. 또 국방력도 강해지고 자원도 풍부해지며,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언어 또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나 외국어로 많이 묻든 남한의 언어를 순화시킬 수 있다. 통일이 된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고 강대국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위의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통일이 된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좋은 점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였을 때보다 둘이었을 때 더 많은 이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북한아이들과 퀴즈 맞추기 프로그램을 보고 남한이 북한에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언어는 비록 조금 달랐지만 북한 친구들의 모습이나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똑같은 생김새와 한민족이라는 생각에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북한에 마음을 열어주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남한의 모습이 보기 좋다. 어려운 북한과 서로 나뉘가며 한민족이라는 주제를 거머쥐고 통일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하루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마음을 표현해야겠고, 북한의 조그마한 의견도 경청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통일이 되기 위한 자그마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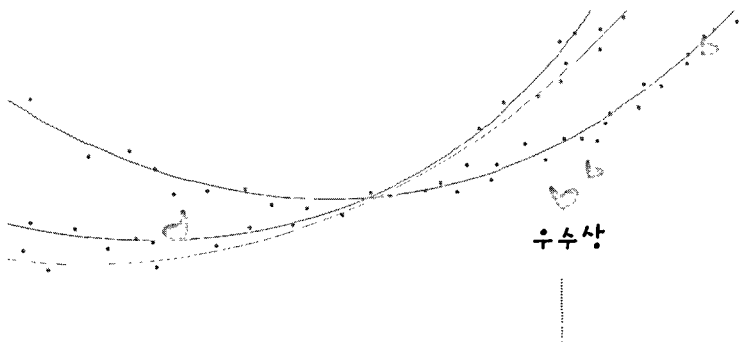
나는 사실 막상 통일이 되면 세금도 늘고 언어며 국기며 대통령이며 모든 게 바뀔 거란 생각에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글을 쓰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점점 완화되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이 없어지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아닌 평화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반쪽짜리 땅이 아닌 진정한 한 마리의 호랑이를 의미하는 한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분들의 소망이 한층의 흙으로 날아가지 않게 미래의 주역인 우리들이 나서서 북한 돕기에 협력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 으르렁거렸던 지난 과거들... 가슴속에 피멍이 들었을 이산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그 그리움을 못내 지우고만 살아야했던 슬픈 지난날들, 이제는 그 상처들을 서로 감싸줘야 할 때이다.

다른 나라들이 알려주는 교훈으로 우리 민족과 사회를 모두 통합하는 한 민족을 기대하며, 어려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손 잡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때에 우리민족의 통일은 꼭 올 것이다.





##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 우수상

대자초 6·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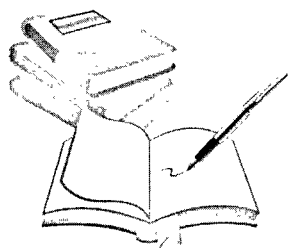
우리학교에서는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간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해보고 싶어서 나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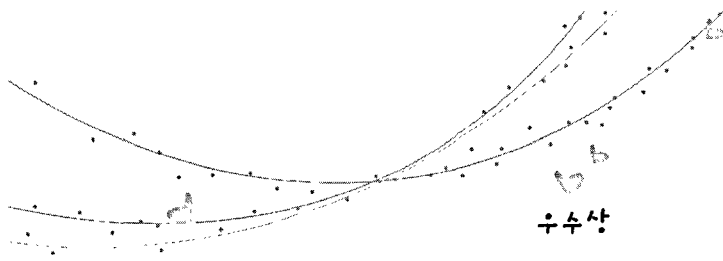
우선, 통일하면 생각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아마도 이산가족상봉도 할 것이고 관광문화도 발전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만약, 통일을 하게 되면 나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도 해보고 서로 북한 말 남한 말을 알려주고 게임도 하고 미국말 영어도 배우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싶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이고 남북한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할 지 모른다. 이때 빨리 통일이 되면 전쟁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는 단일민족이다. 북한에는 산지가 많고, 남에는 평야가 많다. 북에는 지하자원이, 남에는 식량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져 있으니 알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식량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이 필요하다. 이럴 때 통일을 하면 서로 나누어 쓰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은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도 공업기술이 낙후되어 적절히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공업기술과 공장을 이용해 좋고 우리생활에 편리한



물건과 여러 가지를 만들며 지내면 좋을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인구 7천만의 인구대국이 되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풍부한 인력이 합쳐져서 아시아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국방에 쏟아 붓던 천문학적 돈을 국가발전에 돌린다면 한반도는 얼마든지 세계강대국의 대열에 들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을 바란다. 남북분단의 고통에 관한 내용을 어머니께서 6학년 때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난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을 넘어와서 생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약500여만 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공산군의 사상자는 150~200만 명에 이르렀다. 전쟁 기간 중 남한에서도 약25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로 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산가족을 보면 우리도 슬프다. 그런데 이 경험을 직접 겪은 이산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이 이산가족들이 통일해서 만나면 서로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릴 것이다. 정말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할머니가 작년 여름에 금강산을 다녀오셨다. 북한산의 동서 길이는 40km이고, 남북 길이는 약 60km이며 면적은 약 530km<sup>2</sup>이다.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오봉산옥녀봉, 산등봉, 선창산, 금수봉, 서쪽에는 영랑봉, 용허봉 남쪽에는 월출봉, 일촌봉, 차일봉, 박마봉 동쪽에는 세춘봉 등이 솟아 있다. 미국도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남북전쟁을 해서 북쪽이 이겨서 다시 통일되었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통일하는 것보다, 말로 설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통일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평화통일을 바라며...

전남여자상업고 1 · 한정수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 이라고 인터넷 사전에 요약되어 있었다. 짧고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해 놓았지만, 이 감정 없는 문장이 우리 한민족의 약 60여 년간의 아픔을 말할 수 있을까?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어릴적 헤어진 오누이는 잠시 38선을 건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집안에서는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남의 일이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점차 어른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쓴 책들도 두루 접해보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애환의 영상도 보게 되었다. 따분할 것 같던 책들과 이산가족상봉의 영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였던 나의 마음을 흔들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내게 평화통일을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현재도 나는 여전히 통일 찬성파이다. 하지만 나 살기도 바쁜데 북한까지 먹여 살릴 힘이 없다고 볼멘소리하는 통일 반대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남한과 북한의 빈부격차나 문화차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예를 들면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렇다.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남한은 북한보다 잘 산다. 공산주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민주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만약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찌들어있던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민주주의에 갑자기 잘 적응할리가 없다. 그리고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60년이라는 세월에 걸맞게 아주 많이 달라져있다. 사회 부적응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떠맡아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같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이득이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통일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된다.
3.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4. 휴전상태인 남북관계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인력과 국력의 낭비를 막아 국가발전을 할 수 있다. 미군 주둔 비용이 없어지고 국방비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6. 교과서에도 늘 나오는 내용이지만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7. 북한을 통해 러시아로 가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일을 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손 놓고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한시라도 빨리 닦아주고자, 통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 통일의 노력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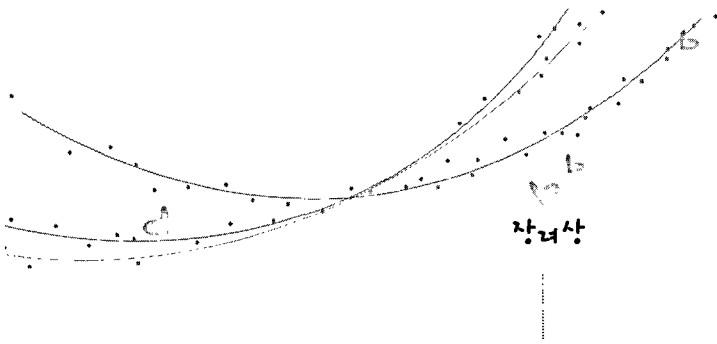
1. 시드니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하여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가 그려진 기를 앞세우고 나란히 입장한 것
2. 평양의 예술 공연단이 서울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펼친 것

3. 남북이산가족상봉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이해를 향상시켜감과 동시에 민족의 동질성을 직접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4. 북한의 식량 부족난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한 것
5. 방송에서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ex: 느낌표, XX코너) 등을 많이 제작한 것 등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혼자서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살림이지만 북한도 나서서 통일을 앞당기고 있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없었다면 시드니 올림픽 때 뭐하러 몇 차례씩이나 서울을 다녀갔겠는가. 양측이 이렇게 조금씩 통일을 당기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특히 대중매체의 힘은 막강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북한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남한 연예인과 북한 연예인의 합작영화라든가, 북한에선 남한방송이 남한에선 북한방송이 나온다고 말이다.

지금 2008년 휴전선이 그어진 지 오래지만 남북 양측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일처럼 일방적인 흡수도 원하지 않고 어떤 나라처럼 반강제적인 상하관계도 싫다. 남과 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손잡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통일된 어느 날, 미래의 내가 이 글을 읽으며 그땐 그랬었지 하고 이 글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회상할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 한반도 허리의 흉터, 휴전선

봉선초 5·전미나

우리들은 살다가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잘못된 판단 중에는 ‘남북분단’이 있다.

우리에게 6·25 전쟁과 통일이라는 것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익숙해진 말이다.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나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동영상에는 남한 할머니와 북한 할아버지께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끝나서 이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마께서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거라서 언제 다시 6·25의 고통이 시작될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쌀 등을 북한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문화, 체육 분야 등을 통해 서로 한결غم씩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만약에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들과 남한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어렸을 때는 언어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싫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더 재미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다른 점을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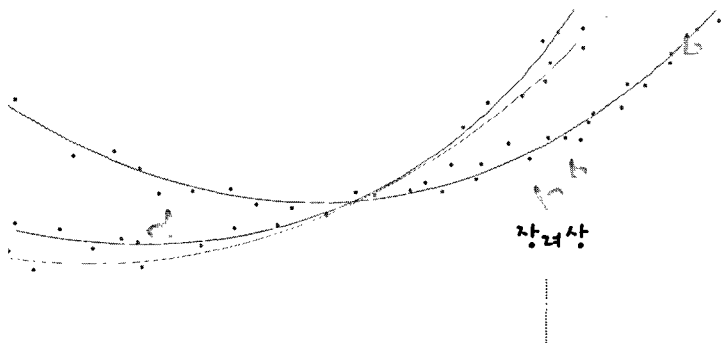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북한 측에서 핵이 있다고 위협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화해를 하는가 라는 기대감을 품으며 기뻐할 무렵 이런 선전포고를 하니 더 배신감과 원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북한도 우리의 마음을 더 이해해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겨레, 동포, 핏줄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다. 대체 왜 싫다는 걸까?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대국도 될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결코 다른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겨레, 동포인 것이다. 하나 된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국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통일

신창중 2·유미리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통일과 분단이라는 말이 무슨 공생 관계라도 되는 듯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과, 또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휴전선에 의해 두 나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만나지도 못하는 분단의 현실을 나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볼 때마다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학생의 자세라고 생각해 왔고, 심지어 통일을 향한 완벽한 자세를 갖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어쩌면 그 자신감이 내가 '통일'이라는 말을 어느 무엇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부심과 열성을 무너뜨려 버린 계기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도덕 수업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때의 도덕 수업이란 대부분 바른생활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덕 수업을 제일 지루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내 친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마지막에 '통일'에 관련된 단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통일'이라는 단원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수업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항상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원을 지겨워했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

이들의 얼굴이 굳어지거나 아예 넋을 놓은 채로 수업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당시 나는 최대한 올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때의 그 지나치리 만큼 올바른 수업 자세가 통일을 향한 본능적인 한국인의 자세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동안 쌓아 왔던 나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학생의 자세였는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단지 그런 행동과 자세가 당시의 나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나 자신만의 '의무'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러야 했다. 그동안 읽고 또 읽어 온 통일 단원의 지문들은 그저 친구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지루한 '글자'로 다가왔을 뿐이었다. 그것을 읽고 통일의식을 지녀야 할 친구들은 통일의식은 커녕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업이 그들에게 쓸모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껏 교과서에 나온 지문과 설명만을 열심히 외우고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나의 모습에 괜한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통일의식을 갖춘 국민이라고 만족해하는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런 내 자신이 친구들을 비판한다는 것도 이상했다. 한국인으로서 통일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자만해 왔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는 내가 친구들에게 느꼈던 분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이 된 나는 내가 통일의식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등의 말이나 생각은 일절 하지 않으며 그저 통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의지로 모든 방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날의 어리고 자만했던 나를 틈틈이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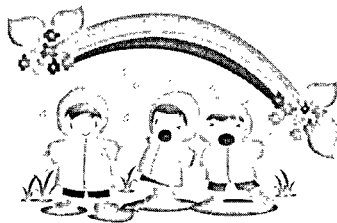
휴전선이 우리 국토를 반으로 갈라놓은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고,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났기에 분단의 슬픔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직접 느껴 본 사람들보다 분단의 슬픔을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갖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만큼 많은 어려움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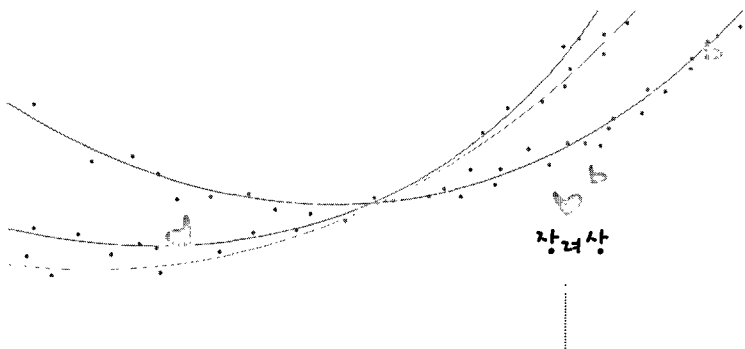




는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 중에는 자신들이 겪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민족’의 슬픔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슬픔으로 간주하고, 통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현재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무관심을 불러 온 것이다.

남북의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막상 그들은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통일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통일의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어린 나와 내 친구들처럼 말이다. 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또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한민족으로서 통일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질감을 떨쳐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환경과 사고방식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한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인정하며 이에 따른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식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올바른 통일의식을 갖추고 산다면, 언젠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학생 교류캠프

동아여고 2 · 이하영

치-익 칙칙칙칙.

역은 들어오고 나가는 기차들과 그 기차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막 정지한 기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난 또 북한의 기차역은 온통 빨간색 치장이라도 되어있을 줄 알았지.

기차가 오고 가는 레일과 그 사이에 위치한 조금 널찍한 플랫폼. 반대편 레일로 또 다른 기차 한 대가 들어왔다. 슈욱- 소리를 내며 천천히 멈추는 기차는 마치 흥분을 갈무리하는 황소를 연상케 했다. 작은 짐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행들이 모이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 오자마자 돌아가고파.

“다녀 오거라.” 아버지께서는 하얀 종이를 책상 위로 툭 던지셨다. 어쩐 일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내 방문부터 여시나 싶었다.

「남북학생교류캠프모집」

“이번에 우리 연대로 보내온 안내서다. 경의선 개통을 기념해서 평양의 학교와 학생 교류를 계획했더니 너도 참가해서 북한에 대해 한번 겪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경의선 개통은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홍보 행사 같은걸 계획했을 줄이야. 캠프에 가는 것은 제안도 권유도 아닌 명령이었기에, 나는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타령 아무리 해봤자 통일되려면 아직 먼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진 평생가도 고향땅 못 밟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 지난 할아버지 생신 때 저지른 만행. 할아버지께서 이미 수없이 반복하셨던 ‘가지 못할 위쪽 고향’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실 때 질러버린 외침이다. 뭐가 그리 짜증스러웠던 걸까. 할아버지의 생신과 시험기간이 겹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고, 반드시 가족행사는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가칙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 대비 못한 건 내 책임이고, 더더군다나 6·25때 가족과 헤어져 홀로 자란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고, 시험 일주일 남기고 제대로 끝낸 과목이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 내 과실이였다. 나는 짜증 낼 자격이 되지 못했었다.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뭐?”

“아, 아냐.”

나의 혼잣말에 잠시 반응했던 옆의 아이가 다시 본래의 관심사로 시선을 돌렸다. 눈앞의 신기한 것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일행은 북측에서 온 사람들과 합류하니 약 서른 명쯤 되었다. 우리 쪽 학생이 12명, 저쪽에서 13명, 양쪽 인솔 교사가 1명씩, 마지막으로 북측 안내원이 있었다. 쉽게 한 학급 정도의 규모가 되어버린 일행에 왜 학생을 열 명쯤만 받았는지 알 것 같았다. 일정은 마치 수학여행처럼 움직였다. 이동하고, 멈추고, 보고, 안내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딴 짓을 했다. 처음엔 남한 쪽 학생들만 딴 짓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군기가 바짝 들었던 북쪽 학생들마저 흐트러졌다. 아무래도 옆에서 노는 애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다. 마지막 코스인 문루에 와서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모두 한귀로 설명을 흘리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설명을 듣고 계신 눈치는 아니었다. 문루 내의 누각에 도착한 게 오후 늦게쯤이었는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숙소로 내려가기로 되어있었다. 나는 앉기 편해 보이는 편평한 바위를 찾아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발밑으로 평양시가 보였다. 멀리서도 시내의 복잡함과 회색 건물을 휩싸고 있는 붉은 천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 붉은색에 글씨체도 부담되는 모양이다. 그 서



체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남북학생 교류임을 고려해 지나치게 원색적인 일정지는 없었지만, 한 번씩 비치는 안내원의 김일성·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어투도 그렇고 커다란 건물을 온통 휘감은 찬양의 글귀도 그렇고 마치 외국 아니 별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

‘역시나 이런 곳엔 오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북한에 관심이 없었다. 통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는 것은 할아버지였다. 아버지가 평화통일 연대회원인 것도 할아버지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통일과 관련된 것에 대해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할아버지나 이산가족을 두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고 있는 내 코가 석자요 중요한 문제는 통일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성적이었다. 그래서 교류캠프에 와 있는 것이 의미없이 느껴지는 것이다.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누군가 사진을 찍자고 불렀으나 거절했다. 잘못 왔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바닥이었던 지난 기말고사를 떠올리니 한숨만 나왔다. 차라리 혼이 나더라도 오지 못하겠다고 버텨야 할까.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듣다가는 청력에 훼손이 오겠습니다, 동무.”

“!”

귓가에서 노랫소리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어투의 말소리가 들렸다. 왼편에서 머리통이 파르스름해 보일 정도로 바짝 짙은 머리를 한 북한 학생 한 명이 이어폰을 뽑아 제 귀에 대보고 있었다. “아... 아니 뭐 됐어.” 라고 얼버무리자 그 애는 “그렇습니까?” 라며 씩 웃었다.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듣는 양상이 되어버려 어색했다. “가서 안 놀아? 사진 찍고 노는데 다들.” 하고 쫓으려 했더니, “그러는 동무는 왜 안 찍습니까?” 라고 반박당해 도리어 할 말이 없어졌다. 음악이 바뀌었다. 대화가 바뀌어 흘러갔다.

“아... 이거, 비틀즈의 yesterday 아닙니까?”

“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래 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앤 다시 씩-하고 웃었다.

“영국 팝송을 안다고?”

“여기서도 이런 걸 듣는 게 가능하단 거야?”

“몰래 구하는 수가 다 있지요.”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애는 의뭉스런 미소를 띠었다. 딱딱한 존댓말만 쓰더니 처음으로 또래 같아 보였다.

“왜 아까 본 평양 인민들 옷차림이 의외로 양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북한사람은 한복만 입을 줄 알았는데 평양거리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활기 찡고, 서양식 정장차림으로 많이 지나다녔다. 생각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

“실은 저희들도 의복으로 티셔츠와 청바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에서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라고 단속하는 조치를 취해서 내놓고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도 우리 같은 캐주얼 차림을 한다고?”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사실 북조선에 남조선 문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몰래 중국을 통해 들여오지요. 제 말투 그래도 듣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예술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북한에 대한 생각과 같은 면도 많았지만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까지도 했다. 가설은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설로만 받아들여라. 문득 사문 수업시간에 죽어라 외웠던 개방적 태도의 자세 중 하나가 머릿속에 쓰여졌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 일자리가 무조건 주어지고, 그래서 학교도 쉽게 다닐 줄 알았다. 그러나 파르스름한 뒤통수를 쓱쓱 문대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 맨 처음 학교입학- 인민학교입학 때부터 성적과 출신성분으로 나눈다고 했다. 교과목 중엔 제2 외국어로 영어나 러시아어가 있고 컴퓨터 교육도 있었다. 그 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라 노력 중이라 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중간밖에 갈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발탁되어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씨-익- 조금 어설피 씨익이었지만-. 입시에 시달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민둥 머리와 덩수룩한 머리가 나란히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이! 거기 둘! 단체사진 한방 박는데 이걸 찍지?”

누군가가 기념사진을 크게 찍자며 우리를 불렀다.

“어라, 아깐 안 찍는다고 빼던 녀석이잖아? 뭐가 좋아서 이번엔 그렇게 실실 쪼개냐?”

카메라를 들고 예약 조정을 하던 애가 아는 척을 하였다.

“아아 그냥.”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 생활은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흘러간다. 캠프에 다녀와서 변한 것이 있느냐면 겨우 2박3일의 일정으로 뭐가 그리 변할 수 있었겠냐고 대답하겠다. 다만, 사진첩에 민둥 머리 친구가 추가되었고, 더 이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싫지 않을 뿐이라 대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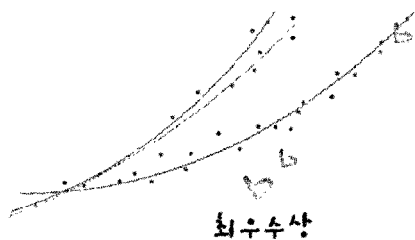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N극과 S극의 대화 \_ 141
- 진실한 하나의 바람 \_ 144
- 작은 바람 \_ 147
- 되찾은 우리 땅 \_ 150
-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_ 152
- 돌에서 하나로 \_ 154
- 형제들의 손을 잡게 하소서 \_ 157
- 하나 됨을 소망하며 \_ 159
- 마음 속 38선도 무너졌나요 \_ 162







## N극과 S극의 대화

대전판저초 6 · 박세연

좀 이르다 싶은 여름 별이 아파트 큰 창으로 뜨겁게 들어오고 있는 토요일 오후……

거실 테이블 끝자락에 자석 한 개가 등그마니 놓여있습니다. 동생들은 소파에 앉아 장난을 치고 있고, 나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TV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광경이 바로 옆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석이 옥신각신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석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듣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N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휴, 정말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까 보니까 말야, 북한이 남한을 공산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새벽에 쳐들어 와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대.”

“지금은 휴전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담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새삼스레 통일은 왜 하자는 거야?”

S극은 답답하다는 듯 복장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니? 남과 북은 원래 한민족이었잖아. 분단국가가 되면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겨나게 됐잖아. 이산가족의 슬픔은 비단 이산가족의 아픔만은 아니라고 봐. 그리고 남과 북은 하나의 언어, 역사, 문화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을 해야지.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통일을 하면, 이 지구상에 분단국가가 없어져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구…….”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자석이, N극과 S극이 자기들끼리 말을 한다. 그런데 6학년인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좀 더 들어봐야겠다.’

S극은 말을 이어 계속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하지 않으면, 남과 북이 이념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달라져 있어서 격차가 점점 커질 거야. 그럼 통일의 길도 그만큼 멀어지겠지. 그래서 통일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구.”

“오호!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구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

“글쎄……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열고, 남북한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지.”

“맞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

“그래, 그것이 다 통일을 위하여 하는 노력들이야.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작고하고 안계신 윤이상 선생님 이야기야. 선생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으로 범민족 통일 음악회 개최에 힘을 쏟았다고 해. 그 결과, 1990년 가을에 평양과 서울, 그리고 해외에서 ‘범민족 통일 음악회’가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대. 우리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렇게 똑똑한 자석은 처음 보았습니다.



‘자석이 어떻게 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TV로 보는 것보다 재네 말을 듣는 게 더 이해가 잘된다.

이번에도 S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맞아. 하지만 어려움도 많다고 그러던데, 통일이 되면 남측이든 북측이든 자신의 습관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이념을 바꾸기 어렵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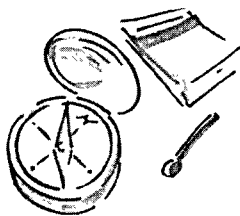
“응. 독일도 동과 서로 나뉘었다가 통일이 되어서 좋기는 했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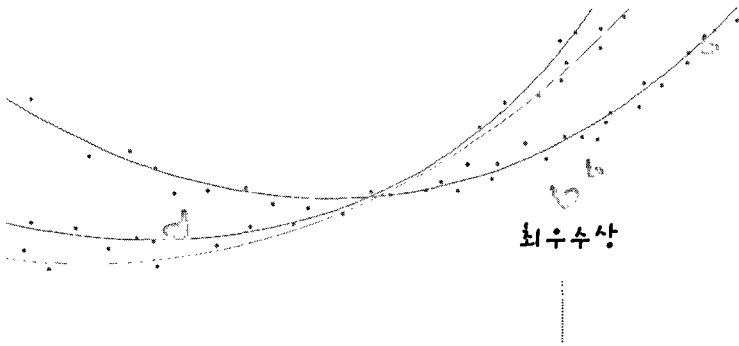
“그래도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북한의 천혜자원과 남한의 기술자원이 합쳐지면 세계강국이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남북이 하나가 되면 스포츠 강국이 되는 것도 그렇겠지? 한반도도 우리처럼 N극과 S극이 한 몸처럼 붙어 살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어.”

자석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이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따로 한 몸 물체입니다. 성질은 각각 다르지만 ‘자석’이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볼릴 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세계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분단의 아픔을 지우고 새 출발을 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 날을, 하나 된 조국이 되는 그 날을 간절히 꿈꿉니다.





## 지시하 하나의 바람

충남여중 3 · 박지수

“선생님! 통일을 하면 북한은 유리해지고, 우리한테는 손해 아닌가요?”

통일의 필요성을 배우던 도덕 시간 한 친구가 질문을 했다.

“단기간을 생각한다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좀 더 먼 곳을 본다면 통일은 우리나라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게다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야.”

선생님께서서는 국제정세까지 말씀해 주시며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

“어쨌든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낼 테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그냥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나 됐으면 좋겠어요.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단작 친구가 한 말이었지만 듣고 나서 씩씩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분단으로 인해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남북분단을 처음부터 지켜보시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 일 년 내내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일을 싫다고 말하고 있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 또한 통일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합쳐 부서 개편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 이를 통해 나는 깨달았다. 머리와 말로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뜨거운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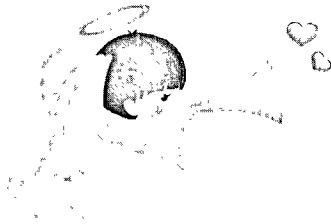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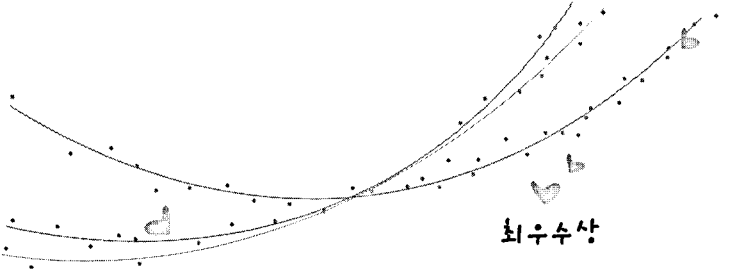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남북분단을 지켜보지 못했고 그저 교과서 속에서 사진을 보고 교과서 속에서 통일의 이유를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한 마디로 머리로는 통일을 제대로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기에 자꾸 단점부터 보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시험 대비라는 이유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외우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기에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통일을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할머니 옆에서 본 이산가족의 상봉 현장을 보면서였다. 할머니께서는 6·25전쟁 때 오라버니와 헤어지실 뻔했다고 하셨다. 다행히도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직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이산가족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철없이 불이익만 되는 통일 같은 건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더 좋다 말하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가까이에 통일을 기다리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코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듯 우리는 대외적으로 외치는 통일보다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견해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 아무리 국가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해도 정작 통일을 위해 애써야 할 사람들이 부정한다면 모든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잊은 채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다. 어느 분야든지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본질을 볼 줄 아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통일 또한 그렇다. 통일 하면 단점부터 떠올리는 우리에게겐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의 슬픔과 분단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통일은 무력시위나 재분열을 초래할 것이란 사



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통일에 대해 배우고 나서 통일에 대해 진실된 마음이 담기기까지 6년이 걸렸다. 앞으로 자라나게 될 어린아이들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단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 상처가 깊어지는 만큼 아물어서 새 살이 돋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오래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얼마만큼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머리나 입으로만 하는 통일 대신 진실한 마음을 담아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최우수상

## 작은 바람

대전노은고 3 · 이슬아

어릴적 할머니와 함께 임진각에서 보았던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글귀가 비로소 작년에서야 ‘철마는 달린다’란 글귀로 바뀌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달리는 기차.... 이 행사가 일회성일 것이라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추억과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 것이 고맙고 기뻐다. 새로 달리기 시작하려는 ‘철마’의 소식을 들으며, 한 할아버지께서는 “오십 년이나 기다렸는데, 몇 년을 더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망연히 통일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기다림이 빨리 끝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념 하나 때문에 생긴 한을 풀 수 있기를 빌었다.

마지막 통일부장관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도 했던 나는 보통 친구들보다 통일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나의 넷째 큰아버지까지 여섯 분이 지금의 북한 황해도 봉산이 고향이시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해졌을 때 할머니도 꼭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곤 하셨는데, 만나지 못하신 채 돌아가셔서 더욱 안타까움이 남고는 한다. 가끔 통일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할머니와 함께 보았던, 1998년 정주영씨가 소떼 1,001마리와 함께 북한으로 갔을 때의 장면이 떠오른다. 판문점을 통과한 최초의 민간인 왕래

가 벌써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마음 편히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

‘이념’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서로 총을 겨누어야만 했던 지난날들... 그리워만 할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날들... 이 모든 시간들은 ‘통일’이라는 단어로 해결될 수 있다. ‘통일’이라는 힘으로 7천만 국민들이 푹푹 뭉친다면, 이 나라를 둘러싼 많은 나라들의 야망과 욕심을 물리치고 고구려, 발해, 백두산, 독도, 동해 등을 우리 땅이라고 제 목소리로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통일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떳떳이 하고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는 통일이 된다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보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고려시대의 많은 유적들이 잠들어 있는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이다.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거리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도, 추억이 잠들어있는 고향에 갈 수도 없게 만든 것이 고작 철조망 하나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꼭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곳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 주고 싶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남북한이 서로 잘 알아야한다. 남북한이 서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 국민이, 청소년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언어부터 차근차근 다듬어서로 다른 뜻 때문에 발생할 문제를 줄이면서 서로에게 다가선다면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남한의 언어도 북한의 언어도 아닌 한반도의 언어로 북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조심스레 희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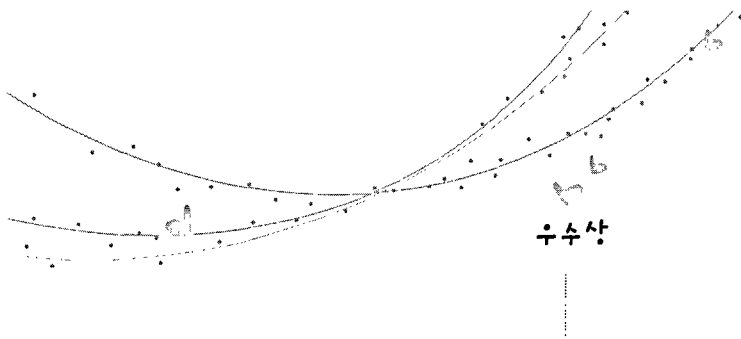
이 땅에 서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풀려 다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통일이 되면 고향 땅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묘를 옮겨드리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이라도 담아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사실 요즘은 북한과 남한의 사이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나는 이것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돋움 도중에 만나게 될 장애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그 시련들을 다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큰 뜻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외칠 것이다. 이 한반도는 남한의 땅도, 북한의 땅도 아니라고... 이 땅은 '통일 국가의 땅'이라고! 우리는 '통일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 되찾은 우리 땅

대전대흥초 3 · 박규찬

2028년 6월 27일 금요일.

오늘 중국 총리가 고구려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또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과문이 뉴스에 발표되는 순간 나는 몹시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몇 달 전엔 일본이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시정한다고 했다. 전부터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으나 무시하더니 이제서야 사과하는 것이다.

‘역시 통일이 되어 강대국이 되니 참 좋구나.’

잘 생각해보니 좋은 점이 많다. 두 나라 팀이 합쳐져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되었다. 또 북의 풍부한 흑연, 아연, 무연탄 등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하다. 전에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개발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발전엔 큰 힘이다. 또 우리놈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소로 에너지난을 이겨 나가고 있다. 황해남도 서한만 석유 개발도 많이 진척되어서 조만간 석유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의 IT산업은 더더욱 강해졌다. 게다가 땅도 엄청, 무지무지 커졌고 백두산, 금강산 등 북쪽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 가족도 백두산에 다녀왔는데 KTX가 거기까지 뚫려 있어서 신기하고 편했다. 오염되지 않은 백두산이 절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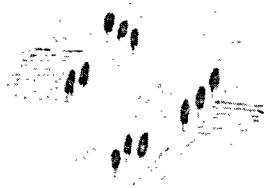
무엇보다 제일 다행인 것은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6·25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란 것이다. 이젠 일제 강점기, 6·25따위는 괴담이나 전설이 되어 버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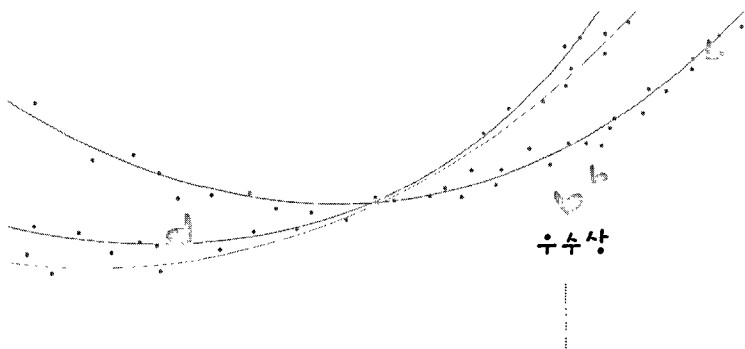
하지만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히 좋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가난에 시달리는 북쪽 주민들이 많다. 또 오랜 분단으로 말과 생각이 아직도 다른 점이 많다. 그로 인하여 부작용도 생겼다.

며칠 전 옆집에 북쪽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이웃들이 그 가족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경계한다. 이런 일은 우리 집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 후 있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남쪽 후보와 북쪽 후보를 사이에 두고 혼란스런 선거전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 빨리 편견을 버리고 화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지름길일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양쪽의 장점을 살려서 더 잘사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북쪽의 주민들에게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울 것이다.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통일은 정말, 참 좋다.





##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중리중 3 · 김미래

참으로 오랫동안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기다림에 지친 채 살았다. 이 아픈 가슴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할까? 우리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동족이요, 형제이다. 다른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자주성과 통일성을 지켜온 우리민족은 지금의 이 원치 않는 분단된 현실을 '통일'이라는 과업을 통해 하루 빨리 청산하여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해야겠다. 더 이상의 남북한간 이질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질적인 역사적 기반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어렸을적에 헤어진 내 부모 내 형제를 평생을 두고도 만날 수 없다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그래야만 한다면, 이 비통함을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단 말인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유난히 하늘을 자주 바라보며 눈물지으시는 나의 외할아버지께서 올해 부쩍 더 힘이 없으시다. 북에 계신 친어머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으신 외할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암이라는 지독한 병마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평생에 이젠 틀렸구나…….” 체념해 버리신 외할아버지를 위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위로해 드릴 방법도 모른 채 지금까지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이산가족의 애타는 모습을 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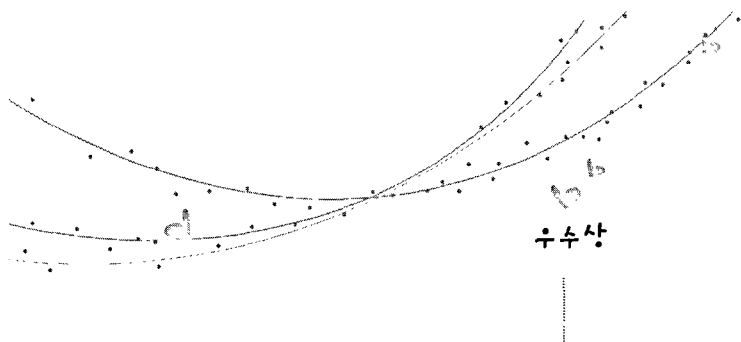
전 세계를 둘러보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허물어진 지도 오래인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루 빨리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마감해야 할 것이다. 하나 된 독일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통일 조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가질 때, 더 이상 같은 형제끼리 서로를 증오하며 경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허덕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헛되이 소모되고 있는 많은 자원과 민족적 역량을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없었으면 좋을 나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루 빨리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루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은 물론,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허리가 반으로 잘린 내 나라, 내 민족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얼마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통일조국의 장은 그 누구도 대신 열어주지 못한다. 서로 겨루기보다는 손을 먼저 내밀고, 등을 돌려 헐뜯기보다는 함께 한 곳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겠으며, 입을 꼭 다물기 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때 통일 조국은 우리 모두의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얼마 전, 우주를 다녀온 이소연 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뇌리를 스친다. ‘우주에서 내려다 본 지구 속의 한반도는 하나였습니다.’ 라는……. 틀림없는 ‘하나’라고 했다. 비록 작지만 야무지고 단단하게 뽕뽕 뭉쳐진 하나 된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만이 나라의 기둥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대한 일이다. 통일은 남한의 것을 떼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의 장점을 서로 더하는 것이기에 원망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자세로 승화시켜야겠다. 평화적인 민족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드디어 남과 북이 다 함께 어우러져 통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환희에 찬 아침이 다가온다.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통일의 기쁨을……





## 물에서 하나로

서대전여고 1 · 박민수

유리병에 담긴 물과 기름. 한 곳에 담겨 있지만, 두 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무리 흔들어 섞으려 해도, 조금 지난 뒤에 보면 여전히 둘로 나뉜 모습 그대로이다. 마치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주 오랫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로 뭉쳐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현재 남한과 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국명을 가지고 갈라진 채로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6·25 전쟁이 남긴 휴전선이라는 흉터는 우리나라를 가차없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고, 그 뒤로 자꾸만 멀어진 남북한은 여러 면에서 - 사상, 이념, 문화,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게 되었다. 남한에서 보는 금강산과 북한에서 보는 한라산은 남의 나라 땅이 되어 버렸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쩔 도리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은 그 무엇으로도 닦아줄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이 되고 말았다. 이런 분단의 고통은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꽤 나아져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기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과제가 아직도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두 사람이 화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배려심이며 그로 인해 둘 사이가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듯이, 남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50년이 넘도록 분단의 벽을 쌓은 채 지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사상과 문화는 다르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같은 뿌리를 가진 한 겨레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뿐, 남북은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표면적인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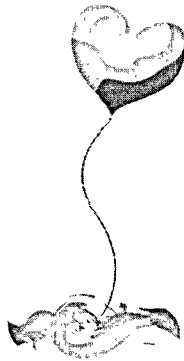
세계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한 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치 이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저 평화로운 한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아래 가려진 휴전선과 하나가 둘로 나뉘어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 피를 나눈 한 민족인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서로를 남남처럼 여기며 살아야할까? 지도에 칠해진 것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잠시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제는 당연히 하나로 되돌아가야 할 뿐, 통일에 달리 거창한 이유는 없다. 갈라진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작지만 소중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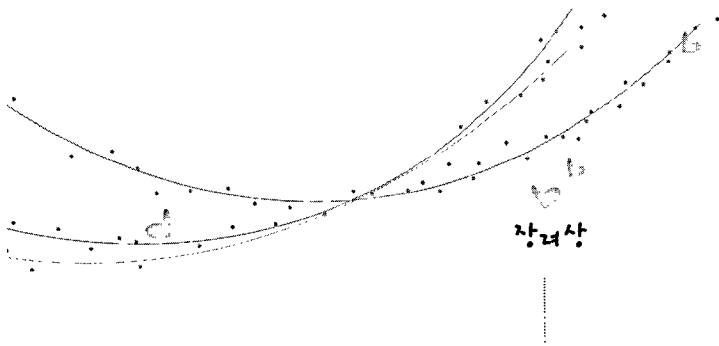
겉으로 보기에 물과 기름이 나누어진 모습과 남북한이 나누어진 모습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반해, 남북한은 통일을 향한 관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순도순 모여 살며 따뜻하게 마주하고 한반도가 웃음과 평화

로 가득 찰 그날을 위해 마음부터 둘로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 리조트 건설 현장에 파견된 어느 남한 총각이 첫눈에 반한 북한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희망 고리의 시작이다.







## 형제들의 손을 잡게 하소서

서대전초 5 · 김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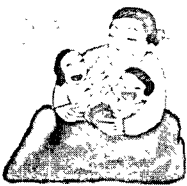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옆집에 고향이 함경도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신다. 나와 동생을 예뻐하셔서 가끔 과자를 사주시기도 하시는 인자한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6·25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끔 울곤 하셔서 어린 내 눈엔 약간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 시골에 갔다가 그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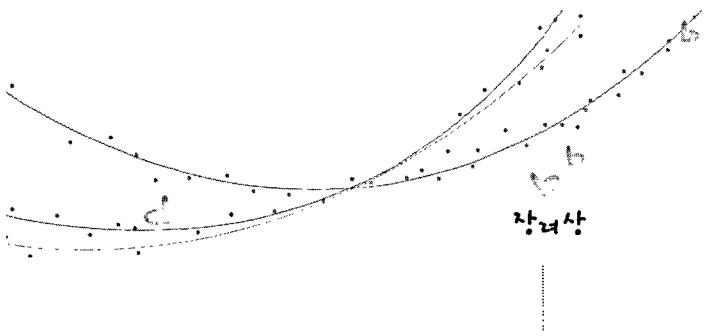
그리고 보니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신지도 어느덧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이제 일흔을 훨씬 넘기신 연세이시고 전쟁통에 북에 두고 왔다는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백세에 가까운 연세가 되셨고 두 살 어렸던 동생도 이제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외모를 하신 다른 한 할아버지로 나이 들어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외할아버지 말씀이 그 동안 그 할아버지는 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여러 번 신청하셨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의 소식을 들으려 무척 애를 쓰셨던 것 같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 왔다고 한다. 나는 2박 3일의 짧은 학교수련회에 가서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어 밤에 친구들 몰래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십년이 넘는 긴 시간을 가

족의 그리움으로 살아온 그 고통은 어떠한가!!

그동안 남북적십자회의를 통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금강산에는 면회소가 설치되었으며, 화상을 통해 상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 가운데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가족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아직도 가족의 생사조차도 확인이 안 된 이산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산가족들이 점점 고령화되어가면서 작년에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 가운데 삼천 명이 넘는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悶클하다. 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는데, 뉴스를 통해 올해는 남과 북 모두 합의했던 특별 이산가족 상봉 계획조차도 남북대화의 단절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서운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얼마 전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통일 후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 자원의 활용,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오명 벗기, 또 남북의 효율적 국토이용 등등 통일의 필요성을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들고 싶다. 그냥 운이 좋아 상봉 신청자들 중에 뽑혀서 화상상봉이나 면회소를 통한 만남이 아닌 언제나 원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늦어 부모님의 손을 떠나보낸 주름진 그들의 손이, 이제 형제의 손이라도 언제든지 서로 맞잡을 수 있도록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 뒀을 소망하며

신탄중앙중 3 · 이초원

6·25 전쟁이 시작된 지 어언 1년이 지나가던 증조할머니 댁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굶주린 채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서 있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앙상한 육체도, 전쟁이라는 비극에 의해 흐려져만 가는 정신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다. ‘희망’이라는 것을 찾지 못할 것만 같던 그들에게 증조할머니는 손을 내밀어주셨다. 오랜 피난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앞마당을 십터로 내어주셨고,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손수 밥을 지어주셨다. 한두 명, 밥을 지어 주신 것으로 시작한 증조할머니의 ‘희망’ 봉사는 소문이 퍼져 이내 할머니 댁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이런 희망은 남·북, 어느 민족도 상관하지 않으시며 ‘한민족’이라는 이념으로 이어져 갔다. 할머니는 사방으로 들려오는 총성과 폭격의 소리에든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만은 저버리지 않으셨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렇게 할머니는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는 전쟁이 발발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은 피난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이제 94세가 되신 할머니의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만 간다.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시는 증조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여전히 단절

된 민족의 상처를 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다.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한 민족, 같은 형제끼리 서로를 적으로 보게 한 전쟁은 우리를 민족의 대립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신과도 싸우게 만들었다.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우리는 너무도 다른 민족의 모습을 띠고 이제는 왜, 어떻게 분단되었는지조차 무관심한 채 분단된 현실에 적응하고 안착한 듯싶다. 하지만 꿈틀거리는 민족의 피가 끊임없이 기삿거리로 9시 뉴스를 장식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하고, 전쟁이 일어날 듯한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몇 년 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께서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전쟁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가슴 뭉클한,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들이다. 그 후손들이 반으로 갈라져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 옛날 수없는 외적의 침입에도 잘 버텨내고 나라를 지켜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 아닌가? 이제는 통일이 되어서 그 옛날의 훌륭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걸 모음을 갖추는 외적인 발전이 아니라 북한 동포의 배고픈 굶주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본디 단군의 피를 나누는 형제임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50여 년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던 일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일제의 탄압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외세의 간섭 속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야 했던 분단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몫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지금 남북한은 언어와 문화 등 반세기 동안 달라진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한민족의 자긍심과 협동심, 끈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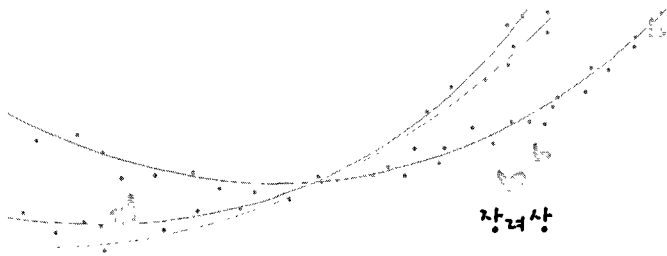


북한의 통일은 두 나라의 국민이 원하고, 실천으로 옮겨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 하면 되겠지, 나 먼저 나서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부터 통일을 바라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각각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단합될 때 그 때 통일이 이루어 질 거라고 믿는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금씩만 더 양보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평화적인 통일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북한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가족들과 마음껏 금강산 구경을 가고 북한 땅에 기쁜 마음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친구들과의 잡담에서, 점심시간의 이야기에서, 가족간의 외식자리에서, 그런 작은 자리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모두가 가슴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을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 마음속 38선도 무너져나가요

대전외국어고 2·양다현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광복 직후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의 이런 비장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른다. 바로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혼란을 겪게 된다. 전쟁 후의 불안감은 반공, 좌경의 이분법 논리로 우리 사회를 반목하게 만들었다. 이는 군사독재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더디게 했다.

남북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대립에 의해 통일된 조국을 이루려는 우리의 열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분단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4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려던 제17회 동계 올림픽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게 되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통일은 인간의 자유, 존엄, 행복 같은 보편가치의 실현이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통일은 분단이 만들어낸 불합리성을 없앨 수 있다. 휴전선이라는,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은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오히려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해 불합리한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다.

통일이라는 꽃이 맺는 가장 큰 열매는 ‘가능성 창출’이다. 안전이 보장된 평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의 눈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비춰질 것이다. 정치적인 안정은 경제적인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접합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해 그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남북한 양쪽에서 서로 중복된 국방비를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른 곳에 분산한다면 좀 더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통일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제적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일본과의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 동아시아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빈번한 민간교류는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공연이 빈번해졌고 대북 물자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벽을 허물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 익숙해져야 한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도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돌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다. 남북은 서로 평화조약을 체결해 민족의 평화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통일은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촌이다. 어느 한 국가만의 독주는 허용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세계의 정세를 살피며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춰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현재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들 마음속의 38선이다. 표면적인 교류

가 활발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요즘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의 혼란과 부적응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에 지나지 않는다. 약 반세기만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러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라. 분단은 남과 북,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겼다. 이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은 우리의 운명이자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슴속의 38선이 허물어지는 날, 그날 우리민족은 서로의 반쪽을 다시 찾은 가슴 벅찬 감동을 누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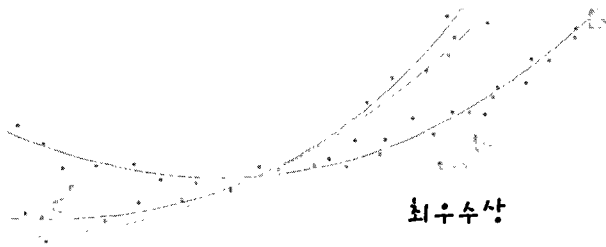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난 날이 언제입네까? \_ 167
- 달에게 말한다 \_ 170
- 나무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_ 173
- 내가 꾸 꿈 \_ 176
- 통일, 1+1=3! \_ 179
- 통일을 위한 첫 걸음,  
우리에게서! \_ 182
- 마음에 그어진 경계선 \_ 185
- 하나로, 통일로, 미래로 \_ 187
- 우리의 소원, 통일을 희망하며 \_ 191





최우수상

## 난 날이 언제입니까?

격동초 6 · 박채린

“알 만하지?”

“채린아! 이거이가 답이야!”

조금 이상한 이 말들은 나의 중국어 선생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들이다. 처음엔 무지 이상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듣다보니 익숙해져서 수업에 별 지장은 없다. 선생님은 중국 본토 분이데 우리나라 말씀도 곧잘 하셔서 여기저기 통역도 많이 하시고 우리들 같은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신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말은 어색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억양은 북한말처럼 하신다. 그래서 처음엔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상해서 웃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자꾸 듣다 보니 친근감도 생기고 또 호기심도 생겨서 여러 가지 북한 말들을 찾아 지금 우리말들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말들은 한자어나 영어로 만들어진 외래어가 너무 많았지만 북한말들은 순수한 우리말로 이루어진 낱말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생일은 ‘난 날’이라고 하고 지하철은 ‘지하궁전’, 거짓말은 ‘팡포’, 나 같은 근시의 눈은 ‘병신 눈’이라고 한단다. 좀 기분은 나쁘기도 하지만 ‘병신 눈’이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친구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도 같다. 또 뜻밖에를 ‘꿈밖에’라고 표현했다. 정말 순수하고 재미있고 단순한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예쁜 우리말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영어를 잘한답시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서도 영어를 섞어가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마께서는 통일이 된다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있고 또 핵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북한의 상황들을 볼 때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고 또 세금도 엄청 많이 내어야만 당분간 북한의 친구들 끼니도 때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만약 진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잊었던 순수 우리말을 많이 배우고 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다. 그 때 북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는 울산에 사는 박채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무는 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이다.

저번 주에 걸스카우트 연맹에서 청소년위원회 부회장을 맡아서 서울의 중앙연맹으로 회의를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에서는 경상도 친구가 나 혼자뿐이었다.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웃기도 하고, 나도 내가 이상해서 말을 아껴서 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거리낌 없이 친해지고 오히려 내 말이 재미있다고 따라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나도 북한 친구들에게 더욱더 잘 대해주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요즈음 난 6학년 우리 반 친구들 덕분에 음악 다운받는 방법을 배워서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다. 엄마는 가요를 듣고 있는 내가 못내 못마땅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엄마 몰래몰래 좋아하는 가요들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다. 그 노래 중에서 좀 오래 된 듯한 ‘그날을 위해’란 노래가 있었다. 참 좋아서 가사를 꼼꼼이 잘 들어보았다.

‘같은 하늘 보고 살면서 같은 생각 하고 살지만 우린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죠. 하지만 별은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움만 가득 안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모두 하나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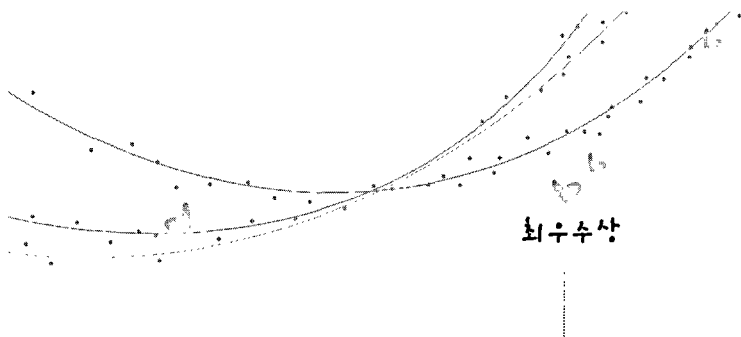


이제 그 날 위해 손을 잡고 우리가 해요.’

정말 가슴 찡해지는 가사와 음율이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따라 부른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늘의 저 아름다운 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질 그날이 꼭 올 것임을…… 나와 난 날이 같은 동무들도 아마 많을 것이다.

“동무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 달에게 말한다

옥현중 3 · 이미현

모의고사가 끝나고 뒤늦게 통일글짓기 과제를 하다가 창밖으로 노란 달이 보였다. 공부니, 수행평가니 바쁜 날들이어서, 오래간만에 보는 달이었다.

나도 모르게 문득, 북한에 살고 있을 나와 같은 또래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달은 우주의 달이다. 북한에서도 분명 저 달을, 저 하늘을 보고 있을 테다. 학교에 다니면서 매년 통일글짓기를 써왔지만, 돌아보면 진지하게 통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 글만 번지르르 윤기 나게 기름을 발라놓고, 실제로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정치인이 꿈인 나에게 연일 터지는 정책에 관련된 일이나 미국·일본 등의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제는 늘 관심사였지만, 이상하게도 '통일'은 나와 아득하게 먼 세계의 일로만 느껴졌다. 그저 '찬성'이라는 이름표만 걸고서, 도대체 왜 찬성인건지 스스로에게 물어 본 적도 없었다.

살을 맞대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저 폐쇄된 땅은, 더욱이 핵을 보유해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그들은 정말 다른 나라의 일처럼만 느껴졌다. 그러나 비단 나만이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남북한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다지도 없을까.

같이 '통일글짓기'에 글을 쓰기로 했던 친구도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 쓰란 말이나.' 며 이내 연필을 놓았다.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어

쩌다 통일이 토론 화제에 올라도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찬성한다’는 내 목소리는 그새 묻히고 말았다. 친구들은 심중팔구 통일에는 반대라고 했다. 대부분이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모두들 통일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통일 되면 우리가 불리한데 왜 해? 통일하면 우리까지 망한다.”

“통일 안하고도 서로 그런대로 살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 우리가 계속 조금씩 도와주고,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오늘에야 드디어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답은 하나다. 통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나와 내 동생이 잠시 동안 떨어져있게 되었다고 하자. 둘이 다시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가족이 만나는 것이 이유 없이 당연한 일 이듯이 반만 년 역사를 이어온 피와 살을 나눈 민족이 만나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헤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모두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도 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이념 대립으로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 척해서야 될 일인가. 그 분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한이고 상처일 것이다.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 끌어안을 수 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경제적·문화적 차이, 그 외의 어떠한 이유라도 이보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만년 역사,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선조들이 지켜온 이 땅에서, 단일민족으로 피를 나눈 동포가 총칼을 들이대다니. 이제 와서 삼천리 화려강산이 붉은 피로 물든 그 슬픈 날, 형제가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대야 했던 그 날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늘은 하나고 바다는 금조차 없는데 이 땅에 어떻게 줄을 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같은 역사, 같은 말, 같은 피와 같은 살인데 어떻게 내 형제자매와 총칼로 마주하고 있다

는 말인가. 피 토하듯 처절한 목소리로 이 땅 모든 이가 오로지 외친 절규, 끊어질 듯 애타는 마음으로 오로지 바란 소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러시아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다. 질문은 한가지였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된다면?’

1번 보기는 ‘슈퍼호랑이가 될 것이다.’였고, 2번 보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 후퇴할 것이다.’, 3번 보기는 ‘모르겠다.’이었다. 결과는 나도 의외였다. ‘슈퍼호랑이가 될 것이다’가 절대 다수의 득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다른 나라의 여러 전문가들도 우리에게 통일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지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쓰지 않는 총칼과 무기에 들이는 국방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나라 이들까지 우리의 통일이 서로를 위한 협력이며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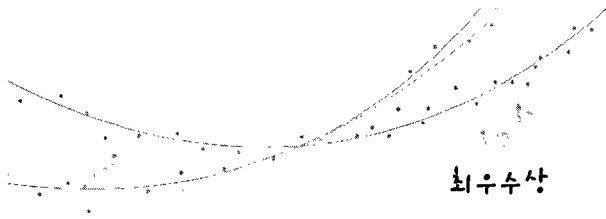
헐뜯고 통일에 반대만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웠다. 이제 모두들 대답 없는 50년 세월에 맥없이 물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도 결코 다르지 않다.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나에게 저기서 달이 꾸짖는다.

어째서 그렇게 맥없이 물러났냐고. 더 격렬히,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라고. 달은 여기서 볼 때 손에 잡힐 듯 멀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다. 손을 뻗어도 결코 닿지 않을 듯 멀고 막막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깝다.

달을 통해서 깨닫는다. 통일도 다름이 없다. 멀고 막막하게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나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야 속 시원히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결국은 이 나라 통일에 기여하는 한 정치인으로, 내 꿈으로, 끊어진 한반도 허리를 잇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최우수상

## 나무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대현고 3 · 신상대

남과 북이 휴전선을 두고 갈라선지 어느덧 55년이 다 되어갑니다. 휴전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한 감정을 금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어입니다. 동포여, 그대는 휴전선의 휴자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본디 휴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는 모습에서 따온 회의자입니다. 문득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자니 우리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반만 년을 살아오며 커다란 나무를 키워오셨습니다. 민족이란 크나큰 나무를요, 그 나무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요,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존재해왔습니다. 이 한반도 위에 태어나 이 땅의 흙냄새를 맡고 자란 이들이라면 모두들 그 민족이란 나무그늘 아래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55년 전 우리네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일본의 벚꽃나무를 우리의 나무라고 교육받던 암울한 시절을 벗어나 선조의 기상이 어린 소나무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틈도 없이 그 그늘 아래 기나긴 금을 긋고 말았습니다. 판에는 저 서쪽 마을에 있던 자작나무나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훨씬 크고 멋있어 보였겠지요. 그 뒤로 우리는 55년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 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만 년의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네들의 선조가 그러하였듯이, 지금의 우리가 그러하듯이, 먼 미래의 후손이 그러하듯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포여, 지금 한반도는 대내외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위협은 바로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현재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통일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투적인 사회 이슈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만 정작 안으로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어 느덧 세계의 여러 문물이 우리의 문화를 물들여오고 있지만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계의 여러 문물에 현혹되어 우리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여, 이런 때야 말로 진정한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같은 우리가 둘로 갈라서 있기 때문에 반쪽 그 제각각이 서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시들 위기에 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세계화에 발맞춰 자신들의 나무 아래로 모여들듯이, 우리도 하루 바빠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잠시 소원했던 우리의 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같은 이상을 노래하며 민족문화의 재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손을 잡기까지는 아주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 대외적 상황, 경제의 퇴보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손을 맞잡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다시 손을 잡는데 왜 그리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드는지 그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하여 5월의 파릇한 햇살마저 이지러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초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듯이, 뜨거운 숨결을 내쉬는 하나의 생명임을 긍정하듯이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맨가슴으로 살이라도 맞대어야 옳을 일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마주잡은 손은 곧 지난 시간 우리가 잊고 지냈던 민족의 혼과 가치를 되살리고 역사의 부흥을 이를 본원이 될 것입니다.

동포여, 통일의 의지를 다시 세우고자하니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남한군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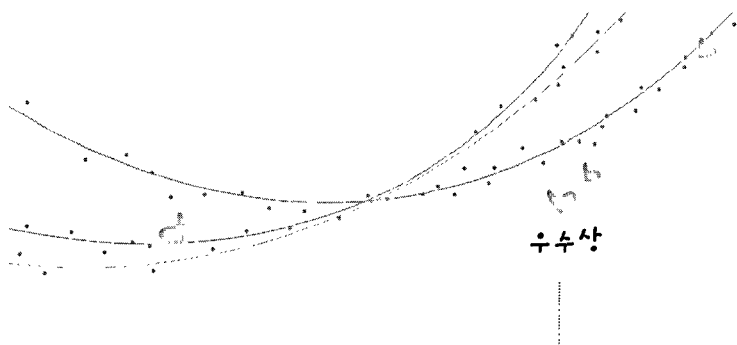


총수셨습니다. 참전 당시 허벅지에 총을 맞으시고 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훈장은 이제 서랍장 깊숙한 어디쯤에서 먼지에 쌓여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해방이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서로 같은 민족이 총을 맞대는 비극이었습니다. 징집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끝나고 시골에서 받을 때며 지난 50여 년을 쪽 생각해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총을 쏘아야 했는가?’ 그것이 할아버지 일생의 과제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한자리에 잠을 들면서 저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인 것은 아닌 기라. 총도 탱크도 다 양놈들 것이지 우리 게 아닌가베. 그저 높은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라 씨라 쥐기라 하니께 어쩔 수 없이 한기제. 촌에서 밭 갈던 우리들은 서로 죽일라고 한 게 아닌 기라.” 할아버지는 그 후로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밤 그늘에 어린 손자에게 하신 녀두리일망정 할아버지의 가슴에 고인 눈물이 제 마음을 어롱 어롱 적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에야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쓰리게 느껴집니다. 동포여, 그날 우리가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동안 흘렸던 서로의 피와 지난 55년 앓아온 우리의 역사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힘을 모으는 것이 민족의 사명이요 겨레의 바람인 것입니다.

55년, 반만년의 역사에 비교해 본다면 그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끝내 등을 돌려버린 예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증오는 남과 북으로 통하는 은하수에 씻겨 내리고 영롱한 별빛을 담아 통일을 기원해야 할 때입니다.

아, 우리 민족이 그 나무 아래에 손을 잡고 모여 강강술래를 외치며 달맞이를 할 그 날을 그려봅니다. 나아가 당신과 내가 손을 맞잡고 나무 위에 올라 새벽을 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 내가 꾸 꾸

삼호초 5 · 안승현

지난 밤 꿈속에서 우리 5학년 학생들은 금강산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울산역에서 우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북한행 통일열차를 탔을 때, 우리 학교 형, 누나, 동생들 모두 우리 학년을 보고 부러워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우리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악수까지 해 주셨다.

우리를 실은 열차가 드디어 북한 땅으로 들어섰을 때 길 양옆의 아름다운 꽃들과 숲 그리고 산 속 동물 친구들까지 우리를 정겹게 맞아 주었고 꿈속에서 도착한 북한은 너무나 가까웠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내다본 평양시는 내가 살고 있는 울산시와 비교해 고층 건물은 별로 없었고 남아 있었지만, 거리는 깨끗했고 활기에 차게 보였으며 다른 모습들은 우리와 똑같았다.

점심 식사로 먹은 평양냉면은 꿀맛 같았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준 냉면과 같이 나온 북한의 약밥, 송편도 별미여서 실컷 배불리 먹었고, 부모님께도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용돈으로 따로 샀다.

드디어 도착한 금강산은 유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나뭇가지에 아직도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고, 폭포엔 고드름이 옛가락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계곡의 물은 너무 차가워 손조차 담글 수 없었다.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다는 금강산은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정말 아름다웠고, 백두산 천지의 웅장한 바



위는 너무나 장엄하고 물은 거울 같이 깨끗해서 우리들은 모두 합성을 지르며 놀라워할 뿐이었다.

북한 송죽리의 고구려 옛 무덤 벽화 사진도 관람하고, 북한 친구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의 1학년 동생들은 덧셈, 뺄셈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추나 구슬 대신에 수류탄이나 총알을 가지고 셈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북한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 축구부 소식과 아침 독서 활동을 자랑하고 며칠 전 알뜰장터에서 번 돈으로 구입한 책을 선물로 주면서 통일이 되면 꼭 우리 학교에 놀러오라는 말도 해주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올 무렵, 짧고도 아쉬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만 했다. 아직도 더 보고 싶고 북한 친구들과도 더 많이 어울리고 싶은데 헤어져야만 하는 생각에 속이 상했다. 오늘의 여행이 영영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북한과 너무도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서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언어도 다르고 생활습관, 풍습도 많이 달라 참 슬프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을 같이 사용하고 피부 색깔이 같은 한민족임이 분명하지만, 분단이라는 아픔으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하다.

어린 우리들은 6·25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전쟁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평생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통일을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새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감싸주어야 한다. 스포츠 교류도 활발히 하고 문화 교류도 하면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통일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펴셔서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더욱 가까워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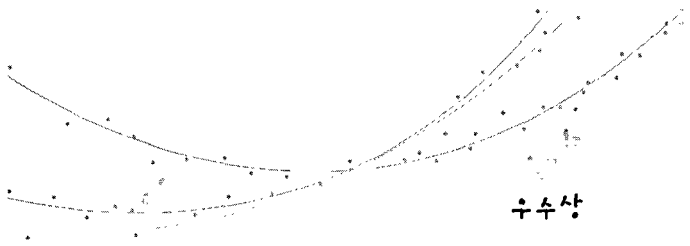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오직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심을 가졌을 때 이루



어진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이 조심스럽게 협조하여 매년 북한은 남한의 별미를, 남한은 북한의 별미를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마련하여 서로의 음식이나 언어에 차츰 익숙해지면 같은 언어, 같은 풍습으로 통일이 저절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던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나 웅장한 문화재를 내 눈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통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본다.





## 통일, 1+1=3!

성안중 3·노소림

햇볕이 드리웠던 날이 끝나고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어서 빨래를 걷고 우산을 꺼내두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가운 비에 쓸려가 버릴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과거에는 북한을 감싸주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들을 더 이상 ‘살가운 이웃’으로만 보지는 않고 북한도 우리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정말 통일이 앞으로도 계속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먹구름은 저센 비바람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20대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은 어떠할까? 2006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에 20%의 저조한 찬성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분단의 아픔도 직접 겪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전후세대 즉 60·70·80대들의 입장은 판이하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으로 느낀 세대여서 그런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이라는 불행에 간혀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전쟁에 의한 신체적 고통도 남아있다. 그런데 전쟁



세대, 이산가족 1세대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통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가 점차 바뀌어가기 이전에 통일을 실행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웃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시킨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산업 환경이라는 기반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전쟁에 대비한 국방비가 더 이상 불필요해져 그 비용을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나아가 국민들의 교양 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단어는 한국사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우리는 50여 년 동안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의 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하면 정부와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년 3개월 동안 군대에서 다소 자유롭게 못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20대 젊은 일꾼들이 개개인의 전문 능력을 발휘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창출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사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은 긍지, 애국심, 그리고 자부심을 지닐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양국이 서로를 방문하면서 진정한 한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의 반만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에 위치한 유물, 유적, 그리고 서적을 조사한다면 고구려의 용맹한 기상을 이어받은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들 외에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화적 이질감과 체제 차이가 그것이다. 이 둘을 극복하려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되, 2개의 주로 나뉘어서 정치를 실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 현재 각국의 원수들을 주지사로 지정하고, 체제는 유지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시민들의 풍요로움,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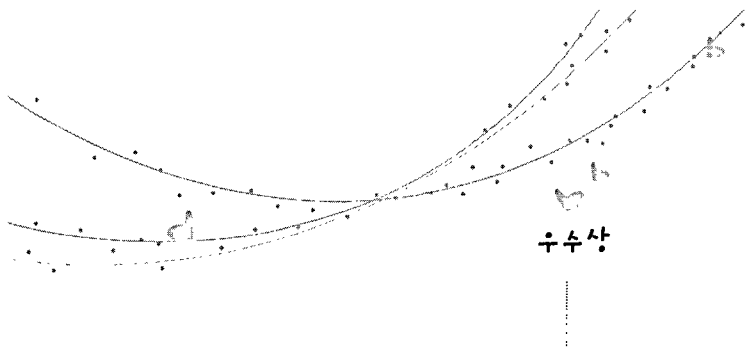




함을 느끼고 사회 전체가 동요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현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몫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개의 주가 점점 동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이라는 남자와 남한이라는 여자가 통일이라는 과정으로 만나 자녀가 태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나누어진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3가지의 효과, 아니 나아가 4나 5 이상을 뿜어낼 것이다. 한반도에 펼쳐질 평화와 풍요의 미래가 빨리 다가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해 본다.





## 통일을 위한 첫걸음, 우리에게서!!

현대고 3 · 김경선

「“저를 안으실 때마다 북한에 나무 열 그루가 지원됩니다”

북한 양묘장 건립 사업을 위한 프리 허그 행사에서 배우 안석환 씨가 한 사람을 포옹할 때마다 후원업체가 나무 열 그루씩을 제공하기로 했다.」

- 부산일보 2008년 5월 기사 발췌 -

새로운 정부로 들어서며 기존의 햇볕정책과 다른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찬반 여론이 쟁쟁하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통해 통일의 문을 두드려왔으나,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잇달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통일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비판만 할 뿐 정작 통일의 진정한 주역이 누구인지는 잊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 지진 발생 소식을 맨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방송이나 신문이 아니었다. 바로 중국 네티즌들의 휴대폰이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발 빠른 움직임은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의 피해 보도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 재해를 비롯한 자국 내 사건사고 소식의 보도를 꺼려왔던 중국 언론의 특성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힘만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를 움직이

는 힘,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 모두의 힘이 모여져야 한다. 따라서 통일의 깃발을 꽂을 주인공은 정부 이전에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다. 정부의 정책 이전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우 안석환 씨가 북한의 양묘사업을 위해 프리 허그를 시작했듯이 우리들이 통일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통일의 과제를 정부의 일로 미뤄둔다면 통일이 된 이후 이념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마찰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설 것이다.

아니, 멀리 내다 볼 필요도 없이 현재의 우리 모습을 살펴보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를 정답을 외우듯 듣고 또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탈북자에 대해서는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피상적 통일의식은 탈북자 중 85%를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고통 받게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피상적 통일의 의미는 이산가족의 뼈저린 아픔을 모르는 차세대들에게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도마 위에만 올려놓고 이해득실의 칼질을 하도록 할 것이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중략)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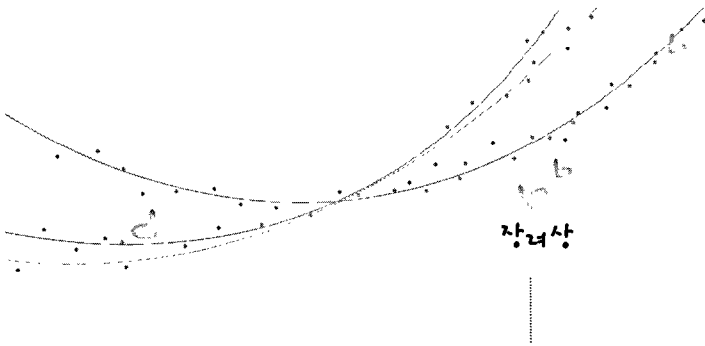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위 시는 탈북자 장진성 씨가 북한의 현실을 그려낸 작품으로 출판 10여일 만에 이미 6천여 권의 책이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또 네티즌에 의해 UCC동영상으로 재구성돼 160만 명이 볼 정도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와, 최근 개봉을 앞둔 ‘크로싱’에 대한 관심에서도 볼 수 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둔감한 반면 이산 가족의 상봉에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것이 우리다. 통일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경제적 통일, 사상의 통일 이전에 우리 형제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인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문화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와 함께 숨 쉬는 문화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 문화’라는 말이 있듯 문화란 결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감각으로, 우리들만의 목소리로 이젠 우리 청소년들이 나서야 한다. 36.5℃ 그 뜨거운 자유와 열정의 가슴을 안고 우리가 통일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이다. 프리 허그와 같은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 마음에 그어진 경계선

옥서초 6 · 이도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60여 년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도 둘로 갈라져 있다.

5학년 도덕 시간에 통일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통일이 되면 좋은 점 등을 배우게 되었다.

통일이 되면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 것이고 국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합쳐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토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남한과 북한이 어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통일을 이룸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나 우리나라가 원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통일하여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까.

하지만, 도덕 수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난 북한이랑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 통일을 하게 되면 말은 어떻게 써야 해? 북한말은 우리랑 다르잖아.”

“그리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니까 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들이 돈을 많이 내야 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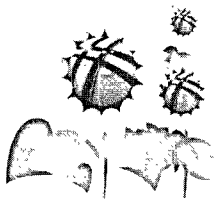
“북한 사람들 보면 옷 입는 것도 촌스럽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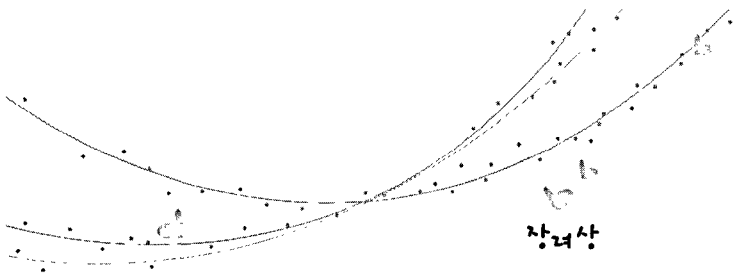
“통일을 꼭 해야 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무척 많은 것 같았다. 남한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북한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아주 잘 사는 나라였던 서독도 동독과 통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하기 전,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과 북한 모두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생긴 언어 차이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지금은 한반도가 휴전선을 가운데에 놓고 나뉘어져 있지만, 북한도 남한과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거나 한 쪽을 무시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땅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까지 경계선을 긋고 남한과 북한이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경계선을 지우고 북한과 남한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두가 바라는 모습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로, 통일로, 미래로

문수중 2 · 장소림

‘하나 되어 함께 가자.’ 이 말처럼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사는 세계.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가면서 지구촌, 세계화라는 말에 걸맞게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다. 사회시간에 배웠을 법한 APEC, ASEAN, EU 등등 주변 국가 간의 협력, 더 나아가 비교적 먼 거리의 국가 사이에서도 이러한 협력 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협약, 조약, 무역 체결과 같이 각 나라별로 국가 사이의 협력을 통한 경쟁, 발전을 꾀한다. 이러한 협력 활동에서 세계인은 하나라는 의식이 생기고 나라마다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지구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경쟁 및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선진적 국민의식 수준, 산업의 발달, 관광객으로 얻는 수익들이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화되어 발전하기 전에,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족이며 같은 뿌리를 둔 북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더 크다. 6·25 전쟁 이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 까지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북한과의 교류 역시 늘어가고는 있지만 50년이란 분단의 세월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화합의 거리는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가 주로 북한과 교류해 오던 스포츠 종목에서 마저도 점점 그 유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다. 이제껏 우리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함께 입장해 왔던 북한이 남한과 함께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곡물 값이 뛰어서 그 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 3세계인 북한에 대한 관심과 타협, 교류와 왕래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민족이며, 같은 뿌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이다. 한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무력에 의한 불행하고 억압적인 통일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어야만 한다. 평화롭지 않게 이루어진 무력통일은 통일이 된 이후에도 어떤 불행을 이끌지 모른다.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반대파가 언제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고 양측의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나 남한 모두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보듬고 악수하고 이야기하다 헤어진다.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 모두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시다. 머지않아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통일의 필요성을 갈수록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못사는 나라인 북한을 떠맡게 되면 우리 경제가 휘청하지는 않을까 라는 이기적인 생각마저 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된다. 북한은 우리와 하나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남한 사람들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드라마와 노래를 보고 듣는 시대이다.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문화를 위해서도 남북의 통일은 꼭 필요하다.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남한의 발달된 기술력이 합쳐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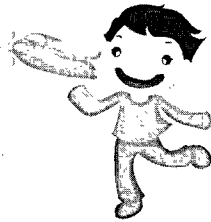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북한이 보존해 온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남한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문화를 합쳐 보다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더 살기 힘들어 진다기 보다는 서로를 돕고 돕는 마음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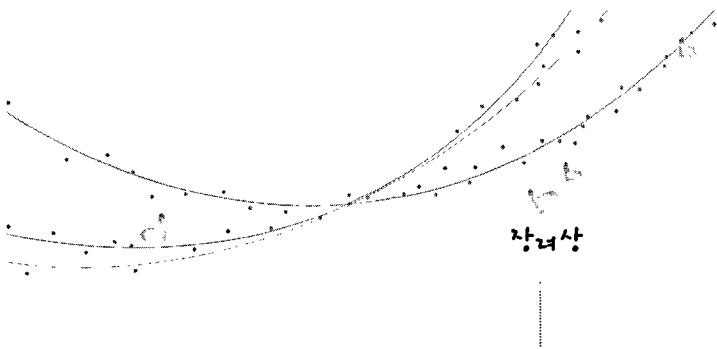
지난 2004년 아시안게임 때 나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었다. 북한 축구팀이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세계적으로 응원을 잘하기로 소문난 북한 응원단들이 북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왔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TV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응원단들을 봤었다. 남한의 응원보다 좀 더 한국적인 부채춤 응원과, 'Be the Reds.' 같이 영어가 새겨진 응원단복이 아닌 분홍빛 한복을 입고 응원을 했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아끼고 보존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이루었을 때는 무조건 남한이 조금 더 잘산다고 남한의 문화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간직해온 우리 조상들의 멋을 살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내가 더 감동을 느낀 것은 남한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북한 축구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마치 남한 축구팀이 골을 넣으면 기뻐하듯 북한 축구팀의 멋진 플레이에 아낌없는 응원과 합성을 질렀었다. '아, 우리는 정말 한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응원은 잘 짜여진 북한 응원단의 안무가 아니라, 우리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응원단이 함께 했던 파도타기 응원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것인지 북한 응원단의 좌석에 가자 파도가 끊겼었는데,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와 함께 객석에서 파도타기 응원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북한 응원단들도 함께 파도를 만들며 응원했다. 경기장이 한민족으로 넘실대는 것을 보니 남북한이 하나가 된 것 같아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응원을 하니, 정말 평화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이들의 꿈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 캠페인이나 소를 보내는 일, 혹은 부족한 식량으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지금, 쌀을 보내는 일 등 남

한에서 할 수 있는 구조 협력 활동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도 과거에 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한된 개방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북한과 하나가 되어나가는 길인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회담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역사 탐방의 기회 등 우리 같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우리나라의 역사, 한민족의 의의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하는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등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협동해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우리와 같은 혼과 얼을 가진 북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분단 국가라는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야말로 진정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과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미래의 도착 지점으로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발판을 딛고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소원, 통일을 희망하며

문현고 3 · 주기정

통일! 통일이 우리의 통일노래 속에서만 꿈이요, 소원일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지 50여 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지던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던 기억이 난다. 지난 50여 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에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아프고 슬펐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으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내 사촌오빠의 친할아버지 이신데, 6·25 전쟁중 북한에서 남하하셨다.

“죽기 전에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텐데…….”

북한에 부모님과 아내를 두고 혼자 남하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다. 2년 전, 사촌오빠의 도움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셨다. 그러나 평소에 앓고 있던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상봉하는 날을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다.

“아이고 아이고, 그 며칠을 못 참고 그렇게 가버리면 우짜는교, 아이고.”

장례식장에서의 통곡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찡하게 한다.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산가족의 고통 때문이다. 통일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희생자들로, 반세기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여태껏 그 그리움을 못내 지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전의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탈북에 의한 이산가족인데, ○○신문에 특집 보도된 ‘성룡이 가족’의 사연을 예로 들 수 있다. 탈북자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성룡이는 탈북 여성의 자녀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녀 달 동안 방북 이민국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북한을 탈출할 때 중국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어머니가 북송돼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성룡이의 아버지가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룡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고 있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여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1년 예산의 약 10%를 국방비에 쓴다. 이는 약 25조원에 달하며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통일을 한다면 국방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 돈을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또, 통일을 한다면 북한의 자원과 우리나라 기술의 결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 밖에도 경제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북한에의 관광지 개발로 인한 외화 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지방에 보호받지 못한 채 널려있는 수많은 고구려 문화 유산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에는 크고 작은 문제 및 장애물이 있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다. 그래서 통일을 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남한의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이는 통일의 장애 요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언어적 차이가 있다. 남과 북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분단되어, 북한은 우리 고유의 글자를 살린 반면 남한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외래어 및 합성어가 많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남북회담 중 단어의 차이 때문에 회담 진행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또, 주변 강대국들의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열강들은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보는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의 지원은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방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 공동 사전 편찬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움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넷째, 주변 강대국에게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여 남북이 통일하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강력하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力說)할 필요가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58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과 산이 다섯 번이나 변해오는 동안 북한과 남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핏줄은 여전히 우리의 심장에서 숨 쉬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89년 동독의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던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던 지난 세월과 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통일을 안겨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반도 곳곳에 평화의 무궁화가 활짝 필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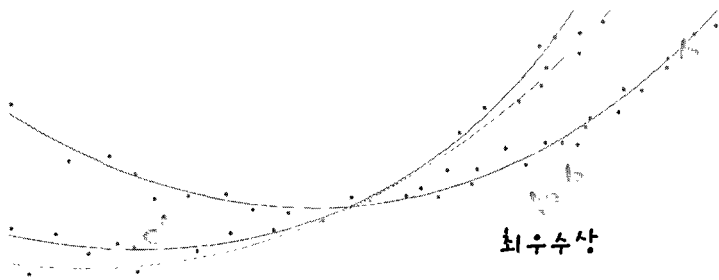
# 경기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평화통일 \_ 197
- 개성 객쟁이를 그리며 \_ 200
- 어느 시인의 대화  
: 통일은 점층법이다 \_ 203
- 용맹스런 호랑이를 꿈꾸며... \_ 206
- 통일을 위한 성장통 \_ 209
- 통일, 그 가치를 되새기며 \_ 212
- 통일지도! 그 꿈을 향하여 \_ 215
- 평생친구 금정이 \_ 218
- 할아버지의 미소 \_ 220







## 평화통일

여흥초 5·최선아

단발머리에 꽃을 꽂고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 같은 언니가 나오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스크린에 떠오른 자막에 나는 집중했다.

‘마이 아파’ 라는 천진난만한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언니는 충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전쟁이 무엇인지, 국군, 인민군, 연합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국군과 인민군, 연합군이 들어와 함께 살아가며 정을 쌓는 내용이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며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 언니에게는 여자어른은 아주머니이고, 남자어른은 아재이고, 비슷한 또래는 모두 친구들이다. 이렇듯 산골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전쟁이 찾아오는 이야기이다.

이곳에 오게 된 국군, 인민군, 연합군도 전쟁을 잊고 산골 사람들과 평화롭게 섞이면서 전쟁의 아픔을 안타까워한다. 동네가 폭격을 당하려고 할 때, 동네에 있던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산골마을의 평화를 지켜준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전쟁을 나는 이 영화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창고에 폭탄이 떨어져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 팝콘 비를 내리던 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팝콘을 받아 먹는 그 언니의 모습. 나는 그 장면을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는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다. 마을사람들도 함께 죽음을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것이 전쟁이다. 이처럼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고통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와 할머니, 여자 등 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된다.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재산 피해가 생긴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지는 고통의 시간이다. 폭격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서로 공격하고 부상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많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 때는 한 민족끼리 서로 공격하며 전쟁을 한 적이 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한국전쟁!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시대 어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38선 대신 휴전선을 긋고 지금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휴전선을 깨끗이 지우고 싶다.

남과 북은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항상 전쟁을 걱정하고 안전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평화통일이 되면 좀 더 어린이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전쟁 준비에 쓰지 않고 평화와 행복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가득한 통일이 된다면 가족과 함께 금강산으로 소풍을 가고 싶다. 그리고 북한의 유명한 음식도 먹어 보고, 북한에 있는 집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도 북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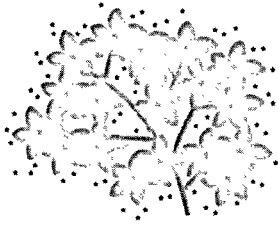
동막골 사람들,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잘났건 못났건 서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다. 평화롭기 때문에 서로 정으로 뭉쳐 서로를 아끼고 꿈을 키워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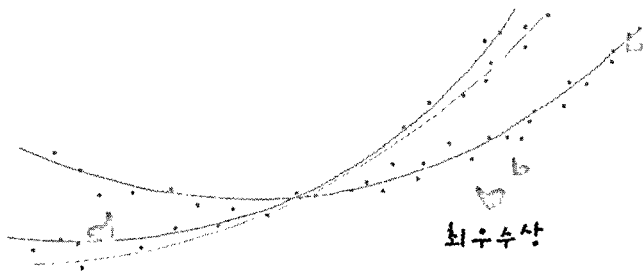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남한



과 북한,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 나오는 그 언니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자꾸 그리워진다. 6월에 피는 장미 한 송이를 언니의 귀에 꽂아주고 싶다.





## 개성 깍쟁이를 그리며

분당중 3 · 윤세정

‘개성 아낙들은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는다.’ 언젠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개성관광을 앞두고 머릿속에 맴돌았다. 숨씨 좋고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반질반질 윤나게 살림살이하던 개성, 고려의 수도로서 멀리 서역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며 무역을 했던 벽란도의 인근 국제 상업도시 개성의 모습이 많이 궁금했다. 비록 차가운 이념의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겠지만 난 개성의 깍깍한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참으로 허망한 것이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던 민속여관에서나 살짝 옛날의 깍깍한 정취를 떠올려 볼 수 있었을 뿐 민둥산으로 먼지 푹푹 날리는 송악산이나 칙칙한 개성시내 어디에서도 그 깍깍한 개성 깍쟁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성의 세월은 참으로 거칠고 무심하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꺾찬 하루였다.

‘현대아산’이 미리 조직해 놓은 조별로 관광증을 받고 남쪽 CIQ를 지나 남측 군용 지프차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한 5분쯤 달리니 북측 지프차가 보였고, 남측 지프차가 돌아가고 북측 지프차의 인도로 한 5분쯤 달리니 바로 북측 CIQ가 보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너무 가까웠고 가는 길도 너무 잘 닦여 있었다. 민족이라는 말을 거론할 것도 없이 천만 이산세대의 가슴속에 절절한 한 그리움의 장벽이었던 이 길이 이렇게 매끈하게 남북측 군용 지프차의 십



여분의 인도로 열리고 있었다. 역사가 참으로 잔인하리만치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쪽에서의 첫 일정은 박연폭포에서 시작되었다. 송도삼절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폭포는 생각보다 아담했다. 겨울철 갈수기라 폭포자체의 절경은 아쉽게 느낄 수 없었고 황진이가 썼다는 것을 비롯하여 바위 이곳 저곳에 마치 붓으로 쓴 듯한 글귀들을 볼 수 있었다.

단단한 바위 위에 저런 필체를 새겨놓은 공력이라니, 무엇인가 염원을 담아 바위에 이름을 새겼으리라 생각하니 그들의 염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붉게 새겨놓은 김일성, 김정일, 로동당이였다. 자연을 훼손한 무지막지한 야만적 염원임에는 매한가지이겠지만, 그 붉은 글귀가 더 거슬렸던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파고든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관광 일정 내내 우리에게 구수한 북한 억양으로 개성에 대해 친근하게 설명해주신 안내원 아저씨와 시골스럽게 생긴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붉은 글씨에서 느꼈던 섬뜩한 이질감은 극복해야할 과제임을 알았다. 사회시간에 배우길,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대립적 정치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립적인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비현실적인 이상적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현실적 자본주의 체제로 빠르게 바꾸어 가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증명하듯이 북한은 이런 현실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다.

난, 그 변화의 출발을 개성에서 기대해 본다.

개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남측 기업이 진출한 개성공업단지가 있었다.

개성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리 모습, 개성에는 없었던 신호등까지 있는 모습이 남측의 여느 공업단지 같았지만 웬지 거리는 활력이 없어보였고 거리의 신호등은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난 확신한다. 역사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은 있다고. 비록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지만 2010년 완공 예정의 개성공단이 계획처럼 연간 150억불 이상의 생산을

해내며 활기를 찾고 개성은 우리 민족 통일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북한의 여러 곳에 개성과 같은 남북한이 함께 하는 공업단지, 문화단지 등이 건설되어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낼 것이다.

북측 안내원들의 설명 속에는 ‘악덕 봉건 모리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다. 북측 이념의 출발이 되는 공공의 적 ‘악덕 봉건 모리배’라는 말이 추위에 잔뜩 얼어붙은 젊은 여성 안내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명품을 사고 싶어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남측의 여성들과 통일이 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을 해 본다.

관음사에서 안내하시던 안내원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길이 열렸으니까 자주 오시라우요.”

그렇다 길이 열렸다. 우린 그 길을 넓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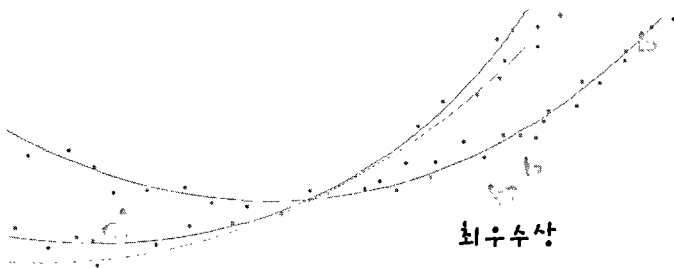
옛날에는 벽란도에서 개성 시내까지 가게들이 쪽 늘어서 있어 비가 오는 날에도 가게 처마만 따라 들어와도 비 안맞고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개성에는 가게를 하며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는가?

‘개성 깍쟁이’라는 말은 개성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즉, ‘개성 가게쟁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개성 깍쟁이들의 도시, 그 옛날 아라비아 상인까지 불러들였던 국제상업도시 개성이 부활하여 통일 한국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정말 개성 깍쟁이들이 그리운 여행이었다.





## 어느 시인의 대화 : 통일은 점층적이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 영어과 2·방기원

2008년 봄날, 새 시집을 출간한 작가 A의 사인회가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서 열렸다. 소년 시절 6·25 사변을 맞아 개성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그 와중에 부모님과 헤어진 A는 새 시집에 그의 피난 시절 경험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았다.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B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A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서점이 선생님 얼굴 본다고 온 사람들로 만원이었죠.”

“만원은 무슨. 이 늙은이를 보러 올 사람이 어디 있다고, 허허…….”

열심히 수저를 뜨고 나서 A는 자신의 새 시집에서 한 개를 골라 펼쳤다.

“오늘 B군을 만나면 내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 의미를 맞히게 하고 싶었어. 어떤가?” “그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유심히 보던 B의 눈앞에 미래의 한반도가 펼쳐졌다. 북한과 남한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서울과 평양.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열차.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이 A의 시에서 장관을 만들고 있었다. B는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시상(詩想)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옮겨 가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A는 “그거야!” 하고 기뻐하며 얘기를 계속했다. “점층

법이 이 시를 지배하고 있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센 것으로, 열은 것에서 진한 것으로 옮겨 가는 표현법. 통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가장 밑에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커다란 대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네. 통일의 점층법!”

“그럼 그 기반은 무엇인가요?” B가 질문했다.

“바로 우리 자신일세. 우리의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요즘 신문을 보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층일수록 통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 남쪽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을 남, 적, 혹은 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소중한 친구, 애인, 한 가족으로 보는 것이 옳아. 혹시 애인이 있는가?”

“예, 만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허허, 내 이야기 하나 하지. 두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서로 말도 걸지 않고 손도 잡지 않네. 관계가 유지되었는가?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해야만 애정이 쌓일 테고, 나중에는 결혼도 바라보게 되지. 남과 북도 마찬가지로야. 분단으로 인한 여러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쪽 사람들은 마음의 장벽을 거둘 수 있을 걸세.”

조용히 A의 이야기를 듣던 B가 물었다. “선생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인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층법의 다음 단계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 점층법의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협력이라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이 좋은 예인데, 자원과 기술 교류, 관광 산업 확장, 스포츠 등을 통해 남북이 계속 가까워질 거라고 믿네. 북을 억박지르지 않고, 핵과 같은 군사력이 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냉랭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게야. 상호의 믿음이 충분히 형성되고, 외부 상황이 통일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을 때 한반도는 점층법의 마지막, 통일의 완성으로 넘어갈 수 있네.”

A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통일을 하는 과정은 하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야. 주인공 둘이 갈등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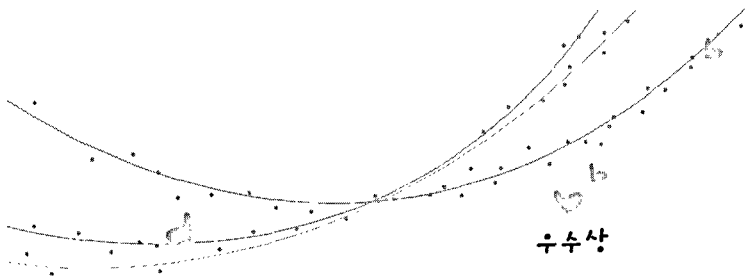




고, 화해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가끔씩 제3의 인물이 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내 그것을 이겨내고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작품의 결말은 통일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는 점층법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저번 겨울에 금강산에 다녀왔을 때 일일세. 산에 올라가면 곳곳에 선 북쪽 주민들이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네. 그런데 만나는 주민들마다 하나같이 우리 국토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 내가 생각하는 점층법의 시작을 잘 보여 주었었네. 통일의 시작은 바로 이 개개인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나는 더 깊이 느꼈네. 이런 작은 마음들로부터 시작된 통일의 열망이 하나 둘씩 모이고 모여서 해처럼 떠오르는 그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일세.” “선생님…….”

A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고향집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싸리문 앞에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고 외치자, 정말로 보고 싶었던,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하게 웃으면서, 수십 년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의 남쪽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다.





## 용맹한 호랑이를 꿈꾸며...

삼봉초 6 · 김현숙

나는 군인이신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2년 전 아빠의 취임식이 있어서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아빠가 계신 대전에 있는 군부대에 갔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운동장에서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된다. 현충일과 6·25가 있는 유월이면 '혹시 6·25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역사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만 아빠는 군인이시니까 나라를 지키러 전쟁터로 나가셔야만 할 테니까...

우리 가족은 작년 가을 통일전망대에 갔었다. 아빠가 잠시 다니러 오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갔었다. 망원경으로 북한의 마을이 보였다. 이렇게 가까이 북한 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유명한 도시 같았다. 임진각에 들어서 '평화의 종'도 보았다. 평화의 종소리가 북한 땅에 멀리멀리 퍼져 어서 통일이 되기를 빌었다. 경기 평화센터에는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북한 사람들이 하루 빨리 우리 남한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의 다리'에도 가 보았다. 1953년 휴전협정때 한국군 포로 일만여 명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다고 하

여 ‘자유의 다리’라 한다고 아빠가 설명해 주셨다. 통일을 바라는 많은 리본들이 묶여있었고 통일을 염원하는 글귀도 눈에 띄었다. 아빠는 우리 한반도가 지금은 비록 38선으로 반이 잘린 호랑이지만 이제 곧 반이 잘린 호랑이가 아닌 용맹한 호랑이로 바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지금은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금강산 관광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공단에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다. 슈퍼에는 북한 물건도 자주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가 발전해야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아빠는 말씀하셨다. 경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통일이 되어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서 함께 잘살게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위험한 핵무기 개발을 빨리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산가족들을 한번만 만나게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을 때 매일 보면서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TV에서 이산가족이 만나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다. 아빠 말씀으로는 50년 동안 끊겨있던 철로로 비록 한번이지만 남한과 북한으로 통일 열차도 달렸다고 한다. 언젠가 TV에서 휴전선 근처에 사는 작은 학교의 전교생이 북한의 금강산을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북한과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사는 남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금강산을 여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금강산을 올라가는 모습만 보았다.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면 북한의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북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도 가르쳐주고 싶고,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라를 지키시는 훌륭한 아버를 믿고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내

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현충일과 6·25를 맞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겠다. 그분들이 흘리신 고귀한 피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 우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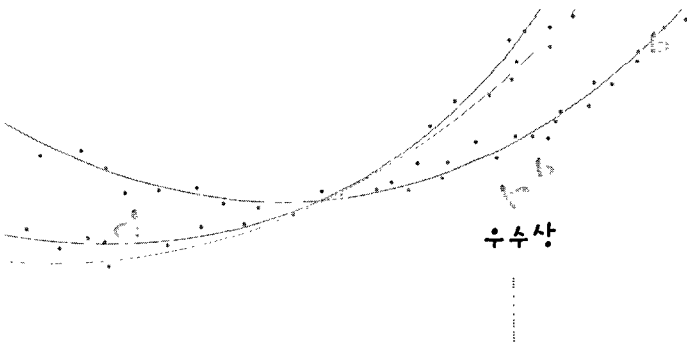
둘째, 통일에 대한 꿈을 키워야겠다. 통일을 먼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온 국민이 함께 소망한다면, 그래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들의 열망이 차고 넘친다면 통일의 날은 저절로 오리라 생각한다. 나부터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다.

셋째, 북한 사람들을 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 요즘은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가끔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을 본다. 같은 민족이니까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려 노력해야겠다.

넷째,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발전할 테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 한반도가 반 잘린 호랑이가 아닌 용맹한 호랑이로 거듭나는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 통일을 위한 성장통

발산중 3 · 조계연

최근 발생한 중국 쓰촨성의 지진에 관한 보도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에서 연일 다루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폐허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과 뉴스 화면으로 바라보다가 몇해 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6·25 관련 사진들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멈춰져버린 흑백 사진들이었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을 마음깊이 느끼진 못했었다. 다만 막연한 전쟁의 공포만을 느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전해 오는 선명한 동영상에서 자연의 재앙 앞에 고통 받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은 측은함과 함께 그동안 잊고 지내온 잠재의식 속 전쟁의 두려움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4년전 서울에서 이곳 일산으로 이사하던 날이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서울의 경계 지점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을 지나며 어깨에 총을 멘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 검문소가 나타났다. 순간 떠오르던 막연한 두려움은 북한과 좀 더 가까운 지역으로 한발 다가선다는 불안감이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사 이후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던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내용엔 신경이 좀 더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전쟁의 공포는 떨쳐 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며, 통일은 희망을 위해 풀어야 할 고민이다. 어른들은 통일만 된다면 일산 파주 지역 땅 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기대어린 대화들을 가끔씩 나누시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보위협을 해소로 인해 외국 자본의 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력의 신장과 영토가 넓어진다는 등의 설명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서술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키워 나가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다.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루던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밤새 마음이 답답했고, 가끔씩 떠나던 가족 여행 계획에서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북녘 땅은 목적지의 고민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위안 아닌 위안을 삼으며 감사해야 하는지 허탈했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호랑이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처럼 막연하지만 가장 큰 전쟁에 대한 공포의 해소를 위해 얼마나 통일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가정교육으로 인해 집 밖을 나서서 만나는 이웃 어른들에게 빠짐없이 인사를 올린다. 혹시라도 인사를 올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꾸지람을 하시기에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웃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한 번, 두 번 인사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식적으로 주고받던 인사는 표정을 담은 인사와 관심을 담은 대화로 나에게 돌아왔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에 값싸고 양질의 북한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고용주와 북한의 노동자들의 교류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 사이에 쌓여 있던 적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던 이웃 어른들에 대한 나의 편견이 몇 번의 인사로 사라졌던 것처럼 대화와 관심으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이 이념에 의해 가졌던 적대감들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교류, 각종 스포츠를 통한 교류에 의해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남북한의 국민들 대다수가 신뢰하는 그날이 온다면 좀 더 빨리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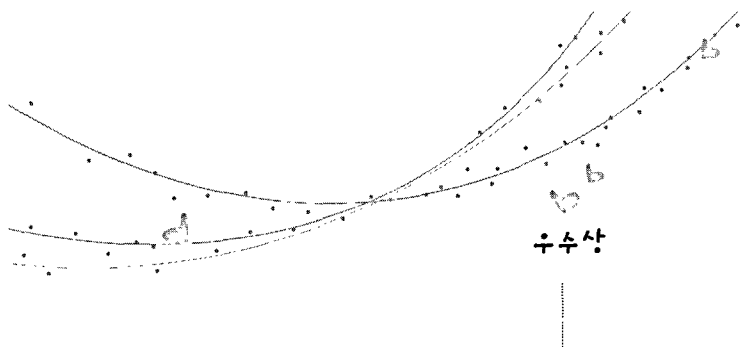
가끔 이웃에서 음식을 보내오면 어머니는 빈 그릇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무엇이라도 담아 보내신다. 이웃이 무언가를 되돌려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정성이라도 담아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하셨다.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자연 재해로 인해 굶주림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식량을 원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서를 담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통일 후에 만났을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하지 않았으므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마무리 할 즈음에 아버지가 나에게 “통일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니?”라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다. 독일의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비용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 주택보수 등이 있으며, 북한이 안고 있는 외채 상환 비용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다.

초등시절에 뼈마디와 근육이 무뎠던 경험이 있다. 너무나 아파서 참지 못하고 파스를 부쳐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것은 ‘성장통’이라고 하셨다. 근육의 성장이 뼈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이 성장통이며, 너가 크고 있다는 증거이며 좀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 거짓말처럼 아픔이 사라졌고 이후 몇 번의 짧은 고통은 있었지만 나의 키는 쑥 자라 있었다.

통일 비용이 경제에 무리를 준다면 지금부터 대비하고, 통일 이후 있을 여러 문제점들은 잘 연구하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성장통이 무서워 자라는 것을 멈출 수는 없듯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통일의 성장통을 겪은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통일, 그 가치를 되새기며

부천여고 2 · 조아라

끊어진 철길이 동네 앞을 지나고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뜻말이 붙은 인근  
 버렸던 땅값 오르리 라며 자식들 신바람 났지만  
 통일도 돈 가지고 하는 놀음인 것이 그는 슬프다

얼마 전 우연히 읽은 신경림 시인의 ‘끊어진 철길’ 중 일부이다. 민통선 안에 사는 농사꾼 ‘이철웅’ 씨를 주인공으로 한 이 시는, 통일마저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계산하는 현실을 비판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를 더 이상 정신적 가치보다 하등한 가치로 평가절하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 속의 ‘자식들’을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임을 노래한다. 도덕이나 국사와 같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빠짐없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6·25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기성세대의 경우는 통일 이후의 사회 혼란을 걱정하며 이를 반대하기도 한다. 통일 후 독일이 겪었던 경제난처럼, 우리도 같은 상



황이 발생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요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 수준 격차는 40배에 달하고, 이 사실을 묵과하기에는 현재 남한의 경제 상황 또한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독일처럼 경제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 퇴보는 녹록지 않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함께 눈물짓고 마음 아파는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지는 순간만큼은 냉철한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 실용적 가치가 또 하나의 미덕으로 이해되는 현 시대에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또한 크게 변화시켰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개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은 최근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찾고 있다. 또한 기존의 남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지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식량 지원이 아닌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일을 단순히 손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협력을 통한 우리 민족 전체의 상호발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이 아직 내보이지 못한 인적·물적 자원의 저력은 통일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에 힘을 더해줄 것이며, 휴전상황이 아닌 안정된 통일국가의 모습은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인 ‘문화’ 또한 남북한이 함께일 때 진정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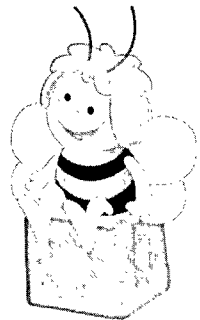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통일을 바라보는 남북한 서로의 진실한 태도와 이산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이들의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을 단순히 남한 경제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북한 또한 남한의 지원을 이용하려는 등의 구밀복검 같은 이해 타산적인 태도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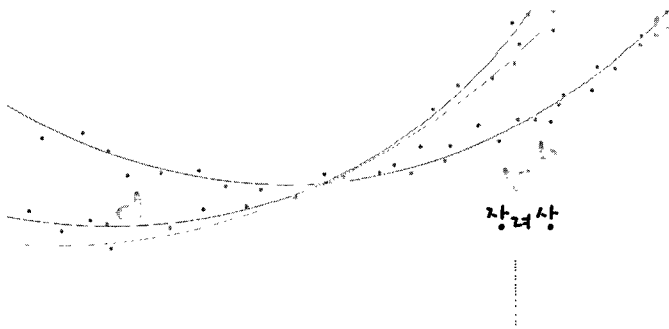
그는 친지들에게 꿀을 나누어주며 말한다

이게 남쪽 벌 북쪽 벌 함께 만든 꿀일세

별한테서 배우세 별한테서 본뜨세

미래에 통일을 주도하게 될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긴 역사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 민족은 결국 하나가 될 운명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한 운명 속에서 남북의 벌이 함께 만들어낸 꿀처럼 값진 통일은 막연한 것이 아닌, 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이다. 제2의 남북국 시대로 불릴 지금의 분단 상황에 대해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와 같은 내일의 떳떳지 못한 참회록을 쓰지 않기 위해, 우리는 통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통일지도! 그 꺾은 향하여

문산초 5 · 이승연

며칠 전 나는 제3땅굴에 다녀왔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들은 제대로 된 기계도 없이 땅굴을 팠다고 한다. ‘그 일을 한 북한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불쌍하였고 또 한편으론 무엇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는지 눈물이 글썽해졌다.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며 무서워졌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실향민이신 것이 생각났다.

집으로 오는 통일대교 위에서 차가 멈춰 섰다. 민정반이 버스에 올라와 둘러보고 내려갔다. 이곳을 지나면 허락을 받고 검문을 받는다.

남한에 있는 실향민들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문산의 주민들은 반 이상이 실향민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통일이 되면 남보다 먼저 고향에 가기 위해 이곳에 자리 잡아 어느덧 60년이 흘러간 것이다. 통일이 되어 하나로 된 통일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일된 대한민국은 더욱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지금의 분단국가에서는 군인을 많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기도 사들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

한다. 통일을 하여 전쟁의 위험성을 낮춘다면 전쟁에 대비하여 쓸 돈을 경제를 살리는데 쓸 수 있어 지금보다 더욱 잘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을 거대하고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이름이 다른 금강산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국가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등산하고 눈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제1땅굴, 2땅굴, 3땅굴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놀랐다. 특히 제3땅굴이 발견되었을 때는 더욱 그랬다. 큰 규모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불과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통일지도에서는 우리 민족의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 휴전선에 가로막힌 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하며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사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족을 찾아주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생각해 보면, 북한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지만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통일지도가 그려지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면 더 잘사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통일지도를 그리는 그 날이 온다면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은 자사성어에 있듯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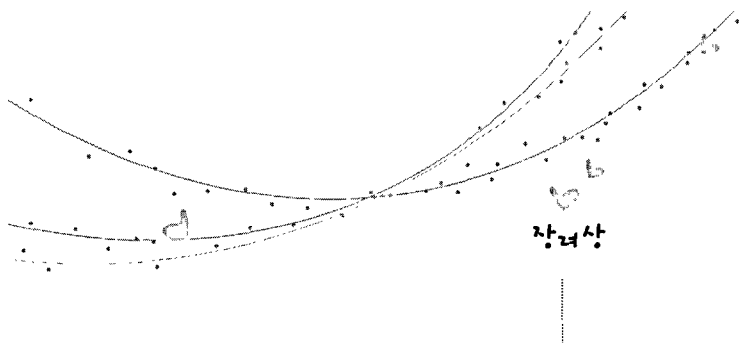
50년 동안 분단되어 있다 보니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 차이가 나는 국민들의 생활로 많은 혼란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넉넉한 사람들이 나누며 한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혼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분단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의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지도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 빨리 오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그 꿈을 향해 힘껏 날개를 펼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앞으로 달려 나가자.





## “평생 친구, 금정이”

안성중 3 · 이재호

지난 해 여름, 우리 집에 낯설은 손님이 왔다. 이름은 김금정, 내 동생 진희의 평생친구를 약속한 새터민 친구였다. 진희보다 한 살 위인 금정이와 하루 동안 우리집에서 함께 살고 생활해야 하는 일에 우리 가족이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정이는 엄마와 함께 탈북한 친구로, 죽산에 있는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 가족들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 했다.

어색했다. 생긴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왠지 낯설었다.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억양이 신기하기도 했다. ‘북한 말과 우리말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정이는 유난히 악세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동생 진희의 옷이나 악세사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진희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나라의 일반 여자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생 친구 서약서를 서로 나누었다. 비록 짧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만으로도 어색하고 낯설었던 금정이가 이웃집 동생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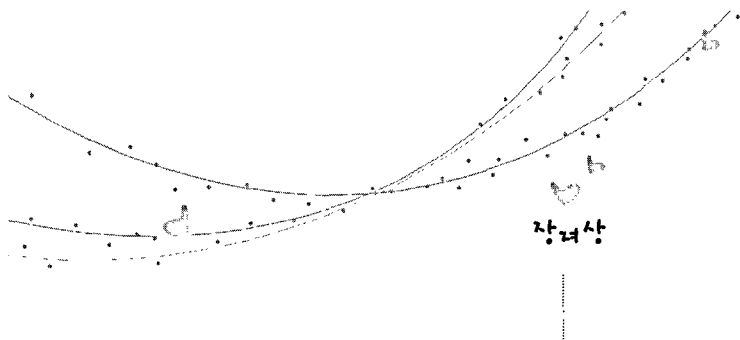
북으로 쌀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우리의 마음도 보낸다. 메아리처럼 늘 곁에서 들려오는 통일의 노래가 오늘도 되돌아온다. 나는 통일이 뭔지, 왜 꼭 필요한지,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한없이 우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고 싶은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깊은 그리움이 뺏속에 사무친다.’ 라는 아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다.

얼마나 그리울까! ‘금정이라도 남겨진 가족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을까’ 하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도 간다. 비행기, 기차, 배를 타고 전 세계에 못가는 나라가 없다. 우주인 이소연씨는 ‘우주에서 보니 우리나라가 하나로 보였다.’고 한다. 잘못 그어진 선 하나로 서로 충을 겨누고 감시하며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언젠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가 두렵기도 하다.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말을 나누는 아래, 윗집이 서로 몇십 년동안 이렇게 등을 맞대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북한도 아름다운 우리 땅, 우리가 함께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행복하게 더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금정에게 우리 모두가 평생 친구, 평생 가족, 평생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을 기도한다.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처럼, 더 강해진 자랑스런 통일 한국의 단합된 힘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정이가 살았던 북한집도 함께 가보고 싶다. 오늘도 나는 내가 손님이 되어 금정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꿈을 꾀본다.





## 할아버지의 미소

가좌고 1 · 유성혜

할아버지의 미소에서는 눈물 냄새가 난다.

어렸을 적,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어른들의 장난 섞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엄마도 아빠도 아닌 ‘할아버지’ 라고 대답하여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를 당황스럽게 하곤 했었다. 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때 분명히 엄마나 아빠보다 할아버지를 더 따르고 좋아했었다.

사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감정을 정밀하게 자로 재거나 저울로 달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때 내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왜 할아버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했는지 꼬집어서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세상에서 할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할아버지가 지닌 아픔과,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당신이 우리 가족들 몰래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의연하셨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할아버지가 항상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철이 들면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주름이 깊어짐을 보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미소 속에서 자주 슬



픔을 발견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늘 같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슬픔이 할아버지의 웃음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았다. 그런 할아버지를 뵈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슬픔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막연하게 생각해 보곤 했다.

언제나 그렇게 강하게만 보이시던 할아버지가 처음 눈물을 보이시던 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은 모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6·25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았는데 슬픈 장면이 많았다. 슬픈 장면을 보면서, 좋은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나에게 망설임 없이 그 영화를 이야기하며 무척 슬픈 영화라고 덧붙이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서로를 자신보다 더 아끼던 형제가 전쟁으로 인해 적이 되고, 마침내는 전장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극적 운명에 이르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나도 동생도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손수건이 흠뻑 젖어 더 이상 눈물을 닦을 수 없을 만큼 울었다. 훌쩍이며 눈물을 보이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되어 주위의 눈치를 살피다가 나는 할아버지도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짖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멍뭉치하며 내 시선을 피하고 애써 태연한 척 하셨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불안해 보이셨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때 겪은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물론 전에도 가끔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때마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날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극장에서 보인 눈물의 의미와, 평소에 할아버지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지어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휴전선 북쪽이다. 전쟁 중에 가족들과 헤어지셨고 서로 만나기 전에 휴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50년을 사셨다.

할아버지는 북쪽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때가 그림다고 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다녀오고 싶다고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또 한 번 울었다. 할아버지도 내 등을 토닥이시며 크게 숨을 들이키셨다. 평소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표현하지 않던 할아버지의 감정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다스려지지 않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점점 더 떨려오는 목소리를 통해 할아버지의 슬픔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할아버지가 지니신 그리움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산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말로만 이산가족의 상봉을 외치고 있을 뿐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한은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더 분하고 가슴 아프다고 하셨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뛰면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곳에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을 두고도 만나지 못 하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눈을 감으면 그려지는 고향을 가지 못 하는 이들의 마음을 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며 말끝을 흐리며 애써 눈물을 참으셨다.

통일은 갈라선 사람들의 그리움이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몫이다. 한창 꿈이 많던 초등학교 시절,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이 잠깐만이라도 유효하다면 나는 북한의 책임자를 만나 이산가족만이라도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통일을 이루어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고 싶다.

요즘도 할아버지는 날마다 웃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미소 뒤에 감추어진 눈물을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눈 속에는 북쪽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이 있고, 어릴적 함께 놀던 친구들이 있고, 새도 있고 바람도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눈물 냄새가 나는 미소를 짓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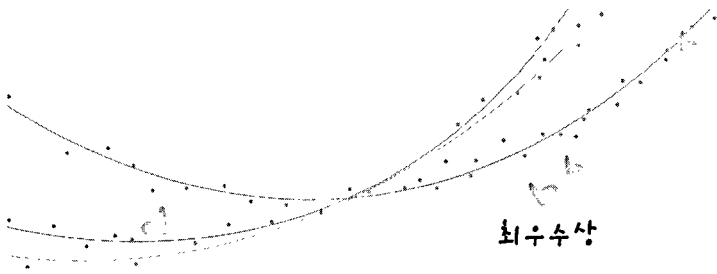


# 강원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_ 225
- 우리의 가슴에  
통일의 등불을 달아요 \_ 228
- 두 물방울이 하나가 되기까지 \_ 231
- 새터민 순애이모 \_ 234
- 창피한 일기장, 새로운 첫 장 \_ 237
- 할머니의 눈물 \_ 239
-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행복 \_ 242
- MUST HAVE \_ 245
- 슬픈 스케치가  
되지 않길 바라며... \_ 248





최우수상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성초 5 · 김인경

우리 한반도와 너무 비슷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어쩔 이리도 똑같은지……. 마치 사회과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들과 함께 선암마을을 찾아 한반도 지형을 전망대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일이었다.

선암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서강의 물줄기는 햇살에 반짝이며 삼면의 바다를 옮겨 놓은 듯한 한 폭의 그림이었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무궁화의 모습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기상을 표현하는 멋진 장관이었다. 나는 아빠가 찍어 주는 사진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예쁜 포즈도 취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몇 년 후에는 한반도 지형에 무궁화를 가득 심고 열심히 가꾸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암마을이 변할 것이라고 그곳을 찾으셨던 다른 아저씨께서 귀뜸해 주셨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책 박물관에도 들러 보았다. 흔히 보기 어려운 소중한 책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출입문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

그곳에는 조선시대에 글을 배우던 서당의 책과 같은 오래된 고서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살펴보았지만 책을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다. 교과서의 내용은 학년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전쟁과 전투에 대한 것, 죽고 죽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심지어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미술책에는 나뭇잎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에 탱크, 전투기, 군함 등이 모델로 나와 있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며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것으로 가득찬 책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나 많고 교과서의 재질도 우리 아빠가 예전의 초등학교에 다니실 때 사용하였던 70년대 초반 정도의 종이 재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 한번 교과서의 엄청난 양에 깜짝 놀랐다. 그 많은 것을 전부 공부하려면 나 같으면 중간에 학업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 두세 자리의 덧셈, 소수의 덧셈, 뺄셈도 나와 있고, 구구단은 기본이었다. 얼마나 북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시달리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나는 참 행복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아마 사상이 어찌고 하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점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해가 누엇누엇 질 무렵 우리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장에 오늘 느꼈던 일들을 옮겨 놓았다.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처럼 우리나라가 하나 된 나라로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을 것도 많으며 국민들은 더 잘사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통일이 되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모두들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차서일까? 아니면 우리는 잘살고 북한은 못살기 때문일까?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통일을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속에서도 60년이 다 되도록 남과 북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가족사랑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늙거나 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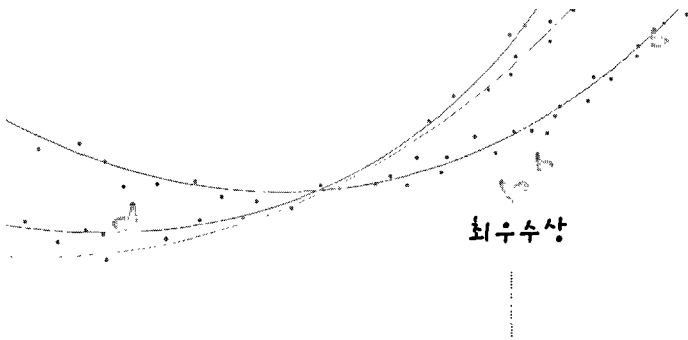


어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고 환한 햇살이 비추던 모습처럼 우리나라에도 무궁화 꽃이 활짝 피고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머지않아 또다시 6월이 돌아온다. 나라를 위하여 싸워 오신 많은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 아니 후년 6월이 돌아오면 그 때는 우리고장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에서 통일을 기념하는 문예행사와 무궁화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 우리의 가슴에 통일의 등불을 달아요

양구중 2 · 박병준

아버지께서 양구군청에 근무하시다가 해안 면사무소로 발령이 나셨다. 아버지께서는 보통 주중에는 해안에 계시다가 주말에 집에오곤 하셨는데, 한번은 놀토인 주말에 우리가족이 아버지가 계시는 해안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해안은 을지 전망대가 있고 제4땅굴이 있어서 학교에서 견학을 가본 곳이기도 했다. 우리가족은 낮에는 계곡에서 가재도 잡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놀다가 밤이 되어 관사로 돌아왔다. 가족 모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창밖을 내다보던 누나가 소리쳤다.

“저기 산꼭대기의 불빛 좀 봐, 저 큰 산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한 것 같아.”

정말 거대한 트리를 한 듯 산등성이를 따라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깜깜한 하늘과 땅 사이에 조그만 등불이 물결치고 있었다.

“아빠 저 불빛은 뭐예요?”

“저것은 우리의 철책선을 비추는 불빛이란단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군인들이 순찰하며 경계 임무를 서고 있는 거야.”

“이 밤중에도 자지 않아요?”

“그럼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하고 있단다. 우리가 편히 자는 이 밤에도,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저 불빛은 꺼지지 않는단다.”

이곳은 2004년 6월 이전까지 남한을 비방하는 대남방송이 들렸고 가끔씩





총소리도 들렸다고 한다. 내가 사는 양구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이곳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인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보다 아름다운 불빛이 북한의 남침을 경계하는 불빛이라니... 낮에는 보이지 않던 분단 현실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전쟁 영화에서 본 무장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사실 제4땅굴 견학을 하고 땅굴속의 열차를 타면서도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실감하지 못했다. 전시된 무기나 사진들을 보면서 '먼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임을 절감하지 못했다. 그냥 북한 사람들이 판 땅굴에 대한 호기심에 친구들과 감감한 굴이 무섭기는 했지만 재미있어 했다. 전망대에서 북한이 보인다고 해도, 저기 보이는 곳이 휴전선이라고 해도 막연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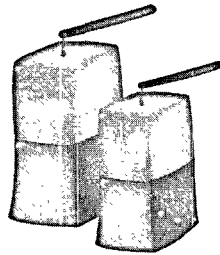
그런데 캄캄한 밤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켜져 있는 불빛은 우리가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 휴전을 한 분단국가임을 일깨우고 있었다. 원래 온전한 통일 국가였지만, 지금은 반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너무 오랜 시간 분단이 고착화되다 보니 분단현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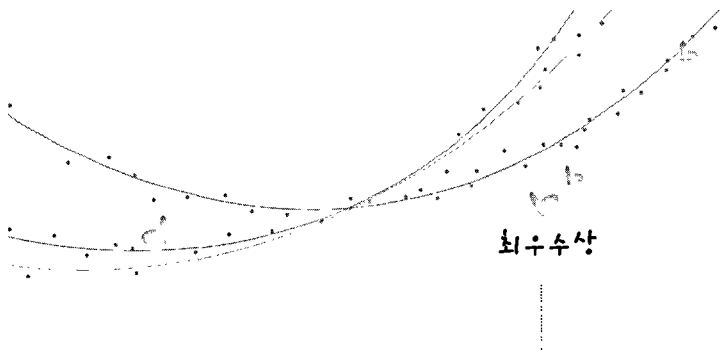
우리는 금강산 관광도 가고 개성도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오고 북한의 여러 일들을 남의 말하듯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호기심만으로 북한을 다녀오고 남이 안 가본 곳을 가본다는 관광 목적만 가졌다면 반성해야 한다.

북한과는 핵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남북어부, 국군포로의 송환, 탈북자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며,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비인간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발목 잡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는 원점은 우리가 분단국임을 자각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분단국임을 자각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멀리 아름답게 보이는 철책선의 불빛들은 내게 말하는 것 같다. 국민 모두가 차분히 한걸음씩 다가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잊지 말고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각자의 각오를 다지는 통일의 등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불빛들은 내 마음 속에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의 등불로 빛나고 있다.





## 두 물방울이 하나가 되기까지

북평여고 2 · 이원정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해 받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남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보다 적극적인 민족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의 굳어 있던 표정을 풀어준 것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이었다.

지난 2월, 평양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몇 해 전 겨울 어린 동생이 만든 북한행 기차표를 받아 드시던 순간의 할아버지처럼, 낯을 잃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 박수가 이어질 때까지도 그토록 가슴이 아렸던 것은 단지 연주가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고에 시달리던 만인의 가슴을 다독이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들은 것은, 악보를 통해 읽힌 이산가족들의 아픔이었으리라. 그 가락이 남북의 공통 언어로 승화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곁에 계신 아버지께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다.

“아빠, 통일이 되면 학교에서 평양 공연을 단체 관람하러 가기도 하겠죠?”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신 뒤 말씀하셨다.

“휴전선이 있던 곳에는 꽃이 만발하고 북으로 나들이를 갈 수 있겠지. 그러려면 너도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할아버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게다.

네 할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통일이란 단순한 국토의 통합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지.”

통일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던 중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거나 경제적 혼란을 운운하며 천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기억해 냈다.

50여 년이란 역사로 보면 한 순간일지 모르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연들이 담긴 시간이다. 그 세월 동안 어쩌면 때로는 잊혀진 희생자로 살아 왔을 그들의 가슴에 박힌 파편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머리 속에 떠도는 근시안적인 경제상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일 것이다. 창문 위의 두 빗방울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가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외세로 인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손을 다시 잡는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일이다. 더욱 활발한 왕래를 통해 긴 세월이 만들어 낸 차이를 좁히면서, 통합에 이르는 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 통일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통일 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화적 통일과 적절한 문화적 통합으로 여러 모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예멘의 경우 무력을 이용한 결과 수차례의 내전과 분열을 겪었다. 우리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화의 장을 넓혀 이해의 눈과 귀를 가지고 다가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외적 수단으로만 여겨져 한 형제임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를 따지기 전에 모두가 한 민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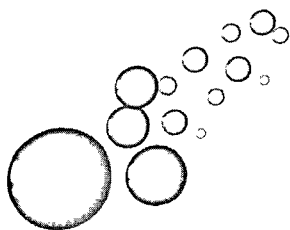
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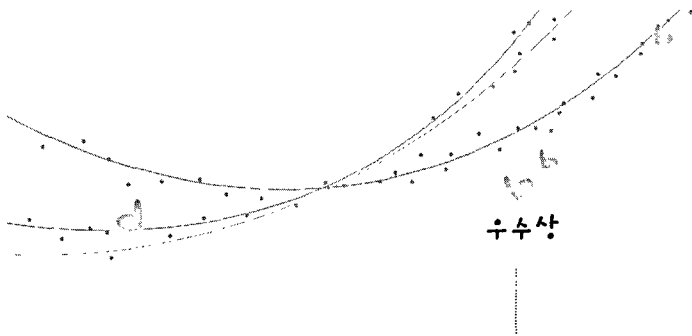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몇 분 전 연주가 끝난 아리랑의 선율이 내 가슴 속에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아빠, 할아버지도 들으셨을까요?”

“그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니, 할아버지께서도 흐뭇해하실 게다.”

그 선율이 하늘까지 적셔주기를 바란 것은, 그 곳이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만도, 아버지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속에 흐르던 아리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느꼈다.





## 새터민 순애이모

천곡초 6 • 조영옥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저녁 뉴스에서는 북한의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간신문에 나온 어느 북한 시인의 글을 어머니께서 읽어주셨는데 자식을 몇백원에 판다는 내용이였다. 그 돈으로는 빵을 사서 다른 자식의 입에 넣어 주는 너무도 슬픈 사연이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북한의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던 ‘순애이모’는 북한에서 오신 새터민이였다. 순애이모는 가족 모두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서 돈을 빨리 벌어서 나머지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다. 나는 순애이모와 금방 친해져서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이모는 보름정도 일하시다가 그만두셨다. 아무리 조리 과정을 익혀도 서툴러서 힘들었는데 다행히 나라에서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여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다.

보름 일한 품삯을 받아서는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순애이모는 북한에서 왔지만 생김새는 우리와 다름이 없었다. 말투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대화하는데 어려움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 먹는 음식이 서로 달라 보름을 익혀도 스스로 음식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꼭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북으로 갈라진지 60년이 넘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오히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공산주의였던 중국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같은 형제, 한 핏줄이라고 외치는 우리 민족끼리는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 음식은 사먹을 수 있으면서도 북한 음식은 먹어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6학년이 되어 수업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동영상을 보여 주시고, 정주영 할아버지께서 엄청난 소떼를 실은 트럭을 몰고 판문점을 넘어가시는 모습도 보여 주셨다.

오래 전의 일이라 옛날 이야기처럼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얼마 안 된 이야기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뜨겁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공항에 멋진 카펫을 짝 깔아 놓고 우리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쌀이나 비료가 북한으로 실려 가는 모습은 보았지만 살아있는 우리 한우까지 보내 주다니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쯤 그 소들은 얼마만큼 늘어났을까? 농사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을까?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4학년 때 신라의 도읍지 경주를, 5학년 때는 백제의 도읍지를 현장 학습으로 다녀왔다. 올해는 조선의 도읍지를 찾아 현장학습을 간다. 요즘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에는 평양이나 개성이 도읍지였다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를 북쪽으로 엄청나게 멀리 확장시키신 광개토대왕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고 싶다. 고려시대 때 쌓았단 천리장성은 남아있는지, 정몽주 선생님이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선죽교는 정말 그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리 금강산 여행을 하고 백두산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테마학습으로 다니는 도읍지 찾아보는 현장학습을 남한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내가 중학생이 되면 제주도나 중국으로 관광 현장학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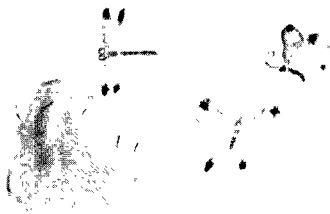


아닌, 초등학교에서 이어지는 도읍지를 찾아보는 테마학습을 계속하여 고구려, 고려의 문화재를 돌아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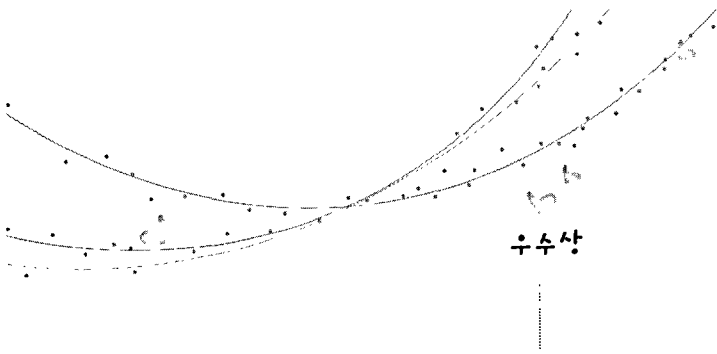
순애이모를 다시 보고 싶은 소망, 북한에 있는 유적지를 돌아보고 싶은 소망, 이런 내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꼭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통일을 우리보다 먼저 이룬 독일도 통일 이전에서도 자유롭게 왕래를 했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을 제한적이지만 오가고 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수학여행까지 오간다면 머지않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올림픽 성화도 남한을 통과하여 북한을 갔는데, 더군다나 올림픽 성화가 우리나라에서 달려갈 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국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인 이산가족들은 가족을 못 만나서 안타까워한다. 새터민 조차도 간신히 목숨 걸고 온 것이라고 한다.

하루빨리 순애이모도 남한의 모든 일에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오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남북한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 창피한 이기장, 새로운 처장

속초여중 3 · 고은지

지난 해 단풍이 하늘을 물들일 만큼 짙어졌을 때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머리는 방금 걸레질해 낸 것처럼 텅 비었던 것 같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과의 만남을 바로 눈앞에 둔 나의 감정은 기대감보다는 막연함이라고 해야 옳았을 것이다. 오락을 동반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민족’과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들이 수반되는 북한관광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DMZ를 지나 북쪽 땅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순간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다. 같은 땅에 발을 딛고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며 살고 있건만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일상의 확연한 차이는 정녕 놀라운 수준이었다.

시간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껴진다고 누군가 말했다. 북녘 풍경과 삶의 모습을 바라본 것은 분명 단 며칠이었으나 남한과의 대비가 심하여 심정적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겪어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금강산과의 짧은 만남에서 길고 긴 시간여행이 가능했다는 생각은 나만의 것일까!

북녘의 조그마한 집들은 생김생김이 어디에선가 찍어낸 듯하였고, 크고 작은 산들은 머리가 반들거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곳의 주민들은 일을 하다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자그만 체육복을 입고 종알거리며 웃다가도 우리를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었다. 그 곳 사람들도 우릴 다른 나라 사

람 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차창에 코를 대고 자신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우리의 뚫어질 듯한 시선이 의아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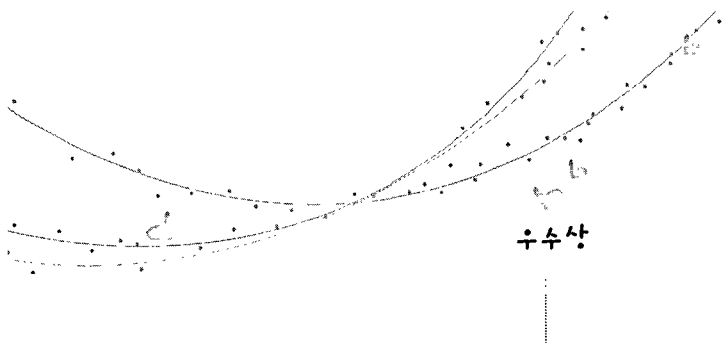
금강산의 투명한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내 리치는 폭포가 우리의 응어리진 가슴도 쓸어내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보아야 할 사람을 잃어버리고 디더야 할 땅을 상상만 해야 하고 당연해야 할 익숙함이 낯설기만 한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 한반도를 꼭 동여매고 있을 것 같던 철조망은 온데간데 없고 철사줄 하나 걸쳐져 있지 않던데 뭐가 그리 어려울까.

몇 년 전 썼던 일기장을 뒤적이다 보면 혼자 있어도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절로 웃음이 나온다. 전에 적어뒀던 메모 몇 줄을 어느 갈피에서 찾아 슬쩍 읽어봐도 피식 웃음이 새나온다. 과거는 늘 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동반하나다. 이렇게 고작 몇 년 전의 내 개인적인 끼적거림도 창피한데 수십 년 전의 민족 역사가 쉬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리 부끄러운 일을 삭혀두고 있을 이유가 없다. 고약한 냄새를 꽃향기로 가릴 수 있던가. 오래 전 일기장의 부끄러움은 호탕하게 한 번 웃어서 훌훌 털어 버렸으면 한다.

금강산에 갔을 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만든다는 호텔 공사 현장을 스쳤었다. 생각보다 엄청난 크기의 규모였다. 저 곳 가득 메워질 훈훈하고도 씩씩한 공기를 떠올리니 다행인 마음 한편, 안타까운 마음 한 편이었다. 그곳에 모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두 팔 벌리면 안아질 작은 가슴 안에 한 맺힌 그리움의 부피는 얼마나 클까. 그 안 얼마나 그득히 차 있을까. 그들의 주름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 골에 눈물이 더 이상 고이지 않게 어서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되어서, 해맑게 조잘거리던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서도 살가운 조잘거림을 그치지 않고 정답게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가지 못하는 우리 땅 안에 가족을 두고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조심스럽게 공책의 첫 장을 접어내는 새 학기 학생의 마음,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쓰기 전 연필로 미리 예쁘게 써두는 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예쁘게 써나갔으면 한다.





## 할머니의 눈물

춘천실업고 3 · 이은지

“할머니,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꼭 올게다. 우리 은서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구나.”

“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시죠?”

“그럼, 이 할미도 북에 있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 말구.”

할머니는 오늘도 할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실 때 간직하라고 주신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히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하신 지 어느덧 58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헤어지셨다. 할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나신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 때 할머니의 나이 20살이셨고, 결국 친정이 있는 남으로 혼자 내려오셨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할머니는 어디에선가 살아계실 것 같은 할아버지를 기다리시다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시고 아빠를 낳으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셨다. 그 즈음 할아버지가 평양에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어렵게 접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아들과 평양에 살아있다는 남편을 생각하며 곳곳하게 살아오셨다.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팀에 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순희 할머니 되십니까?”

“네, 제가 한순희입니다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이현수 할아버지가 맞으시죠?”

“네, 그럼 이번에 제가 평양에 간다는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할머니 내일 적십자사에서 사전 설명회가 있으니 가족 분들이랑 꼭 나오세요.”

드디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곁에 있던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적십자사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 설명회를 듣고 왔다. 출발일은 200X년 X월 XX일이고, 육로를 통해 가며, 상봉 장소는 평양에 있는 유명한 호텔로 정해졌다. 그리고 상봉 번호는 행운의 77번이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시던 출발일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예쁜 한복으로 갈아 입으셨다.

“우와~ 할머니 너무 예뻐요. 새색시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좋아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가족은 버스를 타고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갔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북녘의 풍경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상봉 장소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정 좌석에 앉았다. 가는 시간 내내 우리 가족 모두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봉 장소에 도착해서 30분쯤 흘렀을까 왼편에 있는 큰 문이 열리고 북측 상봉자들이 들어와 가족들을 찾았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앞에도 77번의 명찰을 단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저 한순희 어머니 되십니까?”

“그렇소만, 누구신가?”

“저는 이현수 씨 아들 이진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아버지는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넋을 잃고 앉으셔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긴 기다림 끝의 만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조금만 빨리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할아버지는 가슴에 한을 안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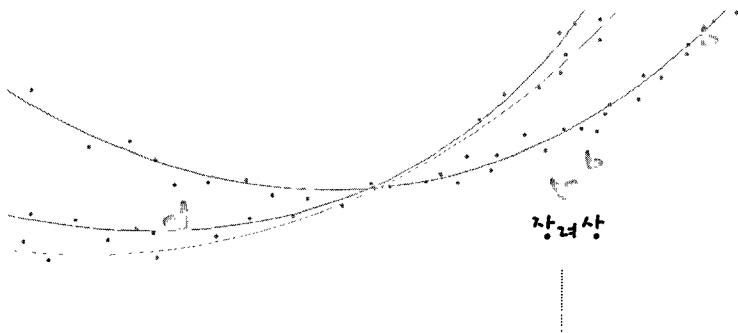
모든 상봉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셨다는 편지를 꺼내 보셨다.

“이보게 순희! 당신과 헤어진 지 어느덧 50년이 훌쩍 넘어 버렸구려. 나는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정말 고맙소, 여보!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았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신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마음 한 켠 당신을 그리며 통일이 되는 날만 기다렸다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소.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오. 죽기 전에 꼭 다시 만나고 싶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가족 모두 소리 없이 울었다.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 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렸다.

할머니의 하염없는 눈물과 슬픔을 보면서 나는 기원해 본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기를.





##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행복

성림초 6 · 정도현

“도현아, 너, 요번에 외증조할아버지 산소에 함께 갈래?”라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 바쁜데.”하고 심드렁하게 말하자 엄마께서 말없이 나를 쳐다보셨다.

“도현아, 그래도 외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첫 제사인데 가자. 외할머니께서 네가 가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하셨다. 유난히 외증조할아버지를 좋아했던 엄마의 표정을 보니 난 거절할 수가 없었다.

5월 4일 아침 일찍 외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은 대전 국립묘지로 향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니 공연히 심술이 났다. 하지만 날씨가 꾸물거리더니 비가 와서 좀 위로가 되었다. 대전까지 가는 시간은 좀 지루했다.

대전 국립묘지에 도착하니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입구에 있는 현충탑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백색 대리석 조각들이 흐린 날씨 때문인지 표정이 더 슬프게 보였다. 낮은 뒷산을 배경으로 놓인 수많은 비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계급과 이름만 쓰여진 비석들이 많았다.

작년에 돌아가신 외증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올라가고 있는데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마네킹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에고, 그리움으로 돌이 되었구만. 쫓쫓.”

외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혼잣말을 하셨다.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할머니 표정이 슬퍼보였고 엄마도 잘 웃지 않으셔서 괜히 슬퍼졌다.

묘지에 도착하니 강릉에서 증조할머니와 이모할머니들께서 이미 와 계셨다. 묘 앞에는 간단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때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다리를 다치셨다고 한다. 그래서 평생을 다리가 불편하게 생활하셨다. 외할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가 싫고 속상하셨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미안하셨던지 학교에도 자주 마중을 나오셨는데 그게 싫은 외할머니는 몰래 도망을 친 적도 있었단다. 외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훨씬 뒤라고 하셨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던지 외할머니는 증조외할아버지만 생각하시면 눈물부터 흘리신다. 그 날도 증조할아버지의 비석을 만지시며 우셨다. 다행히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국가 유공자가 되어 참 기뻐하셨다.

“오래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다고 한다.

어른들은 묘지 앞에 둘러 앉아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셨다.

“나쁜 놈들. 평생을 나 몰라라 하더니만…….”

아직 정정하신 외증조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그래도 어디예요? 여기에 묻히시게 되었으니, 아버지도 참 좋아하실 거예요. 나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중에 국가 유공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라고 이모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막내 이모할머니께서 힘들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노력한 끝에 국가 유공자가 되셨다고 하셨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나 몸을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나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서나 국가 차원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고 하셨다. 아마도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이 떠오르신 것 같았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나는 국립묘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육군 일병 ○○○의 묘’, ‘육군 병장 ○○○의 묘’ 차례대로 이름을 눈으로 읽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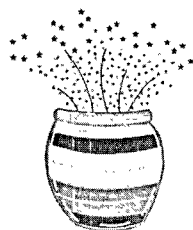
“아빠, 일병이면 몇 살쯤 된 거예요?”라고 궁금해 하자,  
“글쎄, 한 스무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대답해 주셨다.

아빠께서는 그 당시 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곳에는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고도 했다. 어떤 큰 묘비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 하신 일들이 적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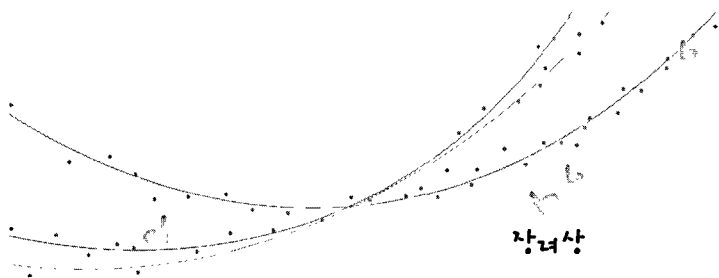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따라 나온 꼬마아이를 보았다. 묘비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해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오면 선생님께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시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묘비에 놓인 알록달록한 수많은 꽃들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그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하나 되는 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온 한민족이 한마음 되어 불러보고, 태극기 건곤감리 청홍백을 남과 북, 같은 민족이 꽃잎처럼 달아보는 그 날이 온다면 그 분들의 희생이 또 한 번 빛을 발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외증조할아버지를 뵈고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갑하산아, 이 분들 잘 지켜줘,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많은 분들의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 줘.”라고.







## MUST HAVE

김화여중 3 · 김한나

국어시간에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다. 국어선생님께서서는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이 조국 광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다. 문득 나는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통일이라는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 손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본 나는 가슴 한구석이 마치 체한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했다. 또 한편으로는 아린 느낌이 싸하게 내 몸에서 감도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상했다. 그 사람들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몽클한 느낌이 들다니…… 얼굴은 모르는 사이라 해도 우리는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0년 전만해도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에서 살았던 한민족이 아닌가! 그렇다. 내가 느낀 기분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기분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낸 적이 처음이었다. 겨우 3박 4일 떨어져 있는데도 왜 이리 가족들

이 보고 싶었는지……

그렇다면 60년동안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통일은 최소한 이런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다. 찬성과 반대가 아닌 무관심과 반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살 만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우리나라가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아예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통일관이고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반만년이라는 우리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워낙 개구쟁이고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싸움을 할지라도 금방 화해를 하고 다시 함께 어울려 논다. 이러한진대 남한과 북한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통일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코앞의 서로만의 이익을 계산하며 통일을 반대해서는 안 되며, 우리 조국의 발전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한다.

내가 사는 우리 고장 철원은 맑은 강과 푸른 산이 펼쳐져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이 청정 철원에서 아빠는 논농사를 하시며 우리 가족을 부양하신다. 철원의 오대미는 맛있는 쌀로도 유명하다. 한번은 아빠를 따라서 논에 간적이 있는데, 지뢰 때문에 버려진 땅이 정말 많이 있었다. 그 땅을 보고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통일을 해서 이북의 강원도 지역과 여기 철원 지역의 영토가 합쳐진다면 농경지대가 훨씬 넓어지고, 그러면 우리고장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철원 오대미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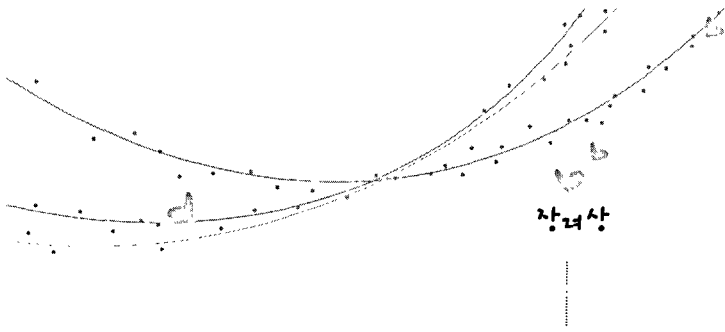
나는 휴전선에 있는 승리전망대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 그 때마다 망원경으로 북한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마치 외국인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하나의 나라인데 서로의 모습을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외국인처럼 느끼고, 한번 놀러가는 것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 내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백두산도 금강산도 마음만 먹으면 가벼운 몸으로 놀러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된다면 땅을 그냥 방치하는 이유도 없어지고, 한반도 전체를 마음먹기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비무장지대에서 근접한 철원에 사는 학생으로서 통일은 핫이슈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니 꼭 철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일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기다리는' 글짓기 대신 '통일을 축하하는' 글짓기를 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스프 스키치가 되지 않기 바라며...

고성고 1 · 권선남

작년 여름에 영월 지형 탐사를 다녀온 적이 있다. '선암마을'이란 곳에 가서 반도를 꼭 빼닮은 지형을 볼 수 있었다. 함께 갔던 친구들 모두 "정말 똑 같다!"라는 탄성을 외쳤던 기억이 난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축소판을 보는 듯했다.

올 4월초 '통일기원 체험현장학습' 캠프에 참가하면서 그 '선암마을'의 한반도지형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곳이 있었다.

민통선을 지나 학습 수련원에 속해 있던 우리 일행이 간 곳은 멸공 O.P였다. 급한 경사와 굽은 길을 올라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곳을 지키시던 군인 아저씨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리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신다는 소리에 불평하던 우리들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산 정상에 있던 멸공 O.P에 도착해 군인 아저씨 안내 말을 들으며 망원경으로 남방한계선 저 너머를 바라보았다. 넓게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민들레 별판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북한 땅 건천리 마을도 보였다. 현재 거암리 별판이라 불리는 민들레 별판에는 언제부터인가 민들레가 피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일까? 민들레가 피지 않는 건……. 그 역시 우리 민족의 시련을 알고 시름에 젖어있다는 것은 아닐지? 마음이 스산해졌다.

산을 내려오기 위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관측소에서 바라다보는 비무장지대의 느낌과 사뭇 달랐다. 세 겹의 남방한계선 철책도 만져보았고, 한탄천과 대전차 방지턱도 보았다. 문득 새가 되어 날아보고 싶었다. 새가 되어 날기만 한다면 눈앞에 있는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를 지나 건천리 마을을 밟아 볼 수 있을 듯해서다. 영월 선암마을에서 본 한반도지형에는 분명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없었는데……. ‘누가 철책들을 세운 것일까?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라고 배워왔는데 그 하찮은 철조망 하나로 이렇게 찢어져 있어야만 하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하기만 했다.

통일학습수련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간인 통제구역 안의 자연은 생각보다 더욱 황폐했다. 여기저기 쉽게 눈에 띄는 곳곳에 지뢰밭이 보였다. 풀과 나무들은 메말라 죽어있었고 땅은 쓸모없이 버려져있었다. 수많은 군인아저씨들의 행렬도 볼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세계 속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막대한 돈을 국방비로, 그것도 유일하게 한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지키느라고 낭비하고 있음에……. 50여 년이 지난 동안 사상의 대립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립 상태로 마주하다니…….

당장이라도 철책을 걷어 내고 내 눈으로 보았던 북한 땅 건천리 마을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한국전쟁 당시 그 자리에 있어서 이산가족이 된 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을 보지 못한 그 아픔을 해결할 방법은 금강산면회소에서 치르는 이산가족상봉 프로그램밖에는 없단 말인가……. 만나기 전보다 더한 절절한 아픔만 남기는 상봉은 아닐런지? 온전한 통일만이 그 고통과 한을 치료해줄 방법이라.

3박 4일 마지막 코스는 ‘고성 통일전망대’였다. 고성 땅에 살고 있는 나는 통일전망대를 수십 번은 가 본 듯하다. 사실 지겨울 정도로 자주 가봤기에 정말 흥미없고 지루하리라 생각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3박 4일 일정에 너무 지쳐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행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안에서 잠이나 잘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줄에 떠밀려 올라가다가 내 눈에 새

로운 정경이 펼쳐졌다. 눈 시리게 펼쳐진 파아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두 개의 석상, 멀리서 보기에 도 부처님 석상과 성모 마리아상이 틀림없는 이 석상들이 절간 한 구석이나 성당어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땅 끝에서 있기에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통일교육을 받고 있었기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북녘을 향한 그들의 눈망울엔 간절한 염원이 어려 있었다. 종교적인 눈으로 두 개의 석상을 보았다면 분명 부조화를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종교의 교도들의 갈등,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미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 내 눈에 비친 석상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듯한 눈망울이 종교적 이념을 초월한 한국인의 눈망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석상의 모습은 서로 다르고, 옷차림도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를 염원하는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이념 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이지만 두 석상처럼 우리들이 염원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통일일 것이다. 그래, 우린 기필코 하나가 되리라.

두 석상 앞에서 나는 며칠 동안의 통일교육을 되새기며 군인아저씨들과 함께 한 시간과 그동안 스친 많은 감상들을 흰 도화지 위에 스케치해 보았다. 그 채색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내 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몫을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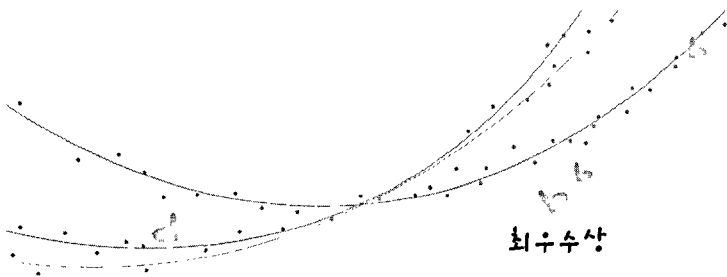
## 총칭북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떠나고 싶은 북한 기행 \_ 253
- 통일의 영화를 찍어보자 \_ 255
- 통일 - 평화롭고 따뜻한  
삶을 위하여 \_ 258
- 판문점에서 부르는 노래 \_ 260
- 금강초롱의 약속 \_ 262
- 할머니의 소원 \_ 264
- 우리의 꿈, 통일 \_ 266
-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_ 268
- 한반도, 이대로 좋은가 \_ 271







최우수상

## 떠나고 싶은 북한 기행

진흥초 5 · 이희호

4학년이 되면서 나는 한 달에 한번 역사탐방을 다니고 있다. 가까운 내 고장 유적지에서부터 중국에 있는 고구려, 발해 유적지까지 이젠 거의 안 가본 고장이 없는 것 같다. 어떤 곳에서는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이 절로 나올 때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문화재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화가 날 때도 있었다.

작년 겨울 '철원 평화 기행'을 갔을 땐 1박 2일 내내 마음이 아팠다. 집에 있을 땐 느낄 수 없었던 분단의 아픔을 철원에서는 다니는 곳마다 느낄 수 있었다.

8·15 해방 직후에 세워 6·25 전쟁 때까지 사용했다던 조선 노동당 당사에 갔을 땐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노동당사라고 불리는 그 건물은 3층짜리로 거기에는 고문실, 사무실, 강당이 있었다고 한다. 더 끔찍한건 폭탄에 맞아서 지붕이 없어진 노동당사에는 무수히 많은 총알 자국이 있었고, 계단에는 탱크가 지나간 자리가 허물어진 모습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창문도 없고 벽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송송 나 있다. 그 사이로는 쇠막대가 우물 정자로 꽂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노동당사 주변을 한바퀴 빙~ 돌아 둘러보니 내 마음도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아팠다.



내 마음이 아픈 곳은 노동당사 말고도 백마고지가 있는데, 백마고지는 심한 폭격으로 나무가 쓰러져 산의 모양이 백마가 쓰러진 모습과 동일하여 이름이 백마고지이다. 다른 이름은 395고지, 이이스크림산 등이다. 나도 이름을 붙여 주자면 백지산이라고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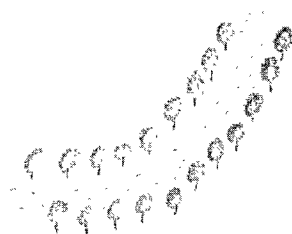
올라가는 길에 기념관에서 그때 당시의 사진들을 보며 그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빌었다. 남과 북의 합작품인 승일교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간 승일교처럼 합쳐질 것을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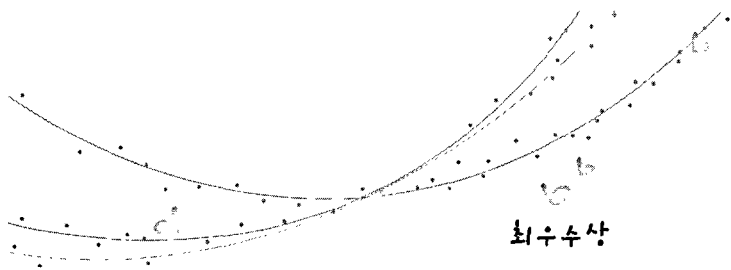
평화 전망대에서는 말로만 듣던 비무장지대를 보았다. 비무장지대를 보니 정말 한걸음에 북한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흐르는 실개천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북한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같은 나라이면서 가지 못하는 것일까?

평양에도 구경 가고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백두산 천지도 북한에서 가보면 좋을 텐데.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 많이 남아 있는 고려, 고구려의 유적을 직접 가보고 싶다.

우리가 북한에 8박 9일로 평화기행을 가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 통일의 영화를 찍어보자

한국교원대학교부설 미호중 3·조한솔

“내 죽기 전에 마누라랑 딸 한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만……” 영화 ‘간 큰 가족’의 김노인이 수십 년을 함께 살고 부인과 딸을 북한에 두고 온 채 그리워하며 한 말이다.

간 큰 가족이라는 영화는 통일을 바라는 한 할아버지와 50억이라는 유산이 달린 유언장을 위해 가족들이 꾸미는 통일 자작극을 재미있게 그려낸 영화이다. 가족들이 비록 50억이라는 돈을 위해서 통일 자작극을 꾸며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는 통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이산가족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평생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늘 그리워만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1983년 한 방송사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을 시작으로 몇 해 전부터 정부의 주도로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은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그들만을 위한 자리였다.

몇 해 전에 있었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서 56년만에 어머니가 아들을,

아들이 어머니를 안아 봤다며 기쁨의 눈물의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은 5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이 어머니는 다른 이름 모를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부둥켜안기까지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만 했지 아버지 노릇은 한 번도 못해 봤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가슴 뭉클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다가 만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헤어짐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산가족’이라는 말은 잊혀질 것만 같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58년이 되었다. 그 동안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이기나긴 시간동안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나면 이산가족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말을 하면 이산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려 왔지만 이제는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잊혀지고 다른 어떤 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이 잊혀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잊혀질지도 모른다.

요즘엔 국제결혼이니 뭐니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개방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그런 사이가 되질 못하니 더욱 답답함만이 느껴질 뿐이다.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말, 문화 그리고 생각도 모두 한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로 인식되어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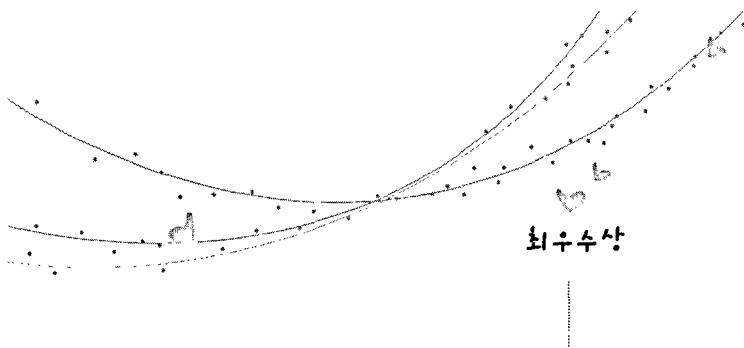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그 전에 모든 일이 해결되어 후손과 타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다음번에는 통일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감동적인 영화가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분단이 되어 서로가 겪은 아픔의 시간에서부터 통일이



된 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영화 말이다. 통일이 되어 만들어진 이 영화가 동시 개봉하여 상영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민족이니까’가 아닌 ‘한 민족으로서’ 말이다.





## 통일 - 평화로고 떠떠하 사을 위하여

봉명고 2 · 민상숙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 시에서는 분단의 상황을 '모진 바람이 분다.'라는 시구로 나타내었고,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와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와 같은 시구를 통해 통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만 있다면 넘을 수 있는 것이 분단의 벽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시를 읽으며 남과 북의 분단과 대치 상황이 반드시 끝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가 발표된 지 어언 5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에 의하면 벌써 5번은 더 변했어야 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의 남북 상황은 5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남과 북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인 휴전선이 놓여있고, 오히려 적대감과 불신만이 팽배해졌을 뿐이다.

분단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민족은 한결같이 통일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래왔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랜 분단 상황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우리는 '왜 통일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아무 생각 없이 열의 아홉

은 똑같은 대답을 한다.

첫 번째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의 역사 아래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마땅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통일의 당위성이 될 수 없다.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 세 개의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고, 반대로 중국이나 미국은 여러 민족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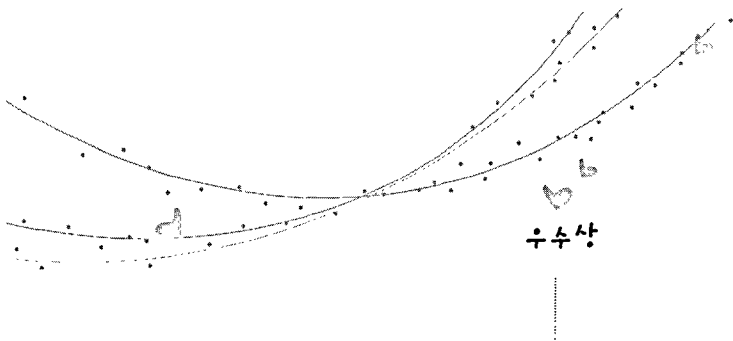
두 번째는 분단 비용이 많이 들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남녘의 경우 상비군이 60만 명을 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군사비가 한 해 전체 예산의 약 15% 정도라고 한다. 북녘의 경우는 남녘보다 군사비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을 합친 우리민족의 상비군이 130만 명 정도라 하였을 때 일본의 상비군이 30만 명 정도라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꼴이 된다. 어마어마한 차이이다.

그러나 분단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또한 그다지 설득력 높은 통일의 당위성이 되지 못한다. 분단 반세기동안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젠 타성이 되어 버려 아무렇지 않게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통일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으로 '화약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이 시급하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에서 벗어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통일의 당위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통일을 단지 국토가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일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통일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가 심리적으로 '우리는 한 국가의 한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 판문점에서 부르는 노래

금천초 4·신하은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판문점이란다.”

지난 여름방학의 일이다. 아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판문점이었다.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여러 검문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판문점 여기저기에는 검은 안경을 쓴 군인아저씨들이 권총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판문점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있고, 실제로 경계선도 있었다. 아주 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북한, 그 안쪽은 남한이라고 아빠께서 가르쳐 주셨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TV에서 보았다. 고작 그 선 하나를 넘어가기까지엔 60년 정도 걸렸다고 한다.

가끔씩 나도 친구와 다투었을 때, “이 선 넘어 오지 마. 이 선 넘어오는 물건은 다 내꺼야.”하고 말해도 몇 분 안가서 금방 깔깔거리며 수다를 떠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이렇게 통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문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다. 판문점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참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두고 여행을 못한다니…… 북한의 경치는 우리나라 여느 시골과 같았다. 나는 그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원을 빌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꼭 통일이 되게 해 주세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글이 떠올랐다.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그 위의 통치자들이 통일이 싫어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생각하니, 김정일 아저씨가 미워졌다. 아저씨는 왜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생활이 싫은 것일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손을 잡으면 경제도 더 좋아지고 이산가족도 만나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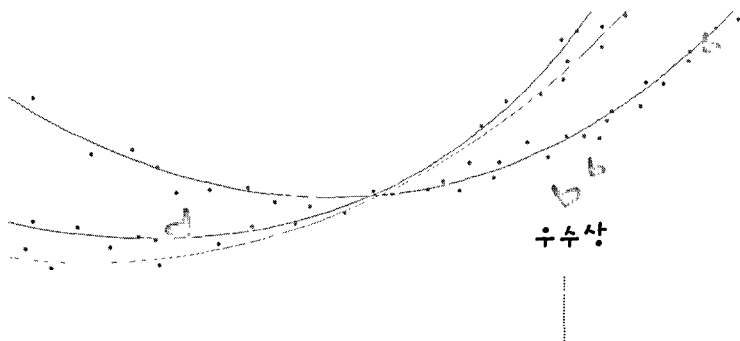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점점 졸음이 왔다. 결국엔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꿈나라에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북한 어린이들은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나도 같이 놀자.” 그러나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서 놀았다. 꼭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는 도중 벌써 집에 도착하였다. 부스스한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얼굴이 붉어진 해님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너무 예뻐다. 해님의 얼굴은 마치 꿈에서 본 북한 어린이의 얼굴 같았다.

엄마께선 “하은아, 빨리 가자, 얼른.”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생각했다. ‘언젠간 통일을 하겠지?’

하늘의 붉은 노을이 더욱 붉은 것 같았다.





## 금강초롱의 약속

청운중 2 · 이선아

1년 전쯤의 일이다.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가 증가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지고 공연 횟수가 늘어나게 될 즈음에 드디어 1년 전에는 개성 출입이 허가되었다. 그로 인해 북한에 가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할머니와 우리가 측은 개성관광을 다녀오게 되었다. 늘 TV에서만 보던 북한의 모습이 실제로 내 눈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 정말 들뜨고 즐거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개성에 가는 길은 그렇게 단조롭진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라는 곳에서 허가를 받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긴 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눈물이 나올 만큼 치밀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였다. 소지품과 가방검사는 물론 휴대폰을 전부 건었는데, 갑박하고 휴대폰을 내시지 못한 아버지께서는 10만원의 벌금을 물으셔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할머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우린 분명 한 민족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는 서로가 자유롭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서로 검사하고 의심해야만 할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경계선이 그어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도 경계선이 하나 그어진 것만 같았다.

내 마음에 남겨진 지울 수 없는 그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슬픔은 송도 삼절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다. 황진이와 서경덕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보면서도 웬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왔고, 박연폭포의 기막힌 절경에도 시원한 웃음을 지을 수 없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부딪쳐야만 한다는 생각에 절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곧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이렇게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다는 이 현실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라는 생각이 든 까닭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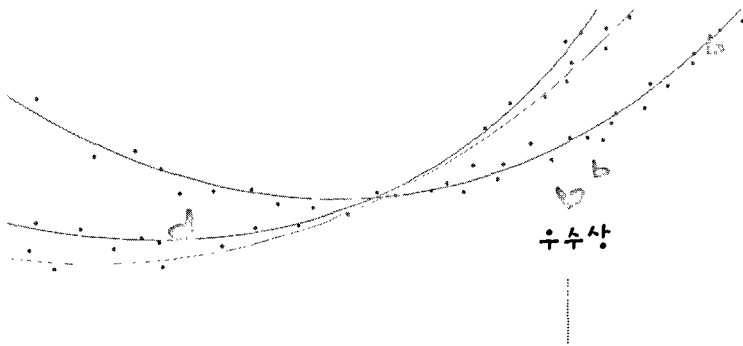
그렇다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내 관점으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였지만 체제와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가 갈라져서 생활하게 되었고, 결국은 언어와 문화까지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줄기에 불과하며, 마침내는 다시 그 뿌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비록 다시 만날 때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우리’라는 말이 아름다운 까닭은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함께이기 때문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차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통일은 한층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기다려 본다. 인내를 가지고, 그러나 노력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북한 친구와 함께 금강산의 정경에 감탄하며 금강초롱꽃에 둘러 싸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으며 그날을 기약한다.





## 할머니의 소원

형석고 2 · 허윤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 시절, 내 또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엄마께 우리 집에도 이산가족이 있냐고 여쭙본 적이 있다. 여쭙보면서 속으로는 ‘에잇, 설마 있겠어? 있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장난스레 던진 말이었는데 뜻밖에도 우리 집에는 정말로 이산가족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신기해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어떤 분이냐며 왜 우리는 그 분을 찾지 않느냐고 여쭙어 보았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꽤 심각해진 얼굴로 엄마 대신 말씀을 해주셨다.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얘기가 나와 어떤 관계이고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정말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분을 찾으시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큰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탓에 그 분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단순히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기해서 펄쩍펄쩍 뛰

던 나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내 평생 소원이 뭔지 아니?” “음… 통일?”

“통일이 되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그런데 내가 죽기 전까지 통일이 될지 모르겠구나, 나는 죽기 전까지 그 양반 얼굴은 못 봐도 좋으니 잘살고 있나,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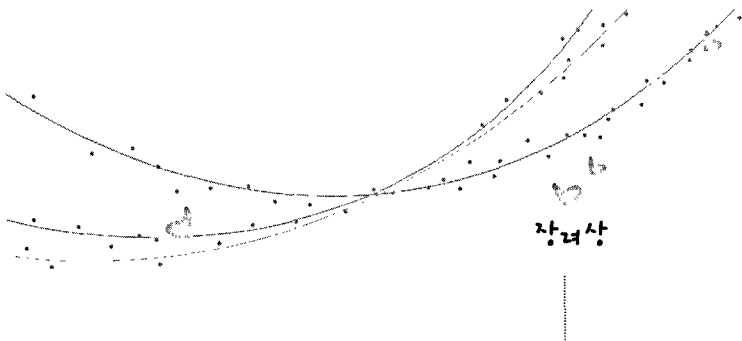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보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던 할머니 앞에서 눈치 없이 행동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아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거나 홀로 쓸쓸히 죽었을 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 남과 북은 한 민족, 한 핏줄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조차 바뀌어야 한다. 그저 주위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자신도 따라서 말로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가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 주며 그리워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없다. 서로의 진심이 통할 때 비로소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할머니께서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닌 활짝 웃으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우리의 꿈, 통일

수곡초 5 · 홍명희

“영준아~ 영준아~”

내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이에 동생 영준이가 없어졌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친구들과 흩어져 영준이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영준이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영준이는 4살짜리 내 동생이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내 막내 동생이다. 찾으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다. 왜냐 하면 영준이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산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명희야, 영준이 찾았어~.”

내 친구와 함께 영준이가 산 속에서 울면서 내려왔다. 나는 달려가서 영준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영준이도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너 누나에게 말도 안하고 혼자서 어디 갔었어? 누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잠시 동안 동생을 잃어 버렸지만 순간 너무 놀랐고, 가족간 잠깐 사이의 이별도 슬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놀라서 훌쩍거리는 영준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와서 TV를 보려고 쫓다. TV에선 부모와 자식이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난 어머니께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지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이 이제야 만나 슬프게 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준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다. 잠깐 사이도 슬픈데 그렇게 오랫동안 못 보았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길 6·25 사변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이산가족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소질 계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 생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인터넷, 신문, 뉴스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비록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형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우리 남한이 더욱 발전하여 통일이 되면 발전된 한국, 전쟁의 가능성도 없고 이산가족의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나는 같은 민족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발전된 한국, 더욱 더 멋진 한국도 되고 이산가족이 없는 그런 평화롭고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내 옆에서는 동생 영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너 영준이, 앞으로는 누나에게 말 안하고 멀리 가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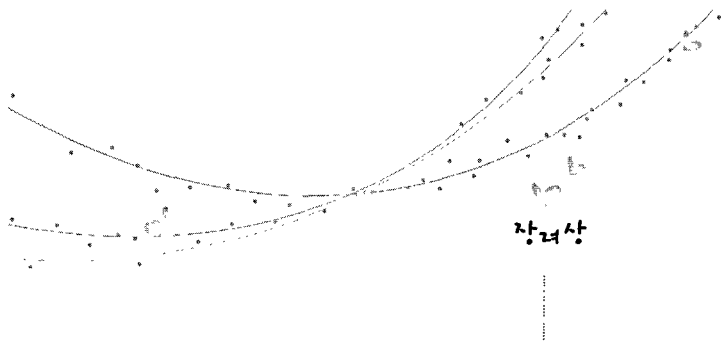
“응.”

영준이가 귀엽고 기특하여 나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너 크면 누나랑 백두산하고 금강산으로 같이 소풍가자!”

“응, 누나.”

영준이는 활짝 웃으며 소풍 간다는 말에 좋아했다. 마음 놓고 북한 땅에 소풍을 갈 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았다.



##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보은중 3 · 김태선

따분한 수업시간, 우연히 바라본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오고 있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니, 문득 도깨비 할아버지와 추억이 떠오른다.

벌써 6년이나 지난 이야기이다. 내가 3학년 때, 우리 마을에는 도깨비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쓰지 않고 온 동네를 걸어 다녔다. 그런 도깨비 할아버지는 우리 같은 철없는 꼬마들에게 딱 좋은 구경거리였던 동시에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도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날도 추적추적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다. 우산을 쓰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던 길이었는데, 조금 떨어진 앞에서 도깨비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본 채 서 계셨다. 난 너무 무서워서 도깨비 할아버지를 지나쳐서 뛰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하필, 뛰다가 도깨비 할아버지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때, 도깨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쫓쫓, 무릎이 까졌구나. 따라오너라. 반창고라도 붙여 주마.”

나는 도깨비 할아버지를 따라 도깨비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도깨비 할아버지가 내 다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셨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도깨비 할아버지는 날 한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더니 말씀하셨다.

“허어... 어릴 적 동민이를 다시 만나는 것 같구나...”

“예? 동민이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토해내시더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동민이는 6·25 전쟁 때 잃어버린 당신의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하셨다. 어린 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가던 중에, 몰려드는 피난민의 인파 속에 휩쓸려 이리저리 채이다가 그만 손을 놓쳐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다. 그 탓인지 몸이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자신도 모르게 집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도깨비 할아버지의 뺨에 흐르던,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반세기의 세월조차 형제간의 뜨거운 사랑을 차마 식히지 못한 것이다.

비록 사람들의 상처와 휴전선은 그대로이지만 서로에 대한 미움은 거의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다. 다시 하나가 될 때인 것이다. 전쟁을 겪으셨던, 이제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버린 분들은 통일을 절실하게 원하신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우리 신세대들은 그분들의 마음에 비해 절실하지 못하다. 나도 통일은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우매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토와 역사는 서서히 빼앗겨가고 있다. 특히, 나는 중국의 동북공정 사건과 최근 일본이 독도를 교과서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딱하니 올려놓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토와 역사를 빼앗기는 것도 무척 두렵지만 더 두려운 점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얼과 정신마저 빼앗긴 채, 뿌리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날이 오면, 우리의 영토와 역사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빼앗겨버린 영토와 역사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난 그동안 좁은 시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하는 통일의 단점만을 생각해 왔지만 점점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국방비 절약과 전쟁 위험

감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통일  
일의 여러 가지 장점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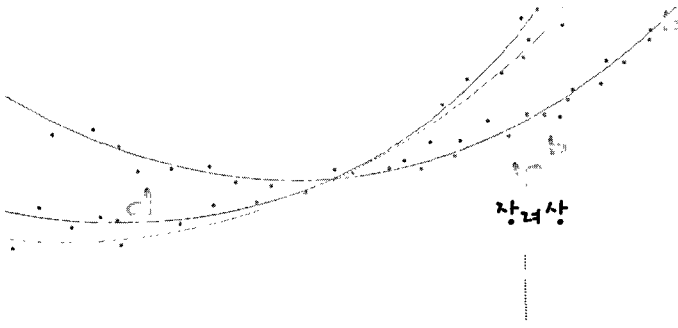
서로간 긍정적인 대화도 오가면서 평화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단점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  
겠는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르게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이익 때문에 억지로 하는 통일  
보다는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노라면 그 비가 도깨비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  
들을 이북, 이남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같  
이 느껴진다.

언젠가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가로막는 휴전선이 사라질 날이 온다면, 그 날  
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슬픔 아닌 기쁨의 눈물이 넘쳐나리라고 나는 확  
신한다.





## 한반도, 이대로 쯤은가?

서원고 2 · 김현정

21세기를 걷고 있는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렇다면, 분단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이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민족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살펴 보자.

첫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6·25 전쟁 후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단이 되면서 이산가족이 생겼다. 가끔 뉴스에서 보여주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곤 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슬플 것이다.

둘째, 이렇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삶에서의 차이 때문에 남북의 국민들은 어느새 이질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시킬 방법은 통일뿐이다.

셋째, 아직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재발의 위험성과 군사적 긴장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살펴보자.

첫째, 남북 분단은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낭비를 야기시켰다. 그 중 해마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자들도 약 2년의 병역 의무로 인해 얻는 피해가

매우 크다.

둘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는 지하자원은 풍부하지만 기술이 부족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잘 갖추고 있지만 지하지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륙으로의 진출이 제한되어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물류비와 시간이 보다 많이 든다.

넷째, 현재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는 남북한뿐이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이 오점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럼, 통일이 된 후 남북한이 연결되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만나면서 이산가족이 사라지고, 쉽게 갈 수 없었던 북쪽의 관광지에도 가 볼 수 있다.

둘째, 이질화 현상이 점차 완화되면서 남북한 국민들 사이에 높게 쌓여있던 마음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민족적 자부심도 되살아날 것이고 전쟁 재발의 공포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었던 국방비 등의 국가 예산이 절약되어 그것을 더 가치있는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쪽의 뛰어난 기술이 결합되어 공업이 더욱 발달하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였던 남북이 통일이 되면 전쟁 후 지속되어온 냉전체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남북한 대표자들이 의견 충돌로 불화를 겪는 장면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것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남북 관계를 염려했을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은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된 모습, 상상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미래에, 하나로 이어진 이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된 우리민족의 행복한 미소를 생각하면 뿌듯함이 느껴지고 우리가 꼭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

정말 간절히 통일을 원하고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그날을 생각하며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북쪽의 친구와 마주 앉아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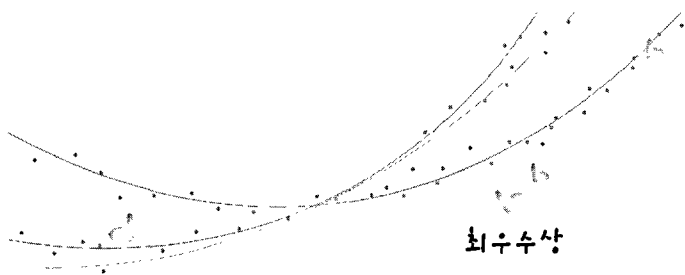
## 충청남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철조망 이야기 \_ 277
- 알로카시아 \_ 280
- '북한 사파리' 그 곳을 아시나요 \_ 283
- 선화 언니, 힘내세요. \_ 286
- 어느 봄날의 꿈 \_ 289
- 안녕하세요? 승희예요...  
보고 싶어요 \_ 293
- 통일은 참 쉽다 \_ 297
- 그 곳에 다시 가고 싶다 \_ 300
- 희망과 사랑의 통일 쌀 나누기 \_ 304







## 철조망 이야기

대남초 4 · 구한결

안녕하세요? 나는 늙은 철조망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38선이라 부르더군요. 6.25라는 끔찍했던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공장에서 방금 만들어진 철조망이었어요. 트럭에 실려서 어느 어두운 창고 안에서 몇 주 기다리다가 환한 빛을 보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나를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전쟁터는 참혹했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고, 다친 사람들을 부축하여 가는데 아직도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이윽고 겨우 정리가 되자 북쪽에서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며칠 후에는 남쪽에서도 군인들이 왔지요. 내 주변에는 눈을 부릅뜬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그저 참새 한 마리만이 날아다닐 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두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주변을 날아다니며 지령이를 찾아다니던 참새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 짹, 나는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 다닐 수 있어.”

“ 그래? 그럼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니?”

나는 궁금한 마음에 참새에게 물어 보았어요.

“ 짹, 처음엔 서로 비슷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남쪽이 더 잘살아.”

“ 처음엔 똑같았는데 왜 그런 거야?”

“ 짹, 북쪽은 지도자가 배불러. 어려운 말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하지.”

나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참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었어요.

“왜 몇몇 사람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나누어 가지면 될 텐데... 국민의 땀과 피로 먹고 사는 지도자라니요.”

“그럼 자기 나라가 못 살지.”

“그럼, 왕이라도 되는 것 같다니까. 세상이...”

그리고 한참동안 참새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새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새가 무척이나 헬썩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나는 반갑게 소리쳤어요.

“참새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몰골이 왜 그러니?”

“기다림은 슬픈 거야. 나는 너에게 딱혀 너를 원망하며 남쪽에 있는 외동딸을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봤어. 정말이지 너 못됐구나.”

나는 조금 억울했어요. 내가 세워지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걸까요. 나도 두 곳을 화해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유일한 친구 참새가 야속했지만 또 떠날까 봐 잠자코 있었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 북쪽 사람들의 원망을 참새에게 전해 들으며 많이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남쪽 사람들의 원망도 전해오더군요.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 너머에 사랑하는 외동딸을 두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남쪽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참새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원망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내일도, 내년에도 들릴 원망이에요. 저번에 참새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참새야, 어떻게 해야 두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될까?”

참새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통일을 하려면 두 나라의 대화가 중요해. 하지만 북측은 너를 빌미로 대화를 피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이런, 그럼 할아버지의 한숨은 나 때문이라는 거군요. 참새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가 정말 싫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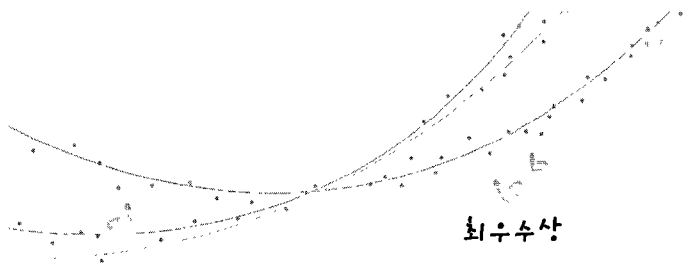
나에 대한 사람들의 원망은 심해져만 갔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두 나라를



화해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고요. 이번 생애에는 두 나라의 원망만 들으며 살았지만 다음 생애에는 하나가 된 두 나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를 전하는 비둘기로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구요? 나는 늙어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나와 같은 외로움과 원망의 채찍을 맞는 철조망이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나의 죽음을 계기 삼아 두 나라가 화해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소원이 없을 거예요.





## 알로카시아 근

서령중 2·황원

“어머 새순이 났네!”

베란다에 계시던 엄마가 호들갑을 떠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얼른 엄마가 계신 베란다로 달려갔다. 내가 다가가자 엄마는 화분을 가리키시며 약간 흥분해 계셨다.

“원아, 이것 좀 보렴. 새순이 나왔어. 얼마나 예쁘니. 그렇지?”

엄마가 가리키신 화분은 알로카시아였다. 지난 3월에 옮겨심기를 한 화분이었다. 옮길 때 알로카시아 뿌리가 약간 썩어 치료를 해주고 옮겨뒀던 기억이 있는 식물이다. 새로 나기 시작한 순이 아기 손바닥만한 게 정말 예뻐다.

저녁이 되자 아빠가 오셨다. 아빠도 알로카시아의 새순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시면서 알로카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알로카시아는 반 그늘에서 자라며 고온다습한 날씨를 좋아한다. 25° 정도가 적당한 온도이고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15° 이하가 되거나 습도가 낮으면 썩거나 말라죽게 되지. 관리하기 어려운 식물인데 새순이 나다니 정말 기쁘구나!”

하시며 이파리를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결국 아빠의 관심이 죽어 가던 알로카시아를 살린 것이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 집 마당은 철따라 새 옷을 갈



아입으며, 일 년 내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마당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화분들의 대부분은 병들거나 버림받은 화분들이다. 어쩐 일인지 아빠의 손만 거치면 시들어가던 식물도 금방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그 때마다 아빠의 손에 알 수 없는 힘이 흐르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알로카시아 새순을 보며 아주 보잘것없는 뿌리 하나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온도나 습도 조절은 물론 거름도 주어야 되고, 때로는 벌레도 잡아 주어야 되고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다 죽어가는 식물도 아빠처럼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언젠가는 그 모습을 알아주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우리 바로 옆집에는 얼마 전까지 칠순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고향이 평안북도 곡산이라고 하셨다. 6·25 전쟁 때 혼자서 월남한 후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평생을 사시다가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큰 아들이 있는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 할아버지는 화분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진달래꽃 화분이었다. 평생을 농사일을 하시던 분이시라 그런지 항상 마당에서 무언가를 가꾸곤 하셨다. 그 진달래꽃 화분은 할아버지의 보물 1호로 지금까지 정성껏 기르셨는데, 지난 가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되었고, 그 진달래 화분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봄이 되어서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았다. 늘 예쁘고 아름답게 피던 꽃이었는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 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며 고향에 간 것만 같다고 좋아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신 뒤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진달래꽃은 그만 말라 죽게된 것이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 쓰레기통 옆에 진달래꽃 화분이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옆집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갖다버린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우셨는데, 고향처럼 생각하고 아끼셨는데...’

나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알로카시아의 새순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예쁜 아기 손 같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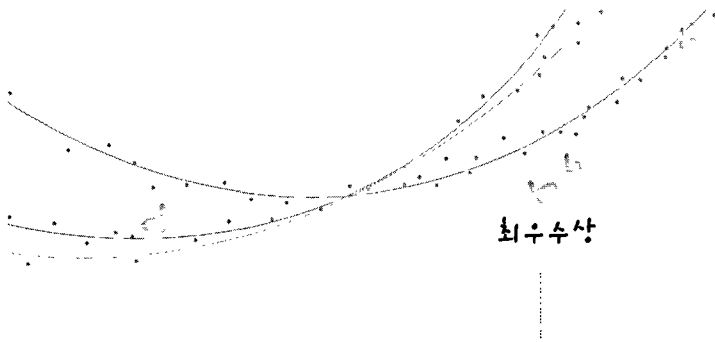
“네? 할아버지께서…, 의료원 장례식장이라고요?”

옆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고향을 가보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진달래꽃 화분처럼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떠나신 것이다. 다시 알로카시아와 진달래꽃 화분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다. 그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심이라는 것을, 관심만이 죽어가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있었던 수해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올해 식량난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벌써 어느 지역에서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다.

문득 알로카시아와 옆집 할아버지의 진달래꽃이 떠올랐다. 그리고 관심만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양분이라는 것을.





## ‘북한 사파리’ 그 곳을 아시나요?

공주금성여고 3 · 최은경

“동무들… 기림 우리 주시라요…”

이것은 광우병과 미국 쇠고기에 대해 조선일보 만평 5월 10일자에 실린 말이다. 나는 이 만평이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고통에 남한이 ‘남의 일’ 처럼 무관심하다는 것을 꼭 집어 보여주는 것 같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압록강 지나는 길에 ‘북한 사파리’라는 코스가 있다. ‘북한에 동물원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 사파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 주소이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로워진 중국인들이 두만강을 유람하면서 신의주 쪽으로 음식물을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 동포들이 그것을 집어가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한국으로 건너오는 것은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잡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밀림 속을 헤치며 힘겹게 탈북을 시도한다는 새터민들,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단돈 몇 푼에 중국으로 팔려가는 ‘북한 심청이들’…

나는 생이별의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50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야 TV 방송을 통해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전쟁 난리 중에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 이제는 주름살이 깊어진 아들을 부여잡고 어머니

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손수건을 눈물로 적시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분단된 우리 현실이 너무 무정하게만 느껴졌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 문제이다. 친구 중에 새터민인 아이가 있는데,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남한에 와서 언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외래어’가 섞인 말을 많이 사용해서 처음에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몰랐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북한에서 쓰던 말을 친구들이 흉내를 내고 놀려서 속상했다고 한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남한과 북한에서 쓰는 말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새터민들 또한 언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새터민 친구를 사귀면서, 종종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 된 지금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인 내가 당장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았다.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비참하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남한에 가서 살아보자!’라고 결심하고, 언제 자신을 향해 발사될지 모르는 총부리를 등 뒤로 한 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다. 그렇게 어렵게 건너온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도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문득, ‘새터민을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친구의 도움을 구해서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다. 그 곳에 새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있는 방, 새터민들이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힘든 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미숙한 솜씨로 만든 동호회라 아직 서툴지만, 남한에 와서 생활하는 새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학교에서 ‘통일을 꿈꾸는 소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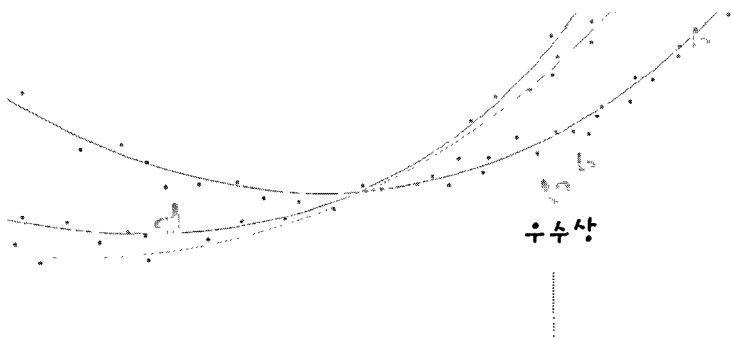
라는 약칭으로 ‘통꿈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주변에는 통일의 필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심지어 우리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북한과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보였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 현황과 ‘새터민’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여러 명의 뜻이 모여 ‘통꿈소’는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아주 난감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열의가 있었던 덕분인지 우리의 첫 번째 소식지는 주위의 따뜻한 격려 속에 발간되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새터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몰랐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 이렇구나.”, “북한에서는 ‘드레스’를 ‘달린 옷’이라고 한다더라.” 이번 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전보다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없이 큰 기쁨을 주었다.

“네 덕에 예전보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 새터민 친구가 나에게 건넨 고마움의 인사였다. 처음에는 통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시작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고, 여러 친구에게 따뜻한 물결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주변의 격려와 함께 점점 회원이 늘어나는 동호회를 보면서, ‘북한 심청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이상 멸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알리겠다고 ‘통꿈소’ 친구들과 손을 모아 다짐했다. 그리고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작은 손이 될 것을 내 자신과 다시 한 번 굳게 약속해 본다.





## 선화 언니, 힘내세요.

백화초 4 · 이에린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허벅지와 발뒤꿈치에 콩알만한 종기가 나더니 점점 커져 동전만큼 커졌는데, 그게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라고 한다. 발뒤꿈치를 모두 도려내고 종아리에 있는 살을 잘라 발뒤꿈치에 붙이는 수술을 여러 번 하셨다.

나는 단기방학 내내 날마다 엄마와 함께 할머니의 병원에 갔다.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할머니는 아주 많이 아프실 텐데도 엄마와 내가 걱정하는 걸 더 걱정하셨다.

“어이구, 내 새끼 왔어? 할머니는 치료가 잘 되서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이참에 얼굴 주름제거 수술도 해 볼까? 얼굴이 더 팽팽해져서 우리 예린이가 할미 못 알아보면 어쩌누? 아마 이 나이에 얼굴 성형해서 주름살 없애는 늙은이는 없을 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셨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옆 침대의 이쁜 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우리 가족을 쳐다보았다. 생각해 보니 그 언니는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한 번도 가족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할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예린아, 저 언니는 가족이 아주 먼 곳에 있다더라. 원래 집이 북한의 백두산 근처 혜산이라는 곳이란대. 먹을 것이 부족해 3년 전에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더구나.”



“그럼 가족들은요?”

“가족들 중에 엄마는 편찮으셔서 탈출할 생각을 못했고, 아버지는 석탄 광산에 다니는데 수입이 아주 적어 가족들이 모두 끼니를 때울 수가 없었다는구나. 먹는 것도 그렇지만 엄마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마련해 줄 수 없어 남동생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는데 중국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는구나. 쫓쫓쫓!”

할머니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며 그 예쁜 언니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 가족이 그리워서 우리를 보고 눈물이 글썽거린 거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도 언니가 가진 슬픔과 같은 슬픔이 막 밀려와 나를 더욱 더 슬프게 하였다. 나는 엄마가 어디 출장가셔서 조금만 늦게 오셔도 휴대폰으로 엄마가 곤란하거나 말거나 계속 전화해 재촉한다. 엄마께서 잘 설명해 주셔도 빨리 오라고 떼를 쓰며 엄마를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은데 저 언니는 몇 년 동안이나 가족을 못 만났으니 얼마나 슬플까?

나는 용기를 내어 예쁜 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언니, 언니는 그럼 언제 한국에 온 거예요?”

계속 울먹거리던 언니는 내 용기에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해? 내가 북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묻더라. 한국 온지 3년이 넘었어. 엄마 치료해 드리려고 돈 벌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 와 있으니…….”

“근데 언니는 어디가 아파요?”

“응, 갑상선암이래. 암 중에서는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서 다행이란다.”

언니는 나이 어린 내가 묻는데도 잘 대답해 주었다. 매일 어른들이 묻고 말하는 것만 보다가 동생 같은 내가 말을 거니 조금 반가웠는가 보다. 천안에 살고 있는 중국교포나 다른 새터민들에게 들으니 남동생은 태국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하였다. 동생의 안전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아유, 우리 예린이 할미 보러 와서 예쁜 언니 만나더니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섭섭이가 들어오는데?”

아무리 서운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선화언니와 참외를 나눠 먹으며 이야 기꽃을 피웠다.

침대 밑에 꽂혀 있는 ‘김선화’라는 꽃보다 예쁜 이름, 우리 이모보다 더 나 이 어린 26살의 선화언니,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언니와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는 나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별짜 한 바가지쯤 되는 눈물을 쏟으시고, 우리 엄마는 괜히 코를 훌쩍이셨다.

“우리 예린이는 어쩔 저리 마음이 이쁘누? 처음 보는 언니와 얘기도 잘 나 누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모습 좀 봐.”

하시며 탄 말씀을 하셨다. 언젠가는 선화언니가 가족을 모두 만나고 행복 한 날이 오겠지만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새터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정착금을 준다고 하여도 가 족들과 헤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태국에 있는 동생도 한국으로 오 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동생을 만날 수 있는 날은 오겠지만 부모님은 또 언제 만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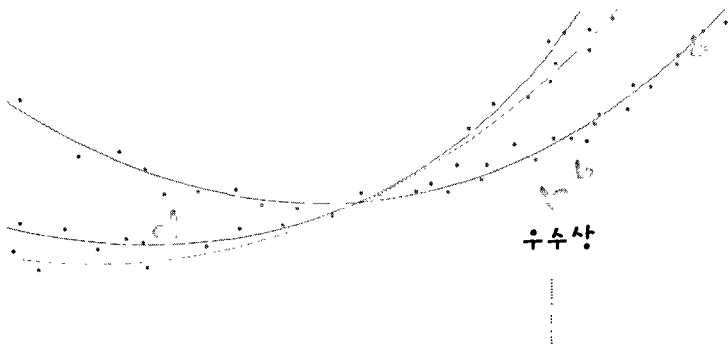
선화언니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조그만 내 머리 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왔 다갔다 고민을 하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일 텐데…….

요즈음 뉴스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줄 거라고 하였다. 언니 부모님께도 그 식량이 가서 밥 많이 먹 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셔서 딸에게 걱정 말라는 편지를 보내오 고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러 하객들 많이 몰고 오는 날도 어 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선화 언니, 힘내세요. 통일이 되면 언니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새 터민 선화언니의 슬픔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앞장서서 통 일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언니.

언니와 나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이 될 거예요.





## 어느 봄날의 꿈

천안백석중 3 • 정명진

따스한 햇살이 교실 안을 넘실 넘나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른한 햇살에 지쳐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무렵, 국사 선생님께서 지난 겨울 방학 때 다녀오신 북한 관련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퐁퐁 얼어붙은 박연 폭포와 정몽주의 충성심을 의연히 증명해주고 있는 선죽교 등. 졸음으로 게슴츠레하던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저 또한 북한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서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만약 통일을 이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턱을 괴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른 아침, 평소보다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서니 벌써 같은 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평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다. 앞으로 3일동안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양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통일을 맞은 후, 남북 학교간 친선을 맺어 왕래가 활성화되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학교도 평양의 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북한 갔던 일이 생각난다. 그 때 정말 재밌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난 봄이 생각납니다. 지난 번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금강산의 기암괴석을 직접 보고 그 절경에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출발 시간이 가까워서야 사진을 남기기 위해 뒤늦게 허둥댔던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평양 시내를 견학했을 때는 생각보다 초라했던 모습에 적잖이 놀랐었지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커다란 버스 대여섯 대가 우리 학교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버스가 운동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리는 가운데 평양에서 온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차에서 내리자 교장선생님의 짧은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주었습니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친절하게 맞아주세요. 평양에서 온 친구들은 3일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연설이 끝나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각 반으로 인솔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63빌딩에 갈 예정이니까 점심을 먹고 난 뒤, 운동장으로 집합하도록 해라.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선생님께서 나가신 뒤, 처음에는 조용했던 교실이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할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미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자기 소개서가 무색할 만큼 금세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서울에 위치한 63빌딩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먹으며 처음 본 사이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평양에서 온 친구들은 연신 탄성을 지르며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63빌딩에 다다르고 차에서 내리자 평양에서 온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이야.”



평양 친구들의 말에 저는 전에 보았던 평양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때 보았던 평양의 모습은 확실히 지금 서울의 모습과 달랐었지요. 이처럼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도로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니 웬지 씁쓸한 기분을 안고, 평양의 친구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함께 음식도 사먹고, 수족관 관람도 하고……. 모든 것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평양 친구들의 눈빛에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신이 난 얼굴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정말 즐거웠나 보구나. 그래, 만난 지 얼마 안됐는데 어색하지 않던?”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제 말씀에 할아버지는 씩씩히 웃으시며 비록 갈라져 보낸 시간이 많았지만 모두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웬지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처 돌아가지 못한 할머니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내외는 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헤어지신 뒤 만나지 못하시고 오랜 세월을 이산가족으로 사셨습니다. 꿈같던 통일이 이루어지자마자 할아버지는 북에 계신 할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할머니의 유품들이었습니다. 그 날 밤, 할머니의 유품을 끌어안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 즐겁기만 했던 마음이 그만 울적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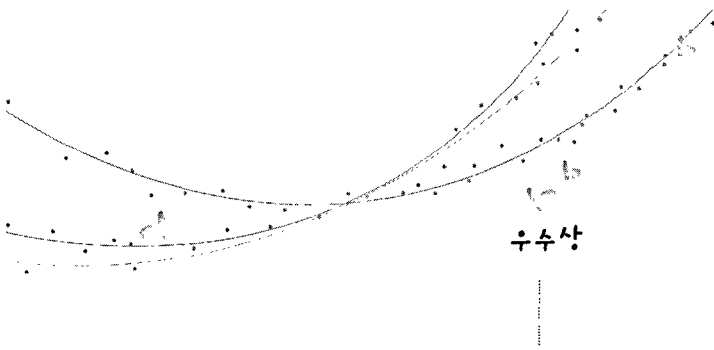
늦은 밤 잠 자리에 누워 창문 밖으로 보는 하늘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끝없이 이어진 하늘.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풀리는 걸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생각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는지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저 머릿속에서 지어낸 상상이었지만, 웬지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통일... 평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비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만남, 그리고 북한의 모습. 그것이 모두 먼 나라 이야기만 같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에도 그저 기분만 나빠할 뿐 북한을 향해 한 발자국도 다가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졌던 조그마한 상상을 통해서 저는 마음을 새로이 다잡아 봅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진정한 한 민족이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승희예요... 보고 싶어요

부여산업과학고 1·장승희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알지, 아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 해준다 그 말이지?”

“당연하지. 큰 할아버지께 영상 같은 걸 보내드리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어떻게 한다니?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 뭘 하겠어. 어떤 식으로 하나면 여기에 있잖아. 우리 가족의 생활모습 같은 거.”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해서 보내는 거지?”

“그래, 그렇구나. 그럼 승희야, 네가 좀 수고를 해 주면 좋겠다. 보상은 아빠가 하마. 어떠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민은 누가 어떻게 영상편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하나로 영상편지를 만들어 교환하기로 했는데, 북한에 살고 계신 큰할아버지 가족에 보내는 영상편지에 우리 가족도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전문적인 제작자에게 의뢰해서 기왕 만드는 거 멋지게 만들어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견은 달랐다. 우리 가족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이러저러한 삶의 모습을 담아서 보내자는 의견이었다. 결국 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는 일을 맡기



로 했다.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남동생은 손주들을 대표하여 편지를 쓰고 읽기로 했다. 제작은 학교 방송실의 도움을 받아 내가 맡기로 했다. 나는 디지털카메라로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담았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공장 모습도 담고, 우리 집 주변 마을의 풍경도 담았다. 할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내시는 마을의 노인들을 담기 위해 마을의 회관과 느티나무도 찍었다.

다음날 토요일 오후 식구들이 모였다. 깨끗한 옷을 손질하여 모두 나오니 명절이나 다름이 없었다. 손에는 영상편지에 담은 편지글들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먼저 말씀하실래요?”

“좀 그렇다. 애비가 먼저 하고, 날랑 나중에 하면 쓰겠다.”

“그냥 아무나 하세요. 어차피 편집은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큰아버님, 저 동기입니다. 지금은 충남 부여에 살아요. 완도에서 김을 양식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서 약기를 만들어 파는 공장을 합니다. 가족들 먹고 살만큼 벌고요.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한번 봐야 할 터인데 기회가 곧 올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머지않아 틀림없이 뵈 올 겁니다. 그때 큰절 올리고 술도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빠의 인사말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식구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라했다. 동생은 넙죽 절을 하고는 국어책 읽듯이 ‘큰할아버지 빨리 만나서 세뱃돈 받고 싶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엄마는 웃으시며 빨리 뵈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상봉날 우리 집에서 만든 약기를 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형님, 지금쯤 뭐하고 계실랑가는 모르겠지만서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 있소. 나는 형님 얼굴이 이렇게 보고 싶어 죽겠는데 형님은 나 안보고 싶소. 아님 잘 살아 계시기는 하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한참이나 훌쩍이시더니,



“더 이상은 못 허겠다. 형님 생각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은 모두 조용해졌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영상편지는 아무래도 헤어져 있었던 만큼 긴 시간의 그리움과 지독한 아픔이 배어 있었다.

“동기아버님, 그냥 인사나 마무리하시고요, 평소 잘 부르시는 진도아리랑 한 자락 하세요. 이복에 계신 영감님도 그 노래는 잘 아실 것인데.”

영상편지에 한 마디 하시겠다고 오신 이장님께서 할아버지를 다독여 주시고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지만 한참을 그렇게 멍멍한 상태로 있어야 했다.

“그러, 인사보다 진도아리랑 한 마디가 낫겠지. 우리 형님이 나보다 잘 부르시는데, 그냥 이 동생이 하겠습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할아버지 고향은 완도이다. 큰할아버지를 따라 함흥 공장으로 일을 가셨다가 삼팔선이 막혀 밀린 월급을 받아 나중에 내려오시겠다고 먼저 가라고 하여 할아버지만 내려오신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터였다.

“애비야, 부탁 하나 하자. 웬만하면 완도에 잠깐 다녀왔으면 한다. 뇌가 승희 데리고 가서 고모나 이모들도 편지에 담아 보내면 좋을 것인데, 이거 여러번 만들 것도 아니고, 기왕 만드는 거 얼굴이라도 나오게 많이 담으면 좋을 것인데, 애비 생각은 어떠냐? 경비는 내가 대마, 경로 수당 받은 거 한 푼도 안 썼다. 이거 가지고 부탁일세.”

이장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나는 아빠를 따라 기억도 희미한 완도를 가게 되었다. 완도의 일가 친척들은 영상편지보다도 갓난이로 떠난 내가 이렇게 속성해진 것이 신기한 듯 많은 말들을 해 주셨다. 나는 친척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많이 담았다. 어쩌면 나는 이들의 모습을 영상편지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희미해진 기억 속의 큰할아버지에게 보낼 영상편지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모두 새록새록 담겨져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편집 솜씨는 형편없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만든 이들의 정성

스럽고 간절한 소망을 보는 이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렇게 영상편지로 힘들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바로 가까이에서 큰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 친척들 모두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도움을 나눌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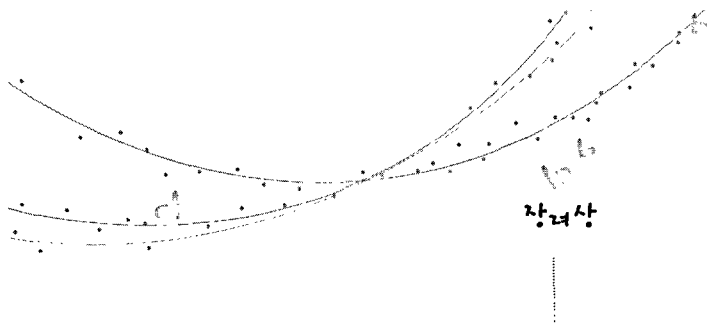
우리 집 영상편지는 학교 방송국의 동영상 편집실에서 화제가 되었다. 편집실장 언니는 할아버지의 진도아리랑 노래에 반주곡 진도아리랑을 더빙해 주었고, 편집과 문자 자막도 넣어 주었다. 그리고 혹시 모른다면 음성으로만 제작된 테이프도 만들어 주었다. 언니들은 학교방송에서 어쩌면 이 영상편지를 특집으로 방송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나는 영상편지의 마지막으로 예쁜 손녀딸 승희의 인사를 넣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승희예요.”

그런데 나는 한 마디를 더 잊지 못했다. 그냥 울컥 눈물이 솟았기 때문이었다. 겨우 한 마디만을 더 이을 수 있었다.

“큰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 통일은 참 쉽다

학봉초 6 · 김세형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철조망  
돌돌 말아 올리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산물  
주고받으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우리 겨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이렇게 쉬운 통일 어른들은  
왜 안하나 왜 못하나

〈운동재 ‘통일은 참 쉽다’〉

몇해 전, 윤동재 시인의 동시 ‘통일은 참 쉽다’를 읽은 적이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통일이 정말 쉬울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렇게 쉬운 것인데 왜 우리는 50년이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우리의 소원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꾸 통일에 대한 시간이 멀어질수록 통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문제로 항상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의 속을 썩인다.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주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산가족도 세월이 많이 지난 현재에는 서로를 잊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돌아가신 분도 많아 가족이라는 느낌과 의미가 남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윤동재 시인의 ‘통일은 참 쉽다’라는 동시를 다시 읽었을 때에는 통일은 쉬운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귀찮은 생각이 불쑥 밀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나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작년 겨울 방학 때, 할머니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할머니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무척 신이 났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가본다는 설렘에 밤새 잠도 못자고 다음날 부리나케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기 바빴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비행기를 탈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고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한 몸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으니 난데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당장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나는 고작 여행을 하기 위한 잠깐의 이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들은 원하지 않는 생이별을 했고 그 후 다시는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싶었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생각만큼 그리 유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보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까지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처럼 힘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도 되고 기분이 씁쓸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분단되어 반쪽만 있으니 발휘해야 할 힘이 모자라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자량이었던 한 민족으로서의 힘도 부족하니 말이다.

세계는 매우 넓다. 그래서 우리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통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의 말씨와 생각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그래서 점점 하나의 민족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어울려 사는 곳이 참으로 많다. 그러니 그러한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통신과 문화가 오고 가게 되면 금방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통일은 참 쉬운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원이다. 얼마 전 중국으로 반쯤 넘어간 백두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던 기억이 잠시 떠올랐지만 그 역시 통일로 인해 국력을 기른다면 우리의 백두산도 독도도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랬다. 나 하나쯤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통일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바라며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고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다.

통일은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요, 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장려상

## 그 곳에 다시 가고 싶다

백제중 2 · 황윤서

“잠시 후 저희 금강산호는 평양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내리실 손님께서는 잊어버리신 물건이 없으신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잠시 후 열차는 평양역 앞에서 멈춰 섰다. 나와 친구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열차에서 내렸다. 평양의 공기, 평양의 하늘, 평양의 나무들, 평양의 건물들 모두 부여와 다르게 없었다. 주변에서 간혹 들리는 북한 사투리만 아니면 남한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처음 와본 평양을 넋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빨리 가자며 나를 잡아끌었다. 우리는 평양역 안으로 들어섰다. 역 안으로 들어서니 얼마 전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평양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처음 보는 북한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다. 두리번거리며 나의 결연 친구를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친구는 나의 명찰을 보고는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안녕, 나는 리혜월이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만 기래. 3박 4일동안 잘 지내보지요.”

“응, 나는 황윤서야. 평양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쁘다.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만난 혜원이었지만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다. 나의 떨리는 첫 평양 방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혜원이네 집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깔끔하게 지어진 주택이었는데 통일꽃이 마당 화단에 아름답게 피어있었다. 무궁화와 목란이 섞인 통일꽃을 보니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마당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가니 혜원이 부모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안녕하세요, 황윤서라고 합니다.”

“기래,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디? 정말 반갑구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다 가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라이.”

“엄마, 방에 들어갈게요. 자, 이쪽이 내방이다.”

혜원이를 따라 들어간 혜원의 방은 공주님 방처럼 예쁘게 꾸며있었다. 나는 짐을 풀고 앉아 혜원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혜원이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러 나오라고 우릴 부르셨다.

부엌으로 가니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차린 게 없어도 많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정말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방에 들어와 다시 신나게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고 그렇게 나의 평양 방문 첫날은 끝이 났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을 일찍 먹고 평양시내 구경에 나섰다. 평양시내는 부여와 별 다른 것이 없었다. 옷가게도 많았고, 영화관도 있고, 노래방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혜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통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많이 걸어서 피곤해서 그런지 씻자마자 잠이 들었다. 평양에서의 두 번째 밤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혜원이 아버지께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셨다. 함께 아침 운동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졸렸지만 평양의 아침공기는 어떨까 하는 호기

심에 운동을 따라나섰다. 평양의 아침공기는 생각보다 맑았다. 얼굴에 가끔씩 스치는 아침바람이 좀 축진 했지만 평양에서의 아침 운동은 기분이 좋아지게 했다. 운동을 다녀온 뒤 먹은 아침식사는 더욱 맛있었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혜원이 어머니를 도와 마당청소를 했다. 통일꽃에 물도 주고 화단에 있는 잡초도 뽑았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혜원이 어머니께서 오늘 점심은 냉면을 해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너무 기대가 되었다. 직접 만든 북한 냉면이라니! 우리는 어머니가 들어가신 후 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통일되기 전, 남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얼른 통일이 되어서 북한 친구와 함께 이런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아마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 마루에 앉아 한참동안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혜원이 어머니께서 냉면이 다 되었다며 부르셨다. 우리는 얼른 달려가 식탁 앞에 앉았다. 그릇에 냉면이 먹음직스럽게 담겨있었다. 평소 냉면을 좋아하지 않는 나이지만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배부르게 점심식사를 하고 소화를 위해 산책을 나왔다.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았다. 여기저기 핀 통일꽃들도 너무 예뻐고, 가끔씩 나무 위를 지나다니는 귀여운 다람쥐들도 눈에 띄었다.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혜원이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다.

“아버지, 어떤 일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습니까?”

“아, 오늘 윤서가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아니잖아. 그래서 좋은 구경 시켜줄라고 일찍 퇴근했다. 얼른 준비하고 나오지요.”

잠시 후 우리는 혜원이네 차를 타고 평양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들어왔다. 한참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통일기념관’.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악수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전사실로 들어가니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던 6·25 전쟁의 모습을 시작으로 통일된 후 지금의 모습까지의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 날 통일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때를 떠올리며 전사실



을 둘러보았다. 특히, 아저씨께서는 지난 날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때가 생각나시는지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맛있는 저녁식사까지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줌마, 아저씨는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나는 짐을 챙기며 혜원이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정말 이렇게 통일이 되어 만나게 되어 반가웠어.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3박 4일동안 너무 고마웠어. 너도 꼭 우리 집 놀러와.”

“기래, 나도 꼭 놀러가겠구만 기래.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 자주 남한에 가게 될 거야. 자주자주 만나면 좋겠다.”

우리는 첫날밤처럼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다. 잠시 후, 누군가 날 부르는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일어나! 윤서야, 일어나야지! 얼른!”

그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나는 혜원이 방이 아닌 내 방에 있었고 내 침대에 누워있었다. 내 옆에서는 엄마가 나를 내려보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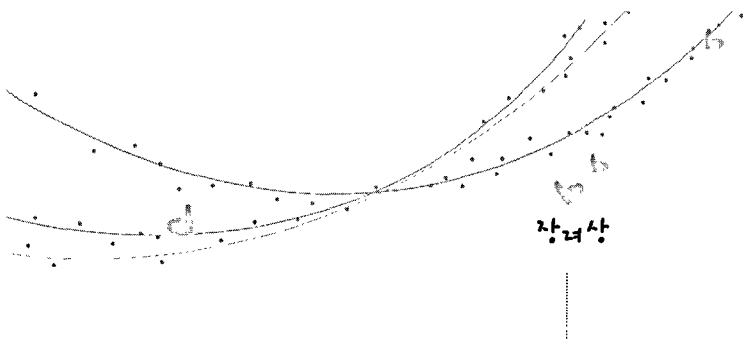
“엄마, 혜원이는? 혜원이는 어딴어요? 여기 우리집 맞아요?”

“여기가 우리집이지 어디야. 혜원이는 또 누구야. 애가 꿈을 꿨나보네. 얼른 나와서 밥 먹어.”

평양에서 혜원이와 보낸 3박 4일이 꿈이었다니. 아마 그 동안 통일을 간절히 바라던 나의 생각이 꿈에서까지 나타난 것 같았다. 너무 아쉬웠다. 너무 즐거웠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 통일을 바라는 나의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졌다. 며칠 전, 북한에 비료를 보내준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 남북 간의 교류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 싫다. 얼른 통일이 되어 꿈에서처럼 혜원이와 만나 함께 평양 구경도 하고 혜원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부여 구경도 시켜주고 싶다.

“혜원아,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



## 희망과 사랑의 통일 쌀 나누기

부여산업과학고 1 · 김연군

“연군아, 빨리 아랫동네 논으로 와!”

작년의 일이다. 오랜만에 휴일이어서 친구들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큰아빠께 전화가 걸려왔다. 짜증을 부리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일손이 모자라니 꼭 가야 된다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옷을 다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느릿느릿 아랫동네 논으로 갔다. ‘북녘동포에게 통일 쌀 보내기 위한 추수한마당’ 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많은 농민 아저씨들과 고등학생 선생님과 고등학생 형·누나들도 있었고, 우리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보였다. 아랫집 현수형네 아저씨와 유치원생 미수도 왔다. 일을 시작하기 전 군수님의 연설도 들었다.

모두들 열심히 벼 베기를 시작하였다. 큰아빠께서는 얼마 전 다친 허리가 많이 아프신지 콤바인은 다른 아저씨에게 맡기시고 손수 벼 베기 작업을 하셨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큰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 열심히 하는 시늉만 했다. 허리가 아프신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큰아빠께,

“허리 아프신데 왜 쉬시지 않으세요? 파실 쌀도 아니고, 드실 쌀도 아닌데 왜 큰아빠네 벼를 수확할 때보다 열심히 하세요?” 라고 여쭙보았다. 큰아빠는 북한지역의 금강산관광을 다녀오신 이야기도 해주셨고,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중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아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도 했다. 또한 매일 밥을 먹으며 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부담 없이 버리기도 했던 것이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행사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정성스럽게 벼를 벤다면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더니 처음과는 다르게 정성스럽게 힘든 줄도 모르고 벼를 베게 되었고 어느새 일이 손에 익어서인지 벼 베기가 쉬워졌고 즐거웠다. 내 입가에는 나도 모르게 처음에 지냈던 불만은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새 처음에는 넓게만 여겨졌던 눈이 좁아 보였다. 수확을 하던 모든 분들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옷은 더럽혀져 있었지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벼 베기를 마치고 우리는 모두 새참으로 밥을 나누어 먹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떡도 나누면서 저마다 오늘의 행사에서 느낀 소감을 말하였다. 평소 말주변이 없었던 터라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큰아빠께서는 앞으로 나가서 한 마디 하라 하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오늘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나는 우리 마을의 어른들이 자랑스럽고, 저도 또한 행복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이 쌀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또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내 말에 웃으시며 박수를 많이 쳐 주셨다. 나는 벼 베기를 하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좀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우리민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한 대가로 받았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지역 방송에서 사랑의 통일 쌀 베기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북한으로 보낸 쌀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은 그 쌀을 팔아서 무기를 사는 곳에 쓴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을 북한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동영상도 보였다. 그것을 보며 ‘내가 수확한 쌀도 북한에 있는 애들이 먹겠지?’ 라고 생각하니 마음 속 한켠에 뿌듯함이 생겼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수확해서 좋은 쌀 보내줄걸.’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저녁때 일을 나가셨던 아빠가 돌아오셨다. 큰아빠와 함께 참여한 행사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매우 좋아하셨다. 아빠는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다 하시며 아빠 대신에 한몫했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셨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통일 일꾼인 것 같았다.

2년 전이었다. 나무 심는 일과 나무를 베시는 일이 직업이신 아빠는 지역 산림조합과 농민회의 권유로 인해 '북녘에 나무 보내기 운동'에 우리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 자기이름을 사과나무에 적어 북한에 보낸 적이 있었다. 산을 모두 농지로 개간하여 북한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흉수 피해도 훨씬 크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며 기왕 보내는 것 우리 식구 수만큼 보내자고 하셔서 참여한 것이었다. 그때 사실 나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어차피 아빠의 권고이기도 하여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일도 새롭게 느껴졌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사과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 북한의 땅을 푸르게 하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또 그 사과나무는 북한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소득도 될 수 있으니 그 사과나무야말로 희망의 나무요, 사랑의 나무인 셈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 딱 하나뿐인 분단된 한민족, 우리 한반도이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서로 통일에 힘써 요즘은 여러 정책 사업을 펴고 있다. 한쪽에서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도우려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통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많이 변해 분단이 되어있던 상태라 그런지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통일이 낯설지 모르겠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 우리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을 눈물을 이해하고, 우리가 동포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과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내가 직접 수확한 나의 사랑이 담긴 쌀을 북한에 직접 가서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수확한 쌀을 북한으로 직접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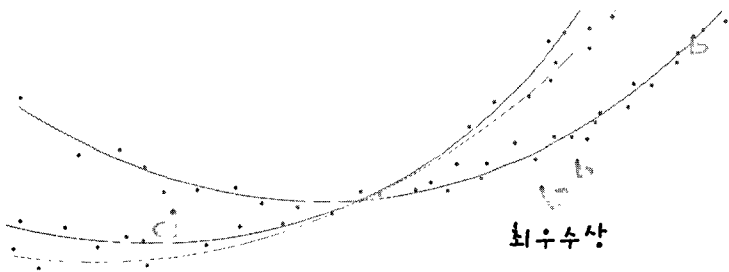
## 전라북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하나가 된 바다처럼 \_ 309
- 통일의 모자이크 \_ 312
- 할아버지의 노래 \_ 314
- 간절한 마음으로 \_ 317
- 나는 평화 지킴이 \_ 319
- 청실리 흥실리 \_ 322
- 비둘기의 냉면사랑 \_ 325
- 만나고 싶은 너에게 \_ 327
- 767만 고통을 감싸는 보자기 \_ 329
- 당당하게 대문으로 \_ 331
- 진정한 형제 \_ 333
- 한강은 흐른다 \_ 335







## 하나가 된 바다처럼

소양초 6 · 유예림

5월 21일 수요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미 다 꾸러진 가방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소리쳤다.

“야호! 드디어 수학여행이다. 아! 정말 기대된다. 밤에는 뭐하지?”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서 2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간다. 그래서 우리 반은 작년에 가지 않고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생각할수록 긴장되고 설레고 떨렸다.

학교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시끌벅적 떠들고, 출발하기 전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은 후 드디어 우리의 수학여행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갈 이번 수학여행지는 강화도와 서울 일대이다.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차 안에서 심심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시 놀 계획도 세우고 게임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드디어 첫 여행지인 애기봉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입구를 군인아저씨들이 총을 메고 지키고 있었다. 버스는 바로 주차장으로 가지 못하고 교감선생님께서 내리셔서 무슨 확인을 받은 후에 갈 수 있었다. 평소에 우리가 다니던 현장학습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서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렇지만 들뜬 마음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고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 반과 5학년 후배들은 모

두들 차에서 내려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서 조별로 줄을 섰다. 더운 날씨에 경사가 좀 심한 길을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얘기를 나누며 애기봉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는 애기봉에 얽힌 전설이 쓰여 있는 탑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망배단이라는 곳도 있었다. 그냥 조그마한 산봉우리려니 생각했었는데 단순한 애기봉이 아니었다. 어쩐지 입구에서부터 좀 수상하더라니……. 망배단 옆에는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있었는데 담장 너머 우리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흐르는 강과 몇몇 섬 같은 것들이 보였다.

‘저 섬은 어디지? 우리나라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는 내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앞에 흐르는 이 강을 두고 바로 저 앞에 있던 섬은 섬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어디가 아닌 바로 북한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니 허탈하기까지 했다. 학교 수업 때나 뉴스에서 북한이 나오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꼈고 전쟁 때문에 두렵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직접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북한을 보게 되니 내 생각은 아주 달라졌다. 내 앞에 흐르는 이 강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라니. 이렇게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북한인데, 그 동안 너무 멀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줄만 알았다.

설명을 듣고는 너도 나도 망원경에 돈을 넣고 좀 더 북한을 자세히 보려고 한바탕 북새통이 되었다. 들에는 곡식들이 심어져있고 녹색물결은 우리에게 놀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들 옆에는 좀 높은 집들도 보였고, 일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가 사는 이곳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들판을 지나 뒤쪽에 있는 산은 우리에게 한번 올라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온 김에 정말 갈 수만 있다면 북한에 한 번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 하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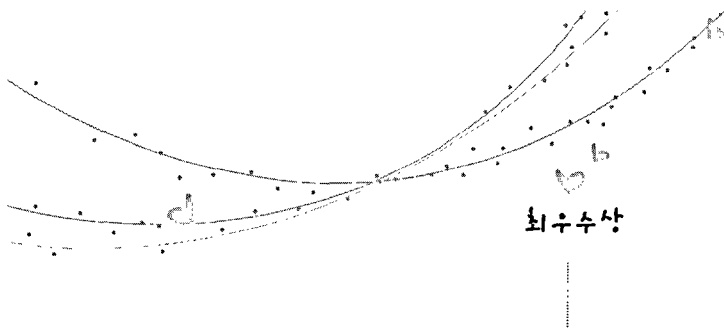
산에서 시작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졸졸졸 조그만 시냇물을 만들고, 그 시냇물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저수지를 이루고, 이 저수지가 또 작은 강을 만든다. 이 강이 흘러 흘러서 다른 강들과 합쳐져 큰 바다를 이룰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이다. 이제 우리 남북도 이렇게 만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우



리는 큰 바다가 되어 만나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가 된 바다를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바다처럼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힘을 키워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조그마한 배려가 모이고 모여서 넓고 큰 마음이 되고 그 큰 마음들은 필요 없는 선을 지우게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통일을 위하여 지금 배려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조그만 배려와 이해가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오늘부터 내 가슴 속에는 좀 더 커다란 배려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난 그 배려를 잘 키울 것이다. 통일이라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는 날까지.





## 통일의 모자이크

이리영등중 3·황휘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북한 로동신문은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지금까지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남북 관계도 냉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남북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 더 나아가 통일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매티 스테파넵, 지미카터 작(作)의 『꼬마 천사 매티』라는 책에서 매티는 모자이크 이론을 내놓는다.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독특한 모자이크를 타고 났다고 그는 믿는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자이크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냉랭한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통일로 나아갈 길을 본 듯 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저마다의 모자이크를 가지고 있다. 남한도 북한도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모자이크를 조화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로 잠재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긴장 관계가 지속된다면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가 긴장을 풀고 협상의 원칙을 지키며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며 통일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큰 짐을 남겨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북한 핵문제, 남북간 전쟁의 가능성, 미국, 일본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런 살얼음 같은 대북관계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에서 진정한 실용주의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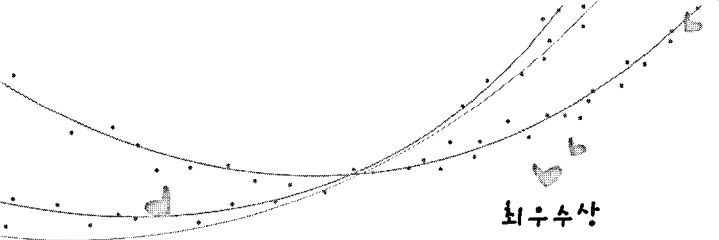
『꼬마 천사 매티』의 작가 매티 스테파넵은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영화 ‘스타워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요다가 했던 말이죠. ‘두려움은 분노를, 분노는 증오를, 증오는 고통을 낳는다.’ 참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통일을 함으로써 일어날 혼란, 조금의 손해가 두려워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걸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지게 된다. 분노가 심화 되면 증오를, 그 증오는 북한과 남한의 갈등을 불리와 전쟁 위협이라는 고통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남겨줄 것이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때 사용될 무기가 무엇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때 사용될 무기는 돌과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더 이상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가릴 수 없게 만든다. 지구 전체를 황폐화시킬 제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 위에서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전쟁은 광범위한 폭력이다. 상대방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협상의 기본 원칙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통일에 임해야 한다.





최우수상

## 할아버지의 노래

진안제일고 2 · 박수진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사진첩을 보고 계셨다. 그 사진첩 속에는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성이 색이 바랜 채 멈추어 있었다. 항상 보는 똑같은 모습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점심을 드신 후, 할아버지께서는 ‘통일 기원회’라는 모임에 나가셨다. 8년 전, 통일 기원회를 창설하시고 회장을 맡으신 할아버지는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 어머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인분들이 뭘 하신다고 저렇게들 모이시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고 한 말씀하셨다. 몇 년 전에는 그렇게도 원하셨던 금강산 여행을 다녀 오셨는데, 그 후로 난 눈을 감고도 금강산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실 새 없이 금강산의 모습을 들어야만 했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나가실 때보다 더 상기된 모습이셨다.

“오냐, 오늘은 오랜만에 모두 모인기야. 내 어찌나 기뻐던지 말이네.”

미소를 한가득 안고 계시는 할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잠자리에 드셨다.

“아버님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 같아요. 이젠 함부로 밖에 나가셨다간 위험하겠어요.”

할아버지의 웃음과는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걱정의 목소리를 내

보이셨다.

다음날,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내용을 들어보니,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돈을 좀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매달 빠지지 않았다. 결국 오랜 실랑이 끝에 할아버지는 손에 흰 봉투를 쥐시고 힘차게 나가셨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이 한숨이 저녁 무렵에는 태풍이 되어 다시 찾아오고야 말았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북한을 돕기 위해 땅을 팔자고 말씀 하신 게 원인이었다.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님께서 통일을 바라시는 마음이 간절한 건 알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것저것 다 쥐 버리고 나면 저희는 뭘 먹고 살아요?”

“에미, 넌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우!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요즘 것들은 말야. 자기 배 채우기 바빠서 말야, 으잉!”

어떻게 말려볼 겨를도 없이 두 분은 모두 열이 올라 있었다. 그날 저녁,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리처럼 집안은 쓸쓸했다.

서로 말없이 지낸 지 일주일 무렵 학교에 가려던 나는 늘 보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요즘들어 더욱 힘들어 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어머니, 할아버지 어디 나가셨어요?”

약간은 멍칫거리며 여쭙보자,

“또 그 통일회의 가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왔지만 어디에도 사진첩을 보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다. 관심 없으시던 어머니께서도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더해져갔고 나중엔 눈물을 흘리시며 후회하셨다. 결국 부모님께서 실종 신고를 하셨다.

약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로 우리 가족 모두 강원도로 향했다. 저 멀리 북한이 어렵듯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작은 집들 중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았다. 북한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먼 길을 혼자 오셨는데, 잘 곳이 없어서 방향하시다 그 곳 마을 분 덕분에 잘 곳을 마련했다고 하셨다.

부모님과 난 할아버지께 같이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돌아가기 싫다우! 고향 가 죽을 것이야.”

하고 소리를 높이셨다.

몇십분간의 실랑이 끝에 차에 탄 할아버지는 우리와 처음 만난 분인 양 조용히 앉아계셨다. 그러다 조그맣게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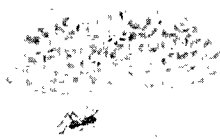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집에 돌아와 잠이 들 때까지 내 머릿속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맴돌았다. 아마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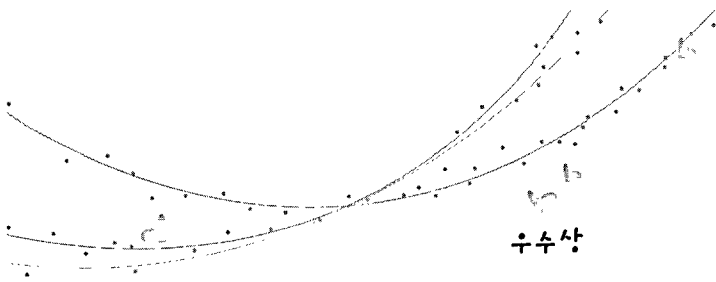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이 끝난 후 세달 뒤, 할아버지는 생전에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매우 아까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모아오신 돈을 모두 통일 기원회에 기부하셨다.

장례식장에서 묵념하는 동안 난 할아버지께 통일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러드렸다. 아마 할아버지께서 기쁘게 따라 부르셨을 것이다.

저 건너편 TV에선 이산가족상봉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다.







## 가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백운초 6 · 김현지

봄인지 여름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언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지도하시는 엄마를 따라서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은 외국 여성들 사진입니다. 언니는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정말 신기한 것처럼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난하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오는데 정작 얼굴 생김새도 같고 역사도 같고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한 민족으로 살고 있는 이북 땅에서는 시집을 왔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보다 더 멀리, 북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시집을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국 연변에서 시집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제법 잘하는데 말투가 예전 70년대 어른들이 쓰는 말투입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중국에 온다고 합니다. 직업도 구하고 물건도 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는 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올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언니가 학교에서 만화책 한 권을 빌려 왔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와 북한의 남자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채팅하는 것을 소재로 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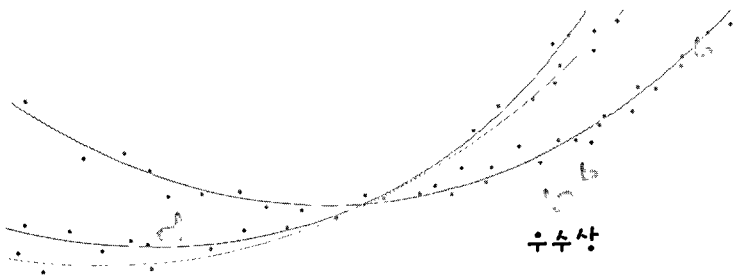
야기입니다. 내용을 읽다보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을 북한 친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북한 아이가 사용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만화를 읽는다는 재미 반으로 읽었는데 책을 읽다보니 북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외국어가 늘어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이 있기에 그나마 말이 통하지만 이 분들 세대가 지나고 우리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된다면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세대는 전쟁으로 헤어져 볼 수 없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를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나라를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많은 애들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자원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이 되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은 광개토태왕을 들먹이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켜 우리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니까, 먼 미래로는 우리의 막강한 힘을 길러서 다시는 이 나라에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호국의 달 6월이 됩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6·25 전쟁의 아픔과 그때 전사하신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후손들에게 전쟁이라는 아픔과 무서운 상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분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북한과 한결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통일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 나는 평화 지키이

정음수성초 5·박수연

사람들은 누구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 보이는 외모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짓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을 ‘은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키다리 선생님’ 그리고 ‘걸어 다니는 음악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은’자가 들어 있고, 키가 크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동요를 많이 가르쳐주시며 여러 가지 악기도 잘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별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라는 별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도 통일이 되었고, 예멘도 통일을 이루었고, 독일도 통일을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통일된 국가를 빨리 물려 주셔야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지난해 할아버지께서 금강산과 백두산에 데려가 주시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중에 있는 휴전 상태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을 가는데 여권이 필요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주의 사항과 지켜야 할 규칙이 많은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을 바라보는 절경은 정말 멋졌는데 내 눈에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메말랐고, 16살 정도로 보이는 작고 깡마른 오빠가 학교에 있어야 할 텐데 군인으로 총을 메고 서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계단을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의 멋진 모습을 보다가 언젠가 읽었던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희귀한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의 신체가 비록 비정상적이었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의 머리가 둘이므로 두 사람이라고 볼 것인지 몸이 하나니 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한쪽 얼굴이 아프다고 하면 그 아이는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를 쳤는데도 한쪽이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머리 둘 달린 모습이 꼭 분단된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을 보며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하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었고 도와주려면 조건을 걸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달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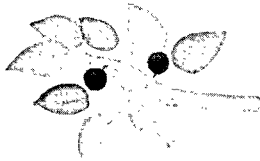
같은 민족도 아닌데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을 도우러 떠나고 사랑의 빵 모금도 하는데, 왜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어른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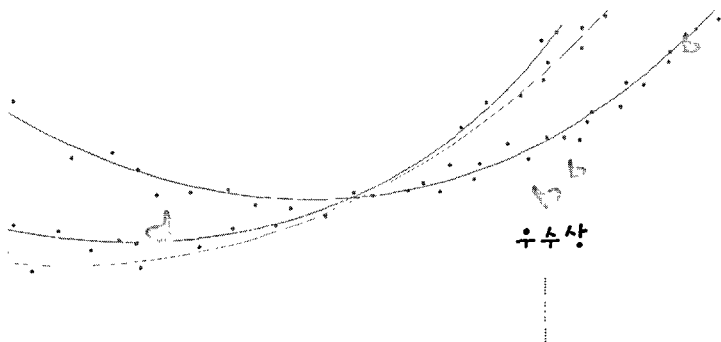
얼마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쟁을 겪는 두 형제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며 보았습니다. 나는 6·25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나쁜 전쟁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어린이들은 고아가 되어 아파하고 배고



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나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며 싸운다고 하지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전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어도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나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시냇물에 돌덩이들 몇 개만 놓아도 징검다리가 되어 건너 갈 수가 있듯이 남과 북의 어른들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평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 어린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별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평화통일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실리 홍실리

군산금강중 2 · 박건주

청실리 홍실리, 우리 할아버지 고향에서 나는 맛있는 배 이름이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평양.

우리 할아버지는 고향을 그리워하시면서도 북한을 싫어하신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북한에 사실 때 집이 부자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온 가족이 모이는 우리집 식탁에서는 가끔 논쟁이 벌어진다. 이 북에서 고생을 하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고, 북한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겪지 않으신 엄마는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논쟁을 지켜볼 때마다 사실은 어느 편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직접 경험한 할아버지 말씀이 맞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금강산 관광길이 처음 열리자 주위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금강산에 한번 다녀오시라고 권하셨다. 할아버지는 통일되지 않은 고향에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래서 여태껏 금강산에 안 가셨다.

할아버지는 참 힘든 삶을 사셨다.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형님과 신학대에 다니고 계실 때 6·25 전쟁이 났다. 그 때 두 분은 국군에 지원하셨고 전쟁이 끝나자 휴전선이 그어져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시고 지금



까지 소식을 모르신다. 할아버지 형님(큰할아버지)은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두 딸이 계셨다고 한다. 그러니 북한에는 지금 큰할머니와 두 분의 고모가 살고 계신다.(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소식도 모른다.) 우리집에서는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생신날에 생일 겸 추도 예배를 드린다.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넘으셨으니 아마도 돌아가셨을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날이 올 때마다 증조부님 얘기를 많이 하신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그 얘기를 하실 때에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꼭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셨던가 보다.

그렇게 남한에 딱 두 형제만 사셨는데, 형님께서 군복으로 계실 때 휴가 나왔다가 연탄가스 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하늘 아래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다. 신학대학을 어렵게 졸업하시고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신 후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우리 할머니도 신의주에서 피난을 오신 분인데 할머니네도 가난하여 두 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남쪽에 일가친척도 없이 두 분이 외롭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자녀도 고모와 아빠, 딱 둘만 낳아서 지금도 친척이 없는 편이라 명절이 돼도 우리집은 조용하고 심심하다. 명절 때가 되면 특히 우리 할아버지께서 많이 외로워하시고 고향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남한의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하셨는데 웬일인지 할아버지께서 개성에 가시기로 마음먹으셨다.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에 가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이 왜 바뀌셨는지 모르겠다.

하기는 요즘 우리 할아버지께서 유난히 고향 얘기를 많이 하신다. 식사하실 때마다 고향에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말씀하신다. 청실리 홍실리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왕만두, 목침만한 인절미, 냉면, 온면, 송앗대, 고비나물... 처음 들어보는 것들인데 하도 자주 말씀하셔서 나도 원래부터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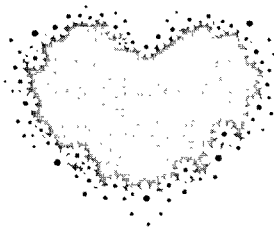
아마도 요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어쩌면 고향에 못 가보고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꾸 고향이 더 보고 싶고, 통일되

기 전에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던 북한에도 자꾸 가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평소에 그렇게도 강하고 든든하시던 할아버지가 참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늙어서도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시고, 죽기 전에 고향의 음식들 한 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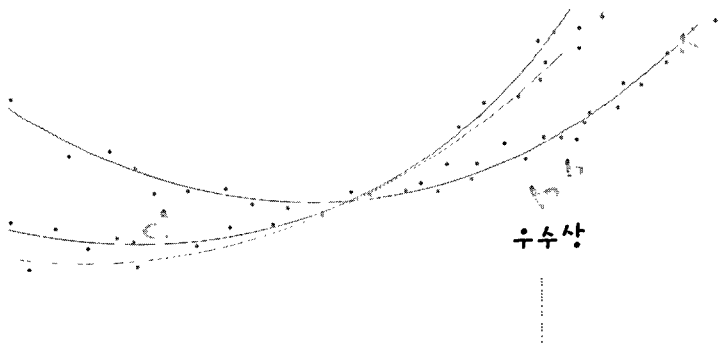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청실리 홍실리 배 이야기를 꺼내시자 할머니께서는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 백 번이니 그만하시라.’고 하셨다. 배가 나오는 계절도 아닌데 자꾸만 고향의 배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청실리 홍실리를 구해 드리고 싶다. 아니 얼른 남북이 하나 되어 우리 할아버지께서 고향에 가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시던 고향의 음식들을 다 드셔보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통일만 된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이라도 차를 몰고 평양까지 직진하실 것이다. 운전하고 고향에 가시려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 운전을 배우신 분이다.

늦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비둘기의 냉면 사랑

군산월명중 3 · 이하연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글짓기를 해오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이 생각났다. 가족들과 눈물 흘리며 본 텔레비전의 이산가족상봉 장면도 떠올랐고,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장면도 생각났고, 6·25전쟁을 다룬 많은 영화들도 생각났다. 고민하던 나는 6학년 때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6학년, 내가 한참 그림 그리기에 빠져 미술학원에 다닐 때이다. 그림에 흥미를 더해갈수록 나날이 실력은 늘어갔고, 각종 미술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6·25를 맞아 남북통일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열린다며 그림을 출품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다. 남북통일에 관련된 그림은 처음이라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주제였기에 나는 선뜻 응하였다. 그 날 저녁, 그림 그리기 전에 남북통일에 관한 배경지식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통일'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았다. 많은 관련 내용들이 나왔고, 나는 남북통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남북통일이란, 한반도의 두 정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탄압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외세의 간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뉘어져야 했고, 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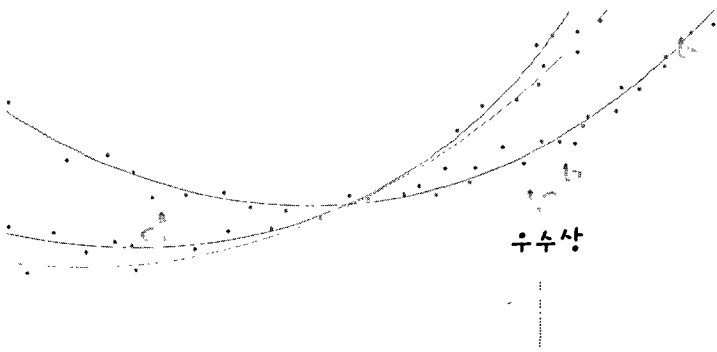
인해 일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국토의 통합이 전부가 아닌 정신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밖엔 북한에도 떠있을 아름다운 별들이 보이는 밤이 되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가만히 떠올렸다. ‘평화통일이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흰 비둘기를, 그리고... 아! 탱크에서 축포를 울리는 모습이 좋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 포스터 그림을 생각하며 북쪽 하늘 아래에서도 나처럼 통일을 꿈꾸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밤이 너무 늦어 내일을 기약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바로 밑그림을 그리고 포스터 물감으로 열심히 완성하였다. 내 그림엔 흰 비둘기가 탱크의 축포와 함께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다. 그림을 보면서 나는 ‘그 평화의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그리워 하던 고향땅도 밝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이 그림은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입상하였고, 나에게 통일이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뉴스에 가끔 북한의 흉년으로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구호물품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는 등 많이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힘들어하는 북한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북한도 금강산 개발 사업 등 한걸음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도 다가서야 한다. 지금까지도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이산가족들, 고향땅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치욕적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단군의 하나 된 자손으로서 하루빨리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통일을 이루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 우뚝 솟아올랐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함께 냉면 먹으러 평양 가는 날이 오겠지.





## 만나고 싶은 너에게

남원여고 1 · 재미화

안녕?

나는 남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미화야. 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설레고 약간은 긴장돼. 같은 땅에 사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현실이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모두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겠지?

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한국전쟁에 대해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겠지? 한국전쟁은 한 나라에 두 체제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한 우리 한민족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지. 그 후 우리는 다시는 지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선을 긋게 됐지. 국토 위에도 우리의 마음 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점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차근차근 통일의 길로 걷고 있잖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의 손을 꼭 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잖아? 올림ピック 개막식 때 파란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남북 선수단이 손을 흔들며 행진하는 모습은 모든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통일을 원하는데, 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



는 걸까?

처음에는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어. 한국전쟁은 당시 소련과 미국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세계는 냉전체제라는 총 없는 전쟁중이었잖아. 그리고 작은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한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잖아. 우리의 분단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물론 그렇게 쉽게 나누어지게 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무척 속상했어. 하지만 오늘에 와서야 내 생각이 철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었어.

넌 통일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원해본 적 있지? 솔직히 난 없어. 그러면서 남의 탓만 해 온 거야. 전쟁이 일어난 것이 당시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해도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우리였어. 이제 화해만큼은 다른 나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히 우리의 손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가끔씩 식량을 보내준다고, 가끔씩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준다고, 가끔씩 통일글짓기 대회를 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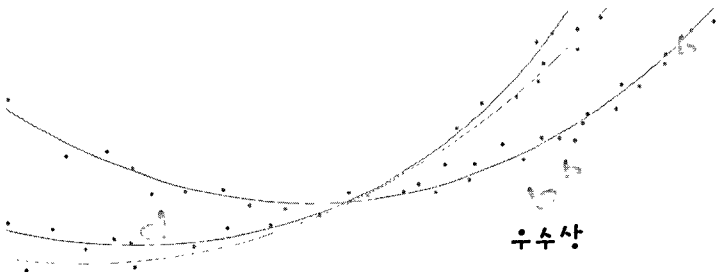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를 소중히 받아들여야 해. 우리의 손으로 언 땅에 봄이 오게 하고, 만날 수 없어 많은 고통을 받던 이산가족을 영원히 함께 하게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 때가 되면 우리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때를 기약하며 오늘 이만 줄일게.

안녕!

2008년 6월 5일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동무가.





## 767만 고통을 감싸는 보자기

정주교 1 · 박세별

지난 2006년,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 주름 가득한 얼굴과 하얗게 색 바랜 머리카락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도 울고 계셨다. 나이가 어려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까닭일까. 나는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슬프게 우는 것일까?’ 이산가족이 저렇게 울 만큼 슬픈 일인 건가?’ 라는 철없는 생각도 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본인은 물론 함께 온 가족들 역시 눈물을 심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어떤 가족들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가족은 지금 겪고 있는 처지와 현실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오열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눈물을 흘렸다. 그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 보는 나까지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흐를 만큼 그들은 서럽게 울었다.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고통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이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얼굴 볼 수는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현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상봉을 이루었지만 얼마 후면 다시 헤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과 아쉬움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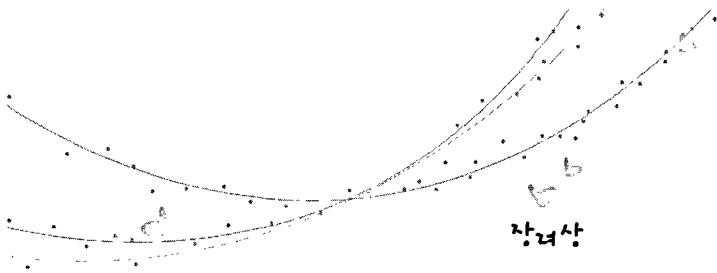
현재 이산가족의 수는 남한에만 약 76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려온다. 그저 단순히 이산가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그들의 고통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이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산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그것도 정말 가까운 거리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을 만날 수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힘들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한 것이다. 마음이 더욱 아픈 것은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겪을 만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유발시킨 것도 아니었다. 서로의 사상이, 서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도 잠시 동안만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다.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영영 헤어져 살게 될 줄 알았다면 모두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들의 마음을 잠시 달래줄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767만 명의 고통은 한숨과 함께 점점 깊어지고 늘어만 가고 있다.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고통, 아직도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안타까움, 생사를 확인할 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외롭게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한 맺힌 고통…….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꾸만 늘어가는데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보자기와 그들이 그토록 아파하는 767만의 고통을 감쌀 수 있는 보자기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통일의 보자기를!





장려상

## 당당하게 대문으로

전주문학초 5 · 구지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당당하게 대문으로 가나요, 아니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나요? 물론,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주인은 대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지요.

한민족이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나라 북한, 그깟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은 나에게 전혀 낯선 남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생겼답니다. 2007년 6월, 나는 내가 속해있는 걸스카우트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3땅굴을 견학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가는 버스 안에서 나와 친구들은 그저 놀러 간다는 즐거움에 들떠 마냥 즐거웠습니다. 파주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자 땅굴로 향했습니다. 땅굴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헬멧을 써야했습니다. 땅굴 안은 대체로 경사가 가파르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푹푹 떨어져서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별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땅굴에서 나오자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셨지만 친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은 DMZ 영상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6·25 전쟁과 DMZ의 자연생태계에 관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땅굴을 견학해서인지 학교에서 배



을 때와는 달리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임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도라산전망대로 갔습니다. 오백원을 넣고 본 망원경 안에는 넓은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 국기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이 가능한 오늘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저 곳을 이렇게 망원경 너머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걸어서도 당당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땅 밑에 굴을 파고 몰래 와서 같은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눌 생각을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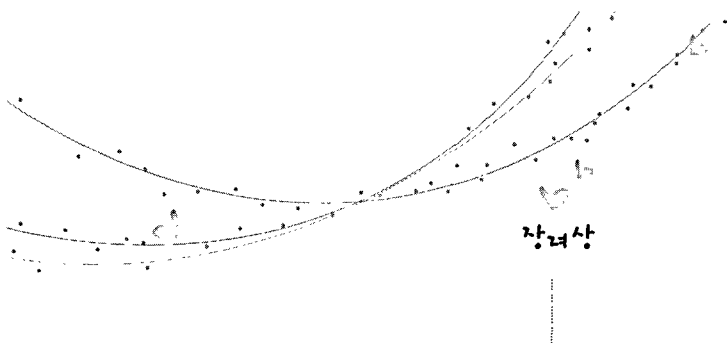
돌아오는 버스 안은 처음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피곤해서 잠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창문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희미하게나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아픔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은 그 때 느꼈던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는 북핵문제로 시끄럽고 배고픔에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하면서 파주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된 후,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같은 민족끼리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어야 할까요?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독일의 통일보다 좀 더 나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의 친구들을 만날 그 날,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는 북한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 지정한 형제 인공인형

변산서중 3 · 박지은

최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경제와 문화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남한에 비해 날이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고 불평도 많으며 배고픈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 북한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북한의 모습을 보며 많이 안타깝고 화도 났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가 요즘 들어 의견 차이로 인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남한과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전 친척 동생과 요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을 했다. 나는 채소 자르는 것을 잘하지만 동생은 못한다. 동생은 재료들을 넣어야 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잘 알지만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재료를 썰고 있을 때 동생이 낭비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하며 동생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끓는 물에 재료를 넣었을 때, 다 익지 않은 음식을 보고 동생은 나에게 "언니나 똑바로 하지시." 하며 아까 나에게 들었던 말에 복수라도 하듯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우리는 점점 더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고, 결국 심한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마치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다.

한참을 싸운 뒤, 주변을 보니 음식은 엉망진창으로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렸고, 우리도 처음에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자고 했을 때의 그 즐거움은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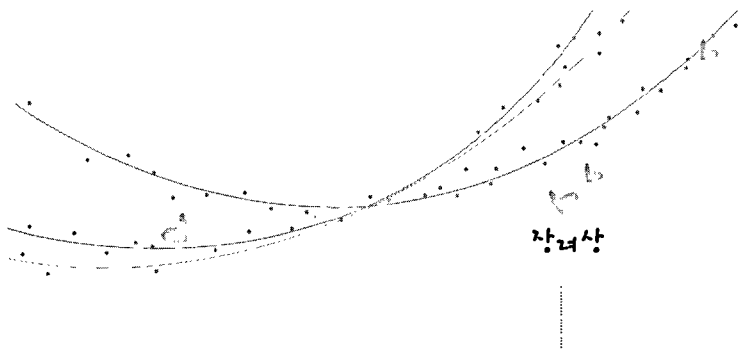
데간데 없이 눈을 부라리며 서로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래도 언니인데 지금 동생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얼마나 상처 받았을까’ 생각하니 동생에게 너무 부끄럽고 상처 준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런 나에게 동생이 먼저 “언니, 미안해”라며 용서를 구했다. 나 또한 동생에게 미안함을 말하면서 우리는 화해를 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음식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혼자’가 아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였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내내 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도 바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하면 통일을 이루지 않겠는가?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단점만을 보고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앞장섰다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단점만을 바라본다면 갈등과 분쟁만 생길 뿐 결코 한 마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서로의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장점만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형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의 명산 금강산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만약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같이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남한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고려할 때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단점들에 눈이 치우쳐 장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나와 동생이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을 품었을 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도 동반자로서 장점들을 살려주고 서로 화합하고 이해할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살기 좋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 하강은 흐른다

산서고 3 · 정인구

한강은 남북을 가르다는 말이 있다. 1950년 이래로 한강은 계속 남북을 가로질러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흐를 것이다. 나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꼭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었다. 나의 이러한 통일에의 무관심은 작년에 금강산을 다녀온 이후로 바뀌었다. 금강산을 가기 위해 화진포의 남측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북측 출입국사무소에서 북한 땅을 밟을 수속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이는 도로의 양편에 서있는 북한의 군인들이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로봇처럼 서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같은 민족인데 손을 흔들지 못해도 살짝 미소라도 지을 수는 없는 것일까? 답답한 가슴으로 바라본 북한 군인들이 같은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 찡한 동질감이 느껴져 왔다.

삼일포를 가는 도중에 차창 밖으로 보인 북한 주민들 모습에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따뜻한 마음이 흘렀다. 나는 순간 ‘아~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라고 느꼈다.

내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밟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갈 때처럼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봉래산의 기암절벽과 삼일포의 맑은 아름다움도 깊은 슬픔을 잠재우지 못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금강산을

뒤로 하고 강원도 화진포에 이르면서 깊은 슬픔은 통일로서만 치유되고 통일은 우리들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에 숙연해졌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한민족이기에 남북한이 서로에게 다가가서 통일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남북한 간에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면서 닫힌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교류가 없으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없다.

둘째, 서로의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만이 옳다는 편협한 생각은 통일의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를 서로 알리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통일된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함께 알리고 계승하며 도와야 한다. 현재 남한이 북한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남과 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보다 경제 수준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서독은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예전의 독일의 모습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독일 민족보다 더 많은 인내심과 끈기와 공동체의식이라는 전통이 있으니 잘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한국인이며 오랜 문화와 전통을 지닌 민족이다. 일제 강점기에 가혹한 통치하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어 3.1운동을 하였고, 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차례이다. 바로 통일이라는 기적을 말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멀리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통일이라는 기적을 우리 세대가 이루어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고, 전쟁이라는 고통이 다시 오지 못하게 하며, 한민족이 손을 잡고 노력하여 번영된 조국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세계에 몇 남지 않은 분단국가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이 남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유히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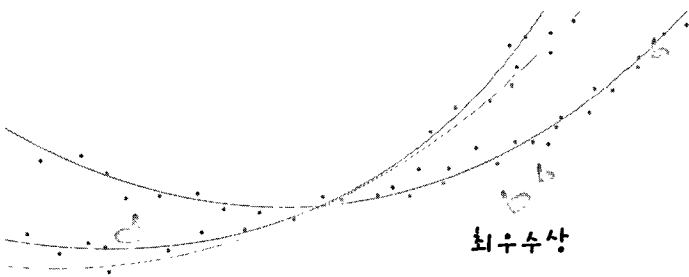


## 전라남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모두의 손으로 이루는 통일 \_ 339
- 새하얀 구름 아래 낮선 땅 \_ 342
- 개구리 울음소리 \_ 345
- 이산가족 없는 행복한 나라 \_ 349
- 젊은 할아버지의 소망 \_ 351
- 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_ 354
- 45년 동안의 이별 \_ 357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_ 360
- 두만강의 얼음길 \_ 363





최우수상

## 모두의 손으로 이루는 통일

곡성중앙초 6·조가애

우리나라는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남과 북이 갈라진지 54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인데도 작은 땅에 선을 긋고, 서로 다른 국기,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땅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버지와 한국과 북한의 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느 팀이 이겼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인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상대편이 북한이라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한국과 북한 선수 중 잘하는 선수만 뽑아서 축구팀을 만든다면 그 축구팀은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 더 잘하게 될 것 같다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통일은 축구팀처럼 희망만 있을 뿐 통일이 되기에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통일을 바라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다가 통일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54년이라는 세월동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에미나이의 오목



샘은 엄마를 닮아 예쁘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이 말은 북한말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이 언어의 장벽은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틴틈이 배우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배우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와 한 핏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매일 먹을 것이 부족하여 아픈 사람도 많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한 핏줄입니다. 그들이 굶는 것은 우리의 동생이나 오빠가 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프고, 굶어죽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쌀을 보내주고 쌀농사가 잘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기계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굶어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양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6·25 전쟁과 반공체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적대감이 사라지도록 하고, 친근감이 자리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로 상처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슬픈 역사와 아픈 상처를 서로 보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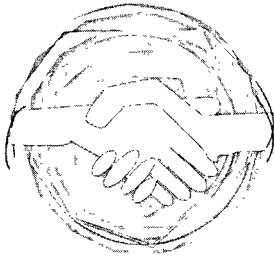
예전에 북한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응원합니다. 그것은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형제이며, 그들에게 흐르는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 북한이 이겼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쁨뿐만 아니라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겼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국가이고 같은 아시안게임에서 다른 팀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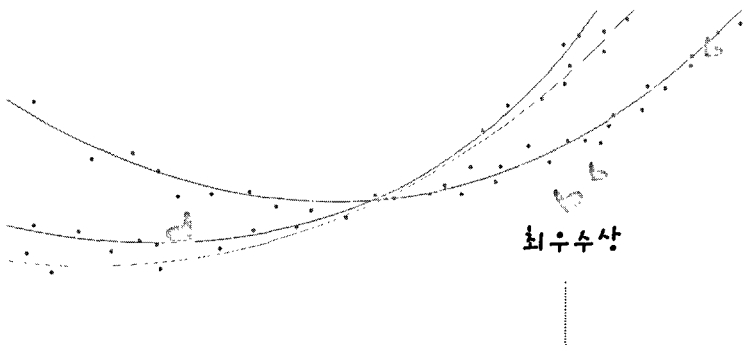
이렇게 이 피가 당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통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고자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됨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북





한은 결코 남이 아닌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미워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핏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꼭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새하얀 구름 아래 낫선 땅

예당중 3 · 김선주

우리에게 낫선 땅인 그 곳은 그렇게 하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나온 세월의 추억들을 이야기해주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아빠는 그 날 도 사진을 들여다보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셨다. 그 날 아빠의 이야기는 군대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예전에도 아빠의 군대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이 들었지만 들을 적마다 항상 새롭고 재미있다.

아빠계선 칠성부대의 GP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기후적으로 너무나도 추운 곳이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라서 에피소드가 참 많다. 너무 추울 적에는 소변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라든지 한 겨울 밤에 병커에서 근무를 설 때면 두 눈을 제외하고는 모든 몸을 뽁뽁 동여매야 했던 것이라든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동기와 함께 근무를 섰던 것 등은 모두가 아빠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이다.

더구나 그 날 들은 아빠의 추억 이야기는 20년 전 아빠의 군 생활을 담은 사진과 함께여서 나에게겐 더 좋은 추억이 되었다. 여러 장의 사진 중 철조망을 뒤로 하고 아빠와 아빠의 군대 동기 아저씨들이 함께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은 참 멋있었다. 특히나 아빠와 아빠의 군대 동기 아저씨들 뒤편으로 새하얀 구름에 뒤덮인 북한의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아빠! 아저씨들 뒤에 구름 아래가 북한이야?”

“응. 아빠가 경계 근무를 했던 곳이 북한과 가까운 곳이어서 북한 군인들도 보이곤 했지.”

구름으로 뒤덮인 북한의 모습은 참 운치있고 멋져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웬지 낯설어 보였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는 그 땅. 아니, 60여 년이 다 되어 가도록 다른 나라로 불리는 그 땅은 정말이지 참으로 낯설어 보였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6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가까이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만년이라는 세월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았다고는 하나 60년 분단의 역사 앞에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므로 그 땅이 낯설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나 또한 사진 속 북한의 모습을 낯설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는 ‘반만년 한민족 역사 앞에 60년 분단의 역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생활 모습뿐 아니라 경제적인 모습, 사회적인 측면 등을 더 이상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많은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북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정착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을 낯설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어 감성적으로 북한과 가깝게 지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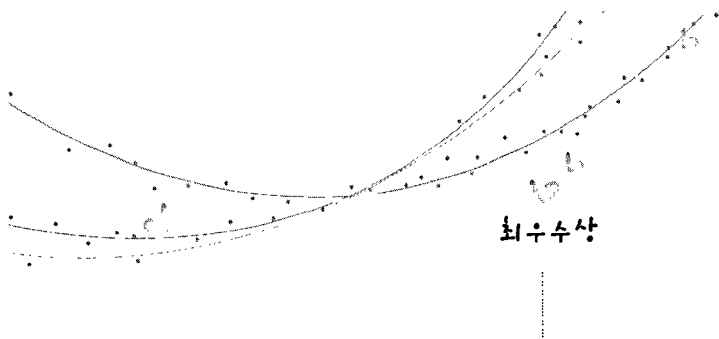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선 주변 국가의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지금에서 주변 국가들의 경계를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국가의 생각의 변화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단지 평화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아빠의 추억 사진 몇 장을 꺼내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자리잡아가고 북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레 내가 느꼈던 그 낯설음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낯설어 했던

그 땅이 나의 쉼터가 되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루 빨리 와야 된다는 믿음과 바람이 생겨서일까 이제는 더 이상 아빠의 추억 사진 속 그 땅이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더해진다면 ‘그 날’은 더욱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사진첩을 덮는 아빠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바람이 전해져 온다.





## 개구리 울음 소리

장흥관산고 2 · 이명아

“개굴개굴”

무심코 귀 기울인 소리에는 여름의 향기가 묻어 있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다 보니 문득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여름의 문을 두드리는 전령사. 역시나 창문 밖 하늘은 벌써부터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내 기억은 작년 여름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때로 빠져들고 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때 갑자기 뉴스 특보란 자막이 뜨면서 물로 가득한 시가지의 모습이 비추어졌다. 도시의 반을 물이 다 덮은 듯했다. 영상들과 함께 아나운서의 급박한 멘트도 흘러나왔다.

“최근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지금 40여 년만의 폭우가 쏟아져 점점 그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처음에는 나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그렇게 와 닿지를 않았다. 어차피 남한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요새 북한 핵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호들갑들인지 하는 의문마저 생겼다. 특보여서였을까? 뉴스는 금방 끝났다. 뒤이어 보고 있던 드라마가 다시 나오고 나는 다시 드라마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북한의 홍수 문제는 내 기억 속에서 씻은 듯 사라지게 되었다.

며칠 뒤,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모처럼 함께 모여서인지 저녁 식사는 한층 더 즐거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께서 불현듯 떠오르신 듯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셨다.

“요즘 뉴스를 보니 북한의 피해가 심각하더라. 사망 실종자수와 수재민을 헤아릴 수도 없고, 특히 제일 심각한건 전체 농지의 10%가 물에 잠겼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홍수까지 겹쳐서 참 상황이 안됐더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같은 농사꾼들은 정말 힘들 거야.”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며칠 전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 아나운서의 멘트와 물로 가득찬 시가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피해가 이렇게 컸다니… 나도 농사꾼의 자식이기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고 있다. 벼가 조금만 쓸려도 좌절하고픈 심정인데, 하물며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과연 정부는 이러한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해졌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핵으로 인한 부정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남북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긍정적 입장일지에 대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하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화면이 뜨고 인터넷을 클릭한 나는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북한 홍수’라고 타자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검색 버튼을 누르니 여러 정보들이 모니터에서 정신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와 글들이 떴고,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정보도 떴다. 나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북한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뉴스로도 있었고, 다른 누리꾼이 올려 궁금증으로 올려놓은 정보도 있었다. 나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 정보들을 클릭하고 나는 거기서 내가 찾던 정보를 볼 수 있었다.



그 정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71억원 어치의 대북 긴급 구호품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확정했으며, 긴급 구호뿐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에도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멘트와 철근 등의 자재 지원을 북측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혹시나 했었지만 역시나 그랬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 나는 깨달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민족인 것을.

북한을 지원해주던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수백 마리의 소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고, 남한 국민 중 이름 모를 그 누군가도 북한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하지만 내가 이번 일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명을 받은 것은 단지 북한에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해가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아끼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 보였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요, 셋째도 통일이다.” 그 칠혹 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통일을 염원하셨던 그 마음에서 나는 그 마음이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장마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곧 곱았던 날씨가 풀리고 세상의 어느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가진 해가 떠올라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출 날이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짧은 시간 안에 하나가 되기까지는 많은 오해도 있고 문제점도 많겠지만 남한과 북한을 떠나 한 민족으로서 골육상잔의 아픔을 딛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고쳐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던져버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은 오직 이 하나였고 지금도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반도를, 우리 민족을 믿는다.

개구리 울음 소리를 듣고 여름을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통일의 문을 열게 하리라……







우수사

## 이산가족 없는 행복한 나라 난 곁엔 없는 영국인

간문초 6 · 김주은

가족과 헤어져 슬픔을 겪고 있는 북한 친구에게,

친구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보고 싶은 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지금도 너희 가족은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건 아니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1971년 8월 12일 대한민국의 적십자사가  
한반도 분단 때문에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  
인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상봉을 돕기 위하여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  
을 시작한 것 말이야.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의 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하여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 행사가 이루어졌  
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너희 이산가족들의 슬픈 사연과 가족이 만나서 쉽  
디 쉽게 우는 모습은 이산가족이 무엇인지 너희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나까지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더  
이상 너희처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산가족이 없었으면 좋겠어.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 좋겠어.

친구야, 이산가족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너희 북한 학생 돕기에 참여하는 거야. 북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지? 우리들이 실행한 작은 도움이 힘든 너희 북한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거야.

둘째, 너희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야. 너희 북한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책을 읽으며, 무슨 게임을 하는지 또한 문화는 어떠한지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북한의 사투리 등도 공부하여 우리랑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야 통일이 되었을 때 너와 같은 북한 친구들과 같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진지한 토론을 하며, 재미있게 게임이나 놀이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셋째,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필요해. 이건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통일을 남의 일이나 먼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통일이 되면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해. 통일에 대한 믿음과 굳은 의지가 있으면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아니야.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만 해. 통일이 되었을 때의 좋은 점을 떠올려보고 하나하나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해. 내 말 맞지?

친구야,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더 이상 이산가족이 없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어느 누구도 가족과 헤어져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하호호’ 웃음꽃 피우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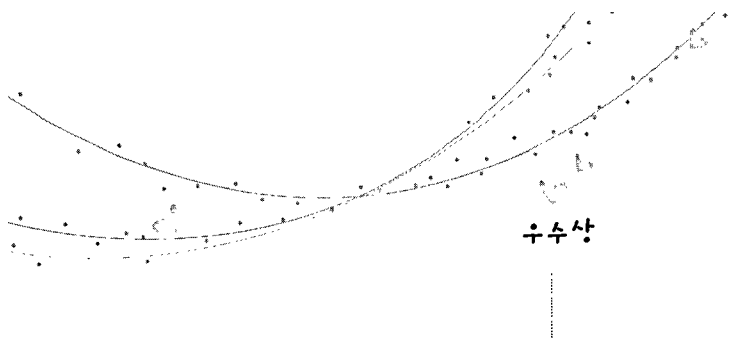
친구야! 이산가족 없는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하자. 알았지?

다음에 또 소식 전할게.

그럼 안녕!

어린이의 달, 가정의 달 5월에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남한의 친구 씬





## 저의 할아버지의 소망 레노 콘

장성황룡중 3 · 김연지

할머니께서 오셨다. 그리고 식구들은 떠날 준비를 한다.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늘 멀게만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보다. 깨어나 보니 벌써 도착했다.

“아빠, 할아버지 잘 계셨을까?”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오랜만에 왔지야?”

담담하게 대꾸하시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대전 국립묘지에 사신다. 1년에 한 번 식구들은 묘지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뵈러 간다. 너른 잔디 별판에 점점이 꽃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언제나 꽃들은 오늘 하루 최고로 아름다운 수를 놓고 그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게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할아버지께도 꽃을 드리고 먼저 와 계신 고모와 고모부께 인사를 한다.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할아버지께서도 보고 계실까?

초등학교 시절에 국립묘지 가는 일은 나에게도 식구들끼리 소풍가는 일 그 이상은 아니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다양한 먹을거리를 이것저것 골라서 먹을 수 있었고 모처럼 만나는 고모께 용돈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으니 어린 마음에는 그저 재미있고 신나는 소풍일

수밖에. 그 시절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온다. 어찌 그리 철이 없었나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6·25의 의미를 알고 있다. 사회 시간에 본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두려움에 찬 눈과, 찌늘한 시신 위에 엮드려 오염하는 사진 속 여인의 처연한 모습을, 그리고 지금 우리 집처럼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오신 또 다른 할머니와 아버지와 고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안다. 생이별에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가슴이 까맣게 타버리는 그리움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다.

하늘 아래 할아버지 마을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어 놓다가 잠시 말을 꺼내시는 할머니.

“내년에 또 올랑가 모르것다이.”

“아니고 으니, 그런 소리 좀 마씨요. 해마다 하시는 소리.”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에 담긴 뜻을 안다.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셨다는 할머니. 그랬기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 손녀가 이만큼 자라도록까지 고생하시고도 살아갈 기운을 잃지 않았다는 우리 할머니.

젊은 할아버지의 피가 스민 이 땅이 비록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반갑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은 남북을 오가면서 금강산도 구경하고 온정각의 냉면 국물 맛이 어떻다고들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금강산을 이미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하루만에 정몽주 선생의 절의의 핏자국이 진짜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견우와 직녀가 그리움의 오작교 건너 만나듯 꾸준히 닫힌 문을 두드리고 열어 반갑게 악수하고 만났다. 이제는 하나 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온 세계에 우뚝 설 대한민국의 찬란한 통일 조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찌면 우리가 함께 풀어야만 할 과제가 아닐까?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통일된 땅 위에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날개는 바로 우리 손으로



었다. 그 사이 내 마음속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나라 지도는 테이프가 떨어져  
 너덜너덜 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마냥 어리기만 했던 9살이 아닌 나에게 북  
 한의 정치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되었고,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한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하여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의 앞날을 가로막는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서 돌아다니던 나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크게 써져 있는 비  
 디오 테잎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영화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담은 4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다는 것을 생각해 낸 나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2시간 20분 동안 그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영화를 보고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눈물이 영화의 감동 때문이  
 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족들과의 이별에 아파하는 영화 속 인  
 물들을 보면서 내가 그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절  
 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  
 지 않는 한 귀로 흘러들을 이야깃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부모 형제를 잃  
 은 슬픔에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생  
 각하면 죄책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왜 나는 그동안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일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성장'  
 이라는 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발판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  
 는 설사 그것을 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5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고 통일 후의 세상을 걱정하며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기를 권한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  
 고 싶다. 형제끼리는 서로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  
 고 편안한 관계인 형제 사이는 어쩌면 가장 싸우기 쉽고 화해하기도 쉬운 사  
 이라고. 통일 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

는 바이다. 하지만 같은 조상 아래 같은 영토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 온 형제라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쩌면 이러한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는 논리성 없는 주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어디서나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내 형제를 믿겠다는 다소 막연할 수도 있는 내 주장을 믿는다.



못해 감정이 격해지는 게 아닐까?’하는 노파심으로 시작한 인사였지만 내가 먼저 건넨 인사에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건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었다. 풍선을 타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그 기분보다 묘한 감정이 수천 배 상승하는 것 같았고,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하다. 사이다처럼 톡 쏘는 재미에 자신감이 더해져 쉬지 않고 만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하나 된 기쁨을 나누었다. 그 분들 중 나에게 “통일되어 다시 만나요”라고 인사치레로 건넨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았던지 모른다. 코끝이 찡했다. 누가 우릴 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은 그 동안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유가 넘치고 편해 보였다.

한반도는 하나인데 우린 왜 둘인가? 손 뻗으면 닿을 듯 세계지도를 펼쳐두고 바라보면 방점처럼 가까운 그 거리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라. 하지만,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 그로 인해 평생 삶의 짐보다 힘든 아픔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권리로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권리까지 빼앗는단 말인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진 이들이 “우린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라며 휴전선을 허락했는가? 아님 “남한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며 통일을 반대했는가?

통일이 된다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세계평화가 가능하다. 국가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통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이 모든 걸 한쪽으로 미뤄두고 우리가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통한 ‘恨(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목이 터지게 외치고 싶었던 그들의 가족 이름과 사랑한다는 말, 서로가 만나는 순간 울음바다가 되는 만남의 장면을 연상시키면 가슴이 아려온다. 남의 일 보듯 슬픔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오른팔이 사라진다면,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느낀 그 기분보다 몇 배 더 큰, 더 이상 미쳐버릴 것도 없는 패닉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 기분이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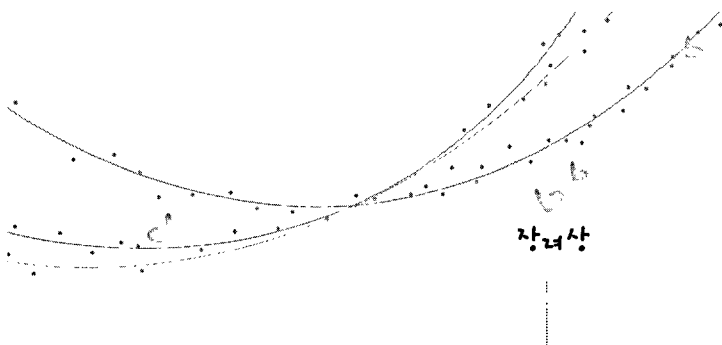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달랠 수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도 없다. 가족이 함께 있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가족이 있기에 하루를 더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인간인데 그 소중한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팔 한 쪽, 아니 두 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지하의 선열들까지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파해 온 한반도도 울고 있다. 남북한에 비가 내린다면 슬픔이 모인 눈물일 것이고, 그 눈물의 주인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기에 슬픈 이들을 구제해 주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자주 갖고 노는 큐브도 한반도처럼 첫 시작은 완벽했다. 하지만 흐트러 놓고 더 꼬아 버린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 복잡해지고 되돌리기에 힘들어진다. 그렇게 흐트러지고 엉클어진 큐브를 제자리로 재빨리 맞춰야 하듯 우리의 책임인 만큼 서로의 템포에 맞춰 하루빨리 한 걸음씩 제자리로 다가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해를 풀어 나가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휴전선은 지우개로 지우듯 천천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써 통일이 된다면 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 45년 동안의 이별

춘양초 6 · 정지수

“오라버니. 흐흫”

“오냐. 네가 누구지! 엉엉”

“제가 막내 귀자여요. 흐흫”

“뭐, 귀자! 내가 너를 본 지가 얼마만이니!”

“저희가 헤어진 지 이제 45년이에요. 흐흫”

“그래, 그 오랜 세월동안 네 곱던 얼굴도 많이 변했구나.”

“그래요.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 버린걸요. 오라버니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 그래. 내 얼굴도 많이 변했지.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

“어머님께서는 10년 전에 일하던 도중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도 오랫동안 병으로 자리에 누워계세요.”

“아이고, 엉엉”

“흐흫, 오라버니.”

“엉엉”

“흐흫, 흐흫”

이 이야기는 얼마 전 TV에 나온 45년만에 만난 한 오누이의 서글픈 만남

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북에 있는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어야 했는지, 이런 서러운 만남을 가져야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나라가 분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민족인데 한 가족인데 45년 만에 남매가 울부짖고 만나는 것이 애처로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합니다. 위와 같은 현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아마도 시급한 일이 통일이 아니겠어요.

통일이 되면요,

첫 번째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슬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연과 같이 오빠와 동생이 45년만에 만나는 그런 슬픔의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형제간에 즐거움을 갖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력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 합쳐져 나라를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부강한 우리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북에는 금강산이라는 세계적으로 경치 좋은 아름다운 산이 있고, 남에는 기술력이 있으니, 남한의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의 산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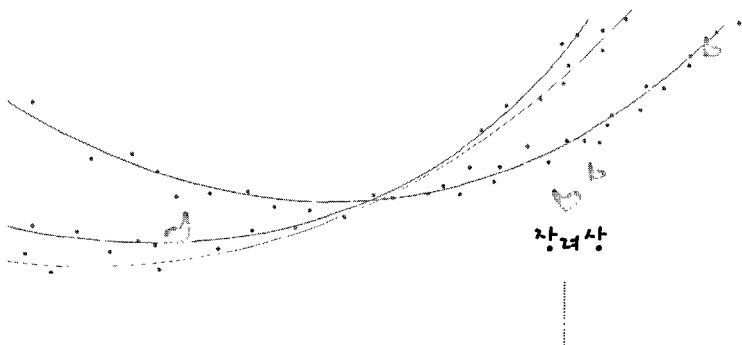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제 정세 때문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북한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라 여길 정도로 생활과 문화,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한 민족의 자랑스러운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별은 너무 깊습니다. 이젠 만나야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모두 잊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로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너와 나 두 손 꼭 잡고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만날 그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단의 고통과 슬픔으로 이루어진 선을 끊고, 또 다른 선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행복의 선으로 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려 봅니다.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동강중 2 · 김소영

내 나이 열다섯.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지 50여 년.

솔직히 내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남북분단 현실의 아픔이 내게는 와 닿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데 왜 통일을 염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고 보니 아픈 분단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내 몸이 두 동강 난 것처럼 섬뜩 소름이 돋았다. 내가 내 가족을 지척에 두고 보지 못한다면, 내가 내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으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의 남한은 배고픔과는 거리가 멀고, 나부터도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저 굶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정도로만 알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날마다 쏟아져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북한의 소식은 국민들의 식량보다는 핵과 관련한 군인들의 군량미 비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도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들의 정책을 어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줄이거나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지속하고 옛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그날처럼 우리의 조각난 허리를 다시 이을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오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을 내



고향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현실을 더 슬퍼함이 옳다 느껴진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이 평화가 이 땅에만 지속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땅이 되고 민족이 될 저 북한에서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슬하에 들었던 통일이 왜 그다지 가슴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저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부족함 없는 풍요 속에서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려 점수 따기에 바쁜 수업을 하고, 이미 배고픔을 잃어버린 세대인 만큼 통일의 염원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의 FTA협상이나 쇠고기 수입건만 보더라도 아직 약 소국가로 취급받고 있음을 뼈아프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남과 북은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서로 등을 맞대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늘 이웃나라라고 말하면서도 호시탐탐 영토를 도둑질하고자 하는 이들을 앞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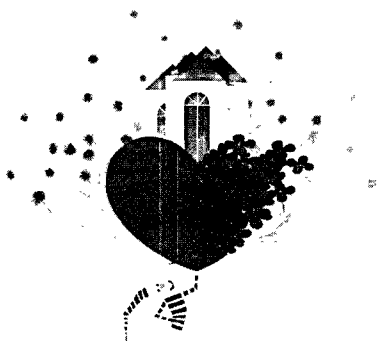
우선 대북에 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의 교류가 절실하다. 정치적 견해를 좁히기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걸음마를 배우듯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때론 무서워 제자리 걸음일 때도 있겠고 때론 신이 나서 한꺼번에 여러 걸음 띄울 때도 있을 것이다. 힘들면 조금 쉬기도 하고, 잘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홀로 씩씩하게 걷는 날이 오듯이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도 올 것이다. 멀지 않은 날에 실현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 모든 국민은 꿈에도 통일을 염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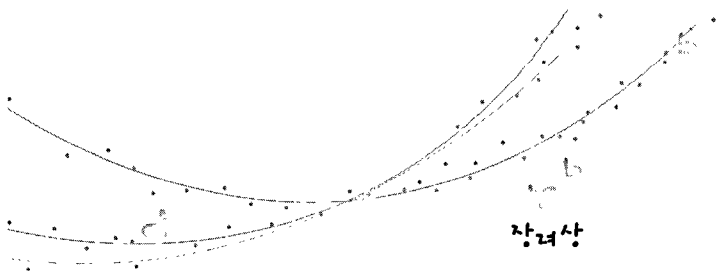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우리 세대가 너무 안일함 속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각성해야 할 문제임에도 늘 이맘때쯤 한 번씩 하는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쉽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업과 연계한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는 북한을 늘 도깨비로 표현하곤 했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으며 적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한 민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강대국의 조건은 넓은 영토도 풍부한 자원도 아니다.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저 유태인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사시에 하나로 뭉치는 단결심과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알고 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것이며, 좀 더 풍족하고 가치 있는 조국으로 보답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절실한 염원과 남과 북은 하나라는 강한 뿌리 의식을 갖고 통일 조국을 위하여 차분하게 준비해 간다면 우리의 통일이 앞당겨지리라 열 다섯 소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두만강의 얼음길

영광고 1 · 송나현

시체를 보았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특집 방영된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다. 물에 불린 듯 처리된 희미하다 희미한 영상은 더 많은 상상과 섬짓함을 느끼게 했다.

탈북자였다. 한 여자가 얼어붙은 두만강을 다 건너오지 못하고 마치 잠을 자듯 쓸쓸히 죽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것도 몇 달 동안. 강바닥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그 겨울날, 숨 죽여 가며 그 얼음길을 좇아 도망쳤을 그 여자를 생각하니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다.

생존을 위해 택한 길이 그에게는 죽음의 길이였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은 그녀의 죽음을 다 표현해내진 못할 것이다. 중국에서 오천원도 못되는 취급을 받으면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탈북 여성들의 삶은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처참함 그 자체였다. 어디 여성뿐이겠는가? 탈북자들은 매년 원치 않는 두만강의 심청이로 분단의 잣밥이 된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게 어렵게 탈출하여 생명의 새 터를 얻었다고 한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체제의 괴리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남기고 온 식솔들 생각에 한 평생을 가슴앓이로 보내는 이들도 허다하다고 한다.

왜 우리는 쉽게 풀지 못하는 것일까? 서로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기면서까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한다 말인가? 코리아! 미국의 한 주(州)에 불과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파란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 지금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세계 2차대전의 침략국이 아님에도 강대국들의 이익과 한반도내의 이념 갈등에 의해 철저히 단절되었으며 또한, 그 분단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고 있다. 1945년에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한 국토 분단, 1948년에 남북한 정부수립에 의한 체제 분단,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정신적 분단이 그것이다. 이중 삼중 분단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은 점멸하는 별처럼 반짝였다가 이내 희미해져 버리곤 한 것이 지금 반세기를 훌쩍 넘기고 말았다.

원래 하나였었는데 다시 합치는 게 어찌 그리 어렵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 분단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보아 왔다. 통일의 문제가 각자의 실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는 식의 감상적 통일 제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분단의 벽을 허물어 버린 통일 독일은 17주년의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독일 역시 사상의 대립을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격차와 경제적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 편중화는 여전히 통일 독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 통일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 하고 완벽히 준비된 후 물꼬를 틀어야 할 막중한 일이다.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간도 한 쪽은 잘살고 다른 한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서로 싸우더라도 형제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 즉, 형제의 어려움을 그저 묵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민족끼리 슬픔을 감싸 안으며 위로해야 한다. 실리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형제끼리 이해타산만을 따져서 무엇 하겠는가. 통일의 주체는 결코 강대국일 수 없다. 단절의 고통, 분단의 슬픔, 이산의 뼈저림을 당한지 50년이 넘었다. 그 아무도 우리의 일을 그네들의 일처럼 생각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의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통일의 주체는 저기 먼 큰 나라가 아니요, 바로 남과 북, ‘우리’인 것이다.

최근 수업시간에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의 일부분인 ‘민족국가’를 공부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김구 선생의 사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사상과 종교, 철학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얇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를 배척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혈족적 민족주의, 오직 우리 민족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남북의 반쪽이 아닌 하나의 삶은 민족을 넘어서 세계가 하나 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말의 전쟁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반도의 통일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마음으로만 바라고, 입으로만 되뇌인다고 그것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먼저 서로가 용납하고 희생할 의지가 되어 있고 실천이 뒤따를 때 통일은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이다. ‘구상’ 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우리는 동포애와 인간애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관용과 연민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원통한 희생과 그러한 고통의 장벽을 넘어서는 민족의 하나 됨을 이룩해야 한다. 적대감과 증오감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지금 이 시간도 고향땅을 버리고 생명을 건 도주를 시도하고 있을 수많은 탈

복자, 고향을 잃고 한없는 세월 속에 그리움에 사무쳐 늙어버린 실향민, 그리고 마치 분단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지금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통일은 와야 한다. 가슴앓이를 치유하는 통일이요, 생명을 위한 통일이요, 우리의 무심(無心)을 일깨우는 ‘우리의 통일’이 마치 봄볕에 두만강의 얼음길이 풀리듯 소리 없이 와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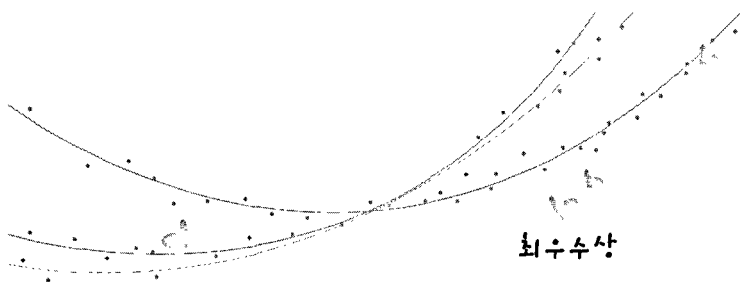


## 경상북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한 뿌리 두 나무에  
    붕대를 감았어요 \_ 369
- 저 푸른 하늘처럼 \_ 372
- 우리가 앞장서야 할 통일문제 \_ 375
-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_ 378
- 하나 더하기 하나는 \_ 380
- 나, 아버지, 그 너머의 아버지 \_ 383
- 같은 하늘, 같은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까지 \_ 386
- 다시 우뚝 설 용맹한 호랑이 \_ 390
- 금강산에서 알게 된 통일 \_ 394





최우수상

## 한 뿌리 두 나무에 붕대를 감았어요

석적초 4 · 윤재훈

매년 6월에는 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정말 힘이 든다. 그릴 것도 없는데 자꾸 그리라고 하면 짜증이 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큰 나무를 그렸다. 그리고 무궁화 꽃도 그리고, 나무의 허리에 하얀색 물감으로 색칠도 했다. 친구들은 엉성하고 낙서에 가까운 내 그림을 보며 ‘에게게…… 이게 통일 그림이냐? 나무에 흰색은 왜 칠했냐? 호빵 나무냐?’ 깔깔거리며 비웃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났지만 열심히 그리고 도화지 뒷면에 제목도 적었다. 미술 학원을 많이 다닌 친구들의 통일열차와 비교해 보면 내 그림은 정말 보잘 것 없다. 하지만 내가 통일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게 된 이유를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 전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둥켜안고 쓰러질 것처럼 울고 계셨다. ‘왜 저렇게 우시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헤어진 부부라고 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다른 나라 이야기를 보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컴퓨터 게임을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통일 수업을 했다. 통일에 대해 찬반 토론을 했는데 한 아이가 북한과 통일을 하면 우리 남한까지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웬지 그 아이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달라서 서로 힘들고, 가난한 북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꾸 주면 남한의 돈이 북한으로 많이 가서 우리까지 못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화도 났다.

하지만 통일을 찬성하는 아이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재도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다. 찬성하는 쪽 아이들의 주장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옳은 거 같기도 했다. 선생님의 마무리로 토론은 통일을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지만 역시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셨다. 한참 뒤, 우리는 함께 아파트 마당에 있는 번개 맞은 나무를 보러 나갔다. 번개를 맞아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는 서서히 붙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나무는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거야. 스스로 붙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 나무들 사이에 철조망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서로 부둥켜안고 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못 먹고 힘이 없어서 파리가 입에 붙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던 북한 아이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그 나무 곁으로 가보았다. 그 나무는 번개를 맞았지만 서로를 부둥켜안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지금도 진물은 나고 있지만 영양주사를 놓은 자리에 새순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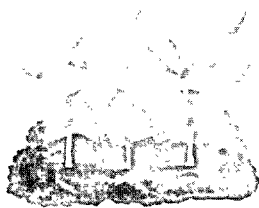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그 나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말씀처럼 나무를 배워야 한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서 쭈어가고 있는 한 뿌리 두 나무는 서로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철조망에 짓눌려 뿌리부터 썩어서 죽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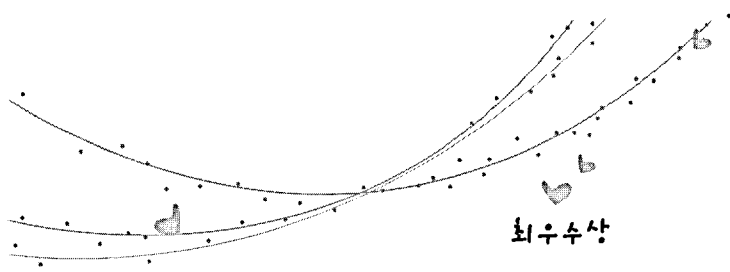
빨리 철조망을 없애야 한다. 두 방향으로 갈라져 한 그루에는 무궁화, 한 그루에는 목란이 피는 돌연변이 나무가 된 한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치료를 해준다면 돌연변이 한반도 나무는 당당한 아름답디나무가 된 통



일조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그림에 커다란 나무와 무궁화 꽃을 그리고 물감을 듬뿍 찍어 붓대를 그려 넣은 것이다. 친구들의 통일 열차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린 통일 나무 밑에서 북한의 친구들과 딱지를 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최우수상

## 저 푸른 하늘처럼

옥산중 3·우혜리

우리의 터전. 한반도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다. 갈라진 채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이에게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든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서는 틈만 나시면 언제나 저 나무 그늘 아래 마룻바닥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늘 내가 두 번쯤 부르셔야 나를 바라보신다. 두 눈을 두어 번 찌푸리시더니 그제서야 날 알아 보셨는지 반갑게 맞이하신다. 할아버지는 오른쪽 검지가 하나 없으시다. 듣기로는 전쟁 때 사고로 잃으셨다고 했다. 저 절뚝거리는 유난히 마른 한쪽 다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이구~ 우리 청아구나. 이 할애비를 보러 온 게냐?”

“네, 할아버지께선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허허허, 내가 여기 말고 또 갈 곳이 어디 있겠니?”

또 다시 하늘을 향한 할아버지의 눈에는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비친다. 나는 그냥 가만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잠시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선 왜 항상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의 물음에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 옮겨졌다.

“저 하늘엔 끝이 없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의 의미 모를 말씀을 이해할리 없는 내가 다시 여쭙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 하늘엔 누구도 금을 그을 수 없어, 네 땅 내 땅 가르듯 금을 그을 수 없다는 말이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할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살고 있었다. 벌써 60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구나.”

할아버지께선 목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청아는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니?”

“할머니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겠구나... 할머니는 저 끝에 있으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아. 할머니가 살아계셨군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뵈러 가요.”

내 말에 할아버지께선 미소를 지으셨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기 때문에 자꾸만 할아버지를 부추겼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갈 수 없단다. 너도 나도.”

“청아야, 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구나, 허허허. 너희 할머니는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을게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다.

“60년 전, 이렇게 똑 같라질지는 생각도 못했지. 혼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럼. 우리 할머니는요?”

“전쟁으로 생사를 넘나들 때에 놓치고 말았지. 내가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보고 싶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허허.”

“그럼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단다. 하나로 합친다는 게 한 사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아야, 아버님! 날이 많이 차요. 어서 들어와서 진지 드세요.”

“그래, 날이 많이 차구나. 칭아야, 우리 어서 들어가자꾸나.”

“네!”

그때 우리를 찾는 엄마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산가족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기에 눈여겨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께선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셨다.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꿈은 단지 저 하늘뿐이다. 저 푸른 하늘처럼 남북한을 갈라버린 넘지 못하는 금을 지우고 싶으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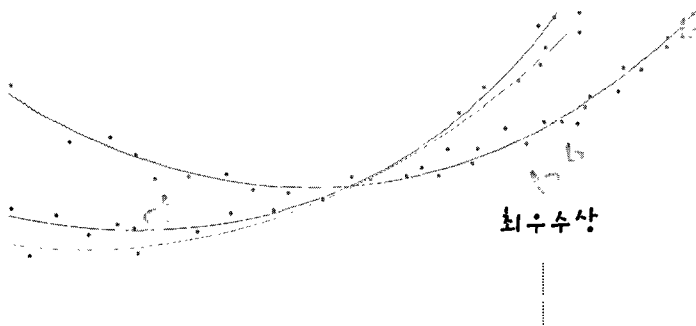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작지만 간절한 우리 소원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남한인, 북한인이 아닌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칭아야, 거기서 안오고 뭐하니? 어서 가자꾸나.”

“네!”

나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뒤따라 뛰어갔다. 오늘따라 석양 아래 할아버지의 절뚝이는 뒷모습이 내 마음에 시리게 아려 온다.





## 우리가 앉아서야 할 통일문제 표상

순심고 2 · 최호은

근 50년동안 남과 북 국경 없는 우리 한민족의 가슴 속 뿌리 깊은 공통된 한이자, 전 세계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함께 이루어야 할 통일의 길은 과거에는 순조롭지 못했다.

통일신라시대 이래 해방 직후까지 유지해 온 우리민족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두 동강이 나 버렸다. 이어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립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 질서를 만들었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또한 한반도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은 체제 대립과 이념 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과 대립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은 모두 사회의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의 지리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한반도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대립과 긴장의 장이 된다. 또한 우리의 분단은 일천만 이산가족들에게 한을 안겨주어 민족적 차원에서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였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부터 비롯된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북한 김정일 정권 이후 중국이 북한을 삼키려는 야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켜 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랜 기간동안 토착화된 이질화와 적대감,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던 우리민족의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어 한민족이 함께 이룩해야 할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왔다. 평화 통일 구상 선언과 7·4 남북 공동 성명,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물자 수송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멀어져 갔던 통일의 염원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세계적으로 분단의 역사는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독일과 예멘, 베트남에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체제인 동독과 자유주의 체제인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며,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쌓아졌다. 그러나 서독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 교류와 민간의 통행, 체육과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수많은 교류를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통일로 부정부패와 국민들의 불신과 공산정권에 의한 통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평화 정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과 여러 면에서의 경제적인 뒷받침,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독일과 같은 여러 나라들의 통일에 대한 교훈을 발판으로 문화와 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친근감을 쌓아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나눔과 화해의 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등을 통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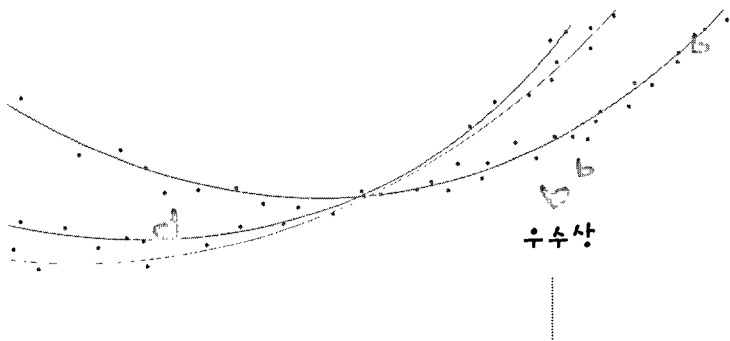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던 북한의 긍정적인 문화는 우리가 배



워야 할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고유어의 모습을 지켜온 북한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말의 오염을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50년동안 분단되었던 우리는 요즘 들어 우리와 같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을 느끼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따라서 주변의 이산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나 이산가족상봉의 장면을 담은 매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인정신과 통일의 당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통일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남북문제는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남북의 통일문제는 분명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사항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국민의 경제적인 생활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통일은 비단 우리 민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전 세계의 과제이며,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이다.





## 소름 잡고 하나가 되어

가은초 6 · 이희현

오늘도 우리 집 작은 뒷밭에 민들레 한 송이가 작고 가녀린 꽃잎을 뽀내며 세상을 향해 예쁘게 피어났다. 소망을 가득 담고 피어난 민들레꽃이 바람결에 지고 나면, 다음해를 약속하는 민들레 흙씨는 긴 여행을 한다는 마음에 잔뜩 부풀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천지가 아름다운 백두산까지 가면 좋겠지만 민들레 흙씨는 결국 38선 아래에 살포시 앉지 않을까?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는 허리에 한반도의 선명한 아픔을 담고 있는 ‘작은 호랑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오랜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과 북한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였던 단군 할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었고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아갔었다. 그런 우리가 지금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이산가족의 아픔과 민들레 흙씨의 슬픔을 남겨 놓았다.

언젠가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 TV에서는 북한과 다른 나라의 축구경기를 한참 상영하고 있었다. 축구를 잘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나는 경기에 빠져들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만 외쳤다.

“북한 이겨라. 그렇지! 아, 아깝다.”

“골, 골? 아! 드디어 한 골 넣었고!”

“우리 효정이 아주 북한 팬이네! 몇 대 몇이니?”



언제 오셨는지 엄마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엄마, 참 이상해요. 뉴스에서 북한을 그다지 좋지 않게 얘기할 때는 북한에게 왠지 모를 경계심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북한을 응원하고 싶어지고 북한이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과 북은 아무리 떼어놓아도 한 핏줄 같은 자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엄마께서는 나를 기특하다 여기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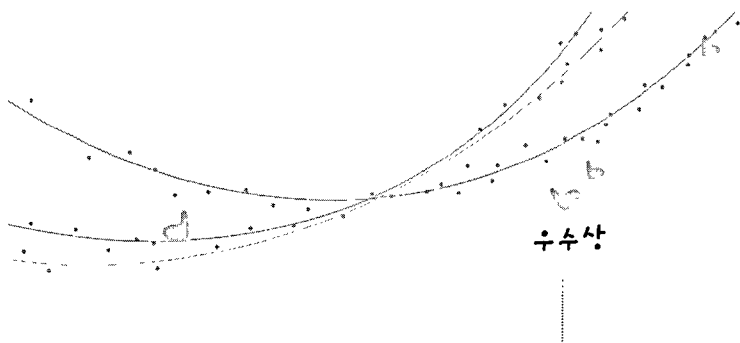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는 한 자손이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지만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날도 한치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

그때의 엄마의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에 또렷이 맴돌고 있었다. 우리 한반도를 원망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의 울부짖음 소리와 그 원망에 눈물을 흘리는 작은 호랑이의 소리도 함께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몇 년 전 MBC 방송국에서 상영되는 ‘느낌표’에는 ‘남북청소년 알아맞히기’라는 코너가 있었다. 재치 많은 신동엽 아저씨와 북한의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서로 생각하는 점에 여러 차이가 있어서 답도 많이 달라지고는 하였다. 남과 북의 학생들 모두가 한 핏줄을 이어 받은 한 민족이라는 느낌이 더욱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북한 학생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점인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실제로 친근감을 느끼며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제강점기를 회복하고 어수선한 민족의 분위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참전한 한 민족끼리 사나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크나 큰 상처이다. 그 동안 지치고 힘이 들었을 민들레 흩씨도 이제는 백두산 꼭대기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소중한 마음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아시아 대륙 속에 작은 호랑이도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세계로 뻗어 가는 문을 찾을 신호를 알릴 테니까.





## 하나 더하기 하나는

춘양중 3 · 김은숙

나는 어렸을 때 실과 바늘 장난을 꽤나 좋아했다. 할머니 집에는 여러 가지 실이 많아서 거기 가기만 하면 실을 만지작거리며 놀았다. 당시 나는 덧셈을 배우고 있어서 실을 묶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면서 덧셈 놀이를 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실 가닥을 가지고 공책에 '1+1=' 하고 써 놓은 후, 실 두 가닥을 묶었는데 그 실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어린 나는 '길이는 길어졌지만 분명히 한 가닥이야. 물 한 방울에 다른 물 한 방울을 더하면 합쳐져서 큰 물 한 방울이 되지 두 방울로 나뉘지진 않잖아.' 하며 나름대로의 연구 끝에 답을 '1' 이라고 써놓았는데, 동생은 틀렸다고 하여 동생과 입씨름을 하였다.

그 때 할머니께서 우리를 말리려고 오셨는데, 손에는 노랗게 색이 바래고 넓은 천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바늘을 들어 그 곳에 수를 놓으셨다.

“에이고, 이젠 그때 같지 않아서 잘 안되네!”

“할머니, 그거 뭐야?”

“아가야, 너 6·25 전쟁이라는 거 알고 있니?”

“북한이랑 남한이랑 싸운 거?”

“그래, 그 때 할머니 오빠도 군인으로 싸우러 갔어. 북한이랑 남한이랑 전쟁터에서 막 싸웠지. 그래서 전쟁에 갈 때 주려고 넓은 천에 하나하나 수를





놓았다. 모양은 없었어. 그냥 수를 놓는 것이었는데, 일부러 길 가는 사람 잡아서 한 땀 해 달라고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땀 놓아달라고 했어. 많은 사람의 정성이 들었으니까 죽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었지. 그 천을 전쟁에 나가는 남자의 허리에 돌려 주었던단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할머니 오빠의 찢겨진 군복이었다. 할머니는 자꾸 얼굴을 손으로 감싸셨다. 나는 그 조용한 눈물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썼지만, 할머니의 아픔 만큼 한층 깊어진 주름살을 바라보며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드리지 못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때는 내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할머니께서 오빠의 안녕을 바라며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만약 내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고통으로 피 흘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로서 아까운 아들을 가슴에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다시 반세기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가슴을 움켜쥐며 오빠를 잊어야 했던 할머니의 씩씩한 미소를 떠올려본다.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분명 6·25 전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것을 잃었는데, 같은 가족끼리 싸우고, 다치고, 원망하고. 내 형제들이 차마 이곳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한반도 가운데 금을 그어 놓고 이제 이 둘은 남남이라 말한다. 왜 우리가 남남인가? 저 곳에는 내 어머니도 살고, 내 아들도 살고 있는데, 그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가족의 심장을 뚫게 했으며, 우리 집이 있는 곳을 다른 나라로 만들어 손을 뻗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 주변국들과의 상황에서 서로 싸워야 했던 우리. 승부가 나지 않자 두 동강이 나 버린 한반도라는 작은 밧줄. 우리는 반대쪽에 서서 우리와 맞서게 되는 우리의 반쪽만 원망했었다. 그들을 빨갱이라 하면서 자꾸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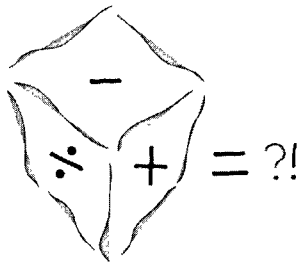
하지만 뉘우쳐야 한다. 끊어진 내 반쪽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끊어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매듭을 묶자. 비록 하나의 밧줄이 되더라도 매듭을 묶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역사책에 한국전쟁의 자취는 지워지지 않을 테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될 것이다. 바보스러웠던 과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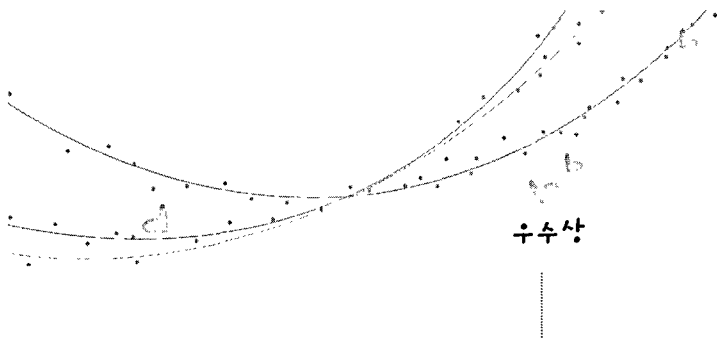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내 가족을 끌어안고 이제껏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토해내야 하겠지.

그리고 한반도에 물들었던 핏자국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무력’이 아닌 ‘평화’로 그 매듭을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전쟁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 간에, 그것을 용서하는 것 또한 가족의 몫이다. 한 조상을 모시고 한 언어를 쓰고 한 얼굴을 가지고 한 핏줄을 나누는 우리는 결코 둘이 아니다. 하나이기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오늘에서야 알았다. 어릴 적 했던 실 가닥 덧셈에서 1 더하기 1이 1인 이유를. 그것은 바로 만남의 합성 속, 하나 된 한반도에서만 희망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아버지, 그 너머의 아버지

감포종합고 2 · 김효선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이 해를 가려버렸다. 내 두 딸들은 자기들만의 얘기에 재잘거리고 있고, 내 옆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은 채 그저 전망대 직원의 교육을 받고 계신다. 아내는 화장실을 간다며 간 지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 지겨운 시간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이곳은 남한의 최북단에 있는 통일전망대이다. 어찌다 이곳까지 놀러오게 되었냐 하면 큰 딸의 수학여행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통일전망대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가야 한다고 떼를 쓰셔서 이곳까지 모시고 오게 되었다. 직원이 잠시 숨을 돌릴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슬그머니 빠져 나왔다. 나무그늘에 기대어 파란 하늘을 향해 하얀 담배연기를 뿜으니 조금은 속이 풀리는 듯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내 쪽으로 걸어오셨고, 그 모습에 담배를 얼른 땅에 비벼 꺼버렸다.

“내가 괜히 오자고 한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는 내 옆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어 앉으셨다. 어느새 작아지신 그 몸을 보니 새삼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쩍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보자 확인치레를 하는 듯 다시 그 생각이 들고 말았다.

“아니에요. 가끔은 밖에 나와서 공기도 췌고 해야 스트레스를 풀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않으셨고 나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저기… 애야.”

“예, 아버지.”

한동안 정적만 감돌던 나무 아래에서 부자는 쑥스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난 저곳에 못 오를 것… 같구나.”

“왜요, 아버지? 오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하지만…, 역시 못 보실 것 같아.”

아버지의 못 보실 것 같다는 말에 순간 화가 났다. 황금 같은 휴일을 빼서 이곳까지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오자고 하신 장본인이 구경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의 작아지는 목소리에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저 이유가 궁금해졌다.

“불편하신데 있으세요?”

“아냐, 그게 아니라….”

“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오를 수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다. 여전히 나무 밑동에 기대어 앉으신 채로, 시선은 전망대 너머를 향하신 채로.

“12살 때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그곳의 광경을 이 늙은 몸으로 혼자 보아야만 한다니, 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

“불바다였던 그곳을 떠나며 꼭 잡았던 어머니의 손도 없고, 어머니의 등에 매달려 울던 막내도 없어. 동네에서 가장 예뻐던 내 누님도 없고, 마지막까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시던 아버님도 안계셔. 그런데 난 그곳을 혼자 여기서 있단다.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도 나는 아직도 여기서 12살 그때 그대로이구나.”

아버지의 하늘에선 비가 오는지 눈가가 젖어 계셨다.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부쩍 커버린 자신의 핏덩이 앞에서



서 처음으로 자신의 하늘을 보여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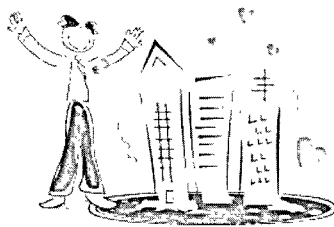
“난 전쟁이 무서웠다. 주춤거리던 나를 구하시려다 다리를 다치신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는 내 뒷모습이 생생하단다. 옆에서 폭탄이 터진 뒤 잃어버린 가족들의 얼굴도 생생하단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 물론 다시 가족을 잃는 것도 원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린 이곳에서 통일을 보지도 못한 채 다시 서보려 찾아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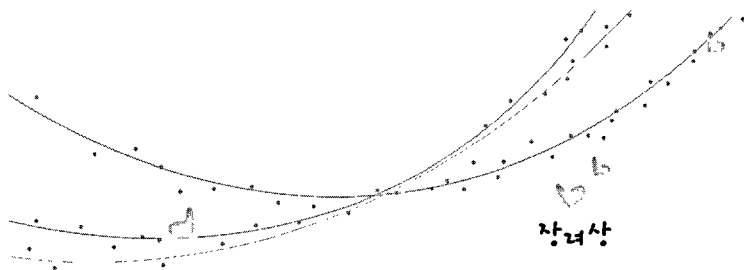
“.....”

“만약 지금의 나였다면 아버지를 업고 달릴 수 있었겠니...? 12년 전 그때 그대로인 내가 아버지를 업고 달릴 수 있을까?”

아버지 제 등에 업히세요...

그 말을 내 뺨은 게 나였는지 아버지였는지 나도 아버지도 모르실 것이다. 몇 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계단을 오른 뒤 맨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먼 고향을 보자 개운한 마음이 든 건 나였을까 아버지였을까? 오르며 흘린 땀도, 눈물도, 모두 날려 보내준 바람이 북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걸 알고 기뻐한 건 나였을까..., 아버지였을까...?





## 가은 하느, 가은 내일은 바라보는 내일까지

낙서초 6 · 박혜지

“아빠 다녀올게. 동생들 잘 돌보고 잘들 놀고 있어.”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서고 계셨다. 조그마한 캐리어를 끄시면서,

“여보,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말도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모른대요.”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신다.

“아빠 어디 가?” 막내 혜빈이가 막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물어보자,

“혜빈아, 아빠 좋은데 놀러가는 거야! 언니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하시고는 정말로 집을 나서셨다.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1년 전 저희 아버지는 친구 분들과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덕시간에 선생님께 얼핏 듣기는 했지만 정말로 아버지께서 북한에 가신다고 하자 ‘혹시나 북한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쁜 짓은 하지 않을까, 못 돌아오시는 것은 아닐까?’하며 저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디선가 예전에는 북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로 몰래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나의 북한에 관한 조사.

북한,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해마다 열리는 통일 글짓기대회에서나 도덕시간마다 북한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머

리속에 북한이란 나라는 일본보다는 가까운,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아닌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에 저희 아버지가 가신다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고민을 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쓴 일기를 보면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는 왠지 북한은 나쁜 나라,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 나라,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북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텔레비전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저의 생각은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적이고 전쟁만 일으키는 나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배가 고파 잘 자라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불쌍하던지... 매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도 맛이 없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음식을 함부로 남겼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북한에 조금만 보태주더라도 훨씬 굶는 어린이가 줄어들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도 이기적이지만 내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북한 여행을 다녀오신 아버지께서는 금강산 관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름답던 금강산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북한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북한 사람에 대한 인상은 한마디로 딱딱함이었다고 합니다. 비쩍 마른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 없이 씩곳씩 웃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순박해 보이는 북한 사람들이 동네 이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어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살짝 살짝 보셨던 황폐화된 북한의 들녘도 많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관광을 하는 곳은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하지만 또

로 멀리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 60·70년대 시골 마을 같은 풍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지만 않았어도 북한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발전했을 텐데... 아버지 말씀을 들은 나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뉘지지 않고 함께 발전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본보다 더 강대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 접어두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산가족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집은 북한에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영영 우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던지... 며칠 캠프만 다녀와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저는 50년도 넘게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가야 했을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영 우는 모습보다 더 저를 슬프게 했던 것은 서로 빨리 가족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으면 가족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저는 슬펐습니다. 나같이 학교에 다닐 나이에 헤어져 백발 노인이 되어야만 나는 가족... 어쩌면 몰라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할아버지께서 나와서 죽기 전에 한번 만이라도 고향을 밟아 보고 싶다고, 자신의 유언은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고향땅에 묻어달라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북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기억에 남던지... 정말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전에 저처럼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옆집 동네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비록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었지만 지금은 평화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동포, 우리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한민족이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북한의 말에 대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북한의 말도 많이 알아워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어색해 하지 않을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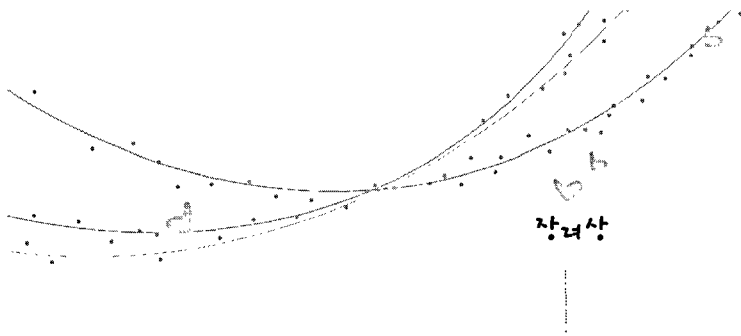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가자고 하십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북한을 실제로 볼 생각을 하면 왠지 조금 무섭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설렘이 더 큼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이면 금강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관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같은 민족,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철창에 나눠져 너무나 오랜 세월을 서로 등진 채 살아온 우리나라,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역사책에는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나라가 아니라 백의민족, 단군의 자손이라는 뜻이 담긴 새로운 이름으로 남기를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가 마주 손잡고 같은 하늘, 같은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를 꿈꿉니다.





## 다시 우뚝 설 용맹한 호랑이

금천중 3 · 박희정

한반도는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에 뿌듯해 하고 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모습을 한 건 한반도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이라는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걸만 하나고 속은 둘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걸까? 실제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통일을 원하고 각 학교는 통일 글짓기를 무슨 행사처럼 해마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통일이란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차이이다. 현재 남한 내에서도 경제적 수준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한 내에서도 이런데 북한과 남한이 통일된다면 빈부 격차의 수준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꽤나 컸다. 통일 후 독일은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서독의 자본들은 조금씩 동독으로 이동되었다. 이런 독일의 노력으로 빈부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분단국가로 지낸 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가 많이 달라진 것도 큰 문

제이다. 가끔 교과서에 등장하는 북한 언어를 접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전부터 써 오던 우리 민족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도 다시 그에 맞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북한.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신제품이 들어오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남한, 10대들의 채팅 용어 등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세대간의 언어 소통에 무리가 적지 않은 남한.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여 남북한 사람이 만난다 해도 의사소통에 상당한 무리가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통일하기까지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말이 다르다는 것이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분명하다.

언어가 달라짐과 동시에 문화 역시 많이 달라졌다.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곧 법이 되어 작용한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남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보다 언론과 여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위,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지만, 북한에서 시위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중가요를 봐도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가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 담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한의 대중가요는 사랑이야기, 사회 비판 등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 북한에도 연예인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연예인은 공산주의 혁명 사상이 투철해야 한다는 가장 큰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학교라는 곳을 졸업해야 하고, 예술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남한의 민주정치와 북한의 공산정치 중 하나로 정치체제를 합해야 할 것이고, 언어, 문화 등 서로 다르게 변해버린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빈부 격차 해결을 위해 한 쪽이 희생을 충분히 감수해야 하고, 통일 직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우린 한 민족이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그 옛날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삼국시대 때 나라가 갈라지기는 했지만, 수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통일을 이루었다. 옛날 광개토대왕도 신라가 약할 때 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크게 작용한다. 한 민족이 이렇게 하나도 둘도 아닌 어중간하게 갈라져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통이 발달되어 하루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갈 수 없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 통일이 된다면 이들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순 없어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며칠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시 헤어져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짧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더 근본적인 방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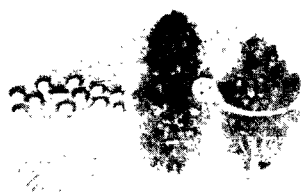
셋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고 있다. 중국도, 북한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다. 같은 우리 민족인데 그들이 죽어나가고 멸시당하는 모습은 볼 때마다 안타깝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렇게 몰래 힘들이지 않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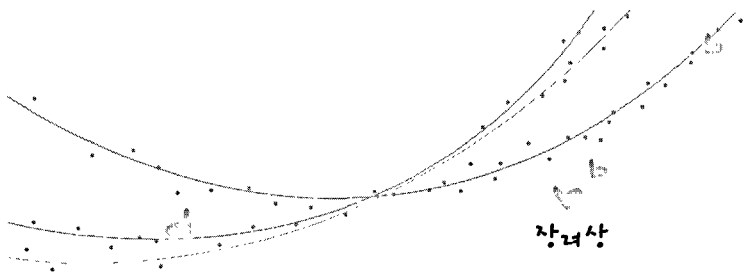
넷째, 선진국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힘들지 모른다. 국가 내부의 혼란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서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북한이 군수물자가 풍부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풍부한 군수물자를 관리할, 그리고 계속 개발할 자금이 그들에게 부족하다. 그들과 우리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지하자원 역시 풍부하다.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이 많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런 곳들을 남북한이 힘을 합쳐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줄 수 있다. 통일을 함으로써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진다. 또한 떨어져 있던 동안 서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가면서 서로의 지혜를 조금씩 배울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이라는 문제는 많은 단점과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단점들에 얽매어 큰 장점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놓치게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통일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다행히도 요즘은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통일이라는 숙제의 해결이 머지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허리가 잘린 호랑이의 모습이 어서 빨리 한 마리의 용맹한 호랑이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오늘도 남북한의 많은 국민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 금강산에서 알게 된 통일

경산고 2 · 김경재

통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단어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단지 얼마 전부터였다. 우리 학교 대표로 3일간의 금강산 체험학습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출발하는 날 새벽까지만 해도 여행이라는 생각에 한층 들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북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은 차츰 바뀌어 갔다.

첫째 날, 새벽부터 한참을 달려 우리 일행은 남측 CIQ, 비무장지대, 북측 CIQ를 지나갔다. 여기가 바로 내가 분단의 현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소였다. 마치 아무도 오간 적이 없는 듯 험하니 도로만 있는 비무장지대, 남측의 CIQ에 비해 작고 초라한 북측의 CIQ, 그리고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눈빛으로 삼엄하게 우리를 경계하는 내 또래의 북측 군인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충을 들고 서 있는 삐쩍 마른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분단의 비극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저녁,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 마음만은 편치 않았다. 자꾸 그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 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누운 지 한 시간만에 편한 잠자리에서 불편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장 보기 힘들다는 겨울의 금강산, 개골산으로 발을 옮겼다. 마치 남극에라도 온 듯 사방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눈이 부실 정도였다. 산행중 곳곳에서 붉은 글씨가 새겨진 바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위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글, 북한의 주석, 장군, 여사에 관한 글들뿐이었는데, 북측 가이드들은 그 바위를 손으로 가리키지도 말고 기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이름을 부를 때는 각각 주석, 장군, 여사 등의 호칭을 꼭 붙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스런 마음은 여전히 대단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한데, 여기는 ~하네’라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남한과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측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통일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라는 학생들이 남한, 북한을 모두 ‘우리’라는 한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통일 교육은 없었던 것이다. 통일이 되려면 남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해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통일이 되어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금강산 체험학습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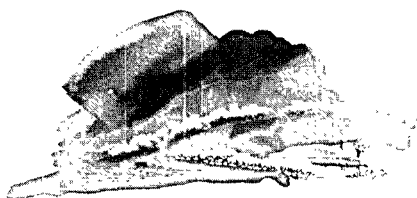
저녁이 되어서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교예단의 공연을 보았다. 처음엔 아찔한 묘기에 감탄했고, 다음엔 저렇게 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또 이 멋진 공연을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남한,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누웠지만 내일이 오는 것이 아쉬워서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마지막 날, 넓은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었던 해금강 코스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남한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차 안에서 담아 온 사진을 들여다보며 짧지만 의미 있었던 며칠을 돌이켜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통일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 통일 후의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치우친 생각은 통일에 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염원할 때 머지않아 통일은 곧 우리를 찾아 올 것이다.

내가 통일에 대해 이렇게 염원하게 될 줄이야! 그만큼 지난 금강산 체험  
학습이 나에겐 너무나 뜻깊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나는 통  
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믿으며 기다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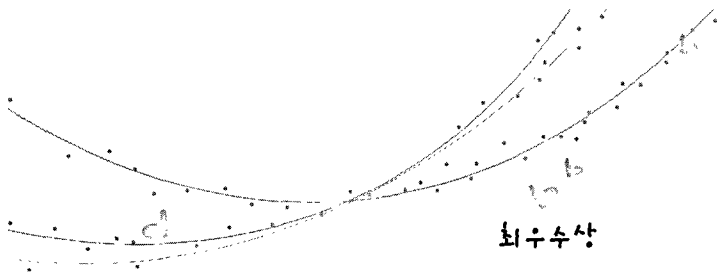


## 경상남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태극기 할아버지 \_ 399
- 선생님의 작은 보훈 \_ 401
- 태극기 '조화' 정신으로 \_ 404
- 통일을 향한 태극기 물결 \_ 406
- 우리 할머니의 로맨스 \_ 409
- 태극기를 닮은 통일 조국 \_ 412
- 내 힘으로 태극기를 \_ 414
- 태극기 + 인공기 = 평화 \_ 416
- 태극기를 바라보며 \_ 419





## 태극기 할아버지

마산 월영초 5 · 김다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언제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는 동요를 배운다. 나는 이 노래를 뜻도 모르고 따라서 불렀다. 그런데 지난 3·1절에 태극기를 달며 무심코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니 아빠께서,

“다휘야, 태극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하고 물어보셨다.

“글쎄요.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겠지요.”

“아니, 다휘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럼 아빠나 엄마이신가요?”

“아니, 할아버지야.”

나는 아빠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왜, 어떻게 태극기를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태극기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홉 남매를 낳아서 힘들게 기르셨던 할아버지의 직업은 역무원이었다고 한다. 역무원의 적은 월급에 아홉 남매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지만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셨다고 한다.

직장에 출근하실 때도 언제나 아침 일찍 학교 앞에 높이 달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어린 남매들을 세워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하셨다고 한다. 아빠보다 스무 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큰아빠와 큰고모가 직장에 가고 군대에

가셔도 남아계신 큰아빠, 고모, 아빠는 국기에 대한 경례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태극기 사랑은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 더 깊어지셨다.

정년퇴임 후에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을 맡아서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회관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해가 뜨는 시간이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를 게양하셨다. 어린 자녀들이 모두 자라서 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느라 고향을 떠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을회관을 지키며 태극기를 높이높이 다셨다. 어쩌다 큰아빠나 고모 댁, 우리 집에 오셔도 할아버지는 하루를 못 주무셨다.

자식들의 집이 불편하시다며 식사 한 끼 드시고는 금방 시골집으로 내려가셨는데 아빠나 큰아빠들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서둘러 시골로 가시는 것이 태극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 아빠는 시골에 내려가실 때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높이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아,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게 잘 계시구나.’하고 생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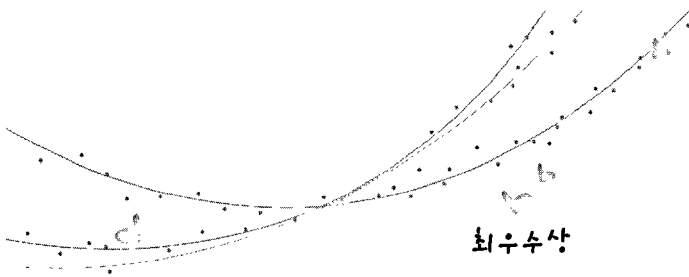
어쩌다 오래 마을을 비울 일이 있을 땐 옆집 할아버지께 태극기 다는 시간과 방법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미덥지 못하여 두 번 세 번 확인하셨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할아버지가 그렇게 태극기를 사랑하셔서 큰아빠가 군대에서 별을 두 개나 달고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아빠도 애국자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며 나는 그 동안 국경일, 기념일에도 혹시 태극기를 달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았다.

태극기가 걱정이 되어서 하루도 제대로 마을을 비우기 힘들셨다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마을회관을 비우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할아버지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도 태극기를 달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시게 내가 더 태극기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태극기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손녀가 되어야겠다.





## 선생님의 작은 보훈

함안대산중 3 · 김란빈

아직 기억에서 또렷하게 남아있는 4개월 전, 나는 몹시 울었던 기억이 있다. 4개월 전인 2월은 졸업식과 종업식이 한창 열리는 달이며 또한 시골 작은 학교인 나의 학교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조금 특별한 것은 한 분의 선생님의 퇴임식도 함께 치르게 되었던 점이다. 듣직했던 선배들을 떠나보낸 아쉬움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뒤이어 퇴임식이 치러졌다. 일반 퇴임도 아닌 '명예 퇴임'이라고 플랜카드에 적힌 네 글자와 선생님의 성함 세 글자는 작은 학교의 초라한 퇴임식에서 돋보이기에 충분했다. 명예퇴임의 주인공은 바로 과학을 가르치셨던 우리의 영웅 '과학쌤'이셨다. 그 선생님과 추억을 말하자면 아마 하루를 빌려도 모자랄 것이다. 아니, 선생님께 대한 죄송함이 이틀을 넘어도 다 사죄하지 못하리라.

'과학쌤'과의 추억은 내가 초등학생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중학교 1학년때부터 시작된다. 중학교 입학 후 첫 발을 내딛었던 날, 내 기대에 부응해 줄 어떤 것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칠판 앞에는 양복을 짝 빼입고 흰 얼굴에 높은 콧대와 그 위엔 지적인 뿔테 안경이 걸쳐있는 내 꿈의 선생님은 없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나보다 아주 조금 큰 덩치와 키에, 피부는 농부의 얼굴인 듯 거무튀튀했으며 주름까지 자글자글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날카로운 눈매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매우 흥칙한 행동이었다. 갑자기 공중에 발차기를 하는가 하면 숨을 ‘후후’ 하고 내뿔었으며, 손은 음악회에서 스타카토 연주에 맞추어 지휘를 하는 듯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듣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 동안 철없는 우리에겐 선생님의 우스꽝스런 몸짓은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선생님 뒤에서 골탕 먹이고, 놀리고, 그 몸짓을 따라하며 웃기 바빴다. 과학 시간이 끝이 난 후에는 언제나 ‘과학쌤 따라 잡기 놀이’를 벌이며 웃고 떠든 것이다. 그 선생님과과는 1학년과 2학년을 이어서 2년동안 배웠는데 2학년 말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수업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나쁜 오후 수업때, 억지로 꺾꺾 놀려야 했던 호기심을 풀 수 있었다. 잠이 오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꺼내신 한 마디는 “선생님이 몸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가 마이 궁금했제? 사실은 총에 맞아서 그런기라.”이었다. 교실에는 순강 정적이 흘렀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선생님은 또 “나는 국가 유공자라서 죽어도 국립묘지에 묻히는기라. 선생님 쪼까 멋있나?”하고 농담 섞인 말씀을 꺼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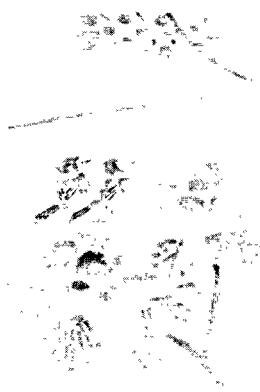
국가를 위해 월남 전쟁에 갔다가 총을 맞았으며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약 성분의 주사도 맞아야 할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선생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야 이제껏 해온 우리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선생님께 크나큰 마음의 고통을 드린 것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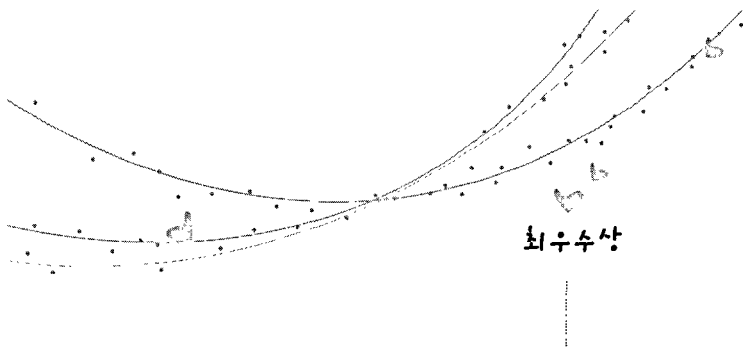
그동안 선생님께서 ‘나는 30년 교직 생활하든서 단 한 번도 결근을 안했다 이기야. 학교에서 누워 있다 캐도 절대 결근한 일이 없어.’ 하고 말씀하신 게 불현듯 스쳤다. 자기 자랑인줄만 알고 콧방귀 꺾던 것이 비만 오면 후유증에 시달려, 그렇게 소중해 하시고 그 어느 젊은 선생님보다 강렬한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던 수업도 진행을 못해 속상해 하시던 선생님에겐 정말 큰 자부심이자 한 서린 울분인 것이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가서서 얻게 된 몸과 마음의 병을 좀 더 빨리 깨우쳐 잘 모셨다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교직의 마지막 길에서 웃으며 배웅해 드릴 수 있었을까...



퇴임 연설을 위해 강당 무대에 올라서서 차오르는 눈물에 메인 목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학생 여러분들께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지극히 틀린 말이다. 우리는 크나큰 아픔도 애국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가슴 가득히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잊지 못할 추억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과학 선생님과 같은 멋진 분들이 계시기에 이 땅위에 행복한 웃음으로 꽃피울 수 있었으리라. 우리나라의 감사한 분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때 아마 세계에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 태극기의 ‘조화’ 정신으로

진주명신고 2 · 황은유

먼저 내가 겪었던 여담 하나를 얘기할까 한다. 중2때 나는 팔레스타인 난민지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대 팔레스타인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탄압으로 국기를 들지 못하는 팔레스타인도 오늘만큼은 집에 숨겨 둔, 혹은 봉사단이 가지고 온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열띠게 응원했다. 우리도 각자 집에서 가져온 태극기를 하늘 높이 휘둘렀다. 그러던중, 나는 현지 학생을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다.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순간 나는 부끄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외국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한국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부르는 구나.... 나는 겨우 말했다.

“I’m from South Korea.”

그러자 그 아이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흘러 나왔다.

“Oh! You hate North Korea! North Korea is 빨갱이!”

난 황급히 빨갱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 마을에 성지순례 온 남한 할아버지가(이 일대는 크리스티교 성지다.) 북한사람이냐고 묻자 역정을 내며 ‘빨갱이’라고 외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빨갱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고, 나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red man’ 이라고 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가관이다.





그는 태극기의 태극을 가리키며 “Red is North, blue is South!”

이 이야기는 남한 어른들과 외국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일화이다. 한 태극기 아래 ‘대한제국’이란 울타리로 푹푹 뭉쳤던 우리가 휴전선으로 나뉘어져서 남한, 북한이란 이름을 단 지 어언 6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너무나도 서로 다르게 살아온 우리는 ‘빨갱이’,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등의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마침내는 서로의 쓰는 말까지도 현저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혹자는 말한다.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삼키려 발버둥칠 때, 대한인들을 하나로 모은 ‘태극기’의 진정한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태극기의 ‘태극’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구심체다. 곧, 음이 없으면 양도 사라지고, 양이 없으면 음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처럼 ‘만물의 상하귀천을 초월한 조화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기를 통해 양반, 상민, 천인, 여자, 아이 가릴 것 없이 일제의 횡포 아래 싸울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북한 아이들이 쓰는 말이 이상하고 촌스럽다며 비웃고 놀리지 않았나? 그저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라며 고개를 돌리진 않았나?

지금 우리는 태극기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서로가 없으면 결국 사라지는 태극처럼, 상하귀천을 따지지 않는 태극처럼, 빨갱이다 반동분자다 따지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한민족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사는 날을 기대한다.





우수상

## 통일을 향한 태극기 물결

마산신월초 6 · 이주은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응,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라는 곳에 간단다.”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 질문에 엄마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다. 그렇게 차를 달려 드디어 수용소 기념관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 넓은 광장 입구에 각국의 깃발들이 서로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바람에 펄럭였고 그 가운데에서 유난히 크고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태극기의 모습에 나와 내 동생은 ‘와’ 소리가 절로 나왔다.

재미있는 곳이란 기대감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도 들었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작은 안내 책자를 대충 훑어보니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들을 우리 군이 거제도에 따로 격리시켜둔 시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고 또 전쟁의 무서움도 다시 되돌아보아야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어진 기념관인 것 같았다. 맨 처음 가본 곳은 탱크로 지어진 전시관이었다. 입구가 거대한 탱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으스스한 느낌도 들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가자.”

내 동생은 기념관을 제대로 둘러보기도 전에 집에 가자는 말부터 하였다. 그래도 나는 무섭다는 생각보다 궁금함이 더 앞서서 나도 모르게 호기심을



가지고 시설물을 둘러보게 되었다.

그 당시의 수용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들을 보니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또 가두어 두었다는 생각에 끔찍하기까지 하였다. 사람 모형들은 하나같이 걸레보다도 못한 옷들을 걸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밀가루 같은 하얀 소독약을 온 몸에 뒤집어쓰고는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생생한 모형도 있었다. 전쟁의 무서움이 전해지는 듯했다.

“엄마, 저기 무기들의 종류도 무척 많아요.”

사람들을 해치려는 총과 칼들이 지금은 전시관 안에서 녹이 슬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죽게도 했다는 생각에 고개가 저절로 돌려졌다.

넓은 전시관을 둘러보니 나와 내 동생은 처음의 들뜬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 수도 점점 없어졌다. 마지막 기념관에 전시된 휴전선의 상황을 표시한 지도에는 북쪽엔 붉은 깃발이 남쪽엔 초라한 모습의 태극기 모형이 꽂혀진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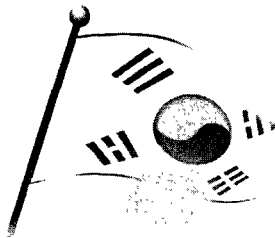
문득 지금은 통일을 이룬 독일이 정말 부러워졌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버티고 서 있던 담벼락을 부수고는 서로 만나서 껴안고 우는 모습의 사진이 감동스러웠다. 물체로 딱하니 버티어 섰던 벽이 무너지니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벽도 무너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도 남과 북을 갈라놓은 벽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나라를 갈라놓은 벽은 없지만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군사 분계선이 있다. 작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께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의 감동적인 장면이 생생히 방영되어 전국에 태극기 물결을 치게 했던 일이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한 걸음씩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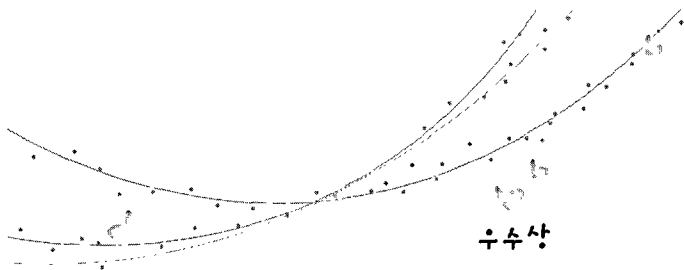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휴전선을 가르고 있던 그 철조망을 버리지 말고 작게 조각내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을 갖도록 열쇠고리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기념으로 하나씩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예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도 그때 부순 벽돌담을 버리지 않고 아픔을 기억하여 다시 돌아보자는 뜻에서 그 벽돌 조각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철조망 조각을 소중히 간직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해 보았다.

포로수용소를 나오며 휴게소에 들러 내 동생은 태극기가 크게 그려진 손수건을 샀고, 나는 아쉽게도 철조망 기념품 대신 철모에 태극기가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를 샀다.

통일을 향한 태극기의 물결은 벌써 시작되었다고 문득 생각해 본다.





우수상

## 우리 할머니의 로맨스

창원 반송여중 3 · 신소현

“다녀왔습니다.”

“오냐, 이거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봐.”

요리하느라 한창 바쁜 엄마의 검지 손가락 끝에는 금방 했는지 김이 모락 모락 오르는 잡채가 있었다. 잡채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잡채가 밥상에 오른다. 덕분에 나는 잡채만 보면 저절로 고개가 저어진다.

나는 한 손에 잡채를 들고 안방의 맞은편의 문고리를 돌렸다. 문을 열자 조금은 야윈 등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손녀 왔구만.”

나는 잡채를 조그마한 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할머니, 그래서 어제 그 머쓰마랑은 어떻게 됐십니까?”

나는 무척 궁금하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쭉 밀며 말했다. 사실 썩 궁금하지는 않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부분 소녀일적 사랑 이야기인데 처음엔 할머니의 소녀 시절이라니 호기심이 발동해서(어릴 때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던 내게 할머니의 소녀 시절은 꽤 커다란 충격이었다.)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곤 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자 뻘한 이야기들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할머니와 이야기 하는 대신에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죄송한 마음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었다. 아직까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할머니의 이야기 속 ‘머쓰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인가 하는 것이다. 몇 년이나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할머니는 ‘머쓰마’는 ‘머쓰마’일뿐 그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기다렸는데 그 머쓰마는 해가 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지. 오늘은 요거지만 하자. 인제 공부하러 가그래이.”

잡채 한 접시를 다 먹었을 때쯤 할머니의 이야기가 멈추어졌다. 잡채를 한 접시 다 먹을 때쯤 이야기를 끝내는 것은 할머니와 나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못된 머쓰마구만. 어째 그럴 수가 있노. 그럼 내일 또 보입시다.”

난 그렇게 들어올 때와는 달리 가벼워진 접시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엄마는 아직도 부엌에 계셨고 집 안에는 전 굽는 냄새가 가득 했다.

“엄마, 왜 아직도 부엌에 있노? 무슨 날이야?”

“내일 제사아이가. 할아버지 제사. 니도 이리 온나.”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려 했는데…… 엄마의 명령에 나는 마지못해 엄마의 맞은편에 앉아 입을 삐죽이며 전을 굽기 시작했다. TV에선 한 인기 그룹이 토크쇼에 나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웬지 거슬려서 채널을 돌리다 노부부들이 나와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에서 리모컨을 바닥에 놓고 시선을 고정했다. 한참을 TV 속 다정한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할머니의 야원 등이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옆에 놓은 잘 튀겨진 새우튀김 하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거야?”

어른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 말고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응? 전쟁 때 돌아가셨다 아이가. 6·25 전쟁.”

“응?”

뜻밖의 대답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사책이나 사회책에서나 접해 온 6·25 전쟁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내가 그렇게 낮이 나가 있는 동안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가셨다.

“할아버지가 20살이었고, 할머니가 18살 때 두 분이 결혼을 하셨지 아마.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할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셔야 했지.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잡채를 해 드렸대.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날 은행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하셨다지. 3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난 날 할머니는 은행나무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 해가 질 때까지 안 오셨대.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는 거지. 근데 갑자기 왜?”

“아... 그냥.”

엄마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몇 년 동안 궁금해 했던 ‘머쓰마’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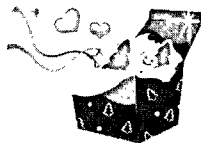
그리고 머릿속의 할머니의 야원 등이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할머니의 슬픈 로맨스 때문인지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 때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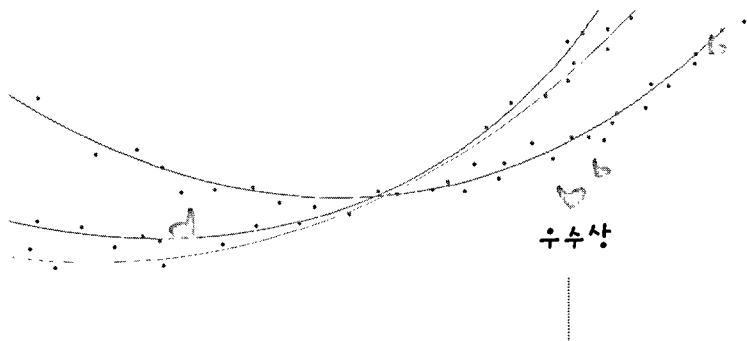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할머니의 방으로 뛰어갔다.

물론 잡채 한 접시를 손에 들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할머니, 빨리 그 머쓰마 얘기해도! 궁금해 죽겠다!”

나는 어릴 적의 눈빛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다. 오늘은 잡채 한 접시가 최대한 늦게 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 태극기를 다른 통일 조국

경남외고 2 · 강남이

2008년 올해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 올림픽기를 보면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가 생각난다. 과거 일제시대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다. 교과서 사진 속 손기정 선수는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달고 있다. 1등을 한 손기정 선수는 우승의 영광에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흑백사진 속에 어둡게 나타나 있었다. 처음에는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 했다. 뚫어져라 바라본 사진 속에서 일장기를 발견하고 나는 그분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인 입에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우승했을 때의 마음. 태극기를 당당히 세계에 자랑할 수 없었던 상황, 조국에 미안한 마음에 미소지을 수 없었던 손기정 선수.

그 분이 원했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새삼스럽게 자랑스롭다.

하지만 오늘 날, 내가 사는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기가 존재한다. 손기정 선수의 태극기가 한반도 전체가 아닌 오직 남산에만 펄럭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태어났고 성장했다. 과거 6·25 전쟁 전에 태극기 아래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했었을 우리는 휴전선 철조망에 분리되었다. 반세기의 긴 세월



이 흘러 하나는 둘이 되었다. 남북한의 분단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의 불이행이 낳은 슬픈 비애이다.

우리는 반쪽 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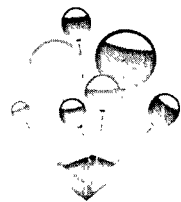
중국인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문제는 남북한이 하나 되면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 명절이 되면 판문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낀다. 수출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 갖은 자원이 없어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통일이 되면 남한의 고급 인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합쳐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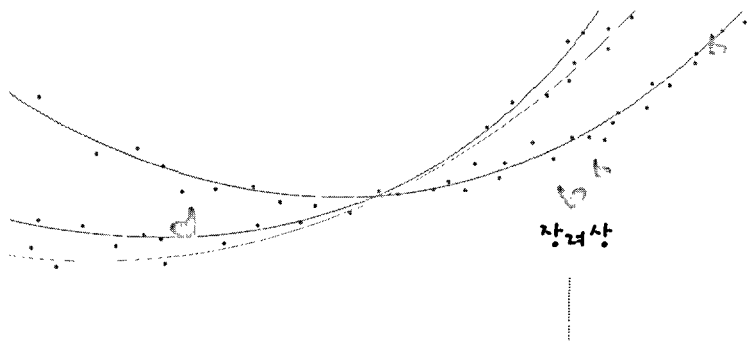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휴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걸림돌이다.

남북 통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되었다. 급속한 통일은 남북한을 혼란의 세계로 이끌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태극기를 닮은 통일이다. 물과 불이 조화를 이뤄 우주의 이치를 표현한 태극기처럼 평화가 약속된 후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약속된 평화통일이다.

한반도의 태극기가 휘날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통일 후의 걱정되는 문제점으로 통일을 반대하지 말고,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내가 살고 싶은 통일 조국은 윤봉길 의사가 가슴 속에 품었던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반도이다. 통일 조국 아래 박물관 학예사가 되어서 금강산, 백두산, 독도를 다니며 북한 학자들과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국민 모두 통일된 태극기에서 조국의 거룩함을 느끼며 사랑할 수 있는 미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내가 소망하는 조국은 완성되리라 믿는다.





## 내 힘으로 태극기를

창원용지초 4·박인혜

저번 주 일요일에 큰아버지께서 주신 태극기가 있다. 그 태극기는 작지만 우리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국기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중한 큰 것이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전라도 광양에 사는 이모가 놀러오셨다. 이모는 오랜만이라며 인사하셨다. 이모의 둘째 딸인 소영이는 나의 태극기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들고 가더니 집에서 가져온 자전거에 태극기를 꽂고 한 바퀴를 돌며 뒤에는 셋째 딸 서이를 태우고 생글생글 웃으며 돌아다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흐뭇하였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다. 계속 지켜보니 큰 아버지가 고마웠다. 시간이 지난 뒤, 소영이가 잠에서 깨어 작은이모 집으로 갔다. 이모 집에 도착하니 서이의 친구인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소영이 손을 보니 그 태극기가 있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뺏으려 하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와 큰이모부는 얘기를 하며 노시다 우리 집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모, 나, 소영이, 엄마, 대영이, 서이, 하나는 작은이모 집에서 잤다. 밤새도록 소영이는 태극기를 들고 놀다가 그걸 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소영이가 노래까지 부르며 태극기를 휘둘러 댔다. 태극기의 아무 뜻도 모르는 소영이가 태극기를 좋아하는 게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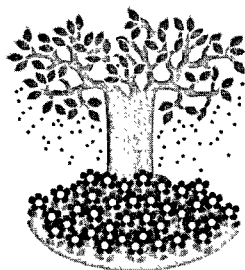
소영이는 태극기의 뜻을 모르지만, 나는 태극기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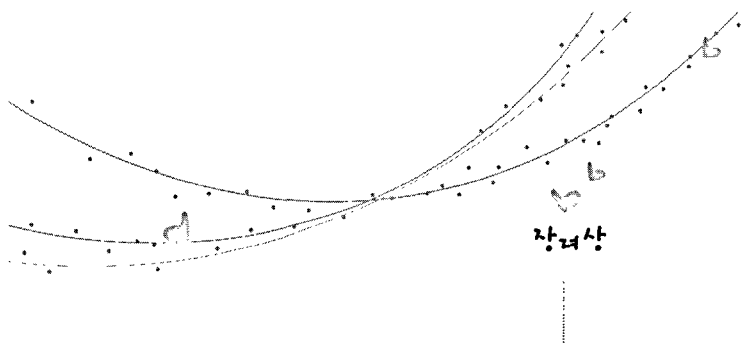
말하면 태극기가 생각난다. 나는 TV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애국가가 흘러나오며 축하해 준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회를 할 때도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찡하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동생 소영이를 보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다. 그건 바로 내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펴럭이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내 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이다. 내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것이고, 내 작품 속에는 언제나 태극기가 형상화되어 들어있을 것이다. 내 작품이 팔려 나가서 내 이름 박인혜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태극기를 펴럭이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 태극기 + 인공기 = 평화

창원대방중 2 · 공예림

여기에 두 개의 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 두 깃발들은 하나이자 둘이며, 둘이자 하나이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의 슬픈 두 나라들의 국기이기 때문이다. ‘태극기’, ‘인공기’라 자신들의 국기 이름을 구분지어 놓은 채, 옛날에 같은 지붕 아래 살던 한 식구였다는 점은 까맣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다.

‘국어순화경시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 한자말로 가득 찬 우리말을 순화해 쓰자는 취지로 열린 대회였는데, 내가 6학년이었을 때 참가했던 것 같다. 점점 다가오는 대회 날짜에 부랴부랴 공부를 하던 중, 시험 문제 유형에 북한말 문제도 있음을 알았다. 인터넷으로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언어들 찾아보니 기억부터 히읏까지 끝이 없는 단어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아득했다. 불과 5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달라져 버렸을까.

그렇다. 국기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진 것 뿐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툽수리(뚝배기)’, ‘얼력밥(잡곡밥)’, ‘가시어머니(장모)’ 등 수많은 언어들만이 바뀐 것도 아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며, 옷깃을 스치지조차 아니며 살아온 시간동안, ‘그리움’이라는 본능적 감정은 마음 속 저 깊은 곳에 깨어나기 힘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서로의 웃는 모습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

음이 열려져가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밖에. 눈을 맞추고 손도 잡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높고도 높은 벽, 그 딱딱하게 굳은 벽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통일 글짓기를 한다며 열심히 생각을 짜내고 있었을 때, 마침 우리 집에 방문하신 외삼촌께서 살며시 내 옆으로 다가오셨다.

“무얼 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노?”

“통일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쓸 지 고민이에요.”

“통일에 대해 글을 쓴다고?”

외삼촌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우와, 진짜 세상이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엔 학교에서 ‘반공 글짓기’를 시키곤 했는데.”

“진짜요?”

“그래. 그때는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되도록 교육을 했어. 그래서 나도 옛날엔 북한 사람들은 다 첩보 요원인 줄 알았지 뭐냐.”

외삼촌과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일제의 탄압과 횡포 속에서도 서로 단합하고 의지하여 잘 버텨온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 험한 길을 간신히 벗어나자마자 터무니없는 이유로 야멸차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가슴이 미어지게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군인을 향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보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죽어간 독립 투사들에게 찢어진 태극기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가!

내가 언젠가 읽은 책에서, 간디는 종교로 인해 두 개의 국기를 내걸게 된 모국 인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조화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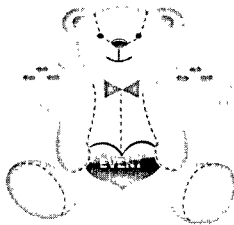
간디가 생각하듯 그리고 분단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김구 선생이 생각하듯, 갈라져서 맞이하는 독립은 하나였던 국기를 눈물짓게 하는 일이다. 독립의 기쁨은 분단의 슬픔에 가려져 버렸다. 환희에 찬 눈빛과 즐거운 웃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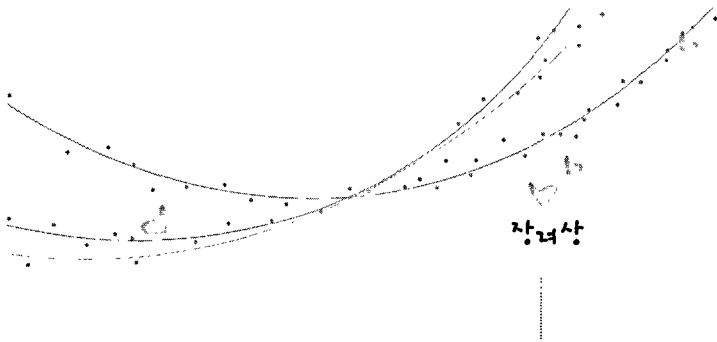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통곡 뒤에 숨어버렸다.

‘통일’이라는 것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는 뜻이다. 사실 통일이라는 것 자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의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과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 전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지구촌의 시민으로서도 같은 민족으로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침 조회를 할 때면, 전교생이 용기종기 운동장에 모여 국민의례를 한다. 한반도 이곳에 평화의 씨앗이 깃든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우리의 국기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세계 시민들에게 웃어 보일 것이다.





## 태극기를 바라보며

창원남고 2·나용현

6월 6일 충혼탑 앞에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모두가 그렇듯 나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힘들고 잔인하였을 우리의 슬픈 과거, 남북전쟁을 머릿속으로 그려 본다. 묵념이 끝난 뒤, 내 앞 한 할아버지의 눈가는 축축이 젖어 있다. 내 마음도 괜히 짠하다.

충혼탑 앞에는 태극기가 맑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펄럭거리고 있다. 현충일날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서 있으니 왠지 마음 속 한 구석이 허전하게만 느껴진다. 한 민족이 떨어진 채로 같은 국기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지 못해서일까? 마음이 복잡하다.

작년에 우리 학교는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또 한 민족인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이지만, 다른 어떤 나라를 여행가는 것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삼엄한 통제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통제와는 달리 북측 동포분들은 우리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다. 웃으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서 고마움도 느꼈다.

우리 학교 일행 전부는 평양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다. 재주넘기, 외줄타기, 공굴리기 등 세계 최고의 서커스 무대를 보고 난 뒤, 감동의 전율이 온 몸을 감싸고 있을 때 그 분들이 공연을 마치며 우리에게 말했다.

“남측 동포 여러분,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 한마디를 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단지 사상의 차이로 떨어져 지내야만 한다는 현실은 너무 불행하다. 한 가족이 이데올로기라는 틀 아래 만나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는 것도 불행하다. 같은 형제가 휴전선을 경계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야 한다는 지금 상황은 더욱 불행하다. 우리는 더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대동맥의 긴 물줄기를 가로 막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밤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상처를 서로 치료해 줄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같은 애국가를 부르고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에,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에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도 하늘은 구름 없이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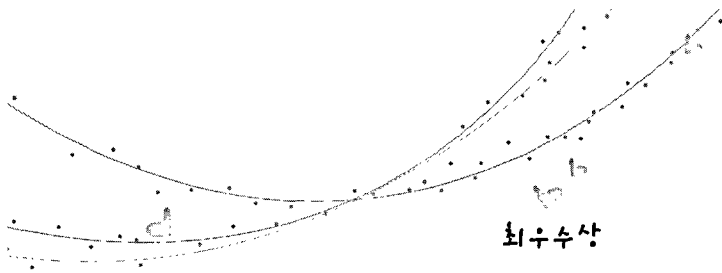


## 제주도

###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 무궁화의 꿈 \_ 423
- 통일 무궁화 \_ 426
- 할머니의 사진과 소원 \_ 429
- 하나 된 조국을 바라며 \_ 432
- 한라의 마음과  
백두의 마음은 하나다 \_ 434
- 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_ 436
- 조금만 기다려 줘! \_ 439
-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걸 \_ 441
- 백두산의 호랑이  
그리고 설악산의 호랑이 \_ 444





## 무궁화의 꿈

남광초 6·고나현

지난 일요일 수목원에 엄마하고 운동을 갔다. 나무에는 이미 초록 잎들이 여름을 준비하는 듯 싱싱함을 뽐내고 있었다. 한참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새 잎이 막 숨을 죽이고 올라오고 있는 무궁화가 보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지만 무궁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픈 생각이 떠오른다. 아마 그것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고 그 꽃이 우리 할머니 얼굴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이때쯤 텔레비전에 6·2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할머니께 “할머니, 할머니는 6·25에 대해서 아세요? 텔레비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하고 별다른 의미 없이 질문을 하였다.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계시다가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작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손자야, 말도 마라, 난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린다. 북한군이 총들렁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더러는 포승줄로 쫑쫑 묶어 끌어가곤 했지. 어디 그 뿐인가! 공회당에선 날마다 인민재판을 열어 무고한 사람들 총살도 시켰댜헤라.”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흑백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셨다.

쭈뼛 머리를 한, 예쁜 여자 한 분이 방긋 웃고 있는 모습이였다. 할머니께서는 또 말을 이으셨다.

“6·25때 죽은 내 친구여. 해마다 이맘 때면 소쿠리 하나 들렁 가그네 달래, 냉이 캐곡, 바당에 들엉 미역허곡 구쟁기영 캐명 땡겨신디... 그 친구허곡 같이 가민 무사 경 재미 이서신디 모르키어... 지금도 생각해 보민 꿈같은 일이였저. 근디 갑자기 그 친구가 친척 따랑 서울 가신디 6.25가 일어난 꿈 짝없이 죽어 부렸주게...”

어느새 할머니의 눈시울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하였다. 무궁화처럼 항상 강인하고 굳세 보이셨던 할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신 채 눈물을 닦으시곤 하셨다.

6·25 전쟁만 없었더라면 할머니 친구분도 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6·25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6·25 전쟁은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 분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상처와 눈물을 안겨주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주소 없는 북쪽 하늘로 편지를 보내고 금강산을 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다행히 남북은 화해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과 약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북녘에 공장을 세워 함께 일하고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다. 물론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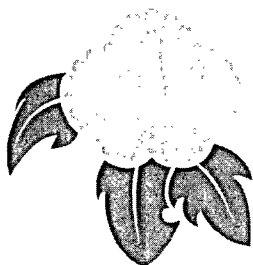
그리고 지난 해에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 열차가 개통되었다. 지금은 그 기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진 않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경쾌한 경적 소리로 한민족의 아픔을 뺨뚫어 줄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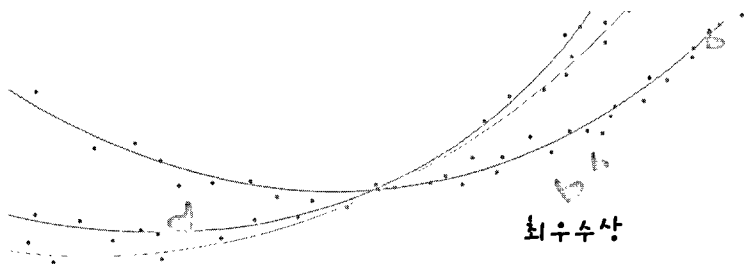
어디 그 뿐인가! 남북한 축구 경기도 개최되고 있다. 남한의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함께 서로의 기량을 뽐내는 동안에도 화해하는 마음은 무르익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아직도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겨누어 경쟁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남한선수와 북한선수의



등에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마크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민족의 슬픔과 무궁화의 눈물은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남과 북이 모두가 노력하여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오는 그날, 할머니께서 간직해 두신 가슴 속 무궁화 꽃도 울음을 멈추고 해맑은 미소를 담은 분홍빛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 통일 무궁화

효돈중 2 · 김은정

철쭉이 지고 패랭이꽃이 만발하게 피어 봄의 정령이 숨 가쁘게 달려오던 4월 중순쯤 친구들과 통일을 주제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제3땅굴 견학, 도라산역, 그리고 통일전망대 등 제주토박이인 내게는 그리 흔한 여행지가 아니었기에 더욱더 뭔가를 느끼기에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고요하지만 한 북녘 하늘을 보며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이없게도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핵개발이 이루어지던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지금 이 맘때쯤 그 진달래꽃 만발한 영변약산에는 또 다른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읊조리고 있을까?

지금 우린 아무 것도 모른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 사상,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거닐며 싸운 그 기억들을 말이다. 우린 그냥 지금 이 대로 행복하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누릴 것 다 누리는 하루하루가 설레이는 우리인데 그걸 어찌 알까? 아예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수업시간에 아님, 해마다 이때쯤 통일글짓기 시간이나 잠깐 들여다 보는 전쟁의 역사, 통일의 의미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 남북분단의 가시돋힌 고통쯤으로나 기억할 뿐이다.

자고나면 바뀌는 숨가쁜 세상이 버겁기만 한데 50여 년이 넘는 과거를 돌

아보며 흐느끼고 한숨 쉬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우리가 아닌가. 또한 시간은 바빠 흐르고 그 아픔의 주역들도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니 철조망만 녹슬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녹슬어 가는 철조망을 보면서 나는 알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라고 눈물 흘리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서 풀어야 할 큰 숙제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였다. 하나였기에 함께 숨 쉬었고 희망을 노래했고 역사 앞에 당당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의연히 일어서던 우리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우리에게 가시돋힌 상처를 주었는지 새삼 분노가인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처럼 하나여야 하기에 문을 열자. 이미 마음의 문은 조금 열렸으니 다함께 힘을 합쳐 통일의 큰 대문을 힘껏 열어보자. 긴 세월 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을 무궁화가 되어 다시한번 열어보자.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열이요, 혼이었기에 좌절과 아픔 속에서 다시 곱게 피어나 아름다운 통일 무궁화를 꽃피워 보자.

비료 몇 포대 주었다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굶주리는 그들에게 쌀 좀 보냈다고 생색내며 큰소리치는 사람들, 금강산여행 자유롭다고 개성공단 열렸다고 끊어졌던 철마 다시 달린다고 무작정 통일이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한 계단 낮추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어떨까?

따지고 보면 세계평화 해치는 핵개발 하느라 구조 물품 다 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더 어리석은지 모른다. 말로만 평화통일이니 애초에 하나였으니 당연히 하나여야 한다고 무조건 떠들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풀어서 가슴 속 한을 품고 가시는 어른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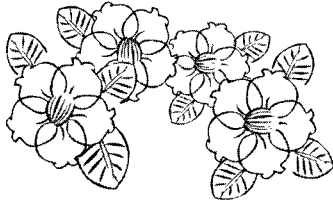
꼬인 실타래는 풀어야 하는 법, 풀고 풀어서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 부끄럽지 않게 희망의 진달래꽃을 옮겨 보자. 만발한 통일의 무궁화 꽃을 바라보며 말이다.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분단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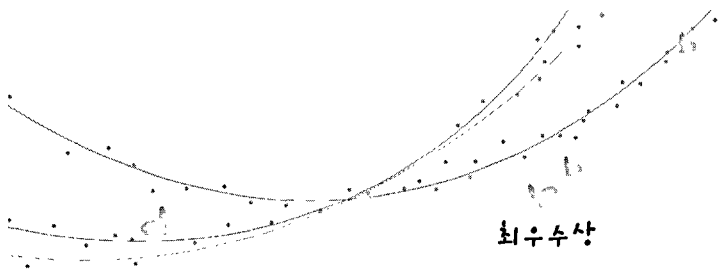


야 한다.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분단의 아픔도 그리움의 열병을 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의 중학생할 여행인 이번 수학여행은 내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 속 시원한 해답 같은 여행이었다.







## 할머니의 사진과 소언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 · 김제성

“통일에 관련된 경험담이나 생각들을 자유롭게 써보도록, 모두들 시작해!”  
책 대신 들고 오신 종이를 나눠 주시면서 도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쏟아지는 아이들의 야유 속에 몇몇 아이들은 이미 쓰기 시작했다. 쉽게 연필을 들 수가 없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기억 저편에서 울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를 생각하자 또 다시 코끝이 찡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연필을 들고는 조심스레 그 날을 떠올렸다.

“아 - 아파!”

나는 작게 읊조리면서 버스에 올라탔다.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던 나는 아침부터 치과에 다녀와야 했다. 낮이라 한적한 버스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순간 점점 높아지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약간 경직되기도 떨리는 목소리의 아나운서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음으로 남북열차의 시험운행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렴풋이 얼마 전 신문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느꼈듯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저 평소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몇분

이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듣는 사람까지 서글프게 만드는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몇 없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슬프게 흐느끼고 있던 분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듯 할머니의 얼굴은 자글자글해진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메마른 눈동자에서 흐르는 눈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께 드리면서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 아까부터 왜 그렇게 우세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할머니께서는 주머니에서 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셨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사진을 한 번 어루만지시곤 조심스레 입을 여셨다.

“벌써 몇 십 년도 더 된 일이지. 나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 어렸을 적 고아가 된 오빠와 나는 가진 건 없었지만 항상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지. 나는 나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계속 말을 이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돈을 좀 벌러 간다며 북쪽으로 떠날 준비를 했지. 나도 가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말리고는 결국 혼자서 갔어. 며칠이 지났을까 여기저기서 폭탄과 폭약 터지는 소리가 허공을 메우기 시작했지. 정말 그 후는 참담했지. 온통 피비린내와 시체로 세상은 폐허가 되었었지. 그리고 나는 그때 오빠도 잃고 말았지.”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 또 호수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도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연신 훌쩍거리고 계셨다.

“걱정 마세요. 이젠 남북열차도 운행되고 북한에도 갈 기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아주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는 말씀하셨다.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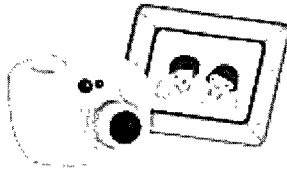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에 사진을 끌어안고는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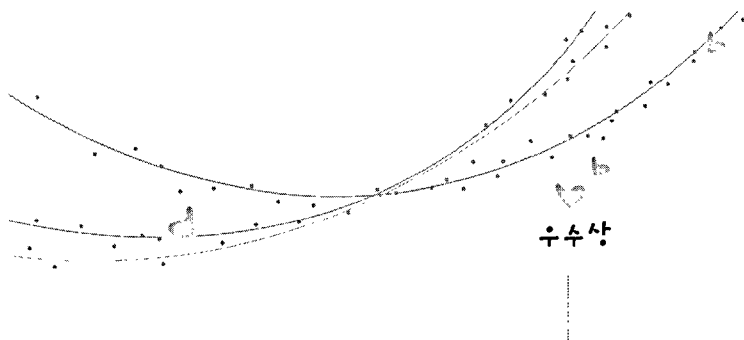
할머니를 뒤로 하고 버스에서 내린 후 걷다가 순간적으로 전광판 TV에 눈길이 갔다. TV 속의 기자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반세기동안 달렸던 우리의 핏줄이 드디어 ‘혹’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연필을 내려놓고는 다시금 코끝이 찡해졌다. 난 아직도 사진 속 모습과 할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반세기가 넘도록 살아간다는 것, 겪어보지 않은 우리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일 것이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는 그 순간이 오길 바란다. 오직 그것만이 50년동안 치유받지 못한 할머니의 패인 상처를 감싸줄 수 있을 것이다.





## 하나 된 조국을 바라며

제주월랑초 5 · 임희원

4학년 때부터 내 책꽂이에 꽂혀 있던 사회과 부도를 요즘들어 부쩍 많이 찾게 되었다. 뉴스를 보면 금강산 관광이며 핵 사찰단 등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서울을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 길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셨다는 뉴스를 듣고 또 들은 기억이 있다. 엄청난 일이었나 보다. 북한과 남한은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고 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북한과 남한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로 만든 것인지 너무도 궁금했다. 책이며 인터넷 자료 등을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라는 아픈 역사를 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스스로의 힘이 아닌 연합군에 의해 해방을 맞게 되어,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의해 38선이 세워지면서 현재까지도 38선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또한 북한의 내 또래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며 노는지도 궁금했다. 38선이 세워진 지 5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나처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컴퓨터게임을 하며 놀까?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스카프에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군인 아저씨처럼 행진 연습을 할까? 어른들이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교류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세대의 놀이와 음악 등을 서로 경험해 보며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하나였음을 느껴보고 싶다. 나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웠었다. 유치원에서였는지 아니면 오빠가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부르다 익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여러 권의 책에서는 통일이 되면 지금처럼 남북이 갈라져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고 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38선 때문에 써야 했던 돈을 나라발전에 쓸 수 있고, 이산가족들도 만날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 훨씬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기술 등이 발달되어 있고 북한은 노동력, 지하자원 등이 있으니 통일이 된다면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분단국가이지만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게 발달하고 편한 생활을 한다. 이런 분단국가가 하나가 된다면 일본,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이 되어 절대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 때 북한과 남한이 한 팀이 되어 중국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우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이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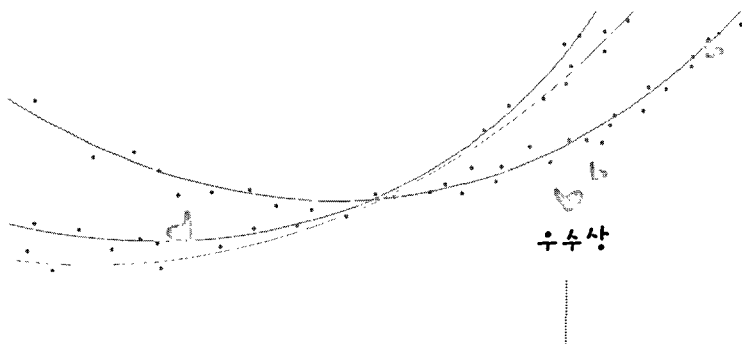
하고 외치면 남한이

“하나다.”

“조국!”

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정말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른다. 나는 아직 초등학교 생이어서 통일방안, 국가관계 같은 것은 잘 모른다. 하지만 좋아하는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면 내가 먼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대화해서 다시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통일은 정말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 된 나라에서 남한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 한라의 마음과 백두의 마음은 하나다

한라중 2 · 김명진

보고 싶은 백두에게

백두야, 그 동안 잘 있었니? 연초록빛 보리들이 살랑살랑 계절의 변화를 재촉하고 노란 유채꽃들의 꽃내음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등줄기로 땀방울들이 주르르 미끄럼을 타는 것이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가까이 왔는가 싶다가도 아침 저녁 쌀쌀한 기운은 아직도 진달래, 철쭉의 봄 채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절이 되었구나.

그곳은 여기 한라산 백록담 정상보다도 여름이 좀 더 늦겠지? 한반도 끝자락 가장 이국적인 남쪽나라 한라에서 완연한 푸르름이 가득한 채 북녘 땅저 멀리 그리운 이들 생각에 잠겨본다. 백두야, 3년전 금강이를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에 다시 젖어본다. 자욱한 안개를 헤치듯 고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러운 맘으로 금강이를 만났을 때 그 심정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과 울분이 뒤엉켜 버렸단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보다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끼리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 자유롭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던단다. 백두야, 저변에 금강이를 만났을 때 금강이의 별거벗은 바위산에 푸르름이 가득한 옷들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었을 뿐 가지는 못했단다. 미안하다 백두야, 이제 얼마 있으면 꿈에서조차도 잊을 수 없는 비극의 그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산가족의

마음에 한을 남기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통일의 과제를 남긴 바로 그 날 말이야. 아무리 밍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하더라도 한 형제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안을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백두야, 솔직히 예전에는 통일이라는 단어나 북한 남한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데 금강이를 만나고 나서는 북쪽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신념이 생겼단다. 백두야, 작년 5월 17일 우리의 희망과 꿈을 이어준 통일호는 부지런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잘 달리고 있겠지? 백두야, 어서 빨리 민족의 혈맥을 이어서 제주에서 부산, 포항, 삼척, 강릉, 제진, 강호, 금강산, 개성을 거쳐 시베리아 대륙까지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백두야,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새콤달콤한 향긋한 꿀 향기로 전했는데 맛있게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백두야, 너랑 나랑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다른 친구들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언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꼭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뭘 말인가 하는데 솔직히 너희 말 중에 어떤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떤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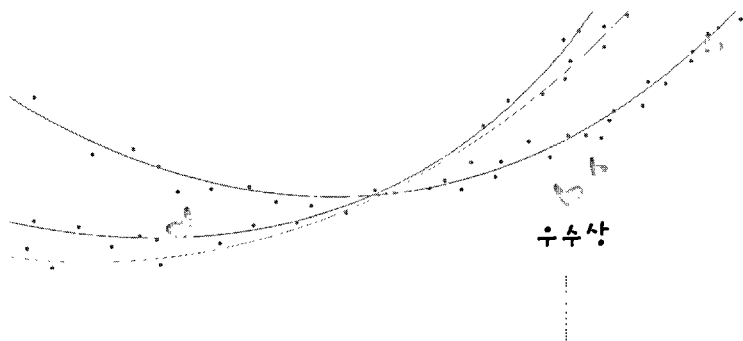
백두야, 너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우뚝 서 있고 나는 최남단에서 한반도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과 남한 최고 높은 산이라는 점도 비슷하지 않니?

백두야, 우리 겨레의 하나 됨을 위해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모두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와 대화로써 남북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지?

백두야, 나도 하루 빨리 너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 백두야, 너도 그 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소리쳐보자.

“우리는 하나”라고.

2008년 5월에  
통일을 바라는 한라에서 명징이가



## 어,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아

대정고 2 · 허용민

북한.

가장 가까운 곳, 하지만 쉽게 다녀오기엔 만만치 않은 곳, 그곳에 다녀온 얘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 그것도 모슬포에서 먼 금강산까지 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008년 1월 우리 학교 대표로 북한 탐방에 나서게 된 것이다. 책으로 사전 답사하고 북으로 향하는 버스의 속도는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여행은 자유와 규제를 겸하고 있다. 북한 관광 안내원이 일종의 패스포트 같은 것과 여러 시설 이용권이 동봉되어 있는 목걸이를 나눠주면서 내 몸 간수하듯 잘 간수하란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고 남한으로 넘어올 때 절차가 복잡해진다. 북으로 달린다. 첫 번째 관문, 남측 출입국 관리소. 버스가 준비되는 동안 주위를 둘러본다. 마치 기차역 같이 생겼는데 내부에는 TV, 상점 등 웬만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었다. 잠시 후 가이드가 고운 누나로 바뀌어졌다. 소개를 들으며 출발한 버스는 휴전선으로 향한다. 내 마음 읽듯이 이런 저런 북한의 생활모습과 봉우리, 금강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휴전선 근처에는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저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별목되어 있었지만 눈으로 덮여 세상의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 일만 이천 봉우리를 헤아려 본다. 조금 큰 산이나 봉우리에는 사회주



의, 공산주의에 대한 글이 박혀 있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 집착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가이드 누나에게 들은 얘기는 북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해로에서 육로로 쉬워졌다는 얘기가. 이제 휴전선의 끝을 지난다. 휴전선, 우리의 한이 서린 이곳……. 밖으로 북한군이 하나 둘씩 보였다. 북한군들은 우리와 나이가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 또래라니 아니 놀랄 수가 없다. 내가 저런 훈련을 받고 군복무를 할 수 있을까? 검문소에서 북한군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몇몇 학생들은 인사를 나눈다. 그곳 군인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마음속 거부감을 털어버렸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 특히, 같은 또래가 아닌가. 검문이 끝나고 버스는 다시 달렸다. 가는 길에 밖을 보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먼발치에서만 우리를 보았다. 그들을 보니 매우 안쓰러웠다. 통일이 되면 이들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관광객 맞이하듯 우리를 맞아 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잠시 우울한 기분을 접는다. 북한의 마을은 매우 작았다.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가 되고 조직이 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학교 건물도 분교 정도 크기였지만 편안하고 소박해 보였다. 달리는 길 중간 중간 공산주의 사상에 젖은 빨래처럼 플랜카드가 널려있다. 언제면 둥그런 밥상에 모여앉아 함께 수저를 들어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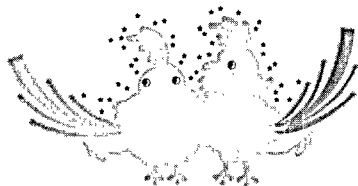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에는 패밀리마트, 식당, 농협, 호텔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여기가 북한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북한을 무시하던 마음이 미안스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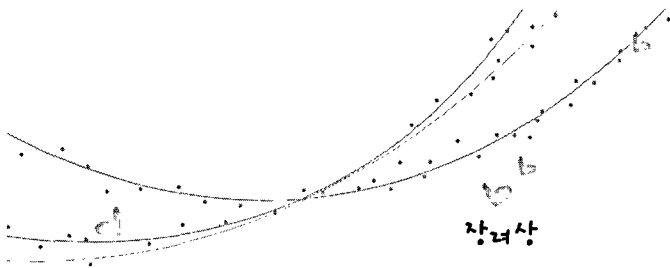
둘째 날, 금강산의 겨울 즉, 개골산으로 갔다. 개골산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산과도 비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간간히 산에 파인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벽화들은 옥의티였다. 여기 오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감정을 지나치게 절제하고 재미없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때론 우리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어떤 분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기도 한다. 산행을 마치고 온천물에 몸을 담갔다. 이 온천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녹여 물에 다 풀어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현대아산 측의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금강산



여행을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 코스로 잡아서 통일 교육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게 백번 말로 듣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다음날에는 TV에서 보던, 대성통곡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여러 이산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듯했다. 대관절 그들의 아픔은 언제쯤에야 완치될 수 있을까?

북한을 다녀온 후 남북 관계 생각을 정리해 본다. 남북이 절대 무력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북한 주민들의 순수함, 친절함 그리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준비와 우리의 배려 등을 아우르며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할 일이 많다. 나 하나라도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모자람 없이 준비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정말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금강산의 모습을 자유롭게 오가며 볼 수 있기를 빌어 본다. 오늘의 각오가 꿈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 날을 주먹 안에 넣어 꼭 쥐어 본다.





## 조금만 기다려 줘!

제주중앙초 5 · 송예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통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루빨리 통일의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해진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통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6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된지도 오래다.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형제분끼리 이산가족이 되셨다고 엄마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북한에 계신 형님을 꼭 보고 싶어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자주, “머나 먼 미국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아주 가까운 북한에 계신 형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구나! 살아 계신지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푸념을 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후에 형님되시는 분께서 북한에 살아 계시다는 연락이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다.

외할아버지께서도 통일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님을 만나 기쁜 마음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으



셨을 것이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족과의 이별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 통일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이 되는 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전해드릴 게요.’ 하고 약속드렸다. 그날을 고대하며 올려다 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당장이라도 통일이 어서 올 것만 같아 가슴이 쿵쥔거려왔다.

지금도 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 휴전선을 원망하고 있다. 이 선 하나만 없어지면 모두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남북한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서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 할머니께서 이산가족이 된 아들을 만났을 때 하염없이 흘리시던 눈물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원망, 미움, 그리움…….

교과서의 ‘비둘기 구구’ 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니도 구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내 고향인 북쪽 땅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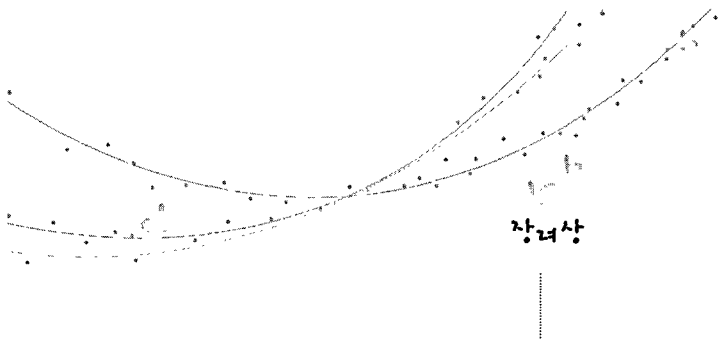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도 모두가 남북 분단의 현실이다.

왜 어른들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화해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산가족의 슬픔을 말끔히 닦아내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크게 난 금을 내가 지우개가 되어 말끔히 지워주고 싶다. 크게 난 상처까지…….

“대한민국아, 이제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느라 많이 아팠지? 네 상처가 아물 날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줘!”





## 하나도, 한 뼉 **괘차지가** 한 뼉 **아은거**

서귀포여중 3 · 김란영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올보’라고 부르셨다. 작은 일에도 금세 울어버려 당황하신 일이 많다고 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은 태어나 처음 바라 본 할아버지의 눈물에 너무나 마음 쓰린 적이 있었다. 가족들과 북에 관한 이야기, 가물가물한 기억들을 이야기하시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신 거다.

“나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구나. 꼭 만나고 싶은데, 꼭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어쩌면 그때 손녀로서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마땅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적어도 할아버지만큼은 괜찮으실 줄 알았으니까. 가끔씩 뉴스나 신문에서 북에 관한 소식에도 항상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그저 어렸을 때 오신 거니까 다 괜찮을 줄 알았다. 정말 다 괜찮은 줄 알았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우셨던 걸까?’

그 마음 속 깊은 곳, 고이 감추어왔던 할아버지의 고통과 그리움……. 문득 동생이 죽는 꿈을 꾸었을 때 서럽게 울었던, 꿈이었지만 그 기억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아버지의 아픔을 짐작하게 했다. 새삼 나 또한 이산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께서 북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괜히 낯설고 어색해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좀 자라서는 창피하기도 해서 숨겨야 할 사실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젠 그래도 할아버지의 슬픔을 조금은 이해할 정도로 자랐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 더 커지고 싶다. 할아버지께 통일 국가를 보여드리는 손녀로 자라고 싶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해 본다. 결코 이것이 할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할아버지께 친구들과 지은 통일 노래도 불러드리고 통일 퀴즈 대회 준비할 때면 괜히 이것저것 여쭙보면서.

우리 아빠께서는 종종 내게 세계지도를 보며 내가 누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다. 그때면 난 저절로 우리나라를 찾아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보며 너무 영토가 작다며 투정부리곤 하는데 오늘은 괜히 더 그 보일 듯 말듯한 선에 나누어져 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 해결할 줄 모름에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또 아빠께서는 나의 무대라고 하셨지만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세계 무대야 말로 진정으로 멋지고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수학시간에 에디슨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1+1=1'이라던 에디슨. 물방울과 밀가루 반죽 두 개를 합치면 하나가 된다고 말하던 에디슨. 어디 아무거나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같은 성질을 가졌기에, 같은 피가 흐르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남과 북도 당연히 합쳐져 한 민족 통일 국가를 이뤄내리라 나는 믿는다.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닌, 미래에 세계적인 천재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운 통일 국가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50년동안 우리는 통일의 목마름에 젖어왔다. 노래도 불러보고 하나임을 되새겨보고 그렇게 그들은 통일이 되기를 바랬었다. 힘들지만 힘들 테지만 통일의 필요성 또한 잘 알지 않는가?

한 가족이 있었다. 서로의 조그만 오해로 시작된 싸움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총과 칼을 겨누어 싸워 죽이고 해치기까지. 긴 세월이 지나서도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아물지 않은 상처만 끽끔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 여태 마음 편히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주 불쌍한 가족이 있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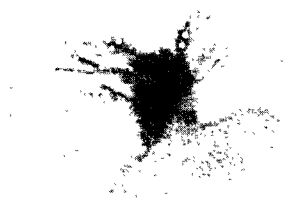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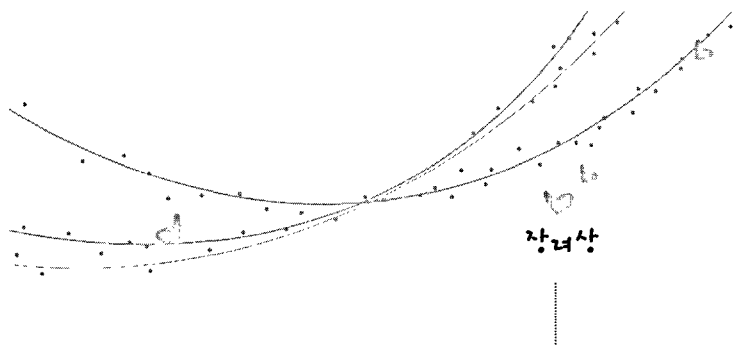
어떤가? 한심하고 안타깝지 않은가?

이제는 서로 대화하며 양보하며 서로 보듬어 주는 정말 진실된 가족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세계를 무대삼아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난 내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한민족 통일국가를 꿈꾸며 조심스레 한발 한발 내딛어 본다.

“통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아니,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걸.”





## 백두산의 호랑이 그리고 설악산의 호랑이

신성여고 2 · 김혜림

“으르르렁.”

협오감이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던 호랑이 두 마리는 한반도를 날려 버릴 듯이 큰 포효와 함께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서로의 몸을 이곳저곳 할퀴고, 그 할퀴어진 상처에서는 진한 붉은 빛의 피가 흘러내렸다. 그 흘러내린 피는 한반도의 온 산과 밭을 붉게 물들여버리고……. 그 핏빛 전쟁터 속, 오늘도 두 마리의 호랑이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호랑이들의 잔인한 싸움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 우리는 단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 잔인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방관자’로 전락해 버린 우리는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싸움으로 인하여 생겨난 호랑이의 상처에 연고를 열심히 발라주고 있어.’ 라고. 그러나 이것은 하찮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호랑이에게 상처가 아물면 다시 싸우길 바란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처에 연고나 발라주는 일이 아니라,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을 뽑아 땅 속 깊숙이 묻어버리고, 두 호랑이를 악수시키는 일이다. 어느 한 쪽을 ‘굴복’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리는 왜 호랑이들을 ‘화해’시켜야만 하는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우애롭게 지내야 하듯이, 두 호랑이 모두 단군의 기상과 얼을 이어받은 한 핏줄이므로 서로 화해하여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단군의 혼이 백두산과 설악산,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마땅히 혼을 합일시켜 영구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손이 마땅히 해야 할 귀중한 임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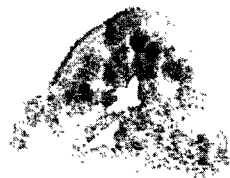
또한 이것 뿐만이 아니다. 호랑이들이 포효하는 바로 그 경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서로를 갈구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이 산가족들이다.

호랑이들의 피 터지는 전쟁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싸 안고 가슴 깊숙한 곳에 그리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에게 죄라고는 호랑이들의 터전인 한반도에 자리 잡은 것뿐이다.

도대체 왜 그런 소박한 이유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호랑이들의 싸움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 익숙해져 버린 호랑이들의 우기를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호랑이들의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아무도 함부로 싸움터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호랑이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룩해 낼 수 있는 일이다. 모든 힘을 통일에 쏟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호랑이들의 으르렁 소리가 가득한 핏빛의 한반도가 아닌, 발톱과 이빨이 없는 호랑이들의 힘차고 밝은 도약의 한반도를 기대해 본다.





2008 제13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초 판 인 쇄 일 2008년 10월 14일

초 판 발 행 일 2008년 10월 17일

발 행 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수유동)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